

제5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장소: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 224호(제1 발표장), 219호(제2 발표장)

주제: 근현대 국어학을 밝힌 연구자들(Ⅰ)-국어학의 쟁점을 중심으로-

주최: 한말연구학회

개회식		제1 발표장(224호)	사회: 안신혜(경동대)
09:50 ~ 10:10	등록 및 접수		
10:10 ~ 10:20	개회사		김양진(경희대)
제1부	문자와 의미/ 제1 발표장(224호)	의미론/ 제2 발표장(219호)	
	사회: 최대희(제주대)	사회: 김지혜(한신대)	
10:20 ~ 10:50	《훈민정음》 해례본의 음성과학적 설명에 대한 융복합 연구(1) 발표: 김슬옹·최홍식·이호영· 김진아·이은상·이정민(세종대양기념사업회) 토론: 임규홍(경상대)	어휘상 연구의 단위와 어휘부 표상 발표: 이찬영·윤나영(연세대) 토론: 최 윤(강원대)	
10:50 ~ 11:20	'푸르다' 계열 색채어 의미 연구 발표: 박현선(건국대) 토론: 윤재연(호서대)	'끼리'의 분포와 의미 발표: 곽유석(성균관대) 토론: 이성우(한림대)	
휴식 11:20~11:30			
제2부	특강	제1 발표장(224호)	
		사회: 오재혁(건국대)	
11:30 ~ 12:10	건재 선생이 현대 국어에 끼친 영향-현대 국어에 남은 정인승 선생의 업적-	조오현(건국대)	
점심 12:10~13:30			
제3부	주제발표/ 국어학사	제1 발표장(224호)	
		좌장: 이상혁(한성대)	
13:30 ~ 13:50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1938)과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1920) 미간행 원고의 비교 연구 발표: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13:50 ~ 14:10	지석영과 주시경이 만나는 곳과 갈라지는 곳 -<신정국문>의 길과 <한글마춤법통일안>의 길 발표: 김병문(연세대)		
휴식 14:10~14:20			
14:20 ~ 14:40	'-답-, -스럽-, -롭-'이 접사가 되기까지-20세기 초의 문법서 검토- 발표: 정한데로(가천대)		
14:40 ~ 15:00	이승녕-허용의 두 가지 논쟁이 남긴 것 발표: 허인영(인하대)		
15:00 ~ 15:40	종합 토론: 박동근(대진대), 조태린(연세대), 김건희(강원대), 김태우(부산대)		
포스터 발표 및 휴식 (15:40~16:10)			
김동우(제주대)	특수교체 어간의 변화 양상-현대국어 방언을 중심으로-		
미로림(제주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부정문 대조 연구		
제조현(연세대)	중국의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법학사> 교육에 대한 시론 -자료 선정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유석·정설(강원대)	중국어 사·파동 동형 표지(讓 叫, 給)의 한국어 번역 양상에 대한 문법적 고찰 -넷플릭스 중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정신나(강원대)	생성 AI의 주격중출 구문 이해와 산출		
황미혜(이화여대)	연변지역 20대 화자의 /ㄴ르/ 연쇄 발음의 선택적 교체 양상에 대하여		
제4부	한국어교육/ 제1 발표장 (224호)	문법론/ 제2 발표장 (219호)	
	사회: 정대현(협성대)	사회: 조용준(건국대)	
16:10 ~ 16:40	제안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발표: 양태영(성균관대) 토론: 권현숙(경희대)	한국어 수사어문의 의미와 운율 구조 발표: 명정희·구호정(서강대) 토론: 유혜원(단국대)	
16:40 ~ 17:10	대학 기초교양 한국어 글쓰기 교재 개발-『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2023)을 중심으로- 발표: 최수진(건국대) 토론: 구민지(가톨릭대)	자타양용동사에 대하여 발표: 이준희(동국대) 토론: 이영제(고려대)	
총회 및 우수논문시상식(17:10~)			

차 례

【제1부】 문자와 의미 (제1 발표장, 224호)

김슬옹·최홍식·이호영·김진아·이은상·이정민(세종대왕기념사업회) 《훈민정음》 해례본의 음성과학적 설명에 대한 융복합 연구(1)	3
임규홍(경상대) 토론	42
박현선(건국대) '푸르다' 계열 색채어 의미 연구	44
윤재연(호서대) 토론	53

【제1부】 의미론 (제2 발표장, 219호)

이찬영·윤나영(연세대) 어휘상 연구의 단위와 어휘부 표상	57
최 윤(강원대) 토론	83
곽유석(성균관대) '끼리'의 분포와 의미	85
이성우(한림대) 토론	97

【제2부】 특강 (제1 발표장, 224호)

조오현(건국대) 건재 선생이 현대 국어에 끼친 영향-현대 국어에 남은 정인승 선생의 업적-	101
--	-----

【제3부】 주제발표: 국어학사 (제1 발표장, 224호)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1938)과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1920) 미간행 원고의 비교 연구	125
박동근(대진대) 토론	144
김병문(연세대) 지식영과 주시경이 만나는 곳과 갈라지는 곳-〈신정국문〉의 길과 〈한글마춤법통일안〉의 길	146
조태린(연세대) 토론	160
정한대로(가천대) '-답-, -스럼-, -롭-'이 접사가 되기까지-20세기 초의 문법서 검토-	162
김건희(강원대) 토론	183
허인영(인하대) 이송녕-허웅의 두 가지 논쟁이 남긴 것	186
김태우(부산대) 토론	203

【제4부】 한국어교육 (제1 발표장, 224호)

양태영(성균관대) 제안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207
권현숙(경희대) 토론	220
최수진(건국대) 대학 기초교양 한국어 글쓰기 교재 개발-『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2023)을 중심으로-	222
구민지(가톨릭대) 토론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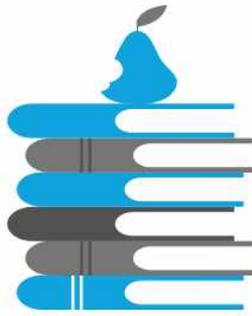
【제4부】 문법론

(제2 발표장, 219호)

명정희·구호정(서강대)	한국어 수사어문의 의미와 운율 구조	245
유혜원(단국대)	토론	269
이준희(동국대)	자타양용동사에 대하여	272
이영제(고려대)	토론	285

【포스터 발표】

김동우(제주대)	특수교체 어간의 변화 양상-현대국어 방언을 중심으로-	289
미로림(제주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부정문 대조 연구	290
제조현(연세대)	중국의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법학사> 교육에 대한 시론-자료 선정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291
유석·정설(강원대)	중국어 사·피동 동형 표지(讓 叫, 給)의 한국어 번역 양상에 대한 문법적 고찰-넷플 릭스 중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292
정신나(강원대)	생성 AI의 주격중출 구문의 이해와 산출	293
황미혜(이화여대)	연변지역 20대 화자의 /ㄴ 르/ 연쇄 발음의 선택적 교체 양상에 대하여	294



제1부 제1 발표장

문자와 의미

[한말연구] KOREAN LANGUAGE RESEARCH JOURNAL
한말연구학회

《훈민정음》 해례본의 음성과학적 설명에 대한 융복합 연구(1)

김슬옹·최홍식·이호영·김진아·이은상·이정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차 례 >

1. 훈민정음 융합 연구의 필요성
 2.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리과학과 방법
 3. 응용과 확장: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리 중심 연구의 방향
- 참고문헌

1. 훈민정음 융합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인문학 분야의 음성학과 성운학, 의학 계통의 음성의학과 음성공학 등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 과정을 정밀한 MR 영상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15세기 《훈민정음》(1446) 해례본에서 기술한 제자 원리와 발음을 검증하며, MR 영상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과 한글 교육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훈민정음학, 성운학[운서(韻書)], 음성학, 음성의학, 음성공학 전문가들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기본 자음과 모음 중심으로 상형의 실제와 발음작용 과정을 입체적인 MR 영상으로 재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술되어 있는 ‘상형’의 실체를 실증적인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의도와 원리, 가치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둘째, 언어학과 음운학 등 기존 인문학에서 규명하지 못한 내용을 규명하고, 셋째, 15세기 자음과 모음의 발음 움직임을 영상으로 구현함으로써 교육용 콘텐츠를 구성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며, 넷째, 영상 콘텐츠를 한류 한국어 시대에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성과 조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 증거가 필요하다. 모음을 조음할 때의 혀와 성도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기자재는 X-ray이다. X-ray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였기 때문에 제법 많은 연구가 X-ray를 이용해 이루어졌다.(Fant, 1965, Harshman et al., 1977, Hashimoto & Sasaki, 1982; Kent & Netsell, 1971; Kent & Moll, 1972a,b; Maeda, 1990; Mermelstein, 1973; Mermelstein & Maclean, 1973; Wood,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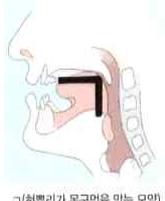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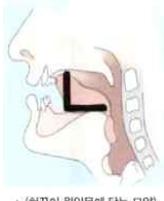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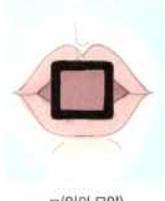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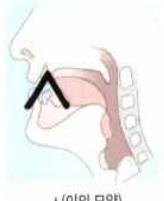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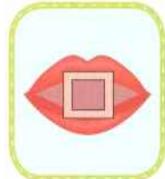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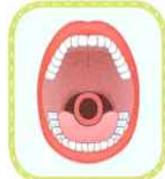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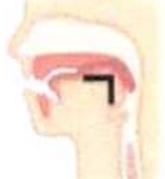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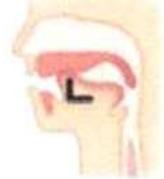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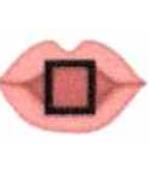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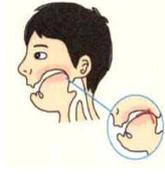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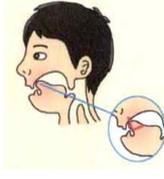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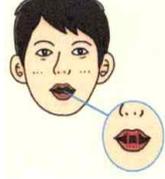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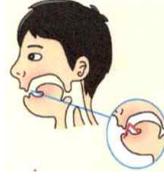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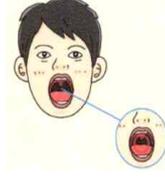
X-ray는 혀 근육을 시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음 연구에 국한되어 사용되었고, 자음 연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에 MRI는 혀의 모양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음성학자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아 성도의 모양과 면적 측정, 모음 분석 등에 국한되어 활용되어왔다.(Baer et al., 1987, 1991; Lakshiminarayanan et al., 1990, 1991; Moore 1992; Wein et al., 1990)

MRI는 보통 복부 장기나 뇌를 촬영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조음 동작을 촬영하려면 MRI

가 혀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외국의 일부 기관에서는 MRI를 조음 동작 연구에 맞게 설정하여 활용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여건이 되지 않아 MRI를 이용한 조음 동작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운학자, 음성학자, 음운론자, 음성의학자, 음성공학자의 융합연구를 통해 MRI를 조음 동작 연구에 맞게 설정하여 정밀하고 선명한 MR 영상을 얻고, 이를 이용해 훈민정음 자모음의 제자 원리와 음가 기술을 매우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음의 조음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조음음성학적 연구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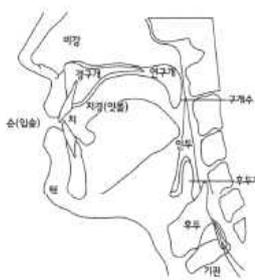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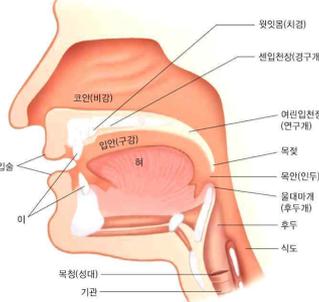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각종 도형을 실증적으로 그림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좀 더 정밀하게 그려 교육 등 활용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표 1] 2015 교육과정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자음 상형도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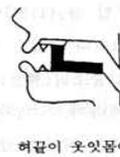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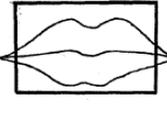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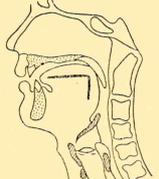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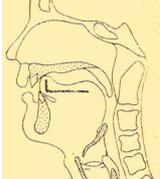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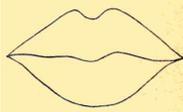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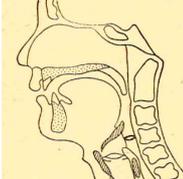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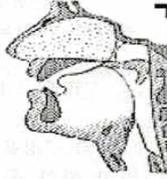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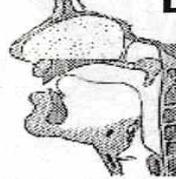
갈래	ㄱ	ㄴ	ㅇ	ㅅ	ㅇ
교학사 2-1 113, 114쪽	 ㄱ(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ㅁ(입의 모양)	 ㅅ(이의 모양)	 ㅇ(목구멍의 모양)
금 성 2-1 115쪽					
동 아 2-2 103쪽					
미래엔 2-1 신유식 138쪽					
비상교 육 2-2 김진수 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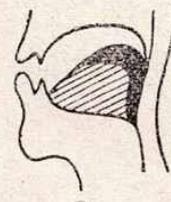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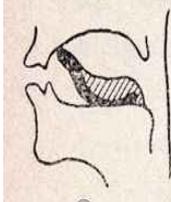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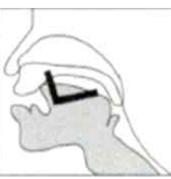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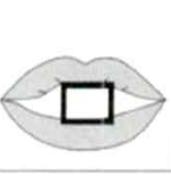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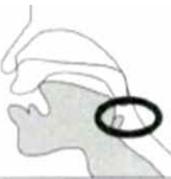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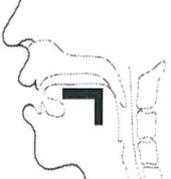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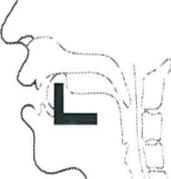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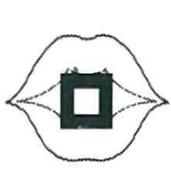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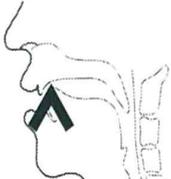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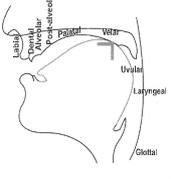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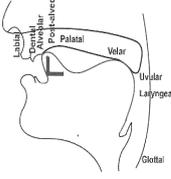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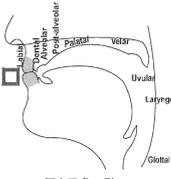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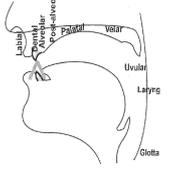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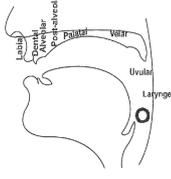
지학사 2-2- 이삼형 65쪽					
천 재 2-2- 노미숙 120쪽					
천 재 (박) 2-2- 박영목 90, 91 쪽					
창 비 2-2- 박지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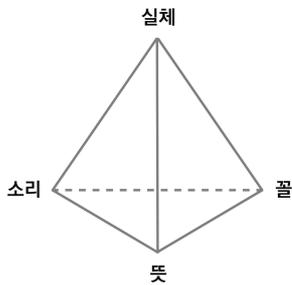
정인승·유열(1947). 1쪽.	허웅(1974). 70쪽.	김석득(1983).
<p>소리들의 그림</p>	<p><발음기관 단면도></p>	
Sek Yen Kim-Cho(김석연,2001). 98쪽.	野間秀樹(2010)/노마 히데키/김진아·김기연·박수진 웁김(2011). 165쪽.	신지영·남호성(2017). 70쪽

최홍식(2023). 102쪽.	김유범 외(2019), 12쪽	김유범 외(2020), 21쪽
		 <p>치음: 혀끝과 윗니 또는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 ㄷ ㅌ ㅊ ㅌ ㅈ ㅉ</p> <p>설음: 혀끝과 잇몸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ㄸ ㅌ ㅌ ㄴ</p> <p>순음: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ㅂ ㅃ ㅍ ㅑ ㅒ</p> <p>아음: 혀의 뒷부분과 아린니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ㄱ ㅋ ㆁ ㄷ ㅌ ㅎ ㅅ</p>

[표 2] 주요 전문서의 자음 상형도 비교표

갈래	ㄱ	ㄴ	ㅇ	ㅅ	ㅇ
권재선 (1995). 219쪽.	 <p>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풀</p>	 <p>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풀</p>			없음
허웅 (1974). 72-74쪽.					
김슬옹글 / 강수현그림 (2015). 50쪽.					
전정례·김형주 (2002). 98쪽.			없음		

노 마 히데키 / 김진 아 외 읊 김 (2011). 156 쪽.			없음		
이정호 (1975). 39 쪽.					
임규홍 (2022). 37쪽.					
김진평 (1983).					
Sek Yen Kim-Cho (김 석 연,2001) 178-179 쪽.	 <p style="text-align: center;">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p>	 <p style="text-align: center;">舌音 ㄴ 象舌附舌上之形</p>	 <p style="text-align: center;">唇音 ㄹ 象口形</p>	 <p style="text-align: center;">齒音 ㄷ 象齒形</p>	 <p style="text-align: center;">喉音 ㅊ 象喉形</p>



[그림] 문자 사각도

훈민정음은 소리과학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도형 과학으로 연결했다는 것이 훈민정음 과학의 핵심이다. 곧 소리 분석을 점과 선과 원만의 꼴(도상성) 과학으로 구현해 간결하고 짜임새 있는 문자과학이 되었다. 임규홍(2022: 32~39)에서는 모음의 천지인 글꼴, 자음의 가획 글꼴

등이 도상성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평가다.

MRI 장비는 고가의 병원 장비로 최근 병원 사태 등으로 미쳐 연구를 마무리짓지 못해 이번 발표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리 측면 기술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리과학과 방법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그 체계는 문자과학이지만 그 바탕은 소리과학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음성 연구를 위해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술된 소리과학의 실체를 이해해야 한다. 흔히 전문가들조차 훈민정음은 음양오행론에 의해 창제되었다고 말하곤 한다. 훈민정음 이론서들이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해 놓았다.

“훈민정음해례본에는 중국의 말소리 이론인 성운학 이론과 국어의 말소리 분석을 위한 언어·문자학적 지식, 그리고 당대 철학 사상인 성리학적 지식이 담겨 있다.” _김유범 외(2020), 《쉽게 읽는 훈민정음》, _훈민정음 이해를 위한 길잡이, 국립한글박물관, 4쪽.

해례본에 중국의 성운학, 성리학 이론이 담겨 있으니 이와 같은 기술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기술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심 이론과 사상이 성운학 이론, 성리학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심 이론과 사상은 굳이 서양식 학문 용어로 말한다면 음성과학과 기하학, 인문과학이다. 여기에 그 당시의 주류 언어학인 성운학, 주류 철학인 성리학을 수용하여 성리학자들을 포용하고자 했다.

‘훈민정음’ 관련 연구에서 해례본은 기본 텍스트로 존중받아야 한다. 훈민정음을 만든 창제자가 직접 저술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는 훈민정음을 최고의 과학적인 문자라고 보편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최고의 소리과학, 음성과학이 깔려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밀한 학문적 배경 또는 기초 없이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연구는 훈민정음 융복합 연구이므로 그 출발점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례본의 소리과학의 실체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2.1. 소리 중심의 원칙

훈민정음은 문자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바탕은 소리과학이다. 문자 명칭을 왜 ‘훈민정자, 훈민정문’과 같이 하지 않고, ‘-음’으로 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해례본을 꼼꼼하게 읽어본 이라면 그런 의문은 절로 해소가 된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 ‘-음’의 취지가 드러나 있다.

* 앞 대괄호 번호는 해례본의 366문장의 일련번호, 김슬옹(2023: 5쇄)의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박이정) 참조.

[1]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정음1-1:2-3_어제서문] ♣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4]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정음1-1:7_어제예의] ♣ ㄱ[기]는 어금닛소리이니 ‘君(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초성)와 같다.

[50]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정음해례1ㄱ:7-8_제자해] ♣ 이제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지혜를 굴리고 힘들여 찾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말소리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었을 뿐이다.

[52]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정음해례1ㄴ:2-3_제자해] ♣ 정음 스물여덟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337]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정음해례26ㄴ:4-5_정인지서] ♣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350]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정음해례27ㄴ:6-8_정인지서] ♣ 훈민정음은 꼴을 본떠 만들어 글꼴은 옛 ‘진서체’와 비슷하지만, 말소리에 따라 만들어 그 소리는 음률의 일곱 가락에도 들어맞는다.

[356] 字韻則清濁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정음해례28ㄱ:5-6_정인지서] ♣ 글자 소리로는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음악 노래로는 노랫가락을 어울리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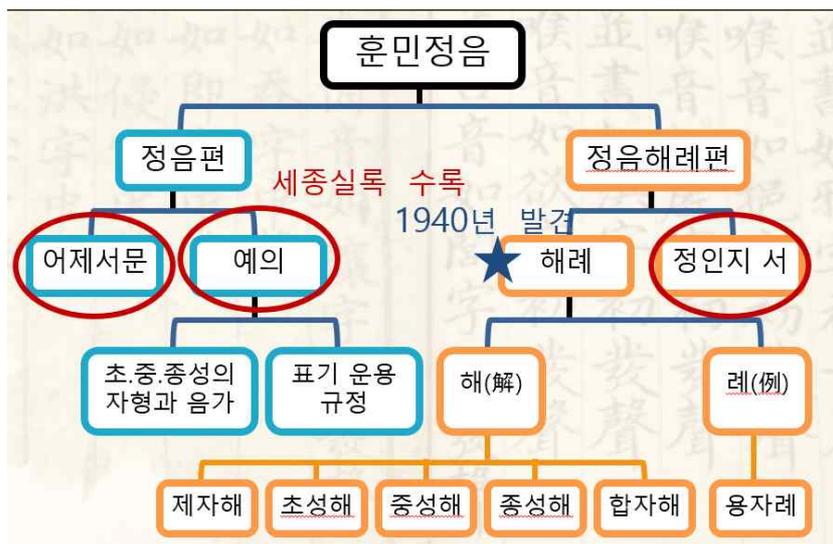
이 문장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훈민정음이 말소리에 바탕을 두었고, 철저히 말소리 이치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종이 직접 지은 정음편 첫 문장은 소리에 대한 사실적(과학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실제 문자 첫 사례 설명도 소리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자는 위대한 문자이지만 말소리를 말소리답게 적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세종은 철저한 말소리 연구를 통해 소리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치 음표와 같은 문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가치를 밝히고 드러내기 위해 음성 중심의 연구 흐름에 대해 밝히고 연구 방향을 잡아보고자 한다.

2.2. 해례본 내용 체계의 과학성

하향식, 상향식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우리말 음성의 실체를 짜임새 있게 기술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짜임새와 발견 역사

정음편 ‘예의’에서 음절 단위의 말소리를 한자어로 보여준 뒤, 초성, 중성, 종성을 분석적으로 보여준 뒤 합자해를 거쳐 용자례의 낱말 단위의 예시를 드러냈다.

<표> 중성의 기본자 관련 풀이 모음(김슬옹, 2023 7: 120)

정음편	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툰(吞)’ 자의 가운데소리(중성)와 같다. — 는 ‘즉(即)’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는 ‘침(侵)’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정음해례편	제자해	<p>가운데소리글자는 모두 열한 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혀가 오그라드니 소리가 깊어서, 하늘이 자시(밤 11시-1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다. 둥근 글꼴은 하늘을 본뻘다. — 는 혀가 조금 오그라드니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므로 땅이 축시(밤 1시-3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다. 평평한 글꼴은 땅을 본뻘다. 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아 소리는 얕으니, 사람이 인시(새벽 3시-5시)에서 생기는 것과 같다. 바로 선 글꼴은 사람을 본뻘다.
	중성해	<p>가운데소리는 한 음절소리(자운)의 가운데에 있으니 첫소리, 끝소리와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p> <p>‘툰’ 자의 가운데소리글자는 • 인데, • 가 E[티]와 L[은] 사이에 있어 ‘툰’이 된다.</p> <p>‘즉’ 자의 가운데소리는 — 인데, — 는 ㅈ[지]와 ㄱ[극] 사이에 놓여 ‘즉’이 된다.</p> <p>‘침’ 자의 가운데소리글자는 인데, 가 ㅊ[치]와 ㅍ[음] 사이에 있어 ‘침’이 되는 것과 같다.</p>
	합자해	<p>가운데소리글자는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첫소리글자 아래에 쓰니 “• — ㅈ ㅊ”가 이것이다.</p> <p>세로로 된 것은 첫소리글자의 오른쪽에 쓰니 “ ㅈ ㅊ ㅊ ㅊ”가 이것이다.</p> <p>이렇게 하면 ‘툰’ 자의 • 는 E[티] 아래에 쓰고, ‘즉’ 자의 — 는 ㅈ[지] 아래에 쓰며, ‘침’ 자의 는 ㅊ[치] 오른쪽에 쓰는 것과 같다.</p>
	용자례	<p>가운데소리글자 • 는 “툰(툰), 푯(팔), 두리(다리), 가래(가래)”와 같이 쓴다.</p> <p>— 는 “물(물), 발축(발꿈치, 발의 뒤축), 그력(기러기), 드레(두레박)”와 같이 쓴다.</p> <p> 는 “깃(둥지), 밀(밀랍), 피(피), 키(키)”와 같이 쓴다.</p> <p>ㅈ는 “논(논), 툭(툭), 호미(호미), 벼로(벼루)”와 같이 쓴다.</p>

2.3. 초성자, 중성자의 체계적인 짜임새

해례본에 나오는 초성자와 중성자의 음운기호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자음) 국제 음운 표시(김슬옹, 2023: 일러두기)

기본자			확장자			
상형기본자	가획자		병서			연서
	일반 가획	이체자	각자병서	합용병서		
				두 자	세 자	
아음	ㄱ/k/	ㅋ/kʰ/	ㆁ/ŋ/	ㄲ/k'/		
설음	ㄴ/n/	ㄷ/t/ ㅌ/tʰ/	ㄹ/l/	ㄸ/t'/		(ㄸ)/t/ *이 글자는 언급만 되고 실제 표기로는 나오지 않음
순음	ㅁ/m/	ㅂ/p/ ㅃ/pʰ/		ㅄ/p'/	ㅅ/pts/ ㅆ/psk/ ㅈ/pst/	ㅅ/B/
치음	ㅆ/s/	ㅈ/ts/ ㅊ/tsʰ/	ㅊ/z/	ㅆ/s'/ ㅈ/ts'/	ㅅ/st/	
후음	ㅇ/h/	ㅇ/r/ ㅎ/h/		ㅇ/x/ ㅇ/h:/(사용 예로만 나옴)		
	5자	9자	3자	7자	4자	2자
기본자 17자			병서 11자(ㅇ포함)			연서 2자(ㅅ 포함)
						확장자 13자
초성 23자(24자, ㅇ포함)					6자	
모두 30자						

[표 4]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자음) 국제 음운 표시(김슬옹, 2023: 일러두기)

기본자(기본 중성자)			합용자(합용 중성자)			
			두 자 상합자		세 자 상합자	
상형기본자	합성자		동출합용자	합용자		
	초출자	재출자		기본 중성자와 의 합용자		동출합용자와 의 합용자
양성	ㅇ /ɳ/	ㅁ /o/ ㅂ /a/	ㅃ /jo/ ㅅ /ja/	ㅆ /wa/ ㅈ /joja/	ㅅ /aj/ ㅆ /oj/ ㅈ /aj/ ㅆ /joj/ ㅈ /jaj/	ㅆ /waj/ ㅈ /jojaj/
음성	ㅁ /i/	ㅂ /u/ ㅅ /ə/	ㅅ /ju/ ㅆ /jə/	ㅆ /wə/ ㅈ /juwə/	ㅅ /ij/ ㅆ /uj/ ㅈ /əj/ ㅆ /juj/ ㅈ /jəj/	ㅆ /wəj/ ㅈ /juwəj/
양음성	ㅣ /i/			* 특이 ㅣ 합용자(! /jɳ/ ㅁ /ji/)		
	3자	4자	4자	4자	10자	4자
기본 중성자 11자			18자			
29자 / 31자(특이 ㅣ 합용자 ! ㅁ 포함)						

2.4. 한자(어)든 순우리말이든 풍부한 임상 적용

일상어로 중심으로 실제 쓰임새를 이렇게 낱말 단위로 제시한 것은 자소 단위 소리 분석과 낱말 단위의 소리 분석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이다.('君'과 같은 음가표시용 한자 생략)

[표 5] 해례본의 분야별 낱말 수

갈래	낱말 수 (조사 제외)	토박이말	글자 수
종성해	5	빛꽃(배꽃, 梨花), 옯(여우, 狐), 꺾(가죽, 皮), 옷(옷, 衣), 실(실, 絲) *엿의꺾(여의의 가죽)	6
합자해	25	싸(땅, 地), 짝(외짝, 隻), 뿔(틈, 隙), 혀(혀, 舌), 혀(당겨/켜, 引), 괴여(내가 남을 사랑하여, 我愛人), 괴여(남에게서 내가 사랑받아 人愛我), 소대(무엇을 뒤집어 쏟아 覆物), 쓰다(무엇을 쓰다 舂), 과(거문고 줄을 받치는 기둥, 琴柱), 화(촛불, 炬), 흙(흙, 土), 낚(낚시, 釣), ㄱ(닭때/유시[오후 5시-7시] 酉時), 사롬(사람, 人), 활(활, 弓), 돌(돌, 石), 갈(칼, 刀), 붓(붓, 筆), 끈(기둥, 柱), 녀(연구리, 脅), 날(곡식, 穀), 깃(깃/비단, 緞), 못(박는못, 釘), 입(입, 口)	31
용자례	초성자	34	34
	중성자	44	67
	종성자	16	19
합계	124(조사 제외) * 조사 포함: 126 * 124: 종성해 5, 합자해 25, 용자례: 94		163

2.5. 음운 자질에 대한 체계적 설명

(1) 혀 오그림(縮) 정도

[99] • 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정음해례4나:5-6_제자해] ♣ • 는 혀가 오그라드니 소리가 깊어서, 하

늘이 자시(밤 11시~1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다.

[101]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關於丑也. [정음해례4ㄴ:7-8_제자해] ♣ 一은 혀가 조금 오그라드니 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므로 땅이 축시(밤 1시-3시)에 열리는 것과 같다.

[103] |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정음해례4ㄴ:8-5ㄱ:1_제자해] ♣ |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아 소리는 얕으니, 사람이 인시(새벽 3시~5시)에서 생기는 것과 같다.

(2) 입술 오므림 정도와 벌림 정도: 蹙(오므림), 張(벌림) / 闔(오므림), 關(벌림)

[106] ㄹ與•同而口蹙, 其形則•與一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정음해례5ㄱ:2-4_제자해] ♣ ㄹ는 •와 같은 가운데소리[양성모음]이나 입을 더 오므리며 그 모양이 •가 一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다는 뜻을 담았다.

[107] |與•同而口張, 其形則|與•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정음해례5ㄱ:4-6_제자해] ♣ |는 •와 같은 가운데소리[양성모음]이나 입을 더 벌리며 그 모양은 |와 •가 서로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108] ㄹ與一而口蹙, 其形則一與•合而成, 亦取天地初交之義也. [정음해례5ㄱ:7-8_제자해] ♣ ㄹ는 一와 같은 가운데소리[음성모음]이나 입을 더 오므리며 그 모양이 一가 •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다는 뜻을 담았다.

[109] |與一而口張, 其形則•與|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정음해례5ㄱ:8-5ㄴ:1-3_제자해] ♣ |는 一와 같은 가운데소리[음성모음]이나 입을 더 벌리니 그 모양은 •와 |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역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뜻을 담은 것이다.

[141] 中聲者, 一深一淺一闔一關, 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 天之用也. [정음해례7ㄴ:3-5_제자해] ♣ 가운데소리는 어떤 것은 깊고 어떤 것은 얕고, 어떤 것은 오므리고 어떤 것은 벌리니, 이런즉 음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운이 갖추어지니 하늘의 작용이다.

2.6. 자소/음운에 대한 대비적 설명

ㄹ는 •와 같은 가운데소리[양성모음]이나 입을 더 오므리며 그 모양이 •가 一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다는 뜻을 담았다.

|는 •와 같은 가운데소리[양성모음]이나 입을 더 벌리며 그 모양은 |와 •가 서로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ㄹ는 一와 같은 가운데소리[음성모음]이나 입을 더 오므리며 그 모양이 一가 •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다는 뜻을 담았다.

|는 一와 같은 가운데소리[음성모음]이나 입을 더 벌리니 그 모양은 •와 |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역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뜻을 담은 것이다.

흔히 ‘아래아’라고 부르는 ‘하늘 아’는 지금 표준어에서는 안 쓰고 있으니 발음하기가 쉽다. 그러나 해례본 설명에서 지금 발음과 같은 ‘ㄴ, |’와 ‘一’ 발음 등과 비교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발음 방법을 설정하면 해례본의 음가를 구현할 수 있다.

모음은 입 모양과 혀의 상태가 중요한데 해례본은 바로 입 모양과 혀의 상태를 통해 발음하

는 방법, 음가 설명을 하고 있다.

위 내용을 ㆍ 중심으로 바꿔보면 ‘ㆍ’는 ‘ㄴ’보다 입을 덜 오므리며 ‘ㅈ’보다는 덜 벌린다. 혀의 상태는 혀를 가장 안 오그리는 혀앞소리인 ‘ㅣ’와 혀를 ‘ㅣ’보다 더 오그리는 ‘ㅡ’보다 더 오그리므로 ‘ㄴ’와 같이 오그리는 소리가 된다. 결국 입술은 ‘ㅈ’ 정도로 하고 혀를 ‘ㅡ’처럼 뒤로 당기듯이 하면 입술이 ‘ㄴ’보다는 더 둥글게 되면서 성대 깊숙이 올려나오는 소리, 바로 ‘아래 아’ 소리가 된다.

결국 해례본에서 입술 모양과 혀 모양 등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아래아 음가 추정에 큰 문제는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음가 추정에 연구자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비판적 연구사 검토는 아래아 연구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음성 연구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

2.7. 분절 단위/문자소별 쓰임새

[표 6]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음성과 문자 기본어 사용 빈도

계열	핵심어	단순 빈도	관련 낱말(빈도), 구
소리 (음운)	음	76	단독: -(成)音(6) 어근: 正音(8), 語音(1), 牙音(6)/舌音(6)/脣音(6)/齒音(7)/喉音, 聲音(5)
	聲	210	初聲(29)/中聲(39)/終聲(18)/ 平聲(5)/上聲(4)/去聲(7)/入聲(8) 八聲(4) 初發聲(23), 出聲之門(1), 辨聲之管(1)
문자 (글자)	文	10	文字(1), 文章(1), 自然之文(1), 文(7)
	字	8	文字(1), 制字解(1)/用字例(1)/合字解(1), 字韻(4), 字音(2), 字母(2), 合而成字(1), 中國之字(1), 正音之字(1), 不清不濁之字(1), 全清次清全濁之字(1) 母字之音(1), 二十八字(4), 十七字(1), 十一字(1), 二十三字(1), 二字(4), 三字(6), 八字 合成之字(1), 初聲字(1), 有聲無字(1), 如牙音君字初聲是ㄱ(1), 象形而字做古篆(1)

1) 예의의 초발성과 중성

(1) 자음의 발음: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정음1-7:7_어제예의] ㄱ는 어금닛소리(아음)이니 ‘君(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초성)와 같다.

(2) 모음의 발음: ㅣ. 如侵字中聲 [정음3-7:4_어제예의] ㅣ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중성)와 같다.

2) 낱글자를 뜻하는 초중중성

- (1) 初聲凡十七字. [정음해례1ㄴ:3_제자해] 초성자는 모두 열일곱 자다.
- (2) 中聲凡十一字. [정음해례4ㄴ:5_제자해] 중성자는 모두 열한 자다.
- (3) 是爲初聲字十七 [정음해례9ㄴ:6_제자해_결시] 여기에서 초성자 열일곱이 나왔네.
- (4) 中聲十一亦取象 [정음해례11ㄴ:7_제자해_결시] 중성자 열한 자 또한 꼴을 본떴는데, 깊은 뜻 쉽게 엿볼 수 없네.
- (5) 終聲復用初聲. [정음3ㄴ:6_어제예의] 중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쓴다.
- (6) 終聲之復用初聲者, 以其動而陽者乾也, 靜而陰者亦乾也, 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 [정음해례8ㄴ:6-8_제자해] 중성자에 초성자를 다시 쓰는 것은 움직여서 양인 것도 하늘이요, 멈추어서 음인 것도 하늘이니, 하늘은 실제로는 음과 양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임금이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 (7) 終用初聲義可知 [정음해례14ㄱ:8_제자해_결시] 중성자에 초성자를 쓰는 뜻을 알 수 있네.
- (8) • — ◡ ◢ ◣ ◤ ◥, 附書初聲之下. [정음4ㄱ:1-2_어제예의] • — ◡ ◢ ◣ ◤ ◥는 초성자 아래에 붙여 쓴다.
- (9)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 [정음해례20ㄴ:3-4_합자해] 초성자는 중성자 위에 쓰기도 하고 중성자의 왼쪽에 쓰기도 한다.
- (10)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정음해례21ㄱ:3-4_합자해] 초성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낱글자 또는 세 개의 낱글자를 합쳐 쓰는 ‘병서’는
- (11) 中聲二字三字合用- [정음해례21ㄱ:8-21ㄴ:1_합자해] 중성자를 두 개의 낱글자, 세 개의 낱글자를 합쳐 쓰는 것은
- (12) 終聲在初中之下. [정음해례21ㄱ:2_합자해] 중성자는 초성자와 중성자 아래에 쓴다.
- (13) 其合用並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 [정음해례21ㄴ:4-5_합자해] 이들 합용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초성·중성·중성자 모두 같다.

- (14)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정음해례20ㄴ:3_합자해] 초성자·중성자·중성자 세 낱글자가 합쳐져 글자를 이룬다.
- (15) 初聲之◡與○相似, 於諺可以通用也. [정음해례22ㄴ:3-4_합자해] 초성의 ◡와 ○은 서로 비슷해서 토박이말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
- (16)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 如孔子 | 魯^사롬之類. [정음해례21ㄴ:5-7_합자해]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쓸 때는 한자음에 따라서 한글의 중성자나 중성자를 보충하는 일이 있으니, 이를테면 ‘孔子 | 魯^사롬(공자가 노나라 사람)’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다.
- (17) 初聲ㄱ, 如감爲柿, 곱爲蘆. [정음해례24ㄴ:3_용자해] 초성자 ㄱ는 “감(감), 곱(갈대)”과 같이 쓰며,
- (18) 中聲•, 如독爲頤, 팻爲小豆, 두리爲橋, ㄱ래爲楸. [정음해례25ㄱ:7-8_용자해] 중성자 •는 “독(턱), 팻(팔), 두리(다리), ㄱ래(가래)”와 같이 쓴다.
- (19) 終聲ㄱ, 如닥爲楮, 독爲甕. [정음해례26ㄱ:6_용자해] 중성자 ㄱ는 “닥(닥나무), 독(독)”과 같이 쓴다.

3) 발음을 뜻하는 초중중성: 발음

- (1)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정음해례8ㄱ:8-8ㄴ:1_제자해] 초성은 움직여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다.
- (2)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정음해례8ㄴ:1-2_제자해] 중성은 정해져 멈추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 (3)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정음해례8ㄴ:2-3_제자해] 중성은 초성이 생겨난 것을 받아서, 중성이 완성되도록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 (4) 且就三聲究至理 自有剛柔與陰陽 [정음해례13ㄱ:5-6_제자해_결시] 또 초·중·중 세 소리 깊은 이치를 살피면, 단단함과 부드러움, 음과 양이 절로 있네.

4) 발음을 뜻하는 초중중성: 어두자음 발음

(1) 初聲者, 或虛或實或颯或滯或重若輕, 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 地之功也. [정음해례7ㄴ:5-7_제자해] 초성은 어떤 것은 비고[후음], 어떤 것은 막히고[아음], 어떤 것은 날리고[설음], 어떤 것은 걸리고[치음] 어떤 것은 무겁고[순중음] 어떤 것은 가볍고[순경음], 이런즉 곧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드러나서 여기에 오행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니 땅의 공이다.

(2) 初聲復有發生義 爲陽之動主於天 [정음해례13ㄴ:7-8_제자해_결시] 초성은 다시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양의 움직임이 되어서 하늘에 임자 되네

(3) 正音初聲, 卽韻書之字母也. [정음해례14ㄴ:6_초성해] 정음의 초성은 곧 한자음 사전(운서)에서 한 음절의 첫소리(성모)이다.

(4) 如牙音君字初聲是ㄱ, …快字初聲是ㅋ, … 虬字初聲是ㄱ, … [정음해례14ㄴ:7_15ㄱ:1_초성해] 어금닛소리글자는 ‘**군**’자의 초성자인 ㄱ인데 … ㅋ與새而爲**쾌**… ㄱ與虬而爲**꺠**…

5) 중성 발음

(1)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 [정음해례15ㄴ:8-16ㄱ:1_중성해] 중성은 글자 소리(자운)의 한가운데에 있으니 초성과 중성을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2)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정음해례8ㄴ:3-6_제자해] 대개 글자 소리의 핵심은 중성에 있으니, 초성과 중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3) 韻成要在中聲用 人能輔相天地宜 [정음해례14ㄱ:3-4_제자해_결시] 운을 이루는 핵심은 중성 쓰임새에 있으니 사람이 능히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네.

(4) 且○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 [정음해례18ㄱ:8-18ㄴ:1_중성해] 그리고 ○는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중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중성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5) 唯有欲聲所當處 中聲成音亦可通 [정음해례19ㄴ:4-5_중성해_결시] 오직 ○자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음절을 이루어 또한 통할 수 있네.

(6) 母字之音各有中 須就中聲尋關闕 [정음해례17ㄱ:2-3_중성해_결시] 음절 소리마다 제각기 중성이 있으니, 모름지기 중성에서 열림과 닫힘을 찾으라.

(7) 中聲者, 一深一淺一闔一關, 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 天之用也. [정음해례7ㄴ:3-5_제자해] 중성은 어떤 경우는 깊고 어떤 경우는 얇으며, 어떤 경우는 닫히고 어떤 경우는 열리기도 하니1), 이런즉 음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운이 갖추어지니 하늘의 작용이다.

(8) 是則中聲之中, 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정음해례7ㄱ:8-7ㄴ:1_제자해] 이런즉 중성 속에도 또한 저절로 음양과 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

(9) 如吞字中聲是• …卽字中聲是— … 侵字中聲是 | … [정음해례16ㄱ:1_중성해_정음해례16ㄱ:3_중성해] ‘**툰**’자의 중성자는 • 니… ‘**즉**’자의 중성자는 곧 —인데 … ‘**침**’자의 중성자는 | 니…

6) 중성 발음

(1)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정음해례17ㄴ:3_중성해] 중성은 초성과 중성을 이어받아 음절을 이룬다.

(2) 如卽字終聲是ㄱ, ㄱ居ㅈ終而爲**즉**. [정음해례17ㄴ:3-4_중성해] 예를 들면 ‘**즉**’자의 중성자는 곧 ㄱ인데 ㄱ는 ‘**ㅈ**’의 끝에 놓여 ‘**즉**’이 된다.

(3) 洪字終聲是○, ○居ㅈ終而爲**홍**之類. [정음해례17ㄴ:4-5_중성해] ‘**홍**’자의 중성자는 곧 ○인데 ○는 **ㅈ**의 끝에 놓여 **홍**이 되는 것과 같다.

(4)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 [정음해례17ㄴ:6-7_중성해] 소리에겐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성, 상성, 거성은 그 중성이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않다.

(5) 終聲比地陰之靜 字音於此止定焉 [정음해례14ㄱ:1-2_제자해_결시] 중성은 땅에 비유되어 음의 멍음이니

1) 여기서의 “- - -”은 ‘하나’로 옮길 필요는 없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다”라는 다양한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므로 ‘-’을 “어떤 경우”로 옮긴다.

글자 소리가 여기서 그쳐 정해지네.

(6) 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 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정음해례7ㄴ:7-8ㄱ:1_제자해] 중성이 깊고 얇고 오프라지고 퍼짐으로써 먼저 소리 내고, 초성이 뒤에서 오음의 맑고 흐림으로써 화답함으로써 초성도 되고 또한 중성이 된다.

7) 글자와 발음 둘다 가능

(1) 且半舌之ㄹ,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如入聲之警字, 終聲當用ㄱ, 而俗習讀爲ㄹ, 盖ㄱ變而爲輕也. [정음해례19ㄴ:2-4_중성해] 또 반혓소리인 ㄹ는 마땅히 토박이말에나 쓸 것이며 한자에는 쓸 수 없다. 입성의 ‘警(𪎮)’자와 같은 것도 중성에 마땅히 ㄱ음을 써야 할 것인데 세속 관습으로는 ㄹ음으로 읽으니 대개 ㄱ가 변해서 가볍게 된 것이다.

8) 낱글자를 뜻하는 성(聲): 자음글자

(1) 唯有欲聲所當處 成音亦可通 [정음해례19ㄴ:4-5_중성해_결시] 오직 ㅇ자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음절을 이루어 또한 통할 수 있네.

(2) 若書卽字終用君 洪警亦以業斗終. 君業覃終又何如 以那警彌次第推. 六聲通乎文與諺 戊閫用於諺衣絲 [정음해례19ㄴ:6_20r:3_중성해_결시] 만일 ‘즉’자를 쓰려면 ‘ㄱ’을 중성자로 하고 “홍, 𪎮”은 ‘ㅇ’와 ‘ㄱ’을 중성자로 하네.“군, 업, 覃”의 중성자는 또한 어떨까. “ㄴ ㅂ ㅍ”로써 차례를 미루어 보라. 여섯 글자(ㄱ ㅎ ㄴ ㅂ ㅍ)는 한자말과 토박이말에 함께 쓰이되 ㅅ와 ㄹ는 토박이말의 ‘옷’과 ‘실’ 중성자로만 쓰이네.

9) 낱글자를 뜻하는 성(聲): 모음글자

(1) 此下八聲, 一闔一闢. [정음해례5ㄱ:2_제자해] 다음 여덟 소리는 어떤 경우는 닫히고 어떤 경우는 열린다.

(2) • 之貫於八聲者, 猶陽之統陰而周流萬物也. [정음해례6ㄴ:5-6_제자해] • 가 여덟 글자에 두루 다 있는 것은 마치 양이 음을 거느리고 만물에 두루 흐름과 같다.

(3) 猶 • 一 | 三字爲八聲之首, 而 • 又爲三字之冠也. [정음해례6ㄴ:1-4_제자해] • 一 | 석 자가 여덟 글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 자가 석 자의 으뜸이 됨과 같다.

(4) 吞之爲字貫八聲 維天之用徧流行 [정음해례13ㄱ:1-2_제자해_결시] • 글자가 여덟 글자에 두루 있음은 오직 하늘의 작용이 두루 흘러 다님이네.

(5) 四聲兼人亦有由 人參天地爲最靈 [정음해례13ㄱ:3-4_제자해_결시] 네 소리(ㅏ ㅑ ㅓ ㅕ)가 사람(ㅣ)을 겸함도 또한 까닭이 있으니, 사람(ㅣ)이 하늘과 땅에 참여하는데 가장 신령하기 때문이네.

(6) 侵之爲用最居多 於十四聲徧相隨 [정음해례17ㄱ:8-17ㄴ:1_중성해_결시] ㅣ 자의 쓰임새가 가장 많아서 열넷의 소리에 두루 서로 따르네.

10) 발음을 뜻하는 성 -말, 말소리

(1) 夫人之有聲, 本於五行. 故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정음해례2ㄱ:4-6_제자해] 무릇 사람의 말 소리는 오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네 계절에 합하여도 어그러짐이 없으며, 오음과 맞추어 봐도 잘 어울리고 틀리지 않는다.

(2)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鉅鍤也, [정음해례26ㄴ:8-27ㄱ:3_정인지서] 대개 중국 이외의 딴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3) 方言俚語萬不同 有聲無字書難通. [정음해례24ㄱ:5_6_합자해_결시] 지역말, 토박이말 모두 다르매 소리 있고 글자는 없어 글로 통하기 어렵더니

11) 모음의 발음(발음 되어 나온 소리의 청각인상)

(1) • 舌縮而聲深… — 舌小縮而聲不深不淺, … | 舌不縮而聲淺, … [정음해례4ㄴ:5_5ㄱ:1_제자해] • 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으니… — 는 혀가 조금 오그라드니 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므로, … | 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는 얕으니,

(2) 吞擬於天聲最深 所以圓形如彈丸 [정음해례12ㄱ:1-2_제자해_결시] • 는 하늘 본떠 소리 가장 깊으니 둥근 꼴이 총알 같네.

12) 자음의 발음(소리의 청각인상)

(1) 喉邃而潤… 聲虛而通, … 牙錯而長… 聲似喉而實, … 舌銳而動, … 聲轉而颺… 齒剛而斷, … 聲屑而滯, … 脣方而合, … 聲含而廣… [정음해례2ㄱ:6_2ㄴ:8_제자해]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말소리가 비어 있는 듯이 통하므로…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어금닛)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목이 꼭차므로… 혀는 재빠르게 움직이니 … 혓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은 … 이는 강하고 (끊을 듯) 단호하니 … 잇소리가 부서지고 걸리는 듯하게 나는 것은… 입술은 모난 것이 나란히 합해지니…, 입술소리가 머금고 넓은 것은 …

13) 소리, 말소리

(1) 徵音夏火是舌聲 齒則商秋又是金 [정음해례10ㄴ:5-6_제자해_결시] ‘치음계’에 ‘여름’이며 ‘불’인 것은 혓소리요, 잇소리는 곧 ‘상음계’며 ‘가을’이니 또한 ‘쇠’가 되네.

(2) 舌聲斗吞及覃那 [정음해례15ㄱ:8_초성해_결시] 혓소리는 “ㄷㅌ”와 “ㄸㄴ”니라

(3) 君快蚘業其聲牙 [정음해례15ㄱ:7_초성해_결시] “ㄱㅋ기ㅇ” 소리는 어금닛소리라.

(4) 挹虛洪欲迺喉聲 [정음해례15ㄴ:3_초성해_결시] “ㅇㅎㅎㅇ”는 곧 목구멍소리라.

(5) 是則中聲之中, 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정음해례7ㄱ:8-7ㄴ:1_제자해] 이런즉 중성 속에도 또한 저절로 음양과 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

(6)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정음해례26ㄴ:5-7_정인지서] 그러므로 옛 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

(7)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정음해례27ㄴ:5-8_정인지서] 상형’ 원리로 만들었으며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고, 소리에 따라 만들었으며, (글자는) 음률의 일곱 가락에도 들어맞는다. 천지인 삼재와 음양 이기의 어울림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음’의 쓰임새와 번역

1) 글자

(1)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정음해례1ㄴ:2-3_제자해] 정음 스물여덟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2)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정음해례27ㄴ:4-6_정인지서] 우리 임금께서 정음 스물여덟 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여 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3)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정음해례29ㄱ:3-5_정인지서] 정음 창제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요, 자연의 이치에 의한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아주 많으며,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4)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정음해례1ㄱ:7-8_제자해] 이제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지혜를 굴리고 힘들여 찾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말소리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한 것이다.

(5) 吁. 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 其神矣哉. [정음해례9㉑:4-5_제자해] 아아! 정음의 제작에 천지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아 신묘하구나!

(6) 正音制字尙其象 因聲之厲每加畫 [정음해례9㉑:3-4_제자해_결시] 정음 글자 만들 때 주로 그 꼴을 본뜨니 소리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였네.

(7)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정음해례1㉑:4_제자해] 어금닛소리글자 ㄱ는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舌音ㄴ, 象舌附上齶之形. [정음해례1㉑:4-5_제자해] 혃소리글자 ㄴ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唇音ㅁ, 象口形. [정음해례1㉑:5-6_제자해] 입술소리글자 ㅁ는 입 모양을 본떴다.

齒音ㅂ, 象齒形. [정음해례1㉑:6_제자해] 잇소리글자 ㅂ는 이 모양을 본떴다.

喉音ㅇ, 象喉形. [정음해례1㉑:6_제자해] 목구멍소리글자 ㅇ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8) 半舌音ㄹ, 半齒音ㅅ,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정음해례2㉑:2-4_제자해] 반혃소리글자 ㄹ, 반잇소리글자 ㅅ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 짜임새를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9) ㅇ連書唇音之下, 則爲唇輕音者, 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 [정음해례4㉑:3-5_제자해] ㅇ를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곧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는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10) 若欲備用, 則依唇輕例, ㅇ連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齶. [정음해례22㉑:7-8_합자해] 그러나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 ㄹ]의 예에 따라 ‘ㅇ’를 ‘ㄹ’ 아래 이어 쓰면 반혃가벼운 소리글자[반설경음자 ㄹㅇ]가 되니, 혀를 윗잇몸에 살짝 댄다.

(11) 唯牙之ㅇ,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정음해례3㉑:7-8-4㉑:1-3_제자해] 오직 어금닛소리의 ㅇ(옛이응)는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코로 소리 기운이 나가지만 ㅇ의 소리는 ㅇ와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ㅇ와 ㅇ가 많이 혼용된다. 이제 ㅇ를 목구멍을 본떠 만들었으나 어금닛소리 글자를 만드는 시초로 삼지 않았다.

(12) 如牙音君字初聲是ㄱ, ㄱ與ㄷ而爲ㄱ. [정음해례14㉑:7-8_초성해] 어금닛소리글자는 ‘ㄱ’자의 초성인 ㄱ인데 ㄱ가 ㄷ과 어울려 ‘ㄱ’이 된다.

2) 음절

(1) 凡字必合而成音. [정음4㉑:3-4_어제예의] 무릇 낱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자가 이루어진다.

(2)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정음해례8㉑:3-6_제자해] 대개 글자 소리의 핵심은 중성에 있으니, 초성과 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3)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 [정음해례15㉑:8-16㉑:1_중성해] 중성은 글자 소리(자운)의 한가운데에 있으니 초성과 종성을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4)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 [정음해례18㉑:8-18㉑:1_중성해] 그리고 ㅇ는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종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중성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5) 唯有欲聲所當處 中聲成音亦可通 [정음해례19㉑:4-5_중성해_결시] 오직 ㅇ자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음절을 이루어 또한 통할 수 있네.

(6)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제자해] 대개 글자 소리의 핵심은 중성에 있으니, 초성과 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7)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합자해] 초성자·중성자·종성자 세 낱글자가 합쳐져 글자(음절자)를 이룬다.

3) 오음(아설순치후)

(1) 喉乃出聲之門, 舌乃辨聲之管, 故五音之中, 喉舌爲主也. [정음해례3㉑:2-4_제자해] 목구멍은 소리가 나오는 문이요, 혀는 소리를 변별해내는 기관이므로 오음 가운데서, 목구멍소리와 혃소리가 으뜸이 된

다.

(2) 唯喉音次清爲全濁者，蓋以ㄹ聲深不爲之凝，ㅎ比ㄹ聲淺，故凝而爲全濁也。 [정음해례4ㄴ:1-3_제자해] 다만, 목구멍소리만은 차청이 전탁이 되는데, 그것은 대개 ㄹ는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ㅎ는 ㄹ에 비하여 소리가 얕아서 엉기어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3) 中聲以深淺闊關唱之於前，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而爲初亦爲終。 [정음해례7ㄴ:7-8ㄱ:1_제자해] 중성이 깊고 얕고 오므라지고 퍼짐으로써 먼저 소리 내고, 초성이 뒤에서 오음의 맑고 흐림으로써 화답함으로써 초성도 되고 또한 중성이 된다.

(4) 若迺快吞漂侵虛 五音各一爲次清 [정음해례11ㄱ:5-6_제자해_결시] “ㄱ ㅌ ㅍ ㅊ ㅎ”와 같은 것은 오음에서 각 하나씩 차청이 되네.

(5) 音出牙舌唇齒喉 是爲初聲字十七 [정음해례9ㄴ:5-6_제자해_결시] 소리는 어금니·혀·입술·이·목구멍에서 나니, 여기에서 초성자 열일곱이 나왔네.

(6) 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 [정음해례18ㄴ:4-5_중성해] 오음의 느리고 빠름이 또한 각기 스스로 짝이 된다.

(7) 五音緩急各自對 君聲迺是業之促 [정음해례20ㄱ:4-5_중성해_결시] 오음은 각각 느림과 빠름의 짝을 저절로 이루니 ㄱ 소리는 ㅎ 소리를 빠르게 낸 것이네.

(8) 半舌有輕重二音，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 [정음해례22ㄴ:6_합자해] 반혀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다. 한자음 사전(운서)의 음절 첫소리에서는 오직 하나뿐이며, 또 나라말에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운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모두 소리를 이룰 수 있다.

4) 오음(궁상각치우)

(1) 夫人之有聲本於五行，故合諸四時而不悖，叶之五音而不戾。 [정음해례2ㄱ:4-6_제자해] 무릇 사람의 말소리는 오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네 계절에 합하여도 어그러짐이 없으며, 오음계와 맞추어 봐도 잘 어울리고 틀리지 않는다.

(2) 於時爲冬，於音爲羽。 [정음해례2ㄱ:7-8_제자해] 계절로는 겨울이고, 음률로는 ‘우음계’다.

(3) 於時爲春，於音爲角。 [정음해례2ㄴ:2_제자해] 계절로는 봄이고, 음률로는 ‘각음계’다.

(4) 於時爲夏，於音爲徵。 [정음해례2ㄴ:4_제자해] 계절로는 여름이고, 음률로는 ‘치음계’다.

(5) 於時爲秋，於音爲商。 [정음해례2ㄴ:6_제자해] 계절로는 가을이고, 음률로는 ‘상음계’다.

(6) 於時爲季夏，於音爲宮。 [정음해례2ㄴ:8-3ㄱ:1_제자해] 계절로는 늦여름이고, 음률로는 ‘궁음계’다.

(7) 配諸四時與冲氣 五行五音無不協 [정음해례10ㄴ:1-2_제자해_결시] 이것을 네 계절과 천지 기운에 맞추어 보니 오행과 오음계에 어울리지 않음이 없네.

(8) 維喉爲水冬與羽 牙迺春木其音角 [정음해례10ㄴ:3-4_제자해_결시] 목구멍소리는 ‘물’이 되니 ‘겨울’과 ‘우음계’요, 어금니소리는 ‘봄’이며 ‘나무’이니 그 음률로는 ‘각음계’네.

(9) 徵音夏火是舌聲 齒則商秋又是金 [정음해례10ㄴ:5-6_제자해_결시] ‘치음계’에 ‘여름’이며 ‘불’인 것은 혀소리요, 잇소리는 곧 ‘상음계’며 ‘가을’이니 또한 ‘쇠’가 되네.

(10) 脣於位數本無定 土而季夏爲宮音 [정음해례10ㄴ:7-8_제자해_결시] 입술소리는 방위와 수가 본디 정해진 것이 없어도 ‘흙’이며 ‘늦여름’이니 ‘궁음계’가 되네.

5) 말소리 - 발음이나 말소리

(1) 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 [정음해례4ㄴ:3-5_제자해] ㄹ를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곧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는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2) 半舌有輕重二音，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 [정음해례22ㄴ:6_합자해] 반혀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다. 한자음 사전(운서)의 음절 첫소리에서는 오직 하나뿐이며, 또 나라말에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운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모두 소리를 이룰 수 있다.

(3) 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 [정음해례27ㄴ:6-8_경인지서] ‘상형’ 원리로 만들었으되 글자는 옛 ‘진

자'를 모방하였고, 소리에 따라 만들었으되, 음률의 일곱 가락에도 들어맞는다.

6) 어근으로서 말소리

(1)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정음1기:2-3_어제서문]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2)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정음해례1기:6-7_제자해]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3)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정음해례1기:7-8_제자해] 이제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지혜를 굴리고 힘들여 찾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말소리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한 것이다.

(4) 又以聲音清濁而言之. ㄱ ㄷ ㅂ ㅈ ㅊ, 爲全清. ㅋ ㆁ ㅌ ㅍ ㅈ, 爲次清. [정음해례3기:8-3나:2_제자해] 또 말소리를 ‘맑음과 흐림(청탁)’으로 말하자면 ㄱ ㄷ ㅂ ㅈ ㅊ는 아주 맑은 소리 ‘전청’이 된다. ㅋ ㆁ ㅌ ㅍ ㅈ는 버금맑은소리 ‘차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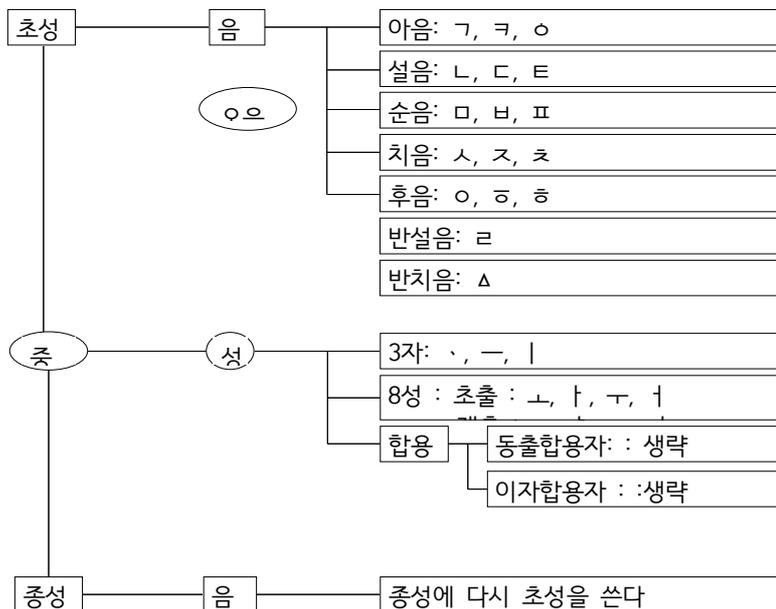
(5) 聲音又自有清濁 要於初發細推尋 [정음해례11기:1-2_제자해_결시] 말소리는 또한 스스로 맑고 흐림이 있으니, 중요한 것은 초성 날 때에 자세히 헤아려 살펴야 하네.

(6) 正音初聲, 卽韻書之字母也. 聲音由此而生, 故曰母. [정음해례14나:7_초성해] 정음의 초성은 곧 한자음 사전(운서)에서 한 음절의 첫소리(성모)이다. 말소리는 이로부터 비롯되므로 이르기를 ‘어미(모)’라 한 것이다.

-음’은 주로 28자 전체의 명칭(正音)으로, 초성자 분류 명칭(아음 외)으로 쓰였다. 구체적으로 발현된 날덩이의 소리 의미로 쓰인 ‘聲音’이 여섯 번, 일반적인 말소리의 뜻인 ‘語音’, 음절의 의미로 쓰인 ‘成音’도 한 번씩 쓰였다.

‘-聲’은 하나의 음절을 삼분법으로 나눈 ‘초성-중성-종성’에 그리고 중성자 세부 명칭으로 주로 쓰였다. 그리고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의 고저장단 용어 등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28자 분류에서 초성자(자음) 용어로는 ‘-음’을 중성자(모음) 용어로는 ‘-성’을 기본적으로는 변별하여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 중성, 종성’ 분류 체계



자 할 따름이다.

(2)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정음해례1ㄴ:2-3_제자해] 정음 스물여덟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3)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정음해례27ㄴ:4-6_정인지서] 계해년 겨울(1443년 12월)에 우리 임금께서 정음 스물여덟 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여 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4)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정음해례27ㄴ:8-28ㄱ:2_정인지서] 천지인 삼재와 음양 이기의 어울림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스물여덟 자로써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5) 正音之字只廿八 探蹟錯綜窮深幾 [정음해례14ㄴ:1-2_제자해_결시] 정음 글자는 단지 스물여덟뿐이로되, 깊고 복잡한 걸 탐구하여 깊이가 얼마인가를 밝혀낼 수 있네.

(6) 凡字必合而成音. [정음4ㄱ:3-4_어제예의] 무릇 낱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자가 이루어진다.

4) 자음(초성) 낱글자

(1)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정음해례1ㄴ:4_제자해] 초성자는 모두 열일곱 자다. 어금닛 소리글자 ㄱ는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2) 二十三字是爲母 萬聲生生皆自此 [정음해례15ㄴ:5-6_초성해_결시] 스물셋 자가 어미(첫소리)가 되니 온갖 소리의 생겨남이 다 여기서 비롯되도다.

(3) 然ㄱㅇㄷㄴㅂㅍㅈㅊㅌㅍㅍㅈ 여덟 자만으로 넉넉히 쓸 수 있다.

(4) 如빛꽃爲梨花, 엿의꽃爲狐皮, 而ㅈ字可以通用, 故只用ㅈ字. [정음해례18ㄱ:6-8_중성해] 이를테면 “**빛**꽃(배꽃)”이나 “**엿의**꽃(여우 가죽)”에서처럼 ㅈ자로 두루 쓸 수 있어서 오직 ㅈ자를 쓰는 것과 같다.

(5) 初作終聲理固然 只將ㅈ字用不窮 [정음해례19ㄴ:2-3_중성해_결시] 초성이 종성이 되는 이치가 본래 그러한데 다만 여덟 자만 가지고도 쓰임에 막힘이 없네.

(6) 不清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정음해례17ㄴ:8-18ㄱ:1_중성해] 맑지도 흐리지도 않는 ‘불청불탁’ 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종성으로 쓰면 평성, 상성, 거성에 마땅하다.

(7) 全清次清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정음해례18ㄱ:1-3_중성해] 전청·차청·전탁 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종성자로 쓰면 입성에 마땅하다.

(8) ㄴㅇㅇ, 其聲寂不厲, 故次序雖在於後, 而象形制字則爲之始. [정음해례3ㄴ:4-5_제자해] ㄴㅇㅇ는 소리가 가장 세지 않으므로, 차례로는 비록 뒤에 있으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드는 시초가 된다.

(9)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ㅈㅈ爲地, ㅈㅈ爲隻, ㅈㅈ爲隙之類. [정음해례21ㄱ:3-5_합자해] 초성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낱글자 또는 세 개의 낱글자를 합쳐 쓰는 ‘병서’는 이를테면 토박이말의 “ㅈㅈ(땅), ㅈㅈ(외짝), ㅈㅈ(틈)” 따위와 같은 것이다.

(10)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ㅈㅈ爲土, ㅈㅈ爲釣, ㅈㅈ爲西時之類. [정음해례21ㄴ:2-4_합자해] 종성자를 두 개의 낱글자, 세 개의 낱글자를 합쳐 쓰는 것은 이를테면 토박이말의 “ㅈㅈ(흙), “ㅈㅈ(낚시), ㅈㅈ(닭때, 유시)”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다.

4) 모음(중성) 낱글자

(1) 中聲凡十一字. [정음해례4ㄴ:5_제자해] 중성자는 모두 열한 자이다.

(2) 然三才爲萬物之先, 而天又爲三才之始, 猶·一|三字爲八聲之首, 而·又爲三字之冠也. [정음해례6ㄴ:1-4_제자해] 그러므로 천지인 삼재가 만물의 우선이 되고 하늘이 천지인 삼재의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一|ㅈ 자가 여덟 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자가 ㅈ 자의 으뜸이 됨과 같다.

(3) 吞之爲字貫八聲 維天之用徧流行 [정음해례13ㄱ:1-2_제자해_결시] ·자가 여덟 자에 통해 있음은 오직 하늘의 작용이 두루 흘러 다님이네.

(4) 二字合用者, ㄱ與卜同出於・, 故合而爲^ㅅ. [정음해례16ㄱ:5-6_중성해] 두 **낱글자**를 합쳐 쓴 것은 **ㅅ**와 **卜**가 다 같이 **・**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ㅅ**가 된다.

(5)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十, | 이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是也. [정음해례16ㄴ:2-4_중성해] 한 **낱글자**로 된 중성자가 |와 서로 어울린 것이 열이니 “**이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가 그것이다.

(6) 一起 |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그**之類. [정음해례22ㄴ:8-23ㄱ:3_합자해] **・** **一**가 |에서 시작되는 소리는 나라말에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말에는 드물게 있으니 마땅히 두 **낱글자**를 합하여 나타내려 할 때에는 “**기그**” 따위와 같이 쓴다.

(1), (2), (3)은 ‘스물여덟 자’ 방식으로 옮긴다. (4), (5), (6)는 복합 자소 구성소이므로 ‘낱글자’로 옮긴다.

5) 음절자

(1) 如牙音君字初聲是 ㄱ, ㄱ與 ㄴ 而爲 ㄴ. [정음해례14ㄴ:7-8_초성해] 어금닛소리 ‘**ㄴ**’자의 **초성자**는 ㄱ인데 ㄱ가 ㄴ과 어울려 ‘**ㄴ**’이 된다.

(2) 快字初聲是 ㅋ, ㅋ與 ㅌ 而爲 ㅌ. [정음해례15ㄱ:1_초성해] ‘**ㅌ**’자의 **초성자**는 곧 ㅋ니, ㅋ가 ㅌ와 합하여 ‘**ㅌ**’가 된다.

(3) 蚪字初聲是 ㄱ, ㄱ與 ㅌ 而爲 ㄱ. [정음해례15ㄱ:1-2_초성해] ‘**ㄱ**’자의 **초성자**는 ㄱ인데 ㄱ가 ㅌ와 합하여 ‘**ㄱ**’가 된다.

(4) 業字初聲是 ㅅ, ㅅ與 ㅅ 而爲 ㅅ之類. [정음해례15ㄱ:2-3_초성해] ㅅ의 **초성자**는 ㅅ인데 ㅅ가 ㅅ과 합하여 ‘**ㅅ**’이 되는 따위와 같다.

(5) 如吞字中聲是 ㄴ, ㄴ居 ㄴ ㄴ 之間而爲 ㄴ. [정음해례16ㄱ:1-2_중성해] ‘**ㄴ**’자의 **중성자**는 ㄴ니 ㄴ가 ㄴ와 ㄴ 사이에 있어 ‘**ㄴ**’이 된다.

(6) 卽字中聲是 一, 一, 居 ㄱ ㄱ 之間而爲 ㄱ. [정음해례16ㄱ:2-3_중성해] ‘**ㄱ**’자의 **중성자**는 곧 一인데 一은 ㄱ와 ㄱ 사이에 놓여 ‘**ㄱ**’이 된다.

(7) 侵字中聲是 |, |居 ㅌ ㅌ 之間而爲 ㅌ之類. [정음해례16ㄱ:3-4_중성해] ‘**ㅌ**’자의 **중성자**는 |니, |가 ㅌ와 ㅌ 사이에 있어 ‘**ㅌ**’이 되는 것과 같다.

(8) 如卽字終聲是 ㄱ, ㄱ居 ㅌ 終而爲 ㅌ. [정음해례17ㄴ:3-4_중성해] 예를 들면 ‘**ㅌ**’자의 **중성자**는 곧 ㄱ인데 ㄱ는 ‘**ㅌ**’의 끝에 놓여 ‘**ㅌ**’이 된다.

(9) 洪字終聲是 ㅅ, ㅅ居 ㅅ 終而爲 ㅅ之類. [정음해례17ㄴ:4-5_중성해] ‘**ㅅ**’자의 **중성자**는 곧 ㅅ인데 ㅅ는 ㅅ의 끝에 놓여 ‘**ㅅ**’이 되는 것과 같다.

(10) 若書卽字終用君 洪譬亦以業斗終 [정음해례19ㄴ:6-7_중성해_결시] 만일 ‘**ㅌ**’자를 쓰려면 ‘**ㄱ**’를 **중성자**로 하고 “**ㅌ, ㅌ**”은 ‘**ㅅ**’와 ‘**ㅌ**’를 중성자로 하네.

(11) 如君字 ㄱ在 ㅌ 上, 業字 ㅅ在 ㅌ 左之類. [정음해례20ㄴ:4-5_합자해] 이를테면 ‘**ㄴ**’자의 ㄱ는 ㅌ의 위에 쓰고, ‘**ㅌ**’자의 ㅅ는 ㅌ의 왼쪽에 쓰는 것과 같다.

(12) 如吞字 ㄴ在 ㅌ 下, 卽字 一在 ㄱ 下, 侵字 |在 ㅌ 右之類. [정음해례20ㄴ:8-21ㄱ:2_합자해] 이를테면 ‘**ㄴ**’자의 ㄴ는 ㅌ의 아래에 쓰고 ‘**ㅌ**’자의 一은 ㄱ의 아래에 쓰며, ‘**ㅌ**’자의 |는 ㅌ의 오른쪽에 쓰는 것과 같다.

(13) 如如君字 ㄴ在 ㅌ 下, 業字 ㅅ在 ㅌ 下之類. [정음해례21ㄱ:2-3_합자해] 이를테면 ‘**ㄴ**’자의 ㄴ는 ㅌ의 아래에 쓰고, ‘**ㅌ**’자의 ㅅ는 ㅌ의 아래에 쓰는 것과 같다.

(14)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並書, 如蚪字初發聲 [정음1ㄱ:7-정음1ㄴ:1_어제예의] ㄱ는 어금닛소리(아음)이니 ‘**ㄴ**(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초성)와 같다. 나란히 쓰면 ‘**ㄱ**(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15) 如入聲之譬字, 終聲當用 ㅌ, 而俗習讀爲 ㄱ, 盖 ㅌ變而爲輕也. [정음해례19ㄱ:2-4_중성해] 입성의 ‘**ㅌ**

(**변**)'자와 같은 것도 종성에 마땅히 **ㄷ**음을 써야 할 것인데 세속 관습으로는 **ㄹ**음으로 읽으니 대개 **ㄷ**가 변해서 가볍게 된 것이다.

(16)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정음해례20ㄴ:3_합자해] 초성자·중성자·종성자 세 글자가 합하여 **음절자**를 이룬다.

(17)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정음해례8ㄱ:3-4_제자해]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가 합성된 글자를 말하자면, 또한 움직임과 멈춤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이 서로 바뀌는 뜻이 있다.

(18) 終聲比地陰之靜 **字音**於此止定焉 [정음해례14ㄱ:1-2_제자해_결시] 종성은 땅에 비유되어 음의 멎음이니 글자 소리가 여기서 그쳐 정해지네.

(19) 凡**字**之左, 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 [정음해례22ㄱ:2-3_합자해] 무릇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이고, 두 점을 찍은 것은 상성이며, 점이 없는 것은 평성이다.

6) 음절

(1) 母**字**之音各有中 須就中聲尋關闕 [정음해례17ㄱ:2-3_중성해_결시] 음절마다 제각기 중성이 있으니, 모름지기 중성에서 열림과 닫힘을 찾으라.

(2)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정음해례17ㄴ:3_중성해] 종성은 초성과 중성을 이어받아 **음절**을 이룬다.

7) 운서의 자모

(1) 正音初聲, 卽韻書之**字母**也. 聲音由此而生, 故曰母. [정음해례14ㄴ:7_초성해] 정음의 초성은 곧 한자음 사전(운서)에서 **음절의 첫소리**(성모)이다. 말소리는 이로부터 비롯되므로 이르기를 ‘어미(모)’라 한 것이다.

(2)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 [정음해례22ㄴ:6_합자해] 반혓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다. 한자음 사전(운서)의 **음절 첫소리**에서는 오직 하나뿐이며, 또 나라 말에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운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모두 소리를 이룰 수 있다.

‘文’의 쓰임새

1) 일반적인 문자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정음해례26ㄴ:4-5_정인지서]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2) 한자

(1)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정음1ㄱ:1-3_어제서문]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느니라.

(2)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 如孔子 | 魯**사람**之類. [정음해례21ㄴ:5-7_합자해]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쓸 때는 한자음에 따라서 한글의 중성자나 종성자를 보충하는 일이 있으니, 이를테면 ‘孔子 | 魯**사람**(공자가 노나라 사람)’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다.

3) 한자음

(1) 且半舌之**ㄹ**,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정음해례19ㄱ:1-2_중성해] 또 반혓소리인 **ㄹ**는 마땅히 토박이말에나 쓸 것이며 **한자음을 적을 때**는 쓸 수 없다.

(2) 六聲通乎**文**與諺 戊閏用於諺衣絲 [정음해례20ㄱ:2-3_중성해_결시] 여섯 소리(ㄱ ㅎ ㄷ ㄹ ㅂ ㅁ)는 **한자**

음과 토박이말에 함께 쓰이되 **ㅅ**와 **ㄹ**은 토박이말 ‘**웃**’과 ‘**실**’와 같이 종성자로만 쓰이네.

2.8. 비분절음운, 사성에 대한 정밀한 표기

(1) 순우리말

[표 7] 사성 짜임새

사성(四聲)	해례본(1446) 설명		소리 특성
	방점(정음편)	실제 예	
평성(平聲)	무점(왼쪽)	콩 (콩)	낮은 소리
상성(上聲)	2점(왼쪽)	돌 (돌)	처음은 낮으나 끝은 높아지는 소리
거성(去聲)	1점(왼쪽)	달 (달)	높은 소리
입성(入聲)	점 더하는 것은 같고 받침이 안올림 소리일 경우	죽 (평성적 입성) 톱 (거성적 입성) 날 (상성적 입성)	빨리 끝나는 막히는 소리

[표 8] 방점 표시 글자 수

	글자 수(빈도수)	용례(괄호 2회 이상)
평성자	84(85)	규업둔즉침즉형빛꽃엿 갖별군업팍구 어딱괴(2) 섬소소훈톰롬할긴넙우콩 러서고두 텡노남볼 사드조형육얇뤼어아 리래그력호며이사숫누구브섬서머옴 삼도남상약다자감울미죽슈쥬련비닥독 병창신되
거성자	77(79)	괘혀과입뒤의혀해골담웃여낙케 티싸여갈울로뽕다(2) 물에파폴자손 부뜻마히부무구뵤체힘름물뵤채비톡 말측깃키톱로레피논미밥날아숨울 에리(2) 쇼고야옛덜벼올관신반뵤분 들름굽뵤
상성자	19	실감밀사별널돌외중날섬저김너군 범심жат별

(2) 한자(특별한 발음이나 뜻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표 9]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 사성 모음(낙장 보사 부분 정음 앞 두 장 제외)

갈래	글자 (빈도)	용례(현대 한자음)	차례
평성	。探	。探蹟錯綜窮深 。幾(탐색착중궁심기)	1
	。幾	심오하고 복잡한 걸 탐구하여 근본 깊이가 어떠한가를 밝혀낼 수 있네.	2
	。夫 (2회)	。夫人之有聲(부인지유성) 本於五行(본어오행). 무릇 사람의 말소리는 오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3
	。縱 (3회)	。縱者在初聲之右(종자재초성지우), 丨 丨 丨 丨 丨 是也(시야). 세로로 된 것은 첫소리글자의 오른쪽에 쓰니 “丨 丨 丨 丨 丨”가 이것이다.	4
	。治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치옥자병기곡절지난통).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	5
상성	°上 (13회)	。爲石而其聲 °上(위석이기성상) “돌[돌(石)]”은 상성이다	6
	°長	。木之盛 °長(목지성장) 키[키]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다	7
	°徵	°徵音夏火是舌聲(치음하화시설성) ‘치음계’에 ‘여름’이며 ‘불’인 것은 혀소리요	8
	°處	。要° 皆各隨所處而安(요개각수소처이안), 不可 °強之使同也(불가강지사동야)	9
	°強	중요한 것은 모두 각각 놓인 곳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같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10
	°稽	拜手 °稽首謹書(배수계수근서)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가 씁니다.	11
거성	復° (7회)	終聲復° 用初聲(종성부용초성) 끝소리글자(종성자)는 첫소리글자(초성자)를 다시 쓴다.	12
	冠°	• 又爲三字之冠° 也(우위삼자지관야) • 자가 석 자의 으뜸이 됨과 같다.	13
	斷°	齒剛而斷°(치강이단), 金也(금야). 이는 억세고 끊을 듯 날카로우니 오행으로는 쇠이다.	14
	離°	水火未離° 乎 물(☵)과 불(☲)은 아직 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15
	論°	固未可以定位成數論° 也(고미가이정위성수론야). 진실로 자리를 정하고 수를 이루는 것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16
	相° (2회)	人能輔相° 天地宜(인능보상천지의) 사람이 능히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네.	17
	要° (2회)	要° 於初發細推尋(요어초발세추심) 중요한 것은 첫소리 날 때에 자세히 헤아려 살펴야 하네.	18
	易° (2회)	精義未可容易° 觀(정의미가용이관) 섬세한 뜻은 아직 쉽게 볼 수 없네.	19

갈래	글자 (빈도)	용례(현대 한자음)	차례
갈래	見°	二圓爲形見° 其義(이원위형현기의) 두 개의 둥근 꼴로 그 뜻을 보이네.	20
	和° (3회)	中聲唱之初聲和°(중성창지초성화) 가운뎃소리가 부르면 첫소리가 응하니	21
	先°	天先° 乎地理自然(천선호지리자연) 하늘이 땅보다 앞섬은 자연의 이치이네.	22
	趣°	學書者患其旨趣° 之難曉(학서자환기지취지난효)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 정한다	23
	讀°	昔新羅薛聰(석신라설총), 始作吏讀°(시작이두)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24
	調°	因聲而音叶七調°(인성이음협칠조). 말소리에 따라 만들어 그 소리는 음률의 일곱 가락에도 들어맞 는다.	25
	應°	臣與集賢殿應° 教臣崔恒(신여집현전응교신최항) 집현전 응교 최항	26
입성	索。	今正音之作(금정음지작), 初非習營而力索。(초비지영이력색) 이제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지혜를 굴리고 힘들 여 찾은 것이 아니다	27
	別。 (2회)	唯業似欲取義別。(유업사욕취의별) 오직 ㅎ[이]만은 ㅎ[이]와 비슷하나 담은 뜻이 다르네.	28
	塞。	入聲促而塞。(입성촉이색), 冬也(동야), 萬物閉藏(만물폐장). 입성은 말소리가 빠르고 막히어 겨울이니 만물이 닫히고 갈무 리되는 것과 같다.	29
	着。	欲書終聲在何處(욕서종성재하처) 初中聲下接着。 寫(초중성하접 착사) 끝소리글자를 쓰자면 어디에 쓰는가 하니 첫·가운뎃소리글자 의 아래에 이어서 붙여 쓰네.	30

2.9. 발음기관과 발음성질에 대한 체계적 융합 분석과 기술

- [64] 喉邃而潤, 水也. [정음해례2:1:6_제자해] ♣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는 물이다.
- [65]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정음해례2:1:6-7_제자해] ♣ 말소리가 비어 있는 듯이 통하
므로 이는 물이 투명하게 맑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
- [66] 於時爲冬, 於音爲羽. [정음해례2:1:7-8_제자해] ♣ 계절로는 겨울이고, 음률로는 ‘우음계’이
다.
- [67] 牙錯而長, 木也. [정음해례2:1:8_제자해] ♣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오행으로는 나무이다.
- [68] 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정음해례2:1:8-2:1_제자해] ♣ 어금닛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나 목이 짝 차므로 나무가 물에서 나되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 [69] 於時爲春, 於音爲角. [정음해례2:2:2_제자해] ♣ 계절로는 봄이고, 음률로는 ‘각음계’이다.
- [70] 舌銳而動, 火也. [정음해례2:2:2-3_제자해] ♣ 혀는 재빠르게 움직이니 오행으로는 불이다.
- [71] 聲轉而颺, 如火之轉展而揚揚也. [정음해례2:2:3-4_제자해] ♣ 혀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은
불이 타올라 퍼지며 위아래로 오르내림과 같다.

- [72] 於時爲夏, 於音爲 徵. [정음해례2ㄴ:4_제자해] ♣ 계절로는 여름이고, 음률로는 ‘치음계’이다.
- [73] 齒剛而斷, 金也. [정음해례2ㄴ:4-5_제자해] ♣ 이는 억세고 끊을 듯 날카로우니 오행으로는 쇠이다.
- [74] 聲屑而滯, 如金之屑瑣而鍛成也. [정음해례2ㄴ:5-6_제자해] ♣ 잇소리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걸리는 듯하게 나는 것은 쇠가 부스러졌다가 다시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
- [75] 於時爲秋, 於音爲商. [정음해례2ㄴ:6_제자해] ♣ 계절로는 가을이고, 음률로는 ‘상음계’이다.
- [76] 脣方而合, 土也. [정음해례2ㄴ:6-7_제자해] ♣ 입술은 모난 것이 나란히 합해지니, 오행으로는 땅이다.
- [77]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정음해례2ㄴ:7-8_제자해] ♣ 입술소리가 머금으며 넓은 것은 땅이 만물을 머금으니 넓고 큰 것과 같다.
- [78]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정음해례2ㄴ:8-3ㄱ:1_제자해] ♣ 계절로는 늦여름이고, 음률로는 ‘궁음계’이다.
- [79] 然水乃生物之源, 火乃成物之用, 故五行之中, 水火爲大. [정음해례3ㄱ:1-2_제자해]
♣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어지게 하는 작용이므로 오행 가운데서 물·불이 으뜸이다.
- [80] 喉乃出聲之門, 舌乃辨聲之管, 故五音之中, 喉舌爲主也. [정음해례3ㄱ:2-4_제자해]
♣ 목구멍은 소리가 나오는 문이요, 혀는 소리를 가려내는 악기이므로 오음 가운데서, 목구멍소리와 혀소리가 으뜸이 된다.
- [81] 喉居後而牙次之, 北東之位也. [정음해례3ㄱ:4-5_제자해]
♣ 목구멍은 안쪽에 있고 어금니는 그 앞에 있으므로 북쪽과 동쪽의 방위이다.
- [82] 舌齒又次之, 南西之位也. [정음해례3ㄱ:5-6_제자해]
♣ 혀와 이가 또한 그다음에 있으니 남쪽과 서쪽의 방위이다.
- [83] 脣居末, 土無定位而寄旺四季之義也. [정음해례3ㄱ:6-7_제자해]
♣ 입술은 끝에 있으니, 오행의 흠이 일정한 방위가 없이 네 계절에 기대어 네 계절을 왕성하게 함을 뜻한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행 특성과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발음 기관 특성과 소리 특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10] 15세기 자음의 조음 특성과 역 특성(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소리 분류		발음 특성		오행 특성						
15세기	현대 용어	발음 기관 특성	소리(聲) 특성	오행	오시	오방	오음	오장	오부	오상
목구멍소리(후음)	후음	깊숙하고 젓음(濇而潤)	비어있는듯이 통하는 소리(虛而通)	수	겨울	북	우음	콩팥	방광	슬기
어금닛소리(아음)	연구개음	어긋나고 길(錯而長)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어딘가에 막혔다가 나는 소리似喉而實)	목	봄	동	각음	간	쓸개	어짚
혓소리(설음)	치조음 설단음	재빠르게 움직임(銳而動)	구르고 날리듯 나는 소리(轉而颺)	화	여름	남	치음	심장	대장	예의
잇소리(치음)	치음	억세고 단단함(剛而斷)	씻가루 부서지듯 나는 소리로 걸리듯 소리남(屑而滯)	금	가을	서	상음	허파	소장	정의

입술소리 (순음)	순음	모난 것이 짐(方而合)	합해	머금듯이 넓게 나 는 소리(舍而廣)	토	늦은 여름	중양	궁음	지라	위장	믿음
--------------	----	-----------------	----	------------------------	---	----------	----	----	----	----	----

3. 응용과 확장: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리 중심 연구의 방향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 해설서로서 문자학, 음성학의 학문적 성과물로서 매우 체계적인 책임을 알 수 있다.

2) 음양오행이 적용된 부분을 제외하면 과학, 음성학 영역 또한 지금의 학문 체계로 보아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3) 해례본의 음가 설명이나 글꼴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해례본 내용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해례본 내용을 박한상(2018)과 같은 현대 과학적 연구나 최홍식(2016, 2023)와 같은 첨단 기기를 이용해 문헌적 설명을 검증하거나 보완 비판하면 된다.

이러한 이진호(2013)에서 아래아 음가 추정 연구사가 흥미로운 논의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진호(2013)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ㆍ’ 음가 추정을 다음 표처럼 정리한 바 있다.

- ① 《訓民正音》의 내용을 통한 음가 추정
- ② 《四聲通攷》의 내용을 통한 음가 추정
- ③ 한자음의 비교를 통한 음가 추정
- ④ 국어의 외국 문자 전사 자료를 통한 음가 추정
- ⑤ 외국어의 한글 전사 자료를 통한 음가 추정
- ⑥ 제주도 방언을 통한 음가 추정
- ⑦ ‘ㅇ’의 변화 양상을 통한 음가 추정
- ⑧ ‘ㅇ’와 관련된 음운 현상을 통한 음가 추정
- ⑨ ‘ㅇ’와 다른 모음의 혼기를 통한 음가 추정
- ⑩ 차자 표기의 분석을 통한 음가 추정
- ⑪ 다른 단모음들과의 관계를 통한 음가 추정
- ⑫ 모음자들의 관계 분석을 통한 음가 추정
- ⑬ 관련 언어와의 비교를 통한 음가 추정
- ⑭ ‘ㅇ’의 생성 원인을 통한 음가 추정

[표 11] 이진호(2013)에서의 ‘ㆍ’ 음가 추정 모음

차 례	기 호	음성적 특징	논저	중요 근거
1	ʌ	후설/평순/반개	河野六郎(1945), 허 웅(1958), 이기문(1961), 강신항(1972), 김차균(1984), 권인한(1995), 우민섭(1997, 1998), 박종덕(2004)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⑩
2	ɑ	후설/평순/개	김무림(1989)	①
3	ɒ	후설/원순/개	김민수(1964)	⑦

4	ㅁ	후설/원순/저	이극로(1937, 1941)	[1] [6]
5	ㅅ	중설/중립/중간	김석곤(1931), 최현배(1941, 1959), 이 탁(1961), 김경훤(1993), 이준환(2011)	[1] [2] [3] [4] [6] [7] [8] [10] [11] [12]
6	ㅆ	중설/중립/개	강신항(1995)	[4]
7	ㅈ	후설에 가까운 중설/ - /반폐	권재선(1992)	[1] [7] [8]
8	-	후설/평순/반개	문양수(1974)	[1]
9	-	후설/반원순/중	김지형(2004ㄱ)	[1]
10	-	후설/ - /반폐모음	장향실(2000)	[5]
11	-	중설/ - /중에 가까운 저	김방한(1964), 김지형(2004ㄴ, 2005)	[3] [7] [8]
12	-	후설에 가까운 중설/ - /중	김주원(1992), 오정란(2000)	[1] [6] [7]
13	-	‘아’와 ‘오’의 중간	小倉進平(1913, 1923), 이승녕(1940, 1949, 1954), 류철(1992)	[1] [4] [6] [7] [8]

해례본에 근거하더라도 그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고 다른 방법과 결합하면서 더욱 해례본의 기술 내용과 멀어진 연구가 많다. 이는 MRI 영상 실험 연구를 통해 다시 검증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6) 다음은 자음과 모음 발음법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표준국어대사전, 정인승·유열(1947), 이호영(1996), 임규홍(2000) 등을 참조로 정리해 본 것이다. 사실 외국인들에게는 아무리 자세히 써 놓아도 설명 그대로 발음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움직이그림 등으로 보여주는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라도 융복합 연구가 중요하다.

[표 12] 모음 기본 발음법

모음	명칭	발음법
.	반원순 후설 저모음	입은 ‘ㅏ’보다는 좁히고 ‘ㅓ’보다는 더 벌려 내는 소리로 입술 모양은 ‘ㅏ’처럼 벌어지지 않고 ‘ㅓ’처럼 오므라지지 않는 중간쯤 되는 소리다. 혀는 ㅓ와 같이 안쪽으로 오그리는 것으로 ㅡ를 낼 때보다 더 오그리고 혀를 아예 오그리지 않는 ㅣ보다는 훨씬 더 오그리는 소리로 혀중앙을 혀 안쪽으로 오그리며 발음하므로 성대가 살짝 열리면서 소리는 성대 깊숙이 울려 나온다.
ㅡ	평순 중설 고모음	입술은 작게 옆으로 평평하게 벌리고 입아귀를 가장 작게 벌리어 낸다. 혀뒤를 여린입천장(연구개)에 바짝 접근시켜 조음한다. 이때 혀끝은 아랫니 뒤쪽에 위치하지만 아랫니에는 닿지 않는 상황에서 혀를 안쪽으로 살짝 당기듯이 한다. 혀의 양옆은 어금니에 살짝 닿을 정도로 접근시키고, 턱은 아래 어금니와 윗어금니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닫는다.
ㅣ	평순 전설 고모음	입술은 양옆으로 작게 벌리고 혀를 앞으로 다가 내면서 앞 바닥을 아주 높이어 쉐입천장에 가깝게 하고 입가를 앞쪽으로 조금 당기는 듯이 하고, 입아귀를 가장 작게 벌리어 낸다. 이때 혀끝은 아랫니 뒤에 대고 혀의 양옆은 윗어금니에 단단하게 밀착시킨다. 턱은 아랫니와 윗니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닫는다.
ㅏ	원순 후설 중 고모음	입술을 둥글게 하여 입술이 앞으로 약간 나오면서 입아귀를 조금 크게 벌리고 혀 뒤를 연구개에 접근시켜 조음한다. /ㅓ/를 조음할 때에는 /ㅏ/나 /ㅡ/를 조음할 때보다 혀 뒤를 연구개에 덜 접근시킨다. 혀끝은 아랫니 뒤쪽에 위치하지만 아랫니에는 닿지 않는다. 혀의 양옆은 어금니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린다. 턱은 새끼손가락이 조금 들어갈 정도로 조금만 벌린다.

ㄱ	원순 후설 중음	혀와 입 모양을 ‘ㅣ’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ㄱ’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모음이다.
ㄲ	평순 중설 저모음	아래턱을 최대한 내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입천장으로부터 많이 떨어뜨리고, 혀뿌리를 뒤로 당겨 받음한다. 이때 혀끝은 아랫니의 뒤쪽에 위치하나 아랫니에는 닿지 않는다. 혀의 양옆은 윗 어금니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린다.
ㅋ	평순 중설 저음	혀와 입 모양을 ‘ㅣ’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ㅋ’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모음이다.
ㄷ	원순 후설 고음	입술을 좀 둥글게 오므리어 앞으로 얼마간 내밀고 입아귀는 가장 작게 벌리고 혀 뒤를 연구개에 바짝 접근시켜 조음한다. 이때 혀끝은 아랫니 뒤쪽에 위치하지만, 아랫니에는 닿지 않는다. 혀의 양옆은 윗 어금니에 살짝 닿는다. 턱은 아래 어금니와 윗 어금니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단는다.
ㄸ	원순 후설 고음	혀와 입 모양을 ‘ㅣ’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ㄸ’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모음이다.
ㄹ	평순 중설 중음	혀를 조금 올리고 입술을 중간에 놓은 뒤 입을 약간 크게 벌려 입안의 안쪽을 넓게 하면서 내는 소리다. 입술을 예사로 하고 입아귀를 조금 크게 벌리어 입안의 앞쪽을 넓게 하여 낸다. 혀바닥을 조금 올려 혀는 입안에 떠있으면서 뒤로 약간 당겨지고 입술은 [—] 소리보다 조금 더 벌린다.
ㄴ	평순 중설 중음	혀와 입 모양을 ‘ㅣ’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ㄴ’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모음이다.
ㄷ	원순 전설 중음	혀를 ‘ㄱ’ 소리를 내는 위치보다 조금 앞의 자리에 놓고 입술을 둥글게 하여 숨을 내쉬어 내는 단모음이다. 혀와 입 모양을 ‘ㄱ’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ㄷ’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ㄸ	원순 전설 고음	혀를 ‘ㄷ’ 소리를 내는 위치보다 조금 앞의 자리에 놓고 입술을 둥글게 하여 앞으로 내밀고 숨을 내쉬어 내는 단모음이다. 혀와 입 모양을 ‘ㄷ’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ㅣ’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ㄹ	평순 전설 저음	혀를 ‘ㄴ’ 소리를 내는 위치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약간 내밀고 입을 약간 크게 벌려 숨을 내쉬어 내는 단모음이다.
ㄺ	평순 전설 저음	혀와 입 모양을 ‘ㅣ’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ㄺ’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모음이다.
ㄻ	평순 전설 중음	혀를 ‘ㄴ’ 소리를 내는 위치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약간 내밀고 입을 보통으로 벌려 숨을 내쉬어 내는 단모음이다.
ㄼ	평순 전설 중음	혀와 입 모양을 ‘ㅣ’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ㄼ’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모음이다.
ㄽ		혀와 입 모양을 ‘ㄱ’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ㄽ’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모음이다.
ㄾ		혀와 입 모양을 ‘ㄷ’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ㄾ’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모음이다.
ㄿ		혀와 입 모양을 ‘ㄴ’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ㄿ’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모음이다.
ㅀ		:혀와 입 모양을 ‘ㄷ’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ㅀ’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모음이다.
ㅁ		혀와 입 모양을 ‘ㅡ’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ㅣ’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옮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모음이다.
--	-----------------

[표 13] 자음 발음법

자음	명칭	발음법
ㄱ	기역 / 기음	‘기’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나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혀뿌리를 높여 여린입천장(연구개)에 붙였다가 날숨을 막았다가 뿜 때 나는 안울림소리로 ‘억’에서와 같은 끝소리에서는 혀뿌리를 떼지 않고 발음한다. ‘아기’에서의 ‘ㄱ[기]’와 같이 모음 사이에서는 울림소리로 난다.
ㄴ	니은	‘니’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나는 소리로 혀끝을 윗잇몸(치경)에 붙였다가 떼면서 날숨을 콧구멍으로 나오게 하여 코안을 울려서 내는 울림소리로 끝소리에서는 혀끝을 떼지 않고 발음한다.
ㄷ	디귄 / 디은	‘디’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나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 입길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파열음이다. ‘을’에서와 같이 끝소리로 날 때는 마지막에 터뜨리지 않고 발음한다.
ㄹ	리을	‘리’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나는 소리로, 첫소리 날 때는 혀끝이 윗잇몸을 한 번 가볍게 치면서 진동하는 소리이며, ‘을’에서와 같이 끝소리로 날 때는 혀끝을 윗잇몸에 꼭 붙이고 혀의 양쪽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흐름소리이다.
ㅁ	미음	‘미’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나는 소리로 입을 다물고 날숨을 코안으로 내보내며 목청을 울려서 내는 울림소리로 끝소리에서는 입술을 떼지 않고 발음한다.
ㅂ	비읍	‘비’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나는 소리로 첫소리에서는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벌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터뜨릴 때 나는 안울림 입술 파열음이다. ‘읍’에서와 같이 끝소리로 날 때는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터뜨리지 않고 발음한다.
ㅅ	시읏 / 시읏	‘시’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나는 소리로 혀끝을 윗잇몸에 닿을 듯 말 듯, 거의 붙이다시피 올려 날숨이 그사이를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안울림소리이다. ‘읏’에서와 같이 끝소리 글자로 쓰일 때는 혀끝이 윗잇몸을 막아서 ‘ㄷ[은]’과 같아진다.
ㅇ	이응	‘이’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날 때는 음가가 없고, ‘응’에서와 같이 끝소리에서는 혀뿌리를 높여 여린입천장에 붙여 날숨을 막았다가 코안으로 내보낼 때 나는 울림소리 콧소리다.
ㅈ	지읏	‘지’에서와 같이 첫소리로만 나는 소리로 혀바닥의 앞쪽을 셴입천장(경구개)에 넓게 대었다가 터뜨리면서 마찰도 함께 일으키며 내는 안울림 파찰음이다. 끝소리로 날 때는 혀끝으로 잇몸을 막아서 ‘ㄷ[은]’과 같이 같아진다. ‘모자’에서의 ‘ㅈ’과 같이 모음 사이에서는 울림소리로 난다.
ㅊ	치읏	‘치’에서와 같이 첫소리로만 나는 소리로 혀바닥의 앞쪽을 셴입천장에 대었다가 터뜨릴 때, 날숨을 거세게 내며 마찰도 함께 일어나는 안울림 파찰음이다. 끝소리로 날 때는 혀끝으로 윗잇몸(치경)을 막아서 ‘ㄷ[은]’과 같아진다.
ㅋ	키음	‘키’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나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혀뿌리를 높여 여린입천장(연구개)에 붙여 입길을 막았다가 뿜 때 거세게 나는 안울림 파열음이다. 끝소리 자리에 쓰일 때는 ‘ㄱ[음]’의 경우와 같다.
ㅌ	티을	‘티’에서와 같이 첫소리로만 내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혀끝을 윗잇몸(치경)에 대었다가 뿜 때 거세게 나는 안울림 파열음이다. 끝소리 글자로 쓰일 때는 혀끝과 윗잇몸(치경) 사이를 막기만 해서 내는 소리로 ‘ㄷ[은]’의 경우와 같다.
ㅍ	피읏	‘피’에서와 같이 첫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뿜 때 거세게 나는 안울림 파열음(터짐소리)이다. 끝소리 글자로 쓰일 때는 ‘읍’의 경우와 같다.
ㅎ	히흥	‘히’에서와 같이 첫소리로만 나는 소리로 목청을 좁히어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안울림 마찰음이다. 끝소리 글자로 쓰일 때는 혀끝과 윗잇몸을 떼지 않고 막기만 하여서 내는 소리로 ‘ㄷ[은]’의 경우와 같다.

ㄱ	쌍기역	‘끼’에서와 같이 첫소리에서만 나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성대 쪽의 후두 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혀바닥 뒤쪽으로 여린입천장을 막았다가 날숨을 터뜨려 내는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파열음이다. 끝소리 자리에 쓰일 때는 ‘ㄱ[음]’과 같은 받침소리로 난다.
ㄲ	쌍디근	‘띠’에서와 같이 첫소리에서만 나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성대 쪽의 후두 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 입길을 막았다가 세게 터뜨려 내는 안울림 파열음이다.
ㅂ	쌍비음	‘삐’에서와 같이 첫소리에서만 나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성대 쪽의 후두 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벌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터뜨릴 때 나는 안울림 파열음이다.
ㅅ	쌍시옷	‘씨’에서와 같이 첫소리에서만 나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성대 쪽의 후두 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혀끝을 윗잇몸이나 센입천장에 거의 붙이다시피 올려 날숨이 그사이를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안울림소리이다.
ㅆ	쌍지옷	‘찌’에서와 같이 첫소리에서만 나는 소리로,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성대 쪽의 후두 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혀바닥의 앞쪽을 입천장에 붙여 날숨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도 함께 일어나는 안울림 파찰음이다.

■ 참고문헌

- S.로버트 램지(1998). 한글. 김영기 편 · 한은주 역(1998), 《세종대왕-15세기 한국의 빛(국립국어연구원총서 1)》, 신구문화사. 55.65쪽.
- 강신항(1972). 조선관역어의 사음에 대하여. 《어학연구》 8-1. 서울대 어학연구소. 1-50.
- 강신항(1978ㄱ). 계림유사 <고려방언>의 운모음과 중세국어의 모음 및 발음. 《대동문화연구》 1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38.
- 강신항(1978ㄴ). 중국자음과 대음으로 본 국어모음체계. 《국어학》 7. 국어학회. 1-21.
- 강신항(1995). 《(증보)조선관역어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 강신항(1996). 한자음을 통해서 본 국어음운사연구 문제. 《국어학》 27. 국어학회. 203-214.
- 고동호(2008). 제주 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학회. 55-74.
- 고영근(2008). 이극로의 어학사상의 위치. 《한글》 281호. 한글학회. 5-34쪽.
- 고영근(2022). 《우리 언어철학사》. 집문당.
-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서울대 국어연구회.
- 권인한(1995).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재선(1992).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 우골탑.
- 권재선(1995). 《훈민정음 해석연구》. 우골탑.
- 김경환(1993). 조선관역어에 나타난 모음표기에 관하여. 《새국어교육》 50. 한국국어교육학회. 129-145.
- 김동소(1998ㄱ).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동소(1998ㄴ). 《계림 유사》와 《조선관 역어》의 한국어 모음 체계 연구. 《한글》 242. 한글학회. 7-30.
- 김동소(2002). 《중세 한국어 개설》. 대구가톨릭대 출판부.
- 김동소(2006). 한국어 변천사 연구의 문제점-시대 구분 문제와 비음소적 과잉 문자 아래아(·) 문제에 한정하여-.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31-71.
- 김무림(1989). 중기국어 모음체계 일고. 《어문논집》 28. 안암어문학회. 247-262쪽.
- 김무림(2006). 《계림유사》의 기저 모음론-《홍무정운역훈》을 참조하여-. 《지명학》 12. 한국지명학회. 5-31.
- 김무식(1993). 《훈민정음》의 음운체계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수(1964). 《신국어학사》. 일조각.
- 김방한(1964). 국어모음체계의 변동에 관한 고찰-중세국어모음체계의 재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도-. 《동아문화》 2.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 김병욱(1983). 국어 음운체계 변천에 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석곤(1931). 한글 · 와 ·의 소리를 밝힘. 《조선일보》 5월 1일-5월 7일. 조선일보사.
- 김성규(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7-55.
-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41-68.
- 김성렬(1987). 중세국어 모음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슬옹(2010/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개정판)》. 지식산업사.
- 김슬옹(2012).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 김슬옹 글/강수현 그림(2015). 《누구나 알아야 할 훈민정음, 한글이야기 28》. 글누리
- 김슬옹(2016). 신경준, 《운해훈민정음[邱井書]》의 정음 문자관. 《한말연구》 39호. 한말연구학회. 5-40쪽.

- 김슬옹(2017/2020: 증보4쇄).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개정증보판)》. 박이정.
- 김슬옹(2017/2023).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개정증보판)》. 박이정.
- 김슬옹(2019). 《세종학과 융합인문학》. 보고서.
- 김슬옹(2020).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주 방법론 정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슬옹(2021).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 중성자 도표식 분류 대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8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71-102쪽.
- 김슬옹(2023ㄱ).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탄생과 역사》. 가온누리.
- 김슬옹(2023ㄴ). 《한글학》. 경진출판.
- 김영선(2001). 중세국어 ‘ㅇ’의 1단계 변화와 몇 문제. 《부산 한글》 20. 한글학회 부산지회. 49-66.
- 김영송(1976). 훈민정음의 홀소리 체계-특히 舌縮·聲深·口蹙에 대하여-. 《문리과대학 논문집》 15. 부산대. 23-54.
- 김영송(1981). 《우리말 소리 연구》. 과학사.
- 김영진(1987). 일본 한자음과 국어의 모음추이에 대하여. 《대전어문학》 4. 대전대 국어국문학회. 3-21.
- 김완진(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63-99.
- 김완진(1967). 한국어발달사 상-음운사. 《한국문화사대계 V-언어·문자사(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13-164.
-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서울대 어학연구소. 127-139.
- 김원보(2005). 제주방언에서 [i]음의 음향분석. 《언어과학연구》 33. 언어과학회. 23-37.
- 김종규(2000). Feature Combination and Discrepancy in Vowel System-Middle Korean Vowel Harmony and Vowel System Revisited-. 《국어학》 36. 국어학회. 133-159.
- 김주원(1990). 국어사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민족문화논총》 1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7-35.
- 김주원(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국어학회. 33-56쪽.
- 김주필(2003). 후기 중세국어의 음운현상과 모음체계. 《어문연구》 11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30.
- 김지형(2004ㄱ). 훈민정음의 소실문자 ‘·’의 음가 추정 방법론-모음간 대립을 중심으로-. 《어원연구》 6. 한국어원학회. 35-55.
- 김지형(2004ㄴ). 중세 국어 ‘·’의 합류 양상과 음가. 제32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 김지형(2005).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의 ‘·’의 음가-중국 한자음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5-107.
- 김지형(2006). 전승한자음과 ‘·’-《계림유사》와 《조선관역어》 수록자를 중심으로-. 《어원연구》 7. 한국어원학회. 151-171.
- 김진평(1983). The Letter Forms of Hangeul Its Origin and Process of Transformation.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1983). The Korean Language. The Si-Sa-Young-O-Sa and Arch Capa.
- 김차균(1984). 15세기 국어의 음운 체계. 《언어》 5. 충남대 어학연구소. 1-38.
- 김차균(1985). 훈민정음 해례의 모음 체계. 《선오당 김형기 선생 팔절 기념 국어학논총》. 창학사. 139-153.
- 김철현(1959). 동국정운 운모고. 《국어국문학》 21. 국어국문학회. 1-90.
- 김태현(2001). 국어의 모음추이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한곤(1980). 제주방언 모음체계의 음향 분석.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289-297.
- 류렬(1992). 《조선말력사(2)》. 사회과학출판사.
- 리의도(2016). 한글의 문자적 다중성. 《세종학연구》 16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1-90.

- 문양수(1974). 한국어의 음운론적 문제점. 《학술원 논문집》 13. 대한민국 학술원. 313-333.
- 문효근(2015). 《훈민정음 제자원리》. 경진.
- 박대중(2018).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억지 주장에 현혹돼서야. 《NEWSIS》 2018.12.11.(newsis.com).
- 박병채(1971). 《고대국어의 연구-음운편-》. 고려대 출판부.
-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 박병천(2021). 《훈민정음 서체 연구》. 역락.
- 박병천(2023). 역대 훈민정음 연구 문헌의 조음도판 작성 정확도에 대한 검토 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융합사업연구단(2023). 《훈민정음 음성과 제자 원리 상관성의 융복합 연구 발표회 자료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대한 질의문.
- 박용규(2008 7). 1920년대 이극로의 ‘독립운동’, ‘독립투쟁’과 현실 인식. 《역사문화연구》 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65-99쪽.
- 박용규(2008 4). 1930년대 한글운동에서의 이극로의 역할. 《사학연구》 92호. 한국사학회. 141-180쪽.
- 박종덕(2004). 《경상도 방언 모음체계 변천사》. 박이정.
- 박종희(1983). 《국어음운론연구》. 원광대 출판국.
- 박지홍(1992). ‘훈민정음’ 분야에 대하여. 《한글》 216호. 한글학회. 115-142쪽.
- 박창원(1983). 고성지역어의 모음사에 대하여. 《국어연구》 54. 서울대 국어연구회.
- 박창원(1986). 국어 모음체계에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95. 국어국문학회. 313-343.
- 박창원(2000). 계림유사 <고려방언>의 모음체계(1)-‘으’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6. 구결학회. 173-199.
- 박창원(2004). 고대국어의 모음체계(2). 《우리말연구》 14. 우리말학회. 107-132.
- 박한상(2018). 《훈민정음》 해례에 나타난 심천의 음성학적 의미. 《한글》 322호(겨울). 한글학회. 765-792쪽.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백두현(2023). 《훈민정음의 문화중층론》. 경북대학교출판부.
- 서정범(1982). 《음운의 국어사적 연구》. 집문당.
- 성원경(1972). 한자운으로 본 <·> 음가의 재고. 《국문학논집》 5·6. 단국대. 23-36.
- 송기중(1991). 이론적 측면에서 본 15세기 국어의 /·/음. 모음체계. 모음조화. 《국어학》 21. 국어학회. 79-101.
- 송민(1975). 십팔세기전기 한국어의 모음체계. 《논문집》 6. 성심여대. 3-24.
- 송민(1986).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 송철의(1992). 국어 음운론연구 1세기.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399-425.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융합사업연구단(2023). 《훈민정음 음성과 제자 원리 상관성의 융복합 연구 발표회 자료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신승용(2003).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태학사.
- 신지영(2019). 《훈민정음》 해례의 ‘喉(후)’ 의미 재고. 《민족문화연구》 82, 181-209.
- 신지영(2019). 훈민정음해례의 ‘喉(후)’ 의미 재고. 《민족문화연구》 82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81-209쪽.
- 신지영(2022).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신지영·남호성(2017).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571돌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과학과 수학 융합 연구’ 발표논문집, 69-94. 세종대왕기념사업회·국립국어원.
- 안대현(2000). 15세기 국어의 홀소리체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오정란(1991). 모음강화현상으로서의 원순·전설모음화. 《국어학》 21. 국어학회. 103-132.
- 오정란(2000). 중세 국어 모음체계의 대립과 조정양상.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187-212.
- 오종갑(2009). 국어 방언에 반영된 ‘·’의 변화. 《어문학》 103. 한국어학회. 65-115.
- 우민섭(1997ㄱ). 범어 음역을 통해서 본 중세국어 음운. 《한국언어문학》 39. 한국언어학회. 87-109.
- 우민섭(1997ㄴ). 15세기 국어의 모음 체계 재론. 《인문과학연구》 3.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 1-21.
- 우민섭(1998). 15세기 국어의 모음체계. 《어문연구》 9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8-117.
- 원경식(1973). 음성학의 역사적 배경과 X-ray 실험. 《새한영어영문학회》 1집, 새한영어영문학회. 25-27쪽..
- 이극로(1932). 訓民正音의 獨特한 聲音考察. 《한글》 5호. 조선어학회. 198-201쪽. 재수록: 《國語學論叢》. 정음사. 5-13쪽.³⁾
- 이극로(1933). 소리들이 만나면 어찌 되나—音의 互相關係. 《한글》 1권 9호. 조선어학회. 364-369쪽. 재수록: 조준희 엮음(2019). 《이극로 전집 II: 남한 편》. 소명출판. 76-84쪽.
- 이극로(1933). 朝鮮民族과 한글. 《農民》 4권 6호. 조선농민사. 24-25쪽. 재수록1: 조준희 엮음(2019). 《이극로 전집 II: 남한 편》. 소명출판. 31-32쪽. 재수록2: (사)고루이극로박사기념사업회 편집부. 《고루소식》 6호(겨울호). (사)고루이극로박사기념사업회. 18-20쪽(박용규 해제 포함).
- 이극로(1936). 한글 發達에 對한 回顧와 新展望—確乎한 그의 進展을 必期함(下). 《朝鮮中央日報》. 1936.1.4.
- 이극로(1936). 한글 所感. 《중앙》 4권 3호. 조선중앙일보사. 26-27쪽. 재수록: 조준희 엮음(2019). 《이극로 전집 II: 남한 편》. 소명출판. 223-224쪽.
- 이극로(1936). 한글 統一運動의 社會的 意義. 《조광》 2권 11호. 조선일보사출판부. 53-63쪽. 재수록: 조준희 엮음(2019). 《이극로 전집 II: 남한 편》. 소명출판. 232-242쪽.
- 이극로(1936). 訓民正音과 龍飛御天歌. 《신동아》 6권 4호. 신동아사. 22-40쪽. 재수록: 조준희 엮음(2019). 《이극로 전집 II: 남한 편》. 소명출판. 140-151쪽.
- 이극로(1937). 標準語와 辭典. 《한글》 47호. 조선어학회. 10-11쪽. 재수록: 조준희 엮음(2019). 《이극로 전집 II: 남한 편》. 소명출판. 246-248쪽.
- 이극로(1937). ‘·’의 音價에 對하여. 《한글》 48호. 조선어학회. 1-2쪽. 재수록: 이극로(1948). 《國語學論叢》. 정음사. 14-18쪽.⁴⁾
- 이극로(1941). [·] 음가를 밝힘. 《한글》 83호. 조선어학회. 4-5쪽. 재수록: 이극로(1948). 《國語學論叢》. 정음사. 19-22쪽.⁵⁾
- 이극로(1946). 《고투 사십년》. 을유문화사. 재간행1: 이극로(2008). 《고투 40년》. 범우. 재간행2: 이극로/조준희 옮김(2014). 《고투 40년》(지구를 한 바퀴 돈 한글학자-이극로 자서전). 아라.
- 이근규(1979). 16세기 ‘·’음에 대한 일고찰. 《논문집》 13. 원광대. 469-501.
- 이기문(1961/1972ㄴ). 《(개정판)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1968). 조선관역어의 종합적 검토. 《논문집》 14. 서울대. 41-80.
- 이기문(1972ㄱ). 《국어 음운사 연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이기문(1977). 제주도 방언의 ‘ㅇ’에 관련된 몇 문제. 《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183-195.
- 이기문(1988). 陰德記의 高麗詞之事에 대하여. 《국어학》 17. 국어학회. 3-32.
- 이능화(1918).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3) “훈민정음의 독특한 관찰”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실림.

4) “<·>의 소리값에 대하여”라는 제목과 한글전용체로 다시 실림.

5) “<·의 소리값을 밝힘”이라는 제목 아래 한글전용체로 바꿔 실었음.

- 이돈주(1981). 지섭(止攝) 한자음과 /ㄹ/음의 반영. 《한글》 173·174. 한글학회. 247-265.
- 이동석(2018). 훈민정음의 음운론적 연구 성과와 전망: 자음을 중심으로. 이현희 외(2018).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I(국내). 국립한글박물관 296-412쪽.
- 이병근(1985). <음운론의 연구>. 《국어학연구사-흐름과 동향-》. 학연사. 45-65.
- 이상억(1984).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y of Korean-Disharmony among the Hypotheses of Vowel Harmony-. 《어학연구》 20-4. 서울대 어학연구소. 417-451.
- 이상혁(2018). 북한의 훈민정음 연구 성과와 전망. 이현희 외(2018).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II(국외). 국립한글박물관 18-52쪽.
- 이승녕(1935). Umlaut 현상을 통하여 본 모음 ‘·’의 음가고. 《신흥》 8. 신흥사. 96-113쪽.
- 이승녕(1940). ‘·’ 音放. 《진단학보》 12. 진단학회. 1-106쪽.
- 이승녕(1949). 《조선어음운론연구 제일집 ‘·’음고》. 을유문화사.
- 이승녕(1954). 《국어음운론연구 제일집 ‘·’음고》. 을유문화사.
- 이승녕(1959). ‘·’ 음고개론. 《학술원논문집》 1. 대한민국 학술원. 41-154.
- 이윤동(1994). 중기한국한자음 운모고-臻·曾攝에 대하여-. 《어문학》 55. 한국어문학회. 321-342.
- 이윤동(2000). <조선관역어> 국어 모음 寫音에 대하여. 《어문학》 71. 한국어문학회. 107-128.
- 이정호(1972). 《(해설 역주) 훈민정음》. 한국도서관학연구회.
- 이정호(1975).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그 역학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준환(2011). 일본한자음과의 비교를 통한 /·/의 음가 고찰. 《국어학》 61. 국어학회. 323-358.
- 이진호(2004). <심학 이승녕 선생의 학문 세계-음운론 분야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95-521.
- 이진호(2008). 일제 시대의 국어 음운론 연구.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93-126.
- 이진호(2013). ‘·’의 음가론. 《국어사연구》 17호. 국어사학회. 133-164쪽.
- 이진호(2018). 훈민정음의 음운론적 연구 성과와 전망: 모음을 중심으로. 이현희 외(2018).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I(국내). 국립한글박물관. 296-340쪽.
- 이탁(1961). <·> 음가의 새로운 고찰. 《동방학지》 5.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21-30쪽.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이호영(2023). 고루 선생의 음성 연구. 《한글새소식》 612호(8월호). 한글학회. 10-11쪽.
- 임규홍(2000). 《우리말 올바르게 공부하기》. 한국문화사.
- 임규홍(2022). 《소리 글꼴 뜻》.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 장영길(1994). 《15세기 국어 음운 체계 연구》. 홍문각.
- 장향실(2000). 중세국어 모음 ‘·’의 음가에 대한 연구.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473-489.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정승철(2004). 음운사 연구에서의 언어 변화 이론의 수용과 전개-‘ㄹ’의 음운사 연구를 중심으로-. 《국어학》 43. 국어학회. 407-428.
- 정연찬(1989). 15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그것에 딸린 몇 가지 문제. 《국어학》 18. 국어학회. 3-41.
- 정열모(1927). “성음학상(聲音學上)으로 본 정음(正音). 《한글》(동인지) 1. 조선어학회. 57-61쪽.
- 정우영(2016). 훈민정음 초성 제자원리의 ‘이체자(異體字)’ 관련 문제점 분석. 《國語學》 80집. 국어학회. 35-75쪽.
- 정인승·유열(1947). 《한글 소리본》. 정음사.
- 정인호(2006). 제2음절 이하의 ‘ㄹ’ 변화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341-357.
- 정제문(2015). 파스파 문자와 훈민정음. 《한글》 307. 한글학회. 5-43쪽.

- 정철주(1993). 15세기 현실한자음과 음운체계. 《계명어문학》 8. 계명어문학회. 37-65.
- 조규태(2005). 남부 방언 양순음 아래 모음 ‘ㄱ’에 대하여.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5-26.
- 조준희(2019). 해제. 조준희 엮음(2019). 《이극로 전집 II: 남한 편》. 소명출판. 851-877쪽.
- 주시경(1906). 《대한국어문법》. 유인본.
- 주시경(1908). 《국어문전음학》. 박문서관.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진남택(2004). 일본자료를 통해 본 ‘·’의 변천과정. 《국어학》 44. 국어학회. 89-107.
- 최남희(2005). 고대국어 홀소리 <ㄹ(e)>의 존재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17. 한말연구학회. 253-290.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범훈(1985). 《한국어 발달사》. 통문관.
- 최병선(1998). 《중세 국어의 음절과 모음 체계》. 박이정.
- 최전승(2005). 국어사 연구에서 언어 사실과 그 해석의 논리 : <ㄹ>의 경우- “남부방언의 양순음 아래 모음 ‘ㄱ’에 대하여”를 대상으로-.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99-125.
- 최현배(1932/감메).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과 벌림에 대하여－한글 제작의 기교적 고찰－. 《한글》 5. 조선어학회. 192-198쪽.
- 최현배(1942). 《한글갈》. 정음사.
- 최현배(1959). <·>자의 소리값 상고-배달말의 소리뭉(음운) 연구-. 《동방학지》 4.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
-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 최홍식(2016). 음성학과 음성의학으로 풀어보는 《훈민정음》 제자해. 《세종학연구》 16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9-40.
- 최홍식(2017).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 《571돌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과학과 수학 융합 연구’ 발표논문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국립국어원. 53-65.
- 최홍식(2018).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규명.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학술제 ‘훈민정음과 교육’ 발표논문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국회의원 강길부. 19-65.
- 최홍식(2022ㄱ). 훈민정음 음성학(I): 중성자(홀소리) 제자해에 대한 음성언어의학적 고찰.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33.2, 77-82.
- 최홍식(2022ㄴ). 훈민정음 음성학(II): 초성, 중성(닿소리) 제자해에 대한 음성언어의학적 고찰.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33.2, 83-88.
- 최홍식(2023). 《훈민정음 음성학》. 이회.
- 최홍식·이승진(2018). 제주어 화자에서 ‘아래 야(·) 조음의 영상의학적 및 음향학적 특성. 《말소리와 음성과학》 10, 57-64.
- 한국학중앙연구원 엮음(2008). 《蒙古字韻》(영인본). 한국학중앙연구원(해제: 정광).
- 한영균(1990ㄱ). 모음조화의 붕괴와 ‘·’의 제1단계 변화. 《국어학》 20. 국어학회. 113-136.
- 한영균(1990ㄴ).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의 제2단계 변화. 《애산학보》 10. 애산학회. 85-109.
- 허웅(1974). 《한글과 민족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허웅(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현우중(1988). 제주도 방언 <·>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탐라문화》 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5-57.
- 현평효(1963). 제주도 방언 ‘·’ 음 소고. 《양주동박사화탄기념논문집》. 동국대학교. 627-646.쪽.
- 홍현보(2019). 《언문》. 이회.
- Sek Yen Kim-Cho(김석연,2001). THE KOREAN ALPHABET of 1446. Humanity Books & AC Press(아세아문화사).

- 服部四郎(1974). 중세한국어의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강연논문집(학술원 창립20주년기념 학술강연회)》. 대한민국 학술원. 201-219쪽.
- 小倉進平(1913). 濟州道方言. 《朝鮮及滿洲》 68. 朝鮮及滿洲社. 20-25쪽.
-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 發音概說》. 近澤印刷所出版部.
- 小倉進平(1924).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學會.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下)》. 岩波書店 ; 이진호 역(2009). 《한국어 방언 연구》. 전남대 출판부.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本文篇-》. 汲古書院 ; 이진호 역(2011). 《한국 한자음 연구-본문편-》. 역락.
- 泉井久之助·羅鐘浩(1968). 中期朝鮮語の母音調和と母音交替. 《言語研究》 52. 日本言語學會. 1-32쪽.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鈹>語考》. 東都書籍 ; 이진호 역(2012). 《한국어 방언학 시론-‘마시개(鈹)’ 고찰-》. 전남대 출판부.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 이진호 역(2010).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 河野六郎(1978). 朝鮮漢字音と日本吳音. 《古代東アジア史論集》. 吉川弘文館. 《河野六郎著作集 3》(1979)에 재수록. 427-448쪽.

■ 토 론

“《훈민정음》 해례본의 음성과학적 설명에 대한 융복합 연구(1)”에 대한 토론문

임규홍(경상대)

이 연구는 훈민정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 융복합 연구로 훈민정음 연구를 한층 더 깊게 다룬 연구로 매우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특히 해례본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질문자가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질문 깊이가 없을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탁월하고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과학적이라는 뜻넓이는 이 연구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언어학의 음성학, 음향학, 음운학, 성운학, 음향오행설이라는 철학적인 부분까지 복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선, 이 연구가 기존의 해례본 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소리(音), 소리(聲), 자(字)에 대한 기본과 확장 원리의 체계성과 적용은 이 연구를 한 연구자(김슬옹)에 의해 이미 많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 연구와 어떤 점에서 다르고 두드러지게 주장하려고 한 것인지요?

두 번째로 실제 발성 기관과 발성 과정의 생리적 분석은 mri를 통해 한층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도 영상 분석 연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소리와 발성기관의 미세한 연구는 보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연구가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 연구가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을 세계 문자학 연구에 알리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요?

세 번째,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음성학적 특성과 도상성 즉 글꼴과 뜻과 소리가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즉, 아래 ·가 一의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을 때의 꼴과 소리와 그것이 만들어낸 낱말 뜻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즉, [위]와 [밑], [안]과 [밖]의 의미자질이 글꼴과 소리에 의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

편지요? 모음뿐만 아니라 자음들도 기본자와 거센소리 된소리 글자의 소리와 글꼴이 가획을 해나가면서 변하는 글자의 꼴과 소리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뜻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신비한 문자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ㅂ의 [열림]과 ㅃ의 [닫힘]이 소리와 글꼴과 뜻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해례본으로도 설명이 가능한지요?

네 번째, 훈민정음의 제자해에서 글자를 꼴을 덧붙여(가획) 가면서 만든 것은 도상성 원리인 형태의 복잡성은 소리의 복잡성과 발성기관의 복잡성, 의미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도상성 원리로 볼 수는 없는지 이와 관련시켜 앞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섯 번째, 위 논의를 보면 소쉬르의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언어 특성은 지금까지도 절대적인 이론으로 보고 있는데 적어도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와 그것의 소리와 한국어의 뜻과의 관련성을 본다면 언어 자의성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을 듯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훈민정음 특히 해례본에 대한 연구 업적이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이라 깊은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결가지에 머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르다’ 계열 색채어 의미 연구

박현선(건국대)

< 차례 >

1. 서론
 2. ‘푸르다’와 ‘파랗다’의 정의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쓰임을 통해 색채어 ‘푸르다’와 ‘파랗다’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는 청(靑)과 녹(綠)을 ‘푸르다’ 또는 ‘파랗다’라는 어휘로 표현하곤 한다. 아래 (1)은 인터넷 뉴스 기사의 텍스트에 나타난 ‘푸르다’와 ‘파랗다’가 혼용되는 용례이다.

- (1) ㄱ. 푸른 한복 입은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그것도 파란 한복을 입었네요.¹⁾
- ㄴ. 파란 하늘, 푸른 잎새²⁾
- ㄷ. 파란 잔디에 파란 가을하늘³⁾
- ㄹ. 청룡의 해 ‘푸른 용’ 마케팅 돌입한 기업들⁴⁾
- ㅁ. 갑진년 청룡의 해-파란 용은 무엇을 상징할까?⁵⁾

(1ㄱ)의 ‘푸른 한복’의 ‘푸르다’는 ‘청(靑)’을 의미하며, (1ㄴ)의 ‘푸른 잎새’의 ‘푸르다’는 ‘녹(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ㄷ)에서 ‘파란 잔디’의 ‘파랗다’는 ‘녹(綠)’을 의미하지만, ‘파란 하늘’의 ‘파랗다’는 ‘청(靑)’을 의미한다. 구본관(1998)에서는 ‘푸르다’는 주로 녹색

-
- 1) 나연수(2024), 「푸른 한복 입은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앵커리포트]」, 『YTN』, 2024.06.10., https://www.ytn.co.kr/_ln/0104_202406101528234735
 - 2) 전진환(2024), 「파란 하늘, 푸른 잎새」, 『뉴스시스』, 2024.05.27., https://www.newsis.com/view/?id=NISI20240527_0020353868
 - 3) 송석원(2023), 「파란잔디에 파란 가을하늘…‘이천 장호원 파크골프장’」, 『중앙신문』, 2023.09.18.,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6446>
 - 4) 이범희(2024), 「[2024갑진년] 청룡의 해 ‘푸른 용’ 마케팅 돌입한 기업들」, 『일요서울』, 2024.01.02.,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34>
 - 5) 이현남(2024), 「[키워드로 보는 명화이야기]청룡(靑龍) 2024 청룡이 왔다」, 『광주매일신문』2024.01.11.,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04969563619908036>

에 사용되고, 청색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명백한 청색의 경우에는 쉽게 쓰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파랗다’는 주로 청색과 남색에 사용되고, 녹색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연한 녹색에만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뉴스 텍스트를 통해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푸르다’가 ‘청(靑)’을 의미하는데 쓰이기도 하며, ‘파랗다’가 짙은 ‘녹(綠)’을 의미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ㄴ), (1ㄷ)과 같이 ‘청룡(靑龍)’은 ‘푸른 용’이 되기도 하고, ‘파란 용’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푸르다’와 ‘파랗다’는 명확히 구분되어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 말뭉치를 통해 각각 어떤 단어와 공기관계를 이루는지 조사하고, 빈도를 분석하여 ‘파랗다’와 ‘푸르다’가 의미적 측면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파생어(하)를 제외한 기본 색채어만을 대상으로 한다. 색채어의 조어상의 파생이나 합성 등 형태적 특성에만 주목하지 않고 실제 쓰임을 확인하며 어휘 사이의 의미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겠다. 말뭉치 자료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푸르다’와 ‘파랗다’의 정의

‘푸르다’의 사전 의미 기술은 다음과 같다.

(2) ㄱ. 「1」 갠 하늘 빛 같다.

「2」 무성한 나무 잎의 빛과 같다.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

ㄴ. 무지개의 다섯째 빛과 같다. 하늘빛이나 풀빛이나 쪽빛과 같다. 《큰사전》

ㄷ.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표준국어대사전》

¶ 푸른 물결./푸른 가을 하늘./비 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

ㄹ. (사물이나 그 빛이) 맑은 하늘빛이나 풀빛과 같은 색을 띤 상태에 있다. 《고려대한국어사전》

¶ 하늘이 높고 푸르다./넓고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한 차례 소나기가 퍼붓고 나니 풀과 나무들이 한층 더 푸르러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졌다.

다음으로는 ‘파랗다’의 사전적 의미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ㄱ. 진하게 푸르다.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

ㄴ. 매우 푸르다. 《큰사전》

ㄷ.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새싹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 《표준국어대사전》

¶ 파란 하늘./파랗게 돌아나는 새싹./하늘은 파랗게 맑고 별이 총총하다.

ㄹ. (사물이나 그 빛이) 맑은 하늘이나 깊은 바닷물과 같은 색을 띤 상태에 있다. 《고려대한국어사전》

¶ 가을 하늘은 정말 높고 파랬다./멀리 길가에 파란 지붕이 듬성듬성 보였다./하늘이 너무도 파래서 손가락으로 꼭 찌르면 파란 물감이 묻어날 것 같았다.

6)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음운 대립을 통하여 만든 파생어인 ‘파랗다/퍼렇다’와 접두사 ‘새-’, ‘시-’가 첨가된 ‘새파랗다’, ‘시푸르다’ 등의 비교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사전의 예문을 참조하면 ‘푸르다’와 ‘파랗다’는 모두 녹색과 파란색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선영(2012)에서는 ‘푸르다’는 청색, 녹색, 남색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파랗다’는 녹색보다는 청색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푸르다’의 기본의미로 ‘하늘’, ‘바다’, ‘풀’을 제시하였고, ‘파랗다’의 기본의미로 ‘하늘’, ‘바다’, ‘새싹’을 제시하였다. 새싹은 새로 돌아나는 어린 잎을 의미하기 때문에 ‘풀’에 비해 연한 색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과 《큰사전》에서는 ‘파랗다’의 뜻을 ‘진하게 푸르다’, ‘매우 푸르다’ 등으로 풀이하여 [강조]의 속성을 전달하고 있다. 두 어휘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사전적 뜻풀이만으로는 ‘푸르다’와 ‘파랗다’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변별하기 어려운 어휘이기 때문에, 말뭉치 검색을 통해 공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색채어가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지 파악하면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kli.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모두의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푸르다’와 ‘파랗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말뭉치 자료 중 일상 대화 말뭉치, 온라인 대화 말뭉치를 선택하였다. 말뭉치 파일은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Google Colab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JSON 파일을 열어 원하는 내용을 뽑아낼 수 있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말뭉치에서 발화 형식만을 추출하여 ‘푸르다’류와 ‘파랗다’류의 단어가 출현한 빈도를 세고, 해당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의 목록을 얻을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푸르다’는 47회, ‘파랗다’는 71회의 용례가 나타났다. 대화 말뭉치에서 이러한 용례들을 관형사형, 부사형, 서술형, 명사형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었다. 관형사형인 ‘푸른’, ‘파란’은 136회, 부사형인 ‘푸르게’, ‘파랗게’는 3회, 서술형인 ‘푸르고’, ‘푸르네요’, ‘파랗고’, ‘파래요’ 등은 20회 나타났다. 이는 김해연(2014)에서 ‘파랗다’와 ‘푸르다’는 서술적 사용보다 수식적 사용이 더 빈번하다고 분석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표 1> ‘푸르다’와 ‘파랗다’의 출현 빈도

	관형사형	부사형	서술형	합계
푸르다	39	2	6	47
파랗다	56	1	14	71

한편 ‘푸른색’은 3회 출현했으며, (4)의 용례와 같이 모두 단독 명사로서 사용되었다. 또한

(4)의 ‘푸른색’은 모두 ‘녹(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4) ㄱ. 일단 푸른색은 안 먹고 야채 같은 거.
- ㄴ. 제주도는 약간 산도 많고 푸른색이 많이 보이잖아.

‘파란색’은 59회 출현했으며, (5ㄱ), (5ㄴ)과 같이 색상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5ㄷ), (5ㄹ)과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도 13회 사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 (5) ㄱ. 근데 파란색 시켰는데 왜 초록색이야?
- ㄴ. 애호박 새우젓 볶음. 이거를 파란색을 내면서 또 맛도 그냥 이렇게 딱…
- ㄷ. 파란색 1호선.
- ㄹ. 뭔가 파란색 야채가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

(5ㄱ)은 ‘파란색’은 ‘초록색’과 대비되어 청색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ㄷ)의 ‘파란색’은 지하철 1호선의 노선 색을 의미하는데, 서울교통공사 누리집⁷⁾에 따르면 1호선의 색은 청색인 PANTONE 286C이다. 반면 (5ㄴ)의 ‘파란색’은 애호박의 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녹(綠)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5ㄹ)의 ‘파란색’ 역시 마찬가지로 녹(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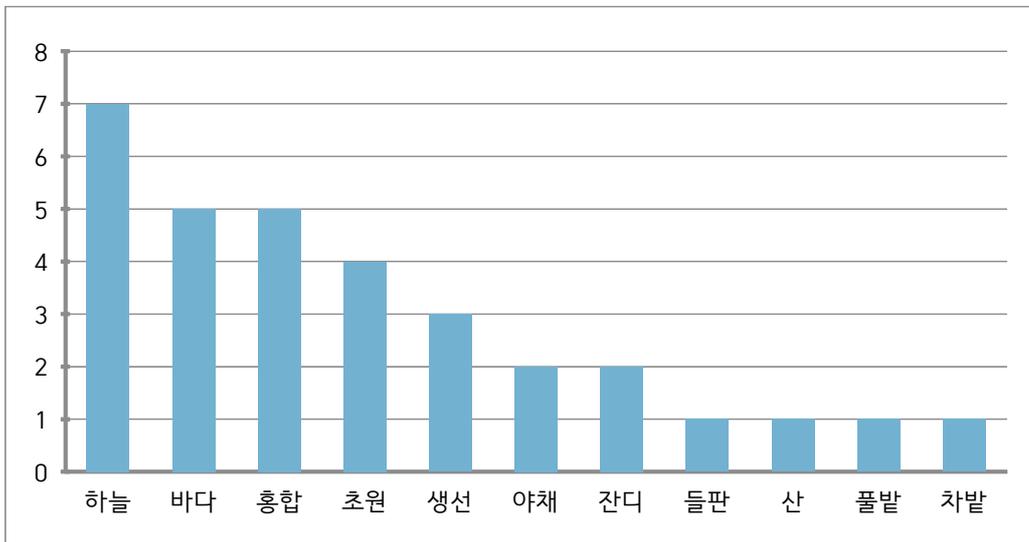
(5)를 통해 ‘파란색’이 사물의 색상을 나타낼 때는 청(靑)을 의미하고, 자연의 색상을 나타낼 때는 녹(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동근(2012)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파란색(파랴다)’에 대한 반응어에 대해 200명의 응답자 중 175명이 ‘바다’와 ‘하늘’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풀(새싹, 나뭇잎)’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blue]와 구별하여 엄연히 [green]이라고 인식하는 사물의 색깔을 말할 때는 초록색이라고 이야기하며, 관습적인 것 이외에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혼동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양성희(2021)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언중이 생각하는 푸른색과 파란색의 원형 의식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푸른색의 원형 의식으로 ‘하늘’, ‘바다’, ‘산’, ‘숲’, ‘호수’를 꼽았으며, 파란색의 주요 원형 의식으로는 ‘바다’와 ‘하늘’을 꼽았다. 이 중 파란색의 원형으로 산이나 숲 등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 계열을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와 말뭉치 용례를 통해 언중들은 ‘파란색’의 색채 정보를 기본적으로 청(靑)으로 인식하지만, 자연과 관련된 명사를 수식하거나 자연을 나타낼 때는 녹(綠)의 의미를 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 관형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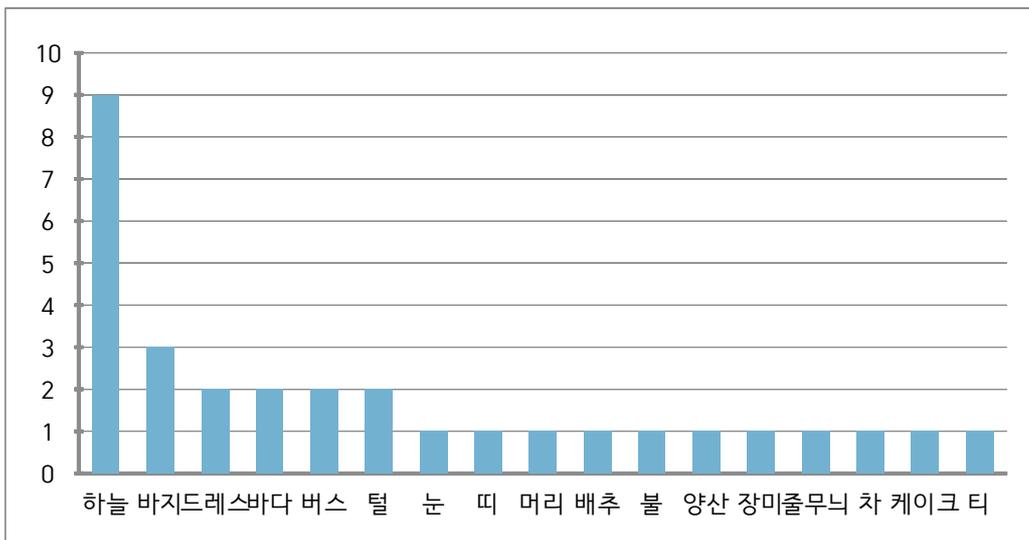
실제 말뭉치에서 보이는 ‘푸른’과 ‘파란’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형사형 ‘푸른’과 ‘파란’과 결합하는 명사들의 빈도는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푸른’은 사전의 뜻풀이와 같이 ‘하늘’, ‘바다’, ‘초원’ 등 청(靑)과 녹(綠)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자연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란’은 ‘하늘’, ‘바다’와 같은 자연을 수식하기도 하지만, ‘푸른’과는 달리 ‘바지’, ‘드레스’, ‘버스’ 등 구체적인 사물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 관계를 이루는 특징을 보였다. ‘푸르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수식하거나 비유적인 표현에 더 많이 사용되며, ‘파랴다’는 구체적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김해연, 2014).

7)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8&bbsIdx=2207411>

‘하늘’은 ‘푸른’과 ‘파란’에서 모두 빈도 수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바다’를 살펴보면 ‘푸른 바다’가 5회 나타났지만, ‘파란 바다’는 2회 나타났다.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파랗다’의 뜻풀이에 ‘깊은 바닷물’을 포함시키고, ‘푸르다’의 뜻풀이에는 바다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두 어휘의 뜻풀이에 모두 ‘깊은 바다와 같’다고 기술하였지만, 사전 뜻풀이와는 달리 말뭉치에서는 ‘파란 바다’보다 ‘푸른 바다’가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 이는 이선영(2012)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종합일간지의 텍스트에서도 ‘푸른 바다’는 잘 쓰였지만, ‘파란 바다’는 잘 쓰이지 않았다. ‘푸르다’와 ‘파랗다’는 모두 바다를 수식하는 어휘가 될 수 있지만, 언중은 ‘파란 바다’보다는 ‘푸른 바다’를 더 자연스럽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63> ‘푸른’이 수식하는 명사 빈도



<그림 1164> ‘파란’이 수식하는 명사 빈도

(6)는 ‘푸른’과 ‘파란’이 공기하는 명사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들의 예이다. (6)의 용례는

모두 청(靑)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6) ㄱ. 그런 푸른 하늘을 보면 힘이 나서 나는 맑은 날씨를 좋아해.
ㄴ. 세상에 그렇게 잔잔하고 맑고 푸른 바다는 처음이었어.
ㄷ.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에
ㄹ. 그 옆에 검은 티 파란 바지

(6ㄹ)의 ‘파란 바지’의 ‘파란’은 색채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녹색보다는 청색에 가깝다고 추측할 수 있다. ‘파랴다’는 [blue]만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으며, ‘푸르다’는 자연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주로 사용된다(양성희, 2021). 앞서 (5)의 ‘파란색’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이 아닌 인공적인 사물의 색을 ‘파랴다’고 표현할 때는 청(靑)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7)을 통해 명확하게 색을 파악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해 청(靑)을 가리킬 때는 ‘파란 불’, 녹(綠)을 가리킬 때는 ‘초록 불’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ㄱ.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이네.
ㄴ. 티웨이는 23일 출발이 초록불이네.
ㄷ. 그리고 거기 신호등 막 초록 불 사람 가만히 안 있고 뛴다.

주식 차트가 하락할 때 청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7ㄱ)의 ‘파란’은 청(靑)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ㄴ)의 ‘초록불’은 티웨이 항공의 이벤트 운임 표시 색깔을 의미한다. 티웨이 항공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 운임은 명확하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7ㄷ)은 대만의 신호등의 보행자 출발 신호에 대한 대화의 일부이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⁸⁾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에서는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라는 음성이 안내된다. 양성희(2021)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95%의 언중이 교통 신호등의 출발 신호의 색을 초록색으로 인지하고, ‘초록불’이라고 응답한다고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청신호와 파란불만 등재되어 있지만, 《우리말샘》에는 청신호, 파란불, 초록불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언중이 신호등의 출발 신호를 청(靑)이 아니라 녹(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부사형

관형사형에 비해 부사형 ‘푸르게’와 ‘파랴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 (8) ㄱ. 나무도 푸르게 열려 있고.
ㄴ. 들판이 푸르게 있다고 해야 되나?
ㄷ. 못 먹어서 갑자기 막 세상이 막 파랴게 보이고.

(8ㄱ)과 (8ㄴ)에서 ‘푸르게’는 각각 ‘열리다’와 ‘있다’를 꾸며 주고 있다. (8ㄷ)의 ‘파랴게’는 청(靑)의 의미가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파랴다’

8)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20428170215960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9) 「1」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새싹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

「2」 춤거나 겁에 질려 얼굴이나 입술 따위가 푸르게하다.

㉠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여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여인의 입술이 공포에 파랗게 질려 가는 것 같았다.

「3」 (비유적으로) 언짢거나 성이 나서 냉랭하거나 사나운 기색이 있다.

㉠ 얼굴이 파래서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한다.

문이 열리고 주인아주머니의 파랗게 성을 내고 있는 얼굴이 어슴푸레한 석유 등잔 불에 비쳐 보였다. <<한승원, 앞산도 첩첩하고>>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에서의 ‘파랗게’는 하늘이나 바다의 색을 의미하는 색채어와는 거리가 멀다. ‘세상이 푸르게 보인다’라고 바꾸었을 때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8ㄷ)의 ‘파랗게’는 사전적 의미의 「2」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3. 서술형

‘잔디도 푸르고’, ‘하늘이 파래요’와 같이 ‘푸르다’와 ‘파랗다’는 접속어미나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서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용례는 ‘푸르다’는 6회, ‘파랗다’는 14회 나타났다.

(9) ㄱ. 물도 많고 풍요롭고 이렇게 산에 푸르고 잔디도 푸르고.

ㄴ. 더 하늘이 푸르고 높았던 거 같습니다.

ㄷ. 그때 가서 본 그 바다가 너무 파랗다는 거

ㄹ. 오늘 하늘이 참 파래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푸르다’는 ‘산’, ‘잔디’와 같이 녹(綠)을 의미하는 어휘와도 공기하고, ‘하늘’과 같이 청(靑)을 의미하는 어휘와도 공기하고 있다. ‘파랗다’는 ‘바다’와 ‘하늘’과 공기하고 있다. 서술적 용법에서 ‘푸르다’와 ‘파랗다’는 대부분 자연 환경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 말뭉치를 통해 ‘푸르다’와 ‘파랗다’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 두 어휘를 대상으로 말뭉치 분석을 하여 그 의미를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푸르다’와 ‘파랗다’는 모두 청(靑)과 녹(綠)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색채어이다. 말뭉치 분석 결과 ‘푸르다’에 비해 ‘파랗다’가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서술적 용법에 비해 수식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파랗다’가 사물의 색상을 나타낼 때는 청(靑)을 의미하고, 자연의 색상을 나타낼 때는 녹(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의 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녹색 사물을 말할 때는 ‘파란

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말뭉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그 용례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정보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20428170215960
- 서울교통공사 <http://www.seoulmetro.co.kr>
- 구본관(1998),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5~50.
- 김광순(2019), 「색채어 {검다}, {까맣다}의 사용 양상과 의미 유형」, 담화와 인지 26-3, 담화·인지언어학회, 1~21.
- 김아림(2023), 「유의어 관계 색채 형용사 사용 양상 비교」, 언어와 언어학 101,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30.
- 김해연(2014),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색채 어휘 파랗다와 푸르다의 의미와 용법 비교 분석」, 『한국어 의미학』 46, 한국어의미학회, 79~110.
- 나연수(2024), 「푸른 한복 입은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앵커리포트]」, 『YTN』, 2024.06.10., https://www.ytn.co.kr/_ln/0104_202406101528234735
- 박동근(2012), 「한국어 기본 색깔말의 원형과 뜻풀이」, 『문법 교육』 16, 한국문법교육학회, 111~139.
- 손세모돌(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133~165.
- 신현숙·박건숙, 「한국 문화에 나타난 색채어 의미 연구: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341~370.
- 양성희(2021), 「교통 신호등 파란불과 초록불의 혼용 -‘푸르다’의 색채 범주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학』 97, 국어학회, 341~372.
- 이범희(2024), 「[2024갑진년] 청룡의 해 ‘푸른 용’ 마케팅 돌입한 기업들」, 『일요서울』, 2024.01.02.,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34>
- 이선영(2012), 「국어의 기본 색채어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2, 국어국문학회, 143~170.
- 이현남(2024), 「[키워드로 보는 명화이야기]청룡(靑龍) 2024 청룡이 왔다」, 『광주매일신문』 2024.01.11.,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04969563619908036>

■ 토 론

“‘푸르다’ 계열 색채어 의미 연구”에 대한 토론문

윤재연(호서대)

본 연구는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 말뭉치를 통해, 각 단어의 공기 관계를 조사하고, 빈도를 분석하여, ‘푸르다’와 ‘파랗다’가 의미적 측면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한국어는 색채어가 발달한 언어이자, 동일한 색을 지칭하는 유의어 또한 매우 발달한 언어라는 점에서, 색채어의 의미 연구는 한국어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직관만으로는 유의적 색채어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말뭉치를 바탕으로 유의적 색채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직관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어휘의 의미를 정교화하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론이라 봅니다. 본 논문에 대한 토론은,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과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연구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본 논문의 제목은 “‘푸르다’ 계열 색채어의 의미 연구”이고, 서론에서는 색채어 ‘푸르다’와 ‘파랗다’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며, ‘3. 연구방법’에서는 “‘푸르다’류와 ‘파랗다’류의 단어가 출현한 빈도를 세고 ~”라고 기술하였고, <표 1>에서는 ‘관형형, 부사형, 서술형’의 빈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표 1> 아래에는 ‘파란색’과 ‘푸른색’의 분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좀 더 명료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푸르다’ 계열의 색채어의 “범위”, 즉, ‘푸르다’ 계열의 색채어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말뭉치에서 추출/주목한 구체적인 대상 어휘가 무엇인지, 이를 분명히 정리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 1> 바로 아래에서, “한편 ‘푸른색’은 3회, ‘파란색’은 59회~”라고 하여, ‘푸른색, 파란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4. 연구결과’의 하위 절을 <표 1>에 제시한 ‘관형형, 부사형, 서술형’별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의 전개는 체계적이지 않은 면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푸른색’과 ‘파란색’의 분포와 그 의미는, ‘푸르다’와 ‘파랗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이를 왜 기술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4장 전체 구성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는 ‘푸르다’ 계열 색채어의 의미 파악을 위해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휘 목록에, ‘푸른색’과 ‘파란색’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푸르다 계열의 색채어’ 연구에서, 그 연구 대상 어휘로서 ‘푸른색’과 ‘파란색’의 합성명사는 배제하였다는 식으로, 말뭉치에서 추출한 구체적 대상 어휘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기술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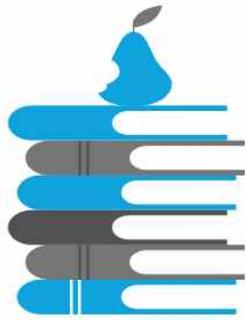
2.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도 명확히 하면 좋겠습니다.

‘3.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일상 대화 말뭉치’와 ‘온라인 대화 말뭉치’를 선택한 뒤, 말뭉치에서 발화 형식만을 추출하여 ‘푸르다’류와 ‘파랳다’류의 단어가 출현한 빈도를 세고, 해당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의 목록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말뭉치에서 ‘발화 형식’을 추출하였다고 했는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말하는 ‘발화 형식’의 개념 또는 ‘발화 형식’을 판단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엄밀히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연구자가 분석한 말뭉치 전체 규모도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연구에는 연구자가 분석한 말뭉치의 전체 규모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분석한 말뭉치의 전체 규모나 추출한 발화 형식의 전체 규모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연구자가 제시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4. 연구결과’의 <표 1>에서는 ‘푸르다’와 ‘파랳다’의 출현 빈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추출한 말뭉치의 전체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출현 빈도가 ‘푸르다’와 ‘파랳다’ 두 유의어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표 1>에 따르면, ‘푸르게’ 2회, ‘파랳게’ 1회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4.2. 부사형’에서는 “관형사형에 비해 부사형 ‘푸르게’와 ‘파랳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표 1>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관형형’과 ‘부사형’의 출현 빈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를 ‘푸르다’와 ‘파랳다’의 의미적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살핀 말뭉치의 규모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4. 연구 결과’는 ‘4.1. 관형형, 4.2. 부사형, 4.3.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4.2.’와 ‘4.3.’의 핵심 논의는 ‘푸르다’와 ‘파랳다’의 부사형과 서술형의 “출현 빈도”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형사형에 비해 부사형 ‘푸르게’와 ‘파랳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푸르다’와 ‘파랳다’의 서술형이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푸르다’와 ‘파랳다’의 의미 차이를 구명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푸르다’와 ‘파랳다’의 의미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어휘의 공기 관계에 좀 더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본 논문에서 ‘푸르다’와 ‘파랳다’의 “공기 관계”에 대해서는 ‘4.1. 관형형’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좀 더 분석적이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제1부 제2 발표장

의미론

[한말어] HANMALLANGUAGE
RESEARCH CIRCLE
한말연구학회

어휘상 연구의 단위와 어휘부 표상

이찬영·윤나영(연세대)

— < 차 례 > —

1. 서론
2. 어휘상 연구의 단위
3. 어휘부 표상 실험
4.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언어학에서 동사의 어휘상(lexical aspect)은 시제 및 문법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문장의 내적 시간 구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Vendler 1957, 1967; Verkuyl 1972, 1993; Comrie 1976, Dowty 1979, Bach 1981, 1986; Smith 1991, Bertinetto 1995 등). 국내 연구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아 특히 Vendler(1957)에서 제안한 어휘상 부류를 기준으로 상태(states), 행위(activities), 완수(accomplishments), 달성(achievements)과 같은 범주 내에 한국어 동사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혼란을 겪었는데, ① 영어 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가 상 검증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② 부가어에 따라 상적 자질이 변화하는 것, ③ 동사의 다의성에 따른 상적 자질 판단, ④ 동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상적 중의성, ⑤ 현실 세계와 언어의 경계가 모호한 점 등 때문이다.

①과 관련하여, 영어 중심의 논의에서 상태동사로 분류되는 ‘know, believe love’와 같은 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 ‘알다, 믿다, 사랑하다’가 상태동사가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②와 관련해서는 Vendler가 구분한 상적 부류의 예시로 든 대부분이 ‘drive a car’, ‘paint a picture’와 같이 동사가 아닌 동사구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해 동사 자체만의 어휘상을 판단해야 할지,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 및 부가어가 포함된 구나 문장의 상적 유형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

한편 동사의 기본적 의미 외에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에 의하여 의미 항목에 따라 상적 자질이 달라지는가 하면(조민정 2007), ‘찾다’, ‘이기다’와 같은 일부 동사의 경우 의미의 근본적인 중의성으로 인하여 상 유형을 하나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찾다’의 경우 ‘살피다’의 의미는 행위동사로, 그 결과 상태인 ‘발견하다’의 의미는 완수동사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유세진 외 2008, 최동주 2021).

위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어휘상 연구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최소의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

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유현경(2024)에서는 상적 자질에 따른 동사 분류는 어휘부 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자질에 한정해야 하며, 부가어 교체 등에 의하여 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동사의 어휘상이 가진 의미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동사 ‘생각하다’의 어휘상을 검증하여 ‘생각하다’의 사전 기술에서 격틀로 나눈 대부류와 상적 자질 분류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동사의 본유적인 어휘상을 기준으로 구 이상의 단위에서 상적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유현경(2024)의 논의는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휘부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자질을 어휘상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면, 동사의 다의 항목들은 실제로 어휘부 내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있고, 또 격틀과 같은 통사구조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유현경(2024: 26)에서 논의한 ‘(강물에) 빠지다’와 ‘(사랑에) 빠지다’ 외에도 ‘(생각에) 빠지다’, ‘(궁지로) 빠지다’ 등 ‘빠지다’의 여러 의미가 화자 어휘부에 어떠한 모습으로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어휘상 분석의 대상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언어학적 실험을 수행하여 동사의 동형성, 다의성과 관련한 어휘부의 모형을 상정함으로써 어휘상 연구의 단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어휘상 연구의 단위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논한다. 3장에서는 심리언어학적 실험법인 점화 어휘 판단 과제(priming lexical decision task)와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semantic relatedness judgement task)를 수행하여 동사의 다의 항목 간의 어휘부 내 관련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동사의 다의 항목을 중심으로 한 어휘부 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상 연구의 대상에 대해 논의한다.

2. 어휘상 연구의 단위

어휘상(lexical aspect)은 문법상(grammatical aspect)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사 등이 나타내는 사태의 시간적 구조와 관련된 의미적 속성을 뜻한다. 동사의 어휘상으로 인하여 문장에 ‘-고 있-’, ‘-어 있-’과 같은 문법상 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적 속성이 서로 다른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

- (1) 가. 메리가 와인을 마셨다.
- 나. 영희가 집을 지었다.
- 다. 철수가 산 정상에 도착했다.

(1가)의 와인을 마시는 상황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며, 특별한 완료 시점이 지정되지 않는다. 반면 (1나)의 사건에는 집이 다 지어지면 사건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끝점(endpoint)이 있다. (1다)의 경우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이

1) 범언어적으로 사태의 시간적 구조는 주로 동사로 표현되므로 어휘상 연구의 대상 역시 동사가 주를 이룬다. 한국어의 경우 서술성 명사(술어 명사)는 의미적으로 사태를 나타내므로 상적 자질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원대성(1985), 이병규(2009) 등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한편 동사는 때때로 형용사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형용사와 구분되는 품사 중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유현경 2024: 4 각주1). 한국어 문법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함께 묶어 ‘용언’이라는 상위 범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동사’라는 용어를 형용사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필요하지만, 정상 자체에 도달하는 사건 자체는 산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산 정상으로의 아주 순간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가~다)에서 나타나는 사태의 시간적 구조에 대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동사가 문장의 상적 특성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동사가 가지는 내적인 상적 자질은 논항이나 부가어의 결합을 통하여 다른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가. *청년이 산 정상에 도착하고 있다.

가. 등산객들이 산 정상에 도착하고 있다.

나. 메리가 와인을 마셨다.

나. 메리가 와인 한 병을 마셨다.

‘도착하다’는 내재적인 상적 자질에 따라 순간동사로 분류된다.²⁾ 따라서 (2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 있-’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가)에서와 같이 주어가 복수화될 때에는 행위동사와 같이 해석되어 ‘-고 있-’과의 결합이 자연스러워진다. 한편 ‘마시다’는 일반적으로 (2나)에서와 같이 행위동사로 해석되는데, (2나)에서는 ‘한 병을’이라는 부가어로 인하여 [+종결성]을 얻고 완수동사와 같이 해석된다. 이처럼 특정한 동사가 문장 내에서 다른 요소들과 함께 출현함에 따라 어휘상적 해석이 달라지는 현상은 매우 빈번하게 관찰되며, 국내외 여러 논의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도착하다’, ‘마시다’와 같은 동사의 어휘상이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정문수(1982)에서는 ‘노래를 불렀다’와 같은 문장의 ‘부르다’는 [-완성성] 자질을 가지지만, ‘노래 한 곡을 불렀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부르다’는 [+완성성] 자질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황병순(2000)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상적 특성이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동사 ‘열리다’는 기본적으로 [-과정성]의 상적 특성을 갖는 동사인데,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와 같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상황에서는 [+과정성]의 특성을 지닌 동사로 바뀐다는 것이다.³⁾ 김경학(2002)에서는 (2나, 나)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행위동사가 결합하는 부가어에 따라 완수동사로 변하며, 이때 이른바 ‘완결성 교체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Van Valin & LaPolla(1997)에서는 이와 같은 동사의 어휘상을 별도로 분류하여 ‘행위-완수동사(active accomplishments)’ 부류로 구별하였는데, 이는 동사의 어휘상이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변화한다기보다는 애초에 동사에 행위상황과 완수상황이라는 두 가지 상적 의미가 표상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⁴⁾ 그러나

2) 어휘상 자질에 대한 명칭과 속성, 부류의 기준과 체계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어휘상 자질의 분류 기준 및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어휘상에 따른 동사의 부류인 ‘상태동사(states)’, ‘행위동사(activities)’, ‘완수동사(accomplishments)’, ‘달성동사(achievements)’, ‘순간동사(semelfactives)’로 제시하도록 한다.

3) 황병순(2000)은 이밖에도 결합하는 문법 표지에 따라서 동사의 상적 특성이 선택된다고 보았다. 동사 ‘떨어지다’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국면과 바닥에 닿은 상태가 지속되는 국면, 즉 ‘움직임’과 ‘움직임의 결과 상태 지속’이라는 상적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아래의 (가)에서는 ‘움직임’이, (나)에서는 ‘움직임의 결과 상태 지속’이 선택되어 쓰였다는 것이다.

가. 낙엽이 떨어진다.

나. 낙엽이 떨어져 있다.

4) 이영희(2011)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다’, ‘(편지를) 쓰다’, ‘(장갑을) 짜다’와 같은 동사들이 완수 상황과 행위상황의 시간적 특성을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이들 동사를 ‘완성·활동상황’ 부류로 구분하였다.

이 역시 상적 자질의 가변성을 논했다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앞선 논의들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논항을 배제하고 순수한 동사만의 상적 속성을 살펴보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역시 존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상적 속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동사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 번거롭거나 의미가 없다고 보며, 어휘상에 따른 동사 부류를 구분할 때 ‘동사’가 아닌 ‘동사구’ 또는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Dowty(1979: 63)에서는 동사가 아닌 동사구 차원에서 어휘상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erkuyl(1993)에서도 역시 명사구의 의미가 문장 전체의 상적 특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어-술어(VP 및 S) 구조의 수준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휘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상적 부류(aspectual class)’ 또는 ‘상황상(situation aspect)’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의 경우 이호승(1997)에서는 동사의 어휘상이 논항과 부가어의 의미 특성이 합성되어 다르게 실현된다는 점에서 동사구를 대상으로 상황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형 이론을 적용하여 원형적인 상황 유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홍윤기(2002)는 상적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장 및 동사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별 동사에는 변화하지 않는 본질적인 상적 값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동사이거나 직접 목적어만 있는 경우와 같이 가장 간단한 문장에 대한 동사의 상적 자질이 본유적인 자질이라고 본 것이다. 예컨대 ‘걷다’는 ‘S가 걸었다’와 같은 가장 간단한 구조의 문장에서 [-한계성]을 가진다. 반면 ‘짓다’는 ‘S가 O를 지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한계성]을 가진다. 반대로 문장이나 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 유형은 어휘나 문법의 상적 특성의 조합에 의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상황의 양상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편 조민정(2007)은 이호승(1997), 홍윤기(2002)와 비슷하게 동사구를 어휘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논의의 대상은 ‘N을 감다, N을 갖추다’와 같이 기본적으로 동사 및 동사가 하위범주화하는 논항으로 구성된 단위라는 점에서 앞의 두 연구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조민정(2007)에서는 동사구의 개념구조는 동사와 그것이 요구하는 명사구 그리고 부가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영희(2011)은 문장 안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여 어휘상을 파악하려 한다면 동사 고유의 내적 시간구성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어휘상 분류의 단위는 ‘동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때의 동사는 ‘(눈을) 감다’와 ‘(로프를) 감다’처럼 동사의 어휘 의미 정도는 확정지을 수 있도록 최소의 논항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휘부에는 동사의 의미를 확정하는 보충어가 동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해권(2021)에서는 동사의 내재적 상적 의미만을 ‘어휘상’으로 보고, 동사구, 부사구, 조사와 같은 어휘 항목을 통해 드러나는 상은 ‘결합상(compositional aspect)’이라는 Verkuyl(1972)와 Filip(2012)의 논의를 받아들여 동사를 대상으로 한 어휘상과 동사구를 대상으로 한 결합상이 별개의 개념인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동사구의 상’을 어휘상으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결합상과의 구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휘상’은 동사 또는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을 포함한 최대 단순 문장(maximally simple sentence)에서 드러나는 동사의 내재적 상적 속성을 가리키는 술어이고, ‘상적 부류’ 혹은 ‘결합상’은 이를 포괄하면서 동사구와 문장 전체의 상적 의미까지를 다루는 더 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영희(2011)과 정해권(2021)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어휘상 연구의 단위로 본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동사 어휘소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홍윤기(2002), 조민정(2007)과 이영희(2011), 정해권(2021)의 견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의 논항을 포함한 동사가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상이 존재하고, 논항의 복수화, 부정 표현 공기 또는 부가어의 결합에 따라 문장 전체의 상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데에는 동의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유현경(2024)에서는 이처럼 동사가 실제로 문장에서 쓰일 때 다른 해석을 갖는 경우에 대한 어휘상적 판단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어휘상에 따른 동사의 분류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에 내재되어 있는 상적 자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상적 자질로 동사를 분류하는 것과 실제로 문장에서 쓰일 때 다른 해석을 갖는 것은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사 자체의 의미 구조를 밝히는 것이 어휘상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어휘상으로 분류되는 동사가 문장에서 다른 유형의 상적 해석을 받는 것은 해당 동사가 가지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가. 철수가 달린다.

나. 철수가 {10킬로를/한 시간을} 달린다.

(3)은 Vendler(1957: 145-146)에서도 제시된 예로, (3가)에서 ‘달리다’는 행위동사의 성격을 보이지만 (3나)에서와 같이 ‘10킬로를/한 시간을’과 같은 부가어가 결합하면 완수동사로 해석된다. 유현경(2024: 10-11)에서는 (3나)의 경우 동사가 실제로 문장에서 부가어 등과 쓰일 때 다른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는 (3가)에서 나타나는 동사 자체의 상적 자질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주장이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사에 내재해 있는 기본적인 상적 자질이 존재하며, 이들이 실제 문장에 쓰일 때에는 논항 및 부가어와의 결합으로 인해 다른 상적 자질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휘상 연구의 단위는 문장이 아닌 동사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다. 다만 이때의 동사란 어휘소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논항을 동반한 동사구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그런데 이때 마지막 사항, 즉 ‘동사’와 ‘동사구’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입장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연구에 따라 ‘동사’ 또는 ‘동사구’라 명명하기도 하고, 반대로 ‘동사구’라 명명하는 개념의 외연이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상 연구의 단위를 동사의 ‘어휘 내항(lexical entry)’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어휘 내항이란 어떤 언어 단위에 대해 명세되어(specified) 있는 음운·형태·통사·의미 등 여러 층위에 걸친 정보의 집합을 뜻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동사에 내재해 있는 상적 자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이는 곧 해당 동사의 어휘 내항에 명세되어 있는 의미 정보 중에서 상적 자질과 관련된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휘 내항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통사 층위의 정보이다. 동사에 명세되어 있는 통사 층위의 정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논항 구조이다. 그런데 이때 논항 구조 정보는 대체로 필수 논항만이 명세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5) 조민정(2007)에서는 동사구의 개념구조에 동사와 명사구 및 부가어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상 변화의 대상이 되는 동사구의 경우에는 부가어가 결합하지 않고 논항 명사구 역시 무표적인 것들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영어 어휘소 LAUGH의 어휘 내향 (Sag 2012: 111)

PHON	/læf/
FORM	<laugh>
ARG-ST	<NP _i >
SYN	syn-obj
SEM	sem-obj

(4)에서 ‘ARG-ST’는 논항 구조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자동사의 필수 논항인 주어 NP만이 명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홍윤기(2002)에서 “가장 간단한 문장에 대한 동사의 상적 자질”이라고 언급한 것, 이영희(2011)에서 “최소의 논항은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 등은 곧 해당 동사의 어휘 내향에 명세되어 있는 논항 구조 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치환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개별 동사 자체의 어휘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사가 보이는 다의성(polysemy)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하나의 동사가 두 개 이상의 상적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항목이 지닌 다의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5) 가. 이번 장마로 강물이 넘을지도 모르겠다.

나. 통에 물이 넘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네.

(6) 가. 우리는 처음으로 설악산을 넘었다.

나. 보시오. 저들은 지금 국경을 넘고 있소.

조민정(2007: 166-168)에서는 (5)의 ‘넘다’는 ‘(일정한 데 가득 차고 나머지가) 그 밖으로 나오다’라는 행위동사구적 성격을 보이는 반면, (6)의 ‘넘다’는 ‘(무엇을) 건너 지나다’의 의미로 완수동사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⁶⁾ 즉 동일한 동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상적 자질이 변화하는 양상을 포착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다의어로 처리할 것인지 동형어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였다.

유세진 외(2008)에서는 동사 ‘찾다’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상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7) 가. 나는 지금 서울로 가는 열차를 찾고 있다.

6)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동사 ‘넘다’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I. 1이 넘다

1. (일정한 데 가득 차고 나머지가) 그 밖으로 나오다.
2. ㉠ (일정한 수치보다) 많아지다.
㉡ (일정한 정도) 이상이 되다.

II. 1이 2를 넘다

1. ㉠ 낮은 곳에서 높은 데를 지나서 다른 낮은 곳으로 가다.
㉡ (무엇을) 건너 지나다.
㉢ (경계선을) 지나다.
2. (어려움을) 겪고 지나다. 벗어나다.
3. [‘넘어(서)’의 꼴로 쓰이어] (어떠한 것) 이상의.

- 나. 나는 지금 서울로 가는 열차를 찾는다.
- 다. 나는 마침내 서울 가는 열차를 찾았다.

(유세진 외 2008: 160)

(7가), (7나)의 ‘찾다’는 현재 열차를 찾고 있는 상황이 진행 중이며 아직 찾지는 못했음을 나타내는 반면, (7다)는 열차를 찾았음(발견했음)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전자는 행위동사로, 후자는 달성동사로 구분될 수 있다. 유세진 외(2008)에서는 이들을 의미 해석에 따라 동형어(동음이의어)로 분석하지 않고, 완수동사(accomplishments)의 일종으로 보고자 하였다. ‘찾다’를 단순한 동형어로 분석하는 방식이 전산 처리나 사전 편집상의 편리함 때문에 선택될 수 있으나, ‘찾다’의 상적 의미들이 사건 구조의 당연한 결과로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다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유현경(2024)에서는 동사의 다의성과 관련하여 어휘상 연구의 대상을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의미론적 단위로서의 동사구’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특정 동사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모든 양상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동시에, 다의 의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맥락에서 드러나는 문맥적 의미가 아니라 어휘부 내에서 표상되어 있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적 자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생각하다 「동사」

1 【…을】

- 「1」 그는 사고의 원인을 생각했다. → 행위동사
- 「2」 그는 첫사랑을 생각했다. → 행위동사
- 「3」 그는 돈벌이만을 생각했다. → 행위동사
- 「4」 그는 사퇴를 생각했다. → 행위동사
- 「5」 그는 탈출을 생각했다. → 행위동사
- 「6」 그는 이웃을 생각했다. → 행위동사

2 【…을 …으로】 【…을 -게】 【…을 -고】 【-고】

- 그는 아버지를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 상태동사

유현경(2024: 22-24)에서는 동사 ‘생각하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고 있다/-는 중이다’ 결합 여부, ‘T-동안/T-만에’ 결합 여부, ‘V-다가 말다’ 구문의 ‘V-었다’ 함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1~6번 의미는 행위동사로, 마지막 의미는 상태동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생각하다’는 행위동사와 상태동사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동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전 기술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생각하다’가 격투, 즉 논항 구조에 따라 상적 자질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논항 구조도 동일한데 다의 항목의 차이에 따라 상적 자질이 달라지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⁷⁾

7) 본고에서는 국어사전의 거시·미시구조를 가리키는 개념과 화자의 심리 어휘부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어사전이 화자의 심리 어휘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두 차원에 대해 ‘동형어(항목)’, ‘논항 구조/격투’, ‘다의(항목)’과 같은 용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9) 가. 수정이가 호수에 빠졌다.

나. 수정이가 사랑에 빠졌다.

(유현경 1994: 188)

유현경(2024: 30-32)에서는 (9)에 제시된 ‘빠지다’의 두 의미에 대한 상적 특성을 검증한 결과 (9가)는 달성동사로, (9나)는 상태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인 ‘(호수에) 빠지다’와 별개로 ‘사랑에 빠지다’는 복합 술어로서 어휘부에 등재된 의미 단위라는 데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곧 “어휘상 연구의 단위는 (동사가 출현한 개별 문장이 아닌) 어휘부에 표상되어 있는 동사의 의미 항목 및 그에 대한 어휘 내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동사의 다의성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어휘상 연구의 단위가 어휘부에 표상되어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면, 동사의 다의 항목들은 어휘부 내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 예컨대, (5)와 (6)에 제시된 ‘넘다’의 두 가지 의미는 어휘부에 하나의 항목으로 표상되어 있는가, 아니면 별개의 독립된 항목으로 표상되어 있는가? 한편 (8)에 제시된 ‘생각하다’의 여러 가지 의미 항목들은 어휘부에 각각 독립적으로 표상되어 있는가, 아니면 논항 구조에 따라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가? 즉 다의 항목을 지니는 동사들이 어떠한 모습과 방식으로 어휘부에 표상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어휘상 자질을 검증하고 분석할 대상을 확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언어학적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동사의 다의성과 관련한 어휘부의 모형을 상정하고자 한다.

3. 어휘부 표상 실험

본 연구에서는 동사의 동형성 및 다의성을 중심으로 하여, 의미 항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휘부에 표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어휘상 연구의 단위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심리 어휘부는 화자가 지닌 심리적 저장소로서, 이미 산출된 언어 자료만을 통해서도 그 모습 및 운용 방식을 관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심리 어휘부를 더욱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실험의 수행과 그 결과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화 어휘 판단 과제(priming lexical decision task)와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semantic relatedness judgement task)를 수행하였다. 우선 점화 어휘 판단 과제는 두 항목이 어휘부 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어휘부 등재소들은 음운·형태·통사·의미 층위에 있어서 관련된 것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 점화 자극(priming stimulus)과 표적 자극(target stimulus)의 두 항목이 연속으로 제시되었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점화 효과(priming effect)가 나타난다면 그 두 항목은 어휘부

8) 유현경(2024: 24 각주16)에서는 ‘생각하다’의 사전 기술에서 격들로 나눈 대부류와 상적 자질의 분류가 일치하였으나 다른 동사에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즉 동사의 상적 자질이 격들과 같은 통사 구조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확장하여 동사의 동형성과 논항 구조 및 다의성이라는 다양한 층위에 걸쳐 어휘부 표상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들이 상적 자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내에서 동일한 범주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형어 또는 다의어 항목들이 각각 별개의 표상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표상에 하위 항목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두 번째로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는 동사가 포함된 두 항목을 제시하고 이들이 의미적으로 가깝고 먼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어휘 판단 과제에 비하여 간접적이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항목 쌍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동사의 다의성이 어휘부에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 실험 연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은 동형어와 다의어 항목들이 핵심 의미를 중심으로 동일한 표상 내에서 공유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표상되는지에 따라 각각 ‘핵심 입력 관점(core-meaning view)’과 ‘분리 입력 관점(separate-entry view)’으로 나뉜다(Hsiao et al. 2016: 2-4). Klepousniotou(2002)는 교차 모달(cross-modal) 문장 점화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은유적·환유적 확장어를 지닌 다의어의 표상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환유적 다의어가 은유적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보다 더 큰 점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환유적 단어의 의미 항목들은 심리어휘부에서 하나의 표상을 공유하는 반면 은유적 다의어는 의미 항목들이 개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Brown(2008)에서는 의미 관련성에 따라 ‘무관련 의미, 먼 의미, 가까운 의미, 동일한 의미’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동사구 쌍에 대한 점화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무관련 의미→먼 의미→가까운 의미→동일한 의미 순으로 점화 효과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iao et al.(2016)에서는 중국어 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의미, 가까운 의미, 먼 의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동사구 쌍에 대한 점화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Brown(2008)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멀리 떨어질수록 점화 효과가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다의어 의미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고 동일한 표상 내에서 의미가 공유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실험은 이들 연구에서 설계된 실험 패러다임을 참고하되, 어휘상 자질에 따른 어휘부 표상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그에 적절한 실험 자극 및 절차를 구성하였다.

3.1. 연구 방법

3.1.1. 실험 참가자

본 실험에 참가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63명이다. 이들 중 10명은 실험 설계를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예비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53명은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 실험 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만 19세에서 만 64세에 걸쳐 분포해 있으며, 평균 연령은 27.5세이다.

3.1.2. 실험 자료

본 실험에서는 동사의 다의성에 따라 어휘부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동사의 다의성이란 동일한 형식을 공유하는 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다의 항목들 간의 관련성 정도에 따른 차이이다.

(10) 가. 취하다

① (술, 약 따위의 기운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흐려지다.

(예) 맥주에 취하다

② (어떠한 행동을) 하다. (예) 휴식을 취하다

나. 내리다

① (위에 있는 물체를) 아래로 늘어뜨리다. (예) 깃발을 내리다

② (타고 있던 데서 밖으로 나와 목적지에) 닿다. (예) 공항에 내리다

다. 기르다

① 자르지 않고 자라게 하다. (예) 수염을 기르다

② 먹이고 보호하여 자라게 하다. (예) 자식을 기르다

라. 끝내다

(어떤 일이나 상황, 상태를) 더 할 것 없이 마무리하다.

(예) 회의를 끝내다

(예) 공사를 끝내다

(10가)의 두 ‘취하다’는 동일한 형식을 공유하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10나)에서 ‘내리다’의 두 의미 항목은 어느 정도 의미적 관련성이 있지만, 이들이 문장 내에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논항 구조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10다)에서 ‘기르다’의 두 의미 항목은 기본적인 의미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논항 구조 역시 대체로 일치하지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의 의미론적 속성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10라)는 논항으로 나타난 대상 자체가 다를 뿐,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속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두 문장에서 각각 쓰인 동사 쌍의 의미론적 관련성은 (10가) < (10나) < (10다) < (10라) 순으로 멀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0)에서 제시한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상호 비교하도록 한다.

(10)의 유형 분류에 따른 실험 자극 선정은 국어사전을 바탕으로 하였다. 즉 (10가)는 국어사전에서 ‘동형어’로 구분된 동사들이 해당되며, (10나)는 동일한 표제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격틀’ 항목에 속해 있는 동사들이 해당된다. (10다)는 동일한 표제항 및 격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다의 항목으로 구분되는 동사들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10라)는 동일한 의미 항목에 해당하는 동사가 논항 명사만을 달리한 경우가 해당된다.

<표 1> 실험 자극 유형

유형	동형어 항목	격틀	의미 항목	예
1	다름	다름	다름	맥주에 취하다 / 휴식을 취하다
2	같음	다름	다름	깃발을 내리다 / 공항에 내리다
3	같음	같음	다름	수염을 기르다 / 자식을 기르다
4	같음	같음	같음	회의를 끝내다 / 공사를 끝내다

본 실험에서는 유형별로 각각 15개의 서로 다른 동사들을 선정하였다. 실험 자극으로 쓰인 모든 동사는 서상규(2019)에서 ‘기본 어휘’로 다루어졌으며, 동시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2005)에서 빈도 10 이상으로 나타난 동사들로 한정하였다. 서상규(2019)에서는 100만 어절 규모의 한국어 균형 말뭉치 중 10개 이상의 텍스트에 나타나면서 빈도수가 15회 이상인

단어들과 그들의 동형어를 ‘기본 어휘’라 하여 총 7,203개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화자들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기에서는 《연세한국어 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각 표제어의 모든 다의 항목에 대한 의미 빈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험 자극의 선정과 배열에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실험 자극들 간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정한 조건 또는 정제 방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점화 자극과 표적 자극으로 제시되는 형식은 모두 [필수 논항 + 동사의 과거형] 구성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의 활용형을 제시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음절 수나 길이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선정된 동사들은 과거형 활용형의 음절 수가 3음절 또는 4음절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사구 전체에 있어서는 점화 자극과 표적 자극 쌍의 음절 수를 통일하였다.

각각의 자극에 있어서 점화 자극과 표적 자극이 차례로 나타나므로, 이들의 제시 순서에 있어서도 역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유형 1~유형 3의 경우 서상규(2019)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동형어/격틀/다의 항목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유형 전반에 걸쳐 점화 효과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유형 4의 경우에는 다의 항목이 동일하므로 의미 빈도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 자극에 포함되어 있는 명사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어휘상 연구의 단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어휘상 자질의 일치 여부가 실제로 어휘부 표상 방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유형 2와 유형 3의 동사구 쌍들에 대해서는 어휘상 자질 검토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선행 연구에서 어휘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거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검증 기제를 통하여 어휘상적 속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하여 실험의 결과가 어휘상적 속성의 같고 다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역시 확인하고자 한다.⁹⁾

실험 자극에 더하여 총 180쌍의 비단어(nonwords) 및 필러(filler) 자극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비단어 자극은 실험 참가자로 하여금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필러 자극은 참가자가 실험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반응의 자연성(naturalness)을 유지하고, 주요 실험 자극에 대한 피로도나 예측 가능성의 영향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 자극 및 비단어, 필러 자극에 포함된 모든 명사와 동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으며, 실험 자극 및 비단어, 필러 자극은 모두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여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비단어 및 필러 자극의 유형 및 구성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실험 자극으로 쓰인 동사 및 문장 쌍의 전체 목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비단어 및 필러 자극 유형 및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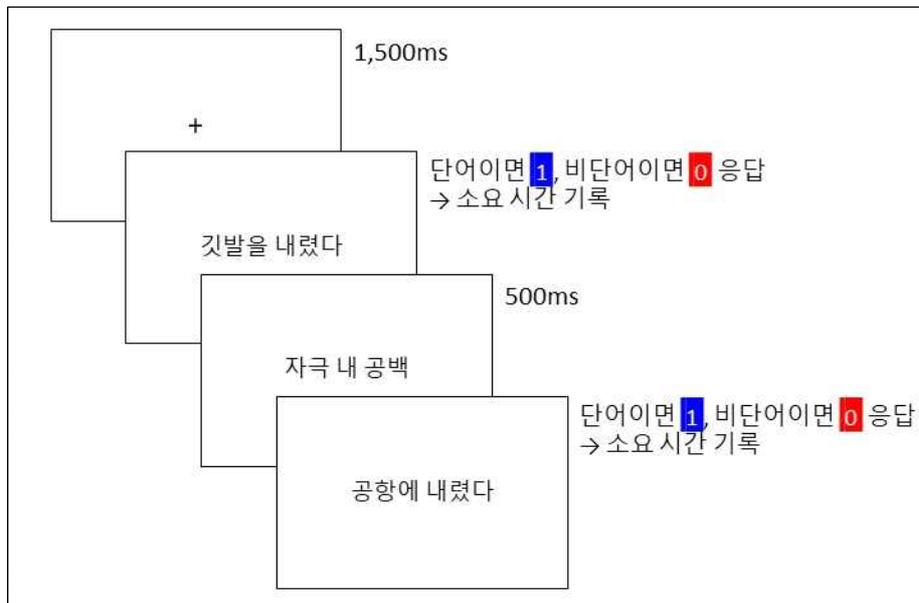
단어/비단어		명사 교체	동사 교체	예		개수
점화	표적			점화 자극	표적 자극	
단어	단어	○	○	모자로 덮었다	액체를 버렸다	30
단어	단어	×	○	벌레를 잡았다	벌레가 나왔다	30
단어	비단어	○	○	세력이 뺏겼다	굴지가 쓸렸다	20
단어	비단어	○	×	안주를 집었다	염려가 집었다	10
단어	비단어	×	○	기술을 익혔다	기술이 뿔었다	10
비단어	단어	○	○	국사가 풍겼다	바지가 젖었다	20
비단어	단어	○	×	주요가 날았다	공중을 날았다	10
비단어	단어	×	○	박스가 들켰다	박스를 실었다	10
비단어	비단어	○	○	출연이 띄었다	생가가 부었다	20
비단어	비단어	○	×	반응이 감았다	단일이 감았다	10
비단어	비단어	×	○	춘로가 밀었다	춘로가 더했다	10

3.1.3. 실험 절차

참가자들은 먼저 ①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환경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② 원활한 인터넷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③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④ 주변의 방해 없이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고 확인한 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부여된 링크에 접속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심리학 실험 설계·구동 소프트웨어인 Psychopy(ver. 2023.1.3.)를 통해 설계하였다. Psychopy는 온라인 실험 구동 플랫폼인 Pavlovia와 연동되는데, 참가자들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Pavlovia상에서 온라인 실험에 참가하였다.

점화 어휘 판단 과제는 크게 ‘참가자 설문 → 실험 안내 → 연습 시행 → 본시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연습 시행은 본시행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시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점화 자극이 제시되기 전에 컴퓨터 모니터의 중앙에 ‘+’ 형태의 응시점이 1,500ms 동안 제시된 후 점화 자극이 제시된다. 참가자는 점화 자극을 보고 그것이 한국어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인지(‘단어’) 아닌지(‘비단어’)를 판단한다. 단어이면 키보드의 ‘1’ 키를, 비단어이면 ‘0’ 키를 눌러 반응을 하였다.¹⁰⁾ 판단 직후 500ms 동안 빈 화면이 나타나고 나서 표적 자극이 제시된다. 참가자는 마찬가지로 표적 자극을 보고 그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 및 반응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의 피로도에 따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실험의 1/3이 경과할 때마다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어휘 판단에 사용되는 버튼을 ‘1’과 ‘0’으로 설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버튼이 키보드 상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거나 단어 판단 버튼이 오른쪽에, 비단어 판단 버튼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실험 참가자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단어와 비단어 버튼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인식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실험 수행 절차

제시되는 점화 자극과 표적 자극은 흰색 바탕 위 검정색 고딕체로 표시하였으며, 참가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키보드 버튼으로 입력한 판단의 결과와 반응 시간은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점화 어휘 판단 과제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에서는 Google 설문 양식을 통하여 앞서 실험 자극으로 제시된 60쌍의 문장이 무작위로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문장에 포함된 ‘동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동사의 의미가 가깝고 먼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은 두 동사구에 쓰인 동사의 의미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고, ‘7’은 가장 멀다는 것을 나타낸다. 총 소요 시간은 참가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30분 정도였다.

3.1.4. 자료 분석

본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 53명 중 1명의 데이터는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여 제외하였고, 6명의 데이터는 단어/비단어 판단 정답률이 낮아 성실하게 참가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¹¹⁾ 또한 실험 자극은 모두 ‘단어’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비단어로 판단한 응답을 제외하였다. 이후 반응 시간이 2,000ms 이상이거나 300ms 이하인 응답을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고 제외하였고, 반응 시간 평균의 $\pm 3\sigma$ (표준편차)를 기준값으로 정하고 이보다 크거나 작은 데이터 역시 제외하였다.¹²⁾ 그리고 나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z-score로 변환한 값을 본격적인 통계 검정에 이용하였다.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에서는 점화 어휘 판단 과제 결과 분석에서 제외된 참가자 자료를 동일하게 제외하였으며, 입력이 누락된 자료 역시 제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실험 항목과 참가자의 반응 시간이 결과값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11) 전체 실험 자극에 대한 단어/비단어 판단 결과의 정답률 평균이 90% 미만인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의 정답률 평균은 95.3%이다.

1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손실된 데이터는 전체의 약 18%이다.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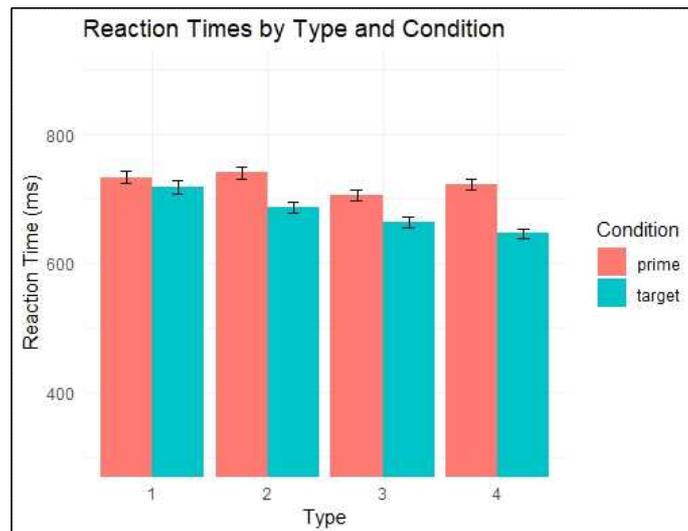
본 실험에서는 점화 자극 및 표적 자극의 조건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혼합효과 모형(mixed-effects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혼합효과 모형은 반복 측정(repeated measure)으로 이루어지며 고정 효과(fixed effects)와 임의 효과(random effects)가 함께 발생하는 심리학 실험에 적합한 통계 모형으로 알려져 널리 채택되고 있다(신정아 2019: 76-77). 모델링은 R의 패키지 중 하나인 lme4를 사용하였다(Bates et al. 2015).

3.2. 실험 결과

자극 유형별로 점화 자극 및 표적 자극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 시간 평균값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¹³⁾

<표 3> 유형별 반응 시간 기술통계

유형	N	자극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	517	점화	732.46	214.82	9.45
		표적	717.76	228.69	10.06
2	571	점화	739.73	224.05	9.38
		표적	686.44	194.72	8.15
3	568	점화	704.70	212.69	8.92
		표적	663.77	207.99	8.73
4	607	점화	722.08	217.73	8.84
		표적	645.95	173.35	7.04



<그림 2> 유형별 반응 시간

1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점화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평균’, ‘표적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평균’은 각각 ‘점화RT’, ‘표적RT’로 명명하도록 한다.

<표 3>과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유형에 있어서 표적 RT는 점화RT보다 전반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또한 점화RT와 표적RT의 차이는 유형 1에서 가장 작고, 유형 4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유형 4에서 점화 자극 제시 이후 표적 자극에 대한 참가자들의 판단 및 반응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통계적 유의성의 차원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나누어 점화RT와 표적RT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통계 모형 분석 (점화RT vs. 표적RT)

유형	추정값	표준오차	자유도	t값	p값
1	0.165	0.059	986.405	2.791	(< 0.01**)
2	-0.023	0.053	1093.064	-0.440	0.660
3	0.026	0.054	1088.684	0.477	0.634
4	-0.142	0.047	1166.000	-3.014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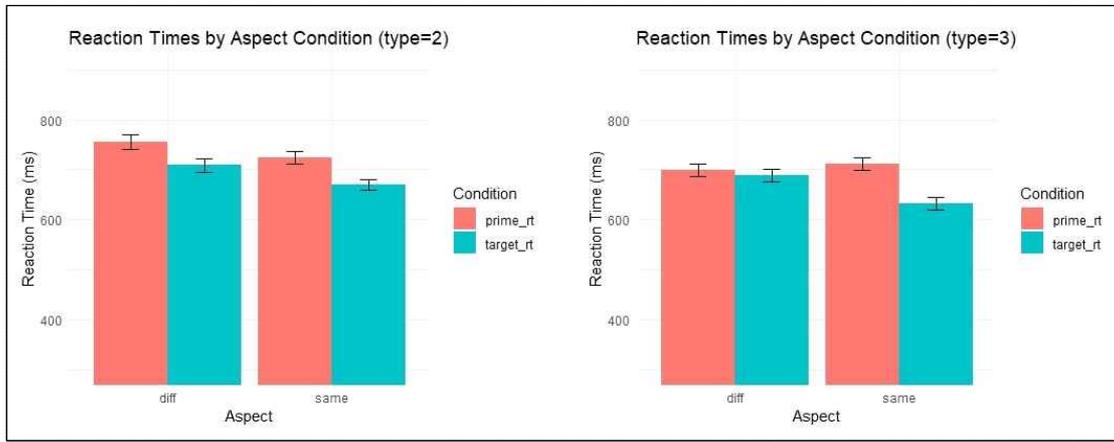
분석 결과, 유형 1과 유형 4에서는 점화RT와 표적RT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유형 2와 유형 3에서는 점화RT와 표적RT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형 1의 경우 추정값이 0.165로 나타났는데, 이는 z-score상으로 점화RT가 표적RT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본 실험의 결과 해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적RT이 점화RT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빨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유형 4뿐이라고 볼 수 있다.

점화 자극이 제시된 후 표적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빨라졌다는 것은 곧 점화 자극이 실제로 점화 효과를 유발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점화 자극과 표적 자극이 매우 밀접한 인지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반대로 이러한 점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점화 자극이 표적 자극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용이하게 할 만한 정도의 활성화를 일으키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휘부 표상의 관점에서는, 점화 효과가 나타난 유형의 항목 쌍은 동일한 표상을 지니는 것으로,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유형의 항목 쌍은 별개의 표상을 지니는 것으로 환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논항 구조와 다의 항목까지 모두 공유하되 실제 나타난 논항 명사만이 다른 유형 4의 동사 항목 쌍은 어휘부 내에서 동일한 표상을 지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동사 항목 쌍들은 어휘부 내에서 별개의 표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유형 2와 유형 3에 해당하는 실험 자극 중 일부는 상적 자질을 검증한 결과 두 문장에 포함된 동사가 동일한 어휘상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어휘상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휘상 자질의 일치 여부를 하위 그룹으로 묶어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 2와 유형 3 각각에 대하여 어휘상이 일치하는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유형 간의 반응 속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어휘상 일치 여부에 따른 유형별 반응 시간 기술통계

유형	어휘상	N	자극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2	불일치	197	점화	755.552	211.389	15.061
			표적	708.785	190.293	13.558
	일치	333	점화	724.327	226.045	12.387
			표적	669.032	192.408	10.544
3	불일치	317	점화	699.322	214.987	12.075
			표적	688.827	222.425	12.493
	일치	251	점화	711.500	209.985	13.254
			표적	632.134	183.792	11.601



<그림 3> 어휘상 일치 여부에 따른 유형별 반응 시간

<표 5>,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치상으로는 모든 유형에 있어서 점화RT에 비해 표적RT가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실험 결과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각 유형에 있어서 ‘불일치(diff)’ 유형과 ‘일치(same)’ 유형 간의 차이인데, 유형 2(좌측)의 경우 두 하위 유형 간에 점화RT와 표적RT의 차이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유형 3(우측)의 경우 두 하위 유형 간에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통계 모형 분석 (어휘상 일치 vs. 어휘상 불일치)

유형	어휘상	추정값	표준오차	자유도	t값	p값
2	불일치	0.014	0.08765	342.188	0.163	0.871
	일치	-0.0386	0.070	618.197	-0.553	0.580
3	불일치	0.174	0.076	586.875	2.281	(0.023*)
	일치	-0.162	0.072	456.290	-2.236	0.026*

유형 2의 경우 모든 하위 유형에 있어서 점화RT와 표적RT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3의 경우 두 유형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불일치’ 유형의 경우 추정값이 양수이므로 표적RT가 점화RT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표적RT이 점화RT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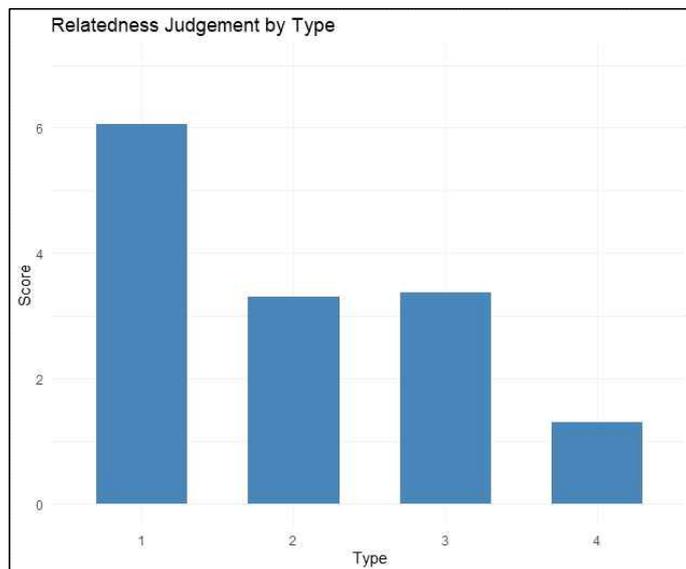
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유형 3의 ‘일치’ 유형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수행한 분석은 앞선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가정한 다의성 유형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유형 2와 유형 3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대체로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휘부 내에 별개의 표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앞선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상적 특성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재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상적 특성의 일치 여부는 유형 2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유형 3에는 영향을 미쳤다. 즉, 유형 3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다의 항목들이 별개의 표상을 지니지만, 상적 자질이 일치하는 항목들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채 표상되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상적 자질이 의미론적 속성으로서 어휘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어휘상은 사건의 시간 구조와 관련하여 가지는 내재적인 의미적 속성이므로, 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별도의 표상을 지니는 의미 항목들 중에서도 어휘상적 자질을 공유하는 것들은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양상은 동일한 논항 구조를 공유하고 다의 항목만 다른 유형 3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유형 2의 경우 논항 구조라는 통사론적 정보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적 자질을 공유하더라도 어휘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기 어렵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때, 유형 2의 경우에는 논항 명사뿐만 아니라 그에 결합하는 조사 역시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점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의미 관련성 판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의미 관련성 판단 결과를 유형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7> 의미 관련성 판단 결과

유형	N	평균
1	687	6.05
2	686	3.31
3	686	3.37
4	687	1.30



<그림 4> 의미 관련성 판단 결과

의미 관련성의 정도는 유형 1이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 4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2와 유형 3은 중간 정도에서 비슷한 수준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 1과 유형 4에 대한 판단의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및 예측에 부합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유형 2와 유형 3에 대한 관련성 정도 판단 결과이다. 유형 2는 논항 구조를 달리하는 두 쌍의 문장이 제시되었고, 유형 3은 논항 구조를 공유하되 다의 항목이 상이한 두 쌍의 문장이 제시되었다. 어휘 내항에 명세된 정보의 층위를 고려한다면 유형 2의 문장 간의 의미가 유형 3에 비해 더 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어휘부 구조, 그리고 어휘상 연구의 단위에 대하여 절을 달리하여 논의해 보도록 한다.

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점화 어휘 판단 과제 및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얻은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1) 가. 동형어 번호가 구분되는 동사 항목이 포함된 문장 쌍은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즉, 형식만 동일하고 의미가 전혀 다른 동형어는 어휘부 내에서 별도의 표상을 지닌다.
- 나. 동형어 번호는 같고 격틀이 다른 의미 항목이 포함된 문장 쌍은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즉, 논항 구조 정보가 다른 의미 항목들은 어휘부 내에서 별도의 표상을 지닌다.
- 다. 격틀이 같고 다의 항목이 다른 항목이 포함된 문장 쌍은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즉, 논항 구조 정보가 같더라도 구체적인 다의 항목이 다른 항목들은 어휘부 내에서 별도의 표상을 지닌다.
- 라. 다의 항목이 동일하고 다른 논항 명사가 포함된 문장 쌍은 점화 효과가 나타났다.
 - 즉, 다의 수준에서 동일한 의미 항목은 어휘부 내에서 동일한 표상을 지닌다.
- 마. 유형 2와 유형 3의 문장 쌍에 대한 의미 관련성 정도 판단 결과는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 즉, 다의 수준의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의미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논항 구조 정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바. 유형 2에서 어휘상 자질이 일치하는 문장 쌍과 불일치하는 문장 쌍 모두에서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즉, 논항 구조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어휘상 자질이 일치하더라도 어휘부 내 관련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 유형 3에서 어휘상 자질이 일치하는 문장 쌍에서는 점화 효과가 나타났고, 불일치하는 문장 쌍에서는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논항 구조 정보가 일치하고 다의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어휘상 자질이 일치하면 어휘부 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상 연구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단위로서의 동사 및 그 어휘 내항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의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사가 어휘부 내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자. 우선 유형 4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 모두에서 점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유형을 이루는 문장 쌍, 그리고 이에 포함된 동사 항목들이 어휘부 내에서 별개의 표상을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 1은 동형어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반면, 유형 2 및 유형 3에 대한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점을 시사한다. 앞서 우리는 유현경(2024)에서 ‘생각하다’의 다의 항목들을 대상으로 한 상적 자질 검증을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7개의 다의 항목들은 어느 격틀에 속하느냐에 따라 상적 자질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실험 결과는 이러한 검증 대상 단위가 지닌 적절성을 인지적인 차원에서 지지해 준다. 격틀, 즉 논항 구조에 따라 특정한 상적 자질로 묶일 수 있겠지만, 격틀이 동일하고 다의 항목만 다른 유형 3에 있어서도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휘상 검증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 다의 항목 층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논항 구조는 어휘 내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사태의 시간 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므로 ‘생각하다’와 같이 특정한 어휘상 부류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인 것이다. 유현경(2024)에서 제시한 ‘호수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실제로 유형 3에는 논항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어휘상 부류가 다른 문장 쌍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¹⁴⁾

- (12) 가. 나영이가 창문을 열었다.
 - 나. 나영이가 창문을 열고₁ 있다.
 - 다. 나영이가 창문을 열고₂ 있다.
 - 라. 나영이가 한 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 두었다.
- (13) 가. 찬영이가 파티를 열었다.
 - 나. 찬영이가 파티를 열고 있다.
 - 찬영이가 파티를 열었다.
 - 다. 찬영이가 세 시간 동안 파티를 열었다.
 - 라. 찬영이가 세 시간 만에 파티를 열었다.
 - 마. 찬영이가 거의 파티를 열었다.

14) 어휘상 연구의 단위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항목들을 일정한 범주 및 부류로 묶는 과정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박진호(2011)의 언급을 주목할 만하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범언어적 범주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식양태의 의미성분 없이 증거성의 의미성분만 갖는 문법요소들도 존재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범주가 필연적/개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이 두 범주를 별개의 범주로 인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두 범주가 어느 정도로 서로 독자적으로 실현되는지 아니면 서로 열기설기 얽혀서 실현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두 범주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선입견을 갖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박진호 2011: 3-4)

(12)와 (13)의 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연세한국어사전》에서 (12)의 ‘열다’는 ‘1. ㉠ (닫히거나 잠겨 있던 것을) 밀거나 당겨서 벌어지게 하다.’의 의미에 해당하고, (13)의 ‘열다’는 ‘5. (공식적인 모임을) 시작하여 진행하다. 그러한 모임을 가지다.’의 의미로 구분된다. 먼저 (12)의 ‘열다’는 (12나)와 같이 진행 표지 ‘-고₁ 있-’과 결합하여 ‘창문을 여는 동작의 국면’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창문을 열다’의 ‘열다’는 [-순간성] 자질의 동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문을 열고 있다’는 (12다)와 같이 ‘창문을 열어 둔 이후의 전체 국면’, 즉 결과상태 지속의 중의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¹⁵⁾ 이에 대하여 김천학(2007)에서는 동사 ‘열다’는 [-순간성]과 [+결과성]의 속성을 지닌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과 완료의 상적 의미를 가지며, 피동사 ‘열리다’로 바뀌어도 그 상적 속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¹⁶⁾ (12라)는 홍윤기(2002)에서 제시된 예문으로, ‘창문을 여는 데 1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창문이 열린 채 1시간이 지났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윤기(2002)에서는 완수동사(구)는 자연적인 끝점과 결과적 단계를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두(다)’와 같은 형식이 결합하였을 때 자연적인 끝점 이후의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가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문을 열다’의 ‘열다’는 [-순간성]과 [+결과성]을 지닌 완수동사로 볼 수 있다.

반면 (13)의 ‘열다’는 (13나)에서 ‘-고 있-’과 결합하여 진행의 의미로만 해석되며, ‘찬영이가 파티를 열고 있다’는 사건이 ‘파티를 열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시간 부사어 ‘T-동안’의 결합이 자연스럽고, ‘T-만에’가 결합하여 파티가 열리는 사건이 한 시간 만에 일어났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파티를) 열다’는 행위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까닭에 (13마)에서 시간 부사어 ‘거의’가 결합하였을 때 ‘찬영이가 거의 파티에 가까운 행사를 진행했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밖에도 전형적인 행위동사로 분류되는 ‘(소설을) 읽었다’와 [+순간성] 자질이 있어 성취동사로 분류되는 ‘(심중을) 읽었다’, 완수동사에 해당하는 ‘(저녁을) 차렸다’와 행위동사 부류에 가까운 ‘(예의를) 차렸다’ 등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지면서도 다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어휘상을 지니는 예는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휘상 분석 작업이 논항 구조나 논항의 의미역과 같은 통사적 층위뿐만 아니라 개별 의미 항목별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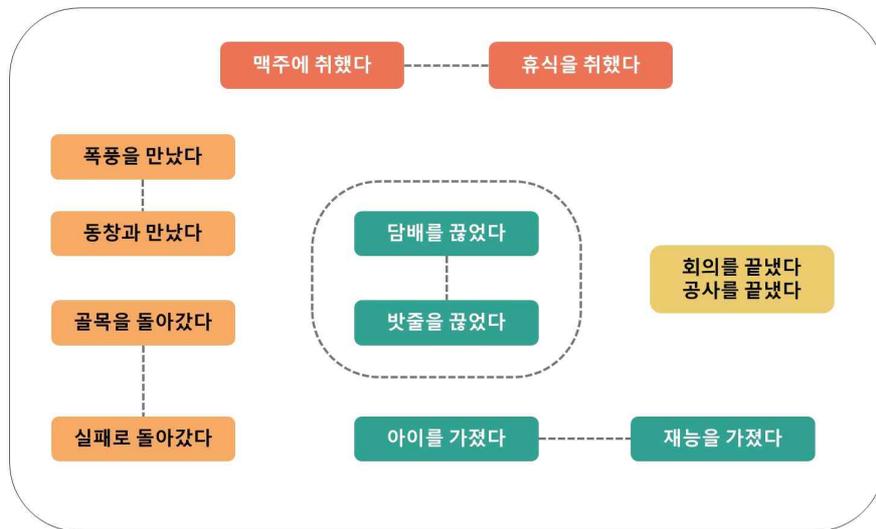
다음으로 의미 관련성 판단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앞서 확인한 것처럼 유형 2와 유형 3에 대한 의미 관련성 정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논항 구조로 대표되는 통사 층위의 정보가 의미 층위의 정보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사는 문장 내에서 서술어로서 기능함으로써 일정한 문장 성분을 요구하고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문법적 차원에서 동사의 속성을 고려할 때에는 통사 층위의 논항 구조가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입장은 어휘상 연구로도 이어져서 사전의 격틀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동사의 의미 항목을 나누고 이를 대상으로 어휘상 자질을 판별해 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생각하다’의 경우처럼 격틀을 기준으로 하여 어휘상 부류가 구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논항 구조는 동사의 구체적인 의미 속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15) ‘-고 있-’은 완결성을 갖는 타동사와 결합할 경우 ‘진행’과 ‘결과상태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갖는 중의성을 갖게 된다.

16) ‘열다’가 피동으로 바뀌는 경우 진행의 (12나)는 ‘창문이 열리고 있다’로, 완료의 (12다)는 ‘창문이 열려 있다’의 형태가 된다(김천학 2007: 83).

것처럼 적어도 동사의 의미에 대한 인지적인 차원에 있어서 논항 구조는 의미 명세를 압도할 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자들은 동일한 형식의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두 문장을 인지함에 있어서 논항 구조가 동일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각 동사 항목과 함께 출현하는 논항 명사와의 의미 합성 및 어휘 내항에 명세되어 있는 의미 정보를 참조하여 문장을 해석하고자 하는 과정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점화 어휘 판단 과제에서 유형 2와 유형 3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맥이 닿아 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동사의 다의성과 관련한 어휘부 모형을 가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다의성 및 어휘상 자질에 따른 어휘부 모형

각 항목의 색상은 유형을 나타낸다. 유형 4(노란색)의 경우 두 문장이 동일한 표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동사의 형식이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표상을 지니고 있다. 점선은 다양한 차원의 인지적 관련성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동사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유형 1(붉은색)과 유형 2(주황색)는 그 형태적 동일성에 의한 관련성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을 찾기 어렵다. 한편 유형 3(초록색)은 다소 다채로운 양상을 보인다. 우선 ‘끊다’는 두 문장에서 모두 달성동사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가지다’ 역시 유형 3에 해당하는데 ‘아이를 가지다’에서의 ‘가지다’는 달성동사, ‘재능을 가지다’에서의 ‘가지다’는 상태동사로 분류된다. 즉 개별 다의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표상을 지니지만, 그 중 동일한 상적 자질을 공유하는 것들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공간 내 거리를 통해 표상되었다. 유형 3에서는 어휘상의 일치 여부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밭줄을 끊었다’와 ‘아이를 가졌다’는 다른 동사이지만 달성동사라는 공통점에 의해 모종의 관련성을 지닌다.¹⁷⁾

어휘상 연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 의미 항목 층위에서의 어휘 내항 정보가 되어야 한

17) 물론 어휘부 내 동사 항목들 간의 관련성 및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상적 자질만이 아니다. 어휘부는 언어 항목들이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 다중적인(multiple) 층위에서 연결망을 이루는 복잡계(complex system) 구조를 이루고 있다(채현식 2007). 따라서 여러 차원의 언어적·인지적 관련성에 따라 복잡한 연결 체계가 존재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동사의 다의성과 상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층위에 따른 연결망을 2차원 공간에 표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이때의 의미 항목은 심리 어휘부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동사의 어휘상적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개별 의미 항목들에 대한 일종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앞서 이루어진 어휘상 분석을 검토해 보면 어떤 동사의 모든 의미 항목이 동일한 상적 자질을 지니거나 논항 구조에 따라 동일한 상적 자질로 묶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의미 항목에 대한 상적 자질 판단 작업을 일일이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잉여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어휘부의 모형 및 표상 단위와 다의 항목만의 차이로 인하여 상적 자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개별 의미 항목 층위에서의 분석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특정 동사에 대한 미시적인 어휘상 분석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사들을 상적 자질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사의 여러 의미 항목 중 ‘기본 의미’와 ‘전이 의미’를 구분하고, 이 중 기본 의미를 해당 동사의 대표 의미 항목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적 자질을 확인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빠지다’의 경우, ‘호수에 빠지다’와 ‘사랑에 빠지다’ 중 전자를 기본 의미, 후자를 전이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빠지다’의 대표적인 어휘상 부류는 달성동사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 동사의 기본 의미와 전이 의미 간의 상적 자질이 지니는 상관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의미 속성에 따른 어휘상 분석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김경학(2002), 「행위동사, 완성동사 교체현상과 사건구조」, 『논문집』 20, 수원대학교, 35-46.
- 김현학(2007), 「국어의 동사와 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 서상규(2019),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 신정아(2019), 「혼합효과모형(Mixed-Effects Model)을 이용한 실험언어학 데이터 분석 방법 고찰: 자기조절읽기 실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영어학』 19-1, 한국영어학회, 76-94.
- 원대성(1985), 「명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5, 국어연구회.
- 유세진·최윤희·이정민(2008), 「한국어 동사 '찾다'의 상적 의미: 사건 구조를 통해 본 언어 표현과 인지 문제」, 『국어학』 52, 국어학회, 153-187.
- 유현경(1994), 「논항과 부가어」, 『우리말글연구』 1, 우리말학회, 175-196.
- 유현경(2024), 「어휘상 연구의 단위」, 『국어학』 110, 국어학회, 3-37.
- 이병규(2009), 『한국어 술어명사문 문법』, 한국문화사.
- 이영희(2011), 『한국어와 일본어 동사의 상 연구』, 역락.
- 이호승(1997), 「현대국어의 상황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수(1982), 「한국어 풀이씨의 상적 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해권(2021), 「한국어 문법상과 어휘상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담화와 인지』 28-3, 담화·인지언어학회, 81-108.
- 조민정(2007), 『한국어에서 상의 두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사.
- 채현식(2007), 「어휘부의 자기조직화」,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학회, 129-145.
- 최동주(2021), 「'찾다', '이기다', '도착하다'의 상적 특성: '-고 있-' 결합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395-421.
- 홍윤기(2002), 「국어 문장의 상적 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병순(2000), 「상 의미로 본 국어 동사의 갈래」, 『한글』 250, 한글학회, 227-265.
- Bach, E.(1981), On time, tense, and aspect: an essay in English metaphysics, In Cole, P.(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63-81.
- Bach, E.(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5-16.
- Bates, D., Mächler, M., Bolker, B., & Walker, S.(2015), Fitting linear mixed-effects model using lme4,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67-1, 1-48.
- Bertinetto, P. M.(1995), *Temporal reference, aspect and actionality: semantic and syntactic perspectives*, Torino: Rosenberg & Sellier.
- Brown, S. W.(2008), Polysemy in the mental lexicon, *Colorado Research in Linguistics* 21, 1-12.
- Comrie, B.(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ty, D. R.(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Q*, Dordrecht: Reidel.
- Filip, H.(2012), Lexical aspect, In Binnick, R. I.(ed.),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21-751.
- Hsiao, H. S., Chen, Y. C., & Wu, Y. C.(2016), Representation of polysemy in Mandarin verbs: *Chī, Dǎ, and Xǐ, Concentric(Studies in Linguistics)* 42-1, 1-30.
- Klepousniotou, E.(2002), The processing of lexical ambiguity-homonymy and polysemy in the mental lexicon, *Brain and Language* 81-1, 205-223.

- Sag, I. A.(2012), 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 an informal synopsis, In Boas, H. C., & Sag, I. A.(eds.), *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 Stanford: CSLI Publications, 69-202.
- Smith, C.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 Van Valin, D. R. & LaPolla, J. R.(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ndler, Z.(1957),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143-160.
- Vendler, Z.(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 J.(1972), *On the compositional nature of the aspects*, Dordrecht: Reidel.
- Verkuyl, H. J.(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실험 자극 목록

유형	동사	점화 자극	동형어 ¹⁸⁾	표적 자극	동형어
1	가리다	우열을 가렸다	1	구름에 가렸다	2
1	개다	날씨가 개었다	1	이불을 개었다	3
1	걸리다	최면에 걸렸다	1	10년이 걸렸다	2
1	끼다	팔짱을 끼었다	1	안개가 끼었다	2
1	달다	장식을 달았다	1	과일이 달았다	5
1	달리다	도로를 달렸다	1	목숨이 달렸다	2
1	뒤지다	책상을 뒤졌다	1	유행에 뒤졌다	2
1	듣다	충고를 들었다	1	약효가 들었다	3
1	따르다	규칙에 따랐다	1	커피를 따랐다	2
1	말리다	빨래를 말렸다	1	사건에 말렸다	3
1	묻히다	땅속에 묻혔다	2	기름을 묻혔다	1
1	빠지다	머리가 빠졌다	1	상념에 빠졌다	2
1	쉬다	한숨을 쉬었다	2	우유가 쉬었다	3
1	적다	별명을 적었다	1	수입이 적었다	2
1	취하다	맥주에 취했다	1	휴식을 취했다	2

유형	동사	점화 자극	격틀	표적 자극	격틀
2	나간다1	밖으로 나갔다	1이 2로	교실을 나갔다	1이 2를
2	남기다	상처를 남겼다	1이 2를 (3예)	기록으로 남겼다	1이 2를 3으로
2	내려가다	지하로 내려갔다	1이 2에/로	무대를 내려갔다	1이 2를
2	내리다	깃발을 내렸다	1이 2를	공항에 내렸다	1이 2에
2	다니다	병원에 다녔다	1이 2에	구경을 다녔다	1이 2를
2	당하다1	피해를 당했다	1이 2를	원수에게 당했다	1이 2에게
2	돌아가다	골목을 돌아갔다	1이 2를	실패로 돌아갔다	1이 2에/로
2	들다1	20위에 들었다	1이 2에	적금을 들었다	1이 2를
2	따지다	격식을 따졌다	1이 2를	회사에 따졌다	1이 2에
2	떠나다	고향을 떠났다	1이 2를	시골로 떠났다	1이 2로
2	만나다	폭풍을 만났다	1이 2를	동창과 만났다	1이 2와
2	맞다2	친구에게 맞았다	1이 2에게	과녁에 맞았다	1이 2에
2	오르다	정상에 올랐다	1이 2에	층계를 올랐다	1이 2를
2	잘하다	연기를 잘했다	1이 2를	동생에게 잘했다	1이 2에게
2	피하다	위험을 피했다	1이 2를	뒷산으로 피했다	1이 2로

유형	동사	점화 자극	다의 항목	표적 자극	다의 항목
3	가지다1	아이를 가졌다	6	재능을 가졌다	3㉞
3	견디다	고통을 견뎠다	1㉞	열흘을 견뎠다	2
3	구하다1	식량을 구했다	2	이해를 구했다	4
3	기다리다	버스를 기다렸다	1	광복을 기다렸다	2
3	기르다	자식을 길렀다	1	수염을 길렀다	3
3	끊다	뱃줄을 끊었다	1	담배를 끊었다	2㉞
3	끝다	흥미를 끝냈다	4㉞	시간을 끝냈다	11㉞
3	들다2	가방을 들었다	1	고개를 들었다	2
3	모으다	동전을 모았다	1	관심을 모았다	5
3	열다1	창문을 열었다	1㉞	파티를 열었다	5
3	읽다	소설을 읽었다	1㉞	심증을 읽었다	2
3	쥐다	고삐를 쥐었다	2	주먹을 쥐었다	1
3	즐기다	휴가를 즐겼다	1㉞	와인을 즐겼다	2㉞
3	지키다	나라를 지켰다	2	중립을 지켰다	9
3	차리다	저녁을 차렸다	1	예의를 차렸다	5

18) <부록>에 제시한 동형어 번호와 격틀, 다의 항목 번호는 모두 《연세한국어사전》을 따랐다.

유형	동사	점화 자극	다의 항목	표적 자극	다의 항목
4	건너다	다리를 건넜다	1	차도를 건넜다	1
4	계속하다	연구를 계속했다	1	연습을 계속했다	1
4	끝내다	회의를 끝냈다	0 ¹⁹⁾	공사를 끝냈다	0
4	넘다	대문을 넘었다	1⊖	담장을 넘었다	1⊖
4	닦다	바닥을 닦았다	Ⅱ-1	거울을 닦았다	Ⅱ-1
4	마치다 ²	준비를 마쳤다	0	근무를 마쳤다	0
4	맞추다	구두를 맞췄다	I-5	안경을 맞췄다	I-5
4	멈추다	걸음을 멈췄다	Ⅱ-0	동작을 멈췄다	Ⅱ-0
4	믿다	말씀을 믿었다	1	소식을 믿었다	1
4	받다 ¹	선물을 받았다	1⊖	명함을 받았다	1⊖
4	좋아하다	운동을 좋아했다	I-2	겨울을 좋아했다	I-1
4	준비하다	행사를 준비했다	0	식사를 준비했다	0
4	줄이다	길을 줄였다	1	불륨을 줄였다	1
4	줍다	휴지를 주웠다	1	조개를 주웠다	1
4	흘리다	눈물을 흘렸다	I-1	코피를 흘렸다	I-1

19) 의미 항목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였다.

■ 토론

“어휘상 연구의 단위와 어휘부 표상”에 대한 토론문

최윤(강원대)

이 연구는 심리언어학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동사의 어휘부 모형의 일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어휘상 연구의 단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합니다. 객관적 실험을 통해 동형어, 격틀, 다의 항목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어휘부 내 표상 방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어휘 의미 연구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자들께서 명확한 해석을 위한 실험 이론의 토대를 공고히 구축하고 어휘부 표상의 복잡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본 발표를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활발한 토론으로 논문의 완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나, 해당 연구 방식에 대한 저의 이해가 깊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논의 대부분에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실험 설계의 적합성

본 연구의 핵심은 동사의 어휘상이 어휘부 내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점화 어휘 판단 과제와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동형어, 격틀, 다의 항목 간의 점화 효과를 분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실험이 어휘부 내 별도의 표상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실험은 일반적으로 점화 자극과 표적 자극과의 의미적, 통사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가 점화와 표적의 의미적, 통사적 관계를 확인하고 그 정도성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가 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과연 ‘어휘부 표상’의 양상이나 방식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실험만으로 어휘부 내 별도 표상을 가진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대조군과 추가 실험이나 어휘부 표상이나 등재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데이터 및 분석의 신뢰성

본 연구에서는 반응 시간이 2,000ms 이상이거나 300ms 이하인 응답을 이상치로 간주하고 제외한 후, z-Score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표본 크기가 적다는 점에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분석도 병행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포함한 결과와 포함하지 않은 결과의 비교) 또한, 혼합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참가자 간의 변동성을 고려한 것은 적절한 접근이지만, 더욱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모형 개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의 개인차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임의 효과(random effects)를 추가적으로 설정하거나, 반응 시간 이외의 다른 잠재적인 변수들(예: 참가자의 언어 능력, 피로도, 자극 빈도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반복 측정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적 요인(예: 실험 세션 간의 시간 간격)을 포함시키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추가로, 실험 참여자들의 정보가 다소 소략하게 제되어 있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결론의 및 어휘부 모형의 적합성

<그림 5>에 제시된 '어휘부 모형'은 어휘부 모형을 형상화하는 일반적인 형식과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시각일 수 있고, 해당 연구 내용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자칫 주관적인 해석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휘 내향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또다른 논의가 필요하므로 힘든 일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4)와 같이 어휘 내향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4. 서술의 적절성

위 1, 3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실험 내용과 연구 결론의 연결이 조금은 느슨한 듯한 인상을 주어 실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서술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 3에서는 어휘상의 일치 여부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뺏줄을 끊었다’와 ‘아이를 가졌다’는 다른 동사이지만 달성동사라는 공통점에 의해 모종의 관련성을 지닌다.”

특히 위와 같은 서술은 현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종의 관련성’이라는 서술 자체의 모호함이 논의의 객관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각주를 통해 드러낸 우려와 같이 어휘 내향에 명세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극히 일부의 정보인 어휘상의 정보 단 하나만으로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성급한 서술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가 어휘 의미 및 어휘 생성 연구에서 큰 의의를 갖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독의 실수를 염려하며, 연구자분들께 위 질문들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끼리’의 분포와 의미

곽유석(성균관대)

<차 례>

1. 서론
 2. ‘끼리’의 분포
 3. ‘끼리’의 의미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본고는 ‘끼리’의 분포적 특성과 의미 기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끼리’는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언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들에서 이것의 분포나 의미에 주목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듯하다. 조사나 의존 명사 따위의 목록을 확정하는 논의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요소에 대한 논의 등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끼리’ 그 자체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못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어사전에서 ‘끼리’의 분포적 특성과 의미 기능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끼리 「접사」(복수성을 가지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

-끼리 「접미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함께 무리 지어 있음’을 뜻함.

ㄷ.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

-끼리²⁾ 「접미사」 복수를 나타내는 명사구나 대명사 뒤에 붙어, 그 부류로만 이루어진 모임이나 묶음의 뜻을 더하는 말.

(1)은 주요 국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끼리’의 풀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끼리’는 접사로서 복수성을 지닌 명사나 명사구(이하 ‘명사(구)’)에 결합하여 ‘그 부류로만 이루어진 모임이나 무리’라는 뜻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풀이는 ‘끼리’의 특성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간략하게 제시된 풀이만으로는 ‘끼리’의 분포와 의미를 온전히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서 확인된다.²⁾

1) ‘끼리’는 관례적으로 접사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에서 붙임줄을 붙여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고의 논지에 따라 붙임줄을 붙이지 않기로 한다. 관련된 논의는 2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2) 본고에서 정문으로 제시하는 ‘끼리’의 용례들은 모두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사업으로 구축된

- (2) ㄱ. *도둑 셋끼리 무덤을 도굴해 황금을 훔쳤다.
 ㄴ. *철수는 동료들끼리를 잘 챙긴다.
 ㄷ. 나야 상관 없지만 필드 요원들끼리 합의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ㄹ. 문자는 같지만 방언과 표준어끼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

(2)에서 (2ㄱ)과 (2ㄴ)은 ‘끼리’가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에 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2ㄷ)과 (2ㄹ)에서 ‘끼리’는 단지 모임이나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를 더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예들은 ‘끼리’에 대한 사전적인 기술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끼리’의 분포적 특성을 밝히고 그 의미 기능을 상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끼리’의 분포적 특성에 대해, 3장에서는 ‘끼리’의 의미 기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2. ‘끼리’의 분포

이 장에서는 ‘끼리’의 분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끼리’가 주로 어떤 명사(구)와 결합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형성된 ‘끼리’ 결합형이 문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는지를 차례로 밝힐 것이다. 다만 논의에 앞서서 ‘끼리’의 문법 범주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끼리’를 접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접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 ㄱ.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택시를 탔어요.
 ㄴ. 그것이 오랜 친구끼리의 최소한의 배려였다.
 ㄷ.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람끼리의 결합이다.

(3)은 ‘끼리’가 단어보다 큰 단위에 결합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가령 (3ㄱ)에서 ‘끼리’는 음운론적으로는 ‘사람들’에 의존해 있지만 의미를 고려한다면 ‘방향이 같은 사람들’에 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끼리’가 단어보다 큰 단위에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이것이 단어를 구성하는 접사가 아니라 문장을 형성하는 통사원자(syntactic atom)임을 시사한다.³⁾ 관련하여 황화상(2015: 314-315)에서도 ‘끼리’가 통사 단위인 명사구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접사가 아닌 보조사나 의존 명사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이하 각각 <문어>, <구어>)에서 확인한 예문이다. 다만 보다 적절한 예문을 보이기 위해 인터넷 자료에서 용례를 확인하거나 직접 만든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밝혀 구분할 것이다. 한편 모든 예문들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의미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가다듬어 제시한다.

3) 임흥빈(1989: 175)에서는 ‘우리 집에 있는 동물끼리’의 ‘끼리’가 ‘동물끼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동물’이라는 통사적 구성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 파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박진호(1994: 7-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로 구분한다면 통사적 파생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때 ‘끼리’는 보조사와 의존 명사의 중간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격조사가 선행하지도 못하고 후행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는 보조사와 차이가 있지만, 관형어의 한정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는 의존 명사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끼리’는 보조사로 간주되기도 하고(임동훈 1991: 16, 남윤진 1997/2000: 141) 의존 명사로 간주되기도 한다(김계곤 1969: 402, 임홍빈 1987: 404 주25, 황화상 2015: 321).⁴⁾ 여기서 ‘끼리’가 결합하는 명사(구)에 일정한 의미를 더한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나마 보조사로 보고자 한다.

이제 ‘끼리’가 어떤 명사(구)에 결합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끼리’와 결합하는 명사의 유형 및 빈도를 말뭉치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끼리’가 결합하는 명사의 유형 및 빈도

구분	명사구	빈도	구분	명사구	빈도	구분	명사구	빈도
1	자기들	2219	11	민족	447	21	남자	214
2	우리	2103	12	아이들	424	22	학생들	208
3	사람들	1885	13	남자들	336	23	이웃	197
4	가족	1300	14	그들	329	24	애들	159
5	사람	1147	15	가족들	294	25	자기네	157
6	친구들	797	16	지들	277	26	연인	155
7	저희들	505	17	부부	268	27	식구	152
8	친구	471	18	것	250	28	여자	151
9	저희	469	19	여자들	241	29	우리들	147
10	자기네들	449	20	형제	233	30	식구들	145

<표 1>은 <문어>와 <구어>에서 ‘끼리’의 결합 양상을 확인하고,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상위 30개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⁵⁾ 이와 같은 결과는 ‘끼리’가 복수 표지가 결합되어 있는 명사(‘자기들’, ‘저희’, ‘자기네’ 등)나 집합 명사(‘우리’, ‘가족’, ‘부부’ 등)에 주로 결합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끼리’가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에 결합한다고 한 앞서의 사전 기술은 ‘끼리’의 분포적 특성을 대체로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끼리’가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에 결합한다고 하는 기술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라도 ‘끼리’의 결합이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끼리’는 맥락상 상정되는 집합의 구성원 전원을 나타내는 명사(구)에는 결합할 수 없다. 이에

4) 고영근(1973/1989: 513-514)에서는 ‘끼리’가 관형사형 다음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존 명사는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적고 ‘너희들끼리’와 같이 ‘들’의 뒤에 결합하는 점은 조사와 유사하지만, 선행 요소와의 사이에 조사가 개재되지 않고 ‘너희들끼리’와 같이 오히려 뒤에 보조사가 결합하는 점은 접사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한편 김창섭(2011: 54 주10)에서는 ‘끼리’가 무표지 명사구에 직접 결합하여 부사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를 보충어에 직접 결합하는 부접 부사로 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부접어의 개념에 관해서는 김창섭(2007)과 김창섭(2011)을 참고할 수 있다.

5) <표 1>은 ‘끼리’가 포함된 문장에서 ‘ㄱ, ㅍ, ㅅ, ㅈ’ 등의 특수 기호들을 제거하고 ‘끼리’와 결합한 형식의 빈도를 산출한 결과이다. 다만 ‘코끼리(象)’나 ‘끼리끼리’와 같은 표현은 논의의 편의상 제외하였다. 여기서 활용한 <문어>와 <구어>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문어>(버전 1.2): 책, 잡지, 보고서 등의 문어 자료 10,045건, 총 303,284,706어절.

- <구어>(버전 1.2): 방송, 강연 등의 공적 구어 자료와 드라마 대본 등의 준구어 자료 25,696건, 총 120,750,358어절.

대해서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4) ㄱ. ??동아리의 모든 회원들끼리 축제에 부스를 내기로 했다.
 ㄱ'. 동아리의 신입 회원들끼리 축제에 부스를 내기로 했다.
 ㄴ. (창업 동아리 회원이 3명일 때) ??철수와 영수, 민수 세 명끼리 창업을 했다.
 ㄴ'. (창업 동아리 회원이 10명일 때) 철수와 영수, 민수 세 명끼리 창업을 했다.

(4)는 '끼리'와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 간의 결합이 어색한 예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4ㄱ)의 '회원들끼리'나 (4ㄴ)의 '세 명끼리'는 그 자체로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다만 이들이 맥락상 상정되는 집합의 구성원 전원을 나타내게 되면 어색해진다. 예를 들어 (4ㄱ)은 '모든'에 의해 동아리원 전원이 의도되어 어색한 것이고, 이에 따라 (4ㄴ)과 같이 동아리원의 일부인 '신입 회원'만을 의도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다. (4ㄴ)과 (4ㄴ')의 차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끼리'가 사용된 문장에는 항상 '끼리'에 의해 의도된 집합과 그렇지 않고 이로부터 배제된 집합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상정되게 된다.⁶⁾

두 번째는 복수성을 지니지 않은 명사(구)에도 '끼리'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끼리'는 복수성이 명시되지 않은 명사(구)에 결합할 수 있고 가산성(countability)이 없어서 복수화 자체가 불가능한 명사(구)에도 결합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 ㄱ.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친구끼리 가기를 더 원한다.
 ㄱ'.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친구랑 가기를 더 원한다.
 ㄴ. 유사한 자기 존중감을 지닌 사람끼리 함께 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ㄴ'. 유사한 자기 존중감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6) ㄱ. 물끼리 부딪치면서 그런 섬세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ㄴ. 거친 모래끼리 마찰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ㄷ. 연기끼리 엉겨 붙는 괴상한 성질이 생겨버렸다.
 ㄹ. 빛끼리 엉기며 사물들이 차츰 제모습을 찾아갔다.

먼저 (5)는 복수성이 명시되지 않은 명사(구)에도 '끼리'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일례로 (5ㄱ)의 '친구끼리'에서 '친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단수 개체를 지시하는지 혹은 복수 개체를 지시하는지가 모호하게 나타난다(임동훈 2012: 30).⁷⁾ 이때 (5ㄱ')의 '친구랑'에서 '친구'가 단수나 복수 혹은 종류(sort)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끼리'가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에만 결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5ㄴ, ㄴ')에서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6)은 가산성이 없어서 복수화가 불가능한 명사(구)에도 '끼리'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Murphy(2010: 152)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나누어질 수 없고 같은 유형의

6) 이는 '끼리'와 '이서'를 변별하는 주요한 특성이다. 즉 '끼리'는 의도된 집합 이외의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드러나지만, '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서'는 (4ㄴ)의 상황에서도 '끼리'의 자리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서'는 '끼리'와 달리 배제되는 집합을 상정하지 않으므로 구성원 전원을 나타내는 명사구에도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7) Corbett(2000: 9)에서는 명사의 의미가 수에 대한 지시 없이 표현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일반수(general number)'라고 명명하였다. 한국어의 명사는 이 일반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체를 더할 수도 없는 명사를 가산 명사라고 하였다. 가령 ‘teapot’과 달리 ‘mud’는 절반을 덜어내어도 여전히 ‘mud’이고 또 ‘mud’에 다시 ‘mud’를 더해도 여전히 ‘mud’라는 점에서 ‘mud’는 가산성이 없는 물질 명사(mass noun)라는 것이다.⁸⁾ 이에 따르면 (6ㄱ)의 ‘물’이나 (6ㄴ)의 ‘모래’, (6ㄷ)의 ‘연기’, (6ㄹ)의 ‘빛’ 등은 모두 가산성이 없는 물질 명사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끼리’가 어떤 명사(구)에 결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끼리’는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에 주로 결합하지만, 복수성이 명시되지 않은 명사(구)에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제 다음으로는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 전체의 분포적 특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때 ‘끼리’ 결합형이 여러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목적어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보자.

- (7) ㄱ. 어른들끼리는 친분이 있어 가끔씩 왕래가 있었다.
 ㄴ. 시퍼런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끼리 수근거렸다.
 ㄷ. 휴식 시간에 친한 사람들끼리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ㄹ. 우리의 적은 전국에 있지 우리끼리가 아니다.
 ㅁ. 바위가 많은 장소를 두 사람끼리 향해하다가 위험에 빠진 적이 있다.
- (8) ㄱ. 상승추세에서는 저점끼리를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ㄴ. 맞달은 아픈 살갓끼리를 떼어놓을 때만 잠깐씩 그 통증이 멎는다.
 ㄷ. 물질을 데우거나 식힐 때에는 보통 물질끼리를 접촉시킨다.

(7)은 ‘끼리’ 결합형이 여러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는 (7ㄱ)에서는 주어로, (7ㄴ)에서는 자동사의 주어로, (7ㄷ)에서는 타동사의 주어로, (7ㄹ)에서는 보어로⁹⁾, (7ㅁ)에서는 부사어로 각각 사용되었다. 반면에 ‘끼리’ 결합형이 목적어로 사용된 예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¹⁰⁾ 실제로 김민국(2009: 350-351)에서는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 계획’으로 구축된 약 1,000만 어절 규모의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 ‘끼리’는 996번 출현하였으며, 이들은 주어와 부사어에 나타났을 뿐 목적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에서 보듯이 ‘끼리’ 결합형이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예문들은 상호 동사가 복수성을 지닌 목적어를 요구할 때 ‘끼리’가 해당 목적어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가령 (8ㄱ)의 ‘연결하다’는 주로 ‘A가 B(복수)를 연결하다’의 문형으로 사용되는데 이때 목적어 ‘B’에 ‘끼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8ㄴ)의 ‘떼어놓다’나 (8ㄷ)의 ‘접촉시키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때 사용된 ‘끼리’는 결합하는 명사(구)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 잉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8)에서 ‘끼리’를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하고 의미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이처럼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끼리’가

8) 다만 가산성은 어디까지나 언어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세계 지시체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산성의 개념에 관해서는 곽유석(2023: 16-29)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

9) 여기에서는 학교 문법의 정의에 따라 ‘아니다’가 요구하는 ‘우리끼리’를 ‘보어’로 규정하였다. 다만 보어의 정의나 외연에 대해서는 아직 널리 통용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현경(2019)와 이선웅(2019)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

10) 여기에서는 타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 ‘을/를’에 의해 표지되었을 때 이를 ‘목적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문장에서 어떤 요소가 목적어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전형적인 목적어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준희(2024: 54-60)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

주어 명사(구)에 결합하며 동작성을 지닌 서술어와만 호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김민국 2009: 343, 정상희 2010: 36). 이는 ‘끼리’의 분포적 특성에 대해 많은 부분을 적절히 설명해 주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끼리’ 결합형은 (7)과 (8)에서 보듯이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듯이 상태성을 지닌 서술어와 호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9) ㄱ. 아내들끼리도 친하고, 애들끼리도 친하다.

ㄴ. 태양 아래에서도 양들끼리 모여 있다가 탈진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ㄷ. 동창이나 지인끼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천적 또는 라이벌이다.

(9)는 ‘끼리’ 결합형이 상태성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우선 (9ㄱ)은 형용사 ‘친하다’에 의해, (9ㄴ)은 ‘모이다’에 결합한 결과상 표지인 ‘-어 있다’에 의해, (9ㄷ)은 ‘천적 또는 라이벌’이라는 명사구에 결합한 ‘이다’에 의해 상태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물론 상태성을 지닌 서술어 중에서는 ‘예쁘다’나 ‘아프다’ 등과 같이 ‘끼리’ 결합형과 호응하는 예문을 떠올리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한다. 다만 (9)와 같은 예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서술어의 상적 속성에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끼리’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제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끼리’는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에 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끼리’ 결합형은 목적어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상태성을 지닌 서술어와 공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그러한 쓰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끼리’의 분포적 특성이 얼마간의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끼리’에 의해 실현되는 의미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3장에서는 ‘끼리’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 ‘끼리’의 의미

이 장에서는 ‘끼리’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의 사전들에 따르면 ‘끼리’는 ‘그 부류로만 이루어진 모임이나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뜻풀이는 ‘끼리’의 의미 기능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지만, 실제 예문들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아래에서는 ‘끼리’의 의미 기능을 ‘집합성’, ‘상호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차례로 논의해 볼 것이다.

3.1. 집합성

이 절에서는 명사(구)에 ‘끼리’가 결합하여 집합적 해석(collective reading)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집합적 해석은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가 해석되는 여러 방식들 중의 하나로서 구성 요소들의 개별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 전체로서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 ㄱ. 결원이 생기면 팀 리더끼리 인원 재배치를 논의하게 된다.
 ㄴ. 대학생끼리 교육 현실을 바꾸고자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 놀랍다.
 ㄷ. 소통의 명석을 깔아주면 직원끼리도 알아서 잘하는 경우가 많다.
 ㄹ. 어린이끼리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10)은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가 집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가령 (10ㄱ)의 ‘팀 리더끼리’에서는 여러 명의 리더가 존재한다는 점과 이들 모두가 함께 논의한다는 점이 드러나며, 팀 리더가 아닌 사람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는 (10ㄴ)이나 (10ㄷ), (10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끼리’의 의미를 ‘모임’이나 ‘무리’와 관련지어 풀이했던 것도 이러한 집합적 해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수성을 지닌 명사(구)에 대해 집단적 해석(group reading)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집합적 해석에 비해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 전체가 하나의 원자적(atomic) 단위로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¹¹⁾ 이때 정상희(2021: 179-180)에서는 ‘이서’와 ‘끼리’를 비교하면서 전자는 집합성 표지로, 후자는 집단성 표지로 보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

- (11) ㄱ. 우리 넷[이서/*끼리] 만들었어요.
 ㄴ. 우리[*[이]서/끼리] 만들었어요.

(11)은 정상희(2021: 179)에서 제시한 예문이다.¹²⁾ 이 논의에서는 ‘끼리’와 ‘이서’가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구성 요소의 개별성이 어느 정도로 드러나는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이서’는 (11ㄱ)에서 보듯이 수량 표현에 결합하여 사건 참여자의 수가 몇 명인지가 분명히 확인되고 이들이 모두 함께 사건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드러난다. 반면에 ‘끼리’는 수량 표현에 결합하지 않으며 (11ㄴ)에서 보듯 사건 참여자가 복수라는 점만 확인될 뿐 이들이 몇 명인지, 모두 함께 사건에 참여하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끼리’가 집합성 표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집단성 표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끼리’를 집합적 해석이 이루어지게 하는 집합성 표지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에 근거한 것이다.

첫 번째는 ‘끼리’가 수량 표현에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말뭉치 자료나 인터넷 문서를 확인해 보면 수량 표현에 결합한 ‘끼리’의 용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몇 가지를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다.

- (12) ㄱ. 둘끼리 있을 땐 좀 다릅니다.
 ㄱ'. 둘 혹은 셋끼리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주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¹³⁾

11) Landman(1989: 572-573)에서는 집합성과 집단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집단은 개별 구성원들의 속성을 상속받지 않는다고 하는 상향 폐쇄성(upwards closure)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사건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참여성(involve-ment)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강범모(1999: 129-131), 전영철(2004: 30-3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2) 원문에서는 ‘이서’가 사용된 문장과 ‘끼리’가 사용된 문장을 별개의 예문으로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예문으로 간추려 제시한다.
 13) 김가영, “'헤미리에채파' PD "헤리, 연예인으로서 뛰어나...김태호 응원 감사"”, <이데일리>, 2023.02.06(<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90726635507896&mediaCodeNo=258>, 2024.06.28)

ㄴ. 추석 날 네 동서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ㄴ'. 결국 네 사람끼리 한강~아라뱃길 운항을 시작하게 됐다.¹⁴⁾

(12)에서 (12ㄱ, ㄱ')은 수사어, (12ㄴ, ㄴ')은 '수 관형사+명사'의 수량사구에 각각 '끼리'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문들은 앞서 '끼리'를 집단성 표지로 간주하였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례가 된다. 사건 참여자의 수가 몇 명인지가 분명히 확인되고 이들이 모두 함께 사건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예문의 정오를 판단할 때에는 직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적어도 '끼리'가 구성원의 개별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두 번째는 '끼리'가 구성 요소가 하나인 집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단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구성 요소가 하나인 유표적인 상황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세 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을 때, 모종의 이유로 두 자리가 공석이 되어 한 명의 위원만 남았을 경우에도 개인의 자격과 위원회의 자격은 구분되므로 위원회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상희 2021: 49).¹⁵⁾ 이는 그 전체가 다시 원자적 단위로 인식되는 집단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보자.

(13) ㄱ. 처음에는 한 명[이서/*끼리] 미행하는 줄 알고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ㄴ. 한 분[이서/*끼리] 이 큰 회사를 전부 다 움직이십니까?

ㄷ. 다른 때 같으면 한 사람[이서/*끼리] 간단히 해치웠는데 ….

(13)은 곽유석(2023: 182)에서 제시한 예문에 '끼리'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서'는 단수 개체를 지시하는 표현에 결합할 수 있지만 '끼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3ㄱ)의 '한 명[이서]'는 자연스럽지만 '한 명[끼리]'는 어색하며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맥락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13ㄴ)과 (13ㄷ)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예문들은 앞서 '끼리'를 집단성 표지로 간주하였던 주장에 대한 간접적인 반례가 된다.

지금까지 명사(구)에 '끼리'가 결합하여 집합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끼리'를 집단성 표지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이것이 수량 표현에 결합할 수 있고 구성 요소가 하나인 집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이 '끼리'와 '이서'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이때 항상 '끼리서'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여기서 함께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다.

(14) ㄱ. 가마니를 부부끼리서 치는데 하루 열 폭씩을 쳐낸 대나.

ㄴ. 그리고 보니 여태 단골 식구들끼리서 곳을 놀았구만.

ㄷ. 국회의원들끼리서 열 명씩 조를 짜서 릴레이식으로다가 ….

(14)는 '끼리서'의 용례를 보인 것이다. 이때 복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집합이 먼저

14) 신지원, “'요트원정대' 장혁, 무사 출항 기원 깜짝 공연 '부캐 TJ 소환'”, <한경닷컴>, 2020.11.03.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110373061>, 2024.06.28.)

15) 정상희(2021: 49-50)에서는 단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용법의 획득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성된 뒤에 이로부터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Landman 1989: 577), 이와 같은 ‘끼리’와 ‘이서’의 결합 순서는 의미가 형식에 도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상호성

이 절에서는 명사(구)에 ‘끼리’가 결합하여 상호적 해석(reciprocal reading)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적 해석은 구성 요소들 간에 맺고 있는 관계가 동일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흔히 ‘서로’에 해당하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⁶⁾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5) ㄱ. 사람들끼리 (서로)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다.
 ㄴ. 모임의 주선자들끼리 (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ㄷ. 올과 병끼리 (서로) 싸우면 누가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겠습니까?
 ㄹ.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이 사회.
- (15') ㄱ. 사람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다.
 ㄴ. 모임의 주선자들이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ㄷ. 올과 병이 싸우면 누가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겠습니까?
 ㄹ. 인간과 인간이 반목하게 만드는 이 사회.

(15)는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가 상호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가령 (15ㄱ)의 ‘사람들끼리’에서는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들 간의 관계가, 가령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만 있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임이 드러난다. 이는 (15ㄴ)이나 (15ㄷ), (15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15)의 예문들에 ‘서로’를 추가하거나 생략하여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장의 상호적 해석은 ‘끼리’가 아닌 다른 언어 표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15ㄱ)의 ‘대화하다’, (15ㄴ)의 ‘교환하다’, (15ㄷ)의 ‘싸우다’, (15ㄹ)의 ‘반목하다’는 그 자체로 상호성을 내재하고 있는 상호 동사이기 때문에 ‘끼리’ 없이도 상호적인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15)의 예문에서 ‘끼리’를 삭제한 (15')의 예문에서도 상호적인 해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상희(2010: 36-38)에서는 ‘끼리’를 상호성이 아닌 배분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끼리’의 상호성에 대하여 그것이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서술어에 의해 실현되는 의미로 본 것이다.

상호성은 배분성을 전제해야 성립할 수 있는 의미이므로, 상호 표지가 배분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전영철 2007: 334, 박진호 2009: 3).¹⁷⁾ 이러한 점에서 (15)의 예문에서처럼 상호 동사와 함께 쓰인 ‘끼리’의 경우에는 이것이 배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16)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에서는 ‘끼리’가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의 의미를 더한다고 풀이하였다. 이는 <연세>나 <고려>와 달리 <표준>에서는 ‘끼리’의 상호성을 뜻풀이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 박진호(2009: 3)에서는 상호 표지 ‘서로’가 ‘경쟁’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상호 표지보다는 배분 표지에 가까운 듯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예) ㄱ. [철수와 영희]는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ㄴ. [철수와 영희]는 서로 [(자기가) 먼저 가려고] 했다.

가능할 듯하다. 일례로 (15'ㄴ)은 'A 주선자, B 주선자 ... X 주선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의 해석과, 명시되지 않은 다른 참여자가 상정되어 '주선자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여 중의적이다. 반면에 (15ㄴ)과 같이 '끼리'가 사용되면 전자의 해석만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끼리'가 그것이 결합한 '모임의 주선자들'을 배분적으로 해석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끼리'가 상호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끼리'를 배분 표지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6) ㄱ.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니 자기들끼리도 (서로) 볼 수가 없었어요.

ㄴ.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ㄷ. 동료들끼리 (서로) 칼로 내리쳐 죽이는 처형 방식이다.

ㄹ. 물고기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16') ㄱ.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니 자기들도 볼 수가 없었어요.

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도와주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ㄷ. 동료들이 칼로 내리쳐 죽이는 처형 방식이다.

ㄹ. 물고기들이 잡아먹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16)은 서술어로 상호 동사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에서도 '끼리'가 상호적 해석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 (16ㄱ)의 '보다'나 (16ㄴ)의 '돕다', (16ㄷ)의 '죽이다', (16ㄹ)의 '잡아먹다'는 그 자체로는 상호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 동사이다. 그렇다면 (16)의 예문들이 상호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끼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6)에서 '끼리'를 삭제한 (16')과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가령 (16ㄱ)에서는 'A, B, ..., X'가 서로를 볼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16'ㄱ)에서는 'A, B, ..., X' 모두가 문장에서 명시되지 않은 무언가를 볼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16ㄴ)과 (16'ㄴ)이나 (16ㄷ)과 (16'ㄷ), (16ㄹ)과 (16'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끼리'의 상호성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 ㄱ. 학생 두 사람만 그 사실을 안다.

ㄱ'. 학생 두 사람끼리만 그 사실을 안다.

ㄴ. 학생 두 사람만 행사에 참석했다.

ㄴ'. 학생 두 사람끼리만 행사에 참석했다.

(17)은 박진호(2009: 5)에서 '끼리'의 상호성을 보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¹⁸⁾ 이 논의에서는 (17ㄱ)과 (17ㄱ'), (17ㄴ)과 (17ㄴ')을 비교하였을 때 '끼리'가 첨가됨으로써 상호성의 의미가 추가된다고 하였다. 이는 가령 (17ㄱ, ㄱ')의 '학생 두 사람'을 A, B라고 할 때, (17ㄱ)에서는 A가 안다는 것을 B가 모르고 B가 안다는 것을 A가 몰라도 상관이 없는 반면에 (17ㄱ')에서는 A가 안다는 것을 B가 알고 B가 안다는 것을 A도 안다는 점에서 상호적인 지식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17ㄴ)과 (17ㄴ')에서도 평행하게 나타난다.

18) (17)의 (17ㄱ, ㄱ')은 김민국(2009: 342)에서 제시한 예문을 박진호(2009: 5)에서 인용한 것이다. 다만 김민국(2009)에서는 '이서'와 '끼리'를 비교하고 있어 예문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끼리’가 명사(구)에 결합하여 상호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끼리’가 상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상호 동사와 빈번히 공기하는 것은 이들의 의미가 서로 호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사업으로 구축된 문어 말뭉치에서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와 공기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유형 빈도를 산출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¹⁹⁾²⁰⁾

<표 2>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와 공기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유형 빈도

구분	유형	빈도	구분	유형	빈도	구분	유형	빈도
1	하/VV	1591	11	있/VV	221	21	좋/VA	140
2	모이/VV	896	12	통하/VV	220	22	지내/VV	124
3	싸우/VV	432	13	먹/VV	219	23	모으/VV	123
4	살/VV	409	14	있/VA	191	24	뭉/VV	121
5	만나/VV	385	15	주요받/VV-R	186	25	같/VA	119
6	나누/VV	365	16	알/VV	173	26	그렇/VA-I	102
7	되/VV	328	17	보/VV	162	27	짓/VV-I	102
8	어울리/VV	251	18	벌이/VV	154	28	부딪치/VV	101
9	놀/VV	247	19	뭉치/VV	153	29	돕/VV-I	99
10	가/VV	246	20	만들/VV	145	30	앉/VV	89

<표 2>는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와 공기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유형 빈도를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해 ‘끼리’가 사용된 문장에서 ‘싸우다, 만나다, 나누다, 어울리다’와 같은 상호 동사가 빈번히 사용됨을 알 수 있다.²¹⁾ 물론 이는 단순히 ‘끼리’와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공기 관계를 파악하였고, 동사나 형용사의 다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략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4. 결론(생략)

19)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와 공기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유형 빈도를 산출하는 작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1. R을 활용하여 말뭉치로 구축된 자료들을 ‘.’, ‘?’, ‘!’을 기준으로 분절하여 문장을 구분함.
2. R을 활용하여 말뭉치로부터 ‘끼리’가 포함된 예문을 추출함.
3. 형태소 분석기(KiwiGui v0.17.1)를 활용하여 2에서 추출한 예문들을 형태소 분석함.
4. R을 활용하여 처음 나타난 ‘끼리/XSN’ 위치에서 뒤의 5개 어절을 추출함.
5. 4에서 동사(VV)와 형용사(VA)로 태깅된 어절만을 간추려 빈도표를 작성함.

20) <표 2>에서 상호 동사로 판단되는 것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한편 품사 태그에서 ‘-R’과 ‘-I’는 불규칙 활용 여부를 밝힌 것이다. 여기서 ‘-R’은 규칙 활용을, ‘-I’는 불규칙 활용을 각각 나타낸다.

21) 조금 더 엄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끼리’가 사용되지 않은 예문에서의 동사와 형용사 빈도를 확인하고 이를 대조군으로 상정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대략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써 논의를 갈음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dic.daum.net/index.do?dic=ko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https://corpus.korean.go.kr>
- 강범모(1999), 「양화 의미: 복수, 물질, 타입, 강범모 외(편),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114-156.
- 고영근(1973),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 확립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논문집』, 서울대학교연구위원회, 71-101.[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495-534에 재수록]
- 곽유석(2023), 「한국어 복수 표지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곤(1969), 「현대 국어의 뒷가지 처리에 대한 관견」, 『한글』144, 한글학회, 391-436.
- 김민국(2009), 「‘-이서’의 분포와 문법범주」, 『형태론』11-2, 형태론, 335-356.
- 김창섭(2007), 「부접명사의 설정과 식별」, 『국어학』50, 국어학회, 27-56.
- 김창섭(2011),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 『국어학』62, 국어학회, 47-72.
- 남윤진(1997),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윤진(2000),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09), 「재귀사와 상호사의 중간 범주로서의 배분사에 대한 일고찰」, 통사론연구회 발표문.
- 유현경(2019), 「보어의 문장성분론」, 『형태론』21-2, 형태론, 108-134.
- 이선웅(2019), 「한국어 보어의 개념과 범위」, 『형태론』21-2, 형태론, 135-159.
- 이준희(2024), 「한국어 조사 ‘을/를’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동훈(2012), 「복수의 형식과 의미」, 『한국어 의미학』39, 한국어의미학회, 25-49.
- 임흥빈(1987),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16, 국어학회, 379-430.
- 임흥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67-196.
- 전영철(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8-2, 한국언어정보학회, 27-45.
- 전영철(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들’의 통합적 해석」, 『언어학』49, 한국언어학회, 337-359.
- 정상희(2010), 「한국어 배분 표지 ‘들, 마다, 끼리, 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상희(2021), 「현대 한국어 수 범주 연구: 개체와 사건의 배분성, 집합성, 집단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화상(2015), 「보조사와 주변 범주-보조사, 접미사, 의존 명사를 중심으로」, 『국어학』73, 국어학회, 309-334.
- Corbett, G. G.(2000), Nu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dman, F.(1989), Groups I,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5, 559-605.
- Murphy, M. L.(2010), Lexical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토론

“끼리의 분포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성우(한림대)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곽유석 선생님의 발표문을 먼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의 내용과 문제 의식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소 다른 결이지만 끼리와 끼리끼리의 형성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통사론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문은 우문대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소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연구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끼리와 가산성의 문제

이 논의에서는 ‘-끼리’와 가산성의 명사, 즉 복수성이 명시되지 않은 명사구에도 끼리가 결합할 수 있음을 중요한 사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와 같이 가산성이 불명확한 언어에도 이러한 논의가 의미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산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들의 경우 또한 가산성과 상관이 없는 명사 부류에도 결합되는 현상은 익히 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물들 길어 오너라, 이 모래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러한 부류의 명사들과의 결합 현상을 중요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2. (8)의 예문

끼리가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예문으로 기존 논의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예문의 서술어들이 모두 대칭성을 가진 서술어, 즉 대칭동사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서술어의 경우에만 끼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것 아닌지요? 혹시 다른 경우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끼리의 의미를 집합성과 상호성으로 구분한 이유

제 생각으로는 끼리의 의미는 집합성과 상호성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아닌가 싶고, 발표문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보입니다. 하지만 3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끼리가 결합한 명사구와 공기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유형 빈도

발표문에서는 싸우-, 만나- 등의 유형 빈도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동사들도 마찬가지로인 듯합니다. 가령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있다' 역시 대칭성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예: 아마 개네들끼리 관련이 있을걸?). 아마 제가 연구해보지 못한 '하-'등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혹은 끼리가 빠진 문장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문들보다 천착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다른 배분사, 상호사와의 의미를 비교해보는 것은 어떨까도 합니다. 어리석은 제안이므로 넘기셔도 됩니다.

사소한 문제

1. (2ㄴ)의 예문 문제

다소 작위적인 예문으로 판단됩니다. 동료들끼리 잘 챙긴다라는 예문은 가능하기 때문이고, 또한 목적격조사 '을/를'이 '끼리'에 잘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뒤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문인 이유는 '끼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철수는'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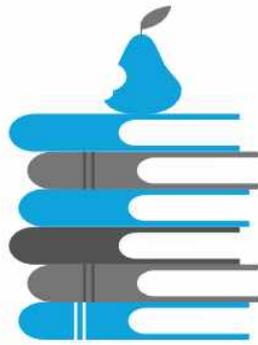
2. 끼리의 품사 구분

끼리의 품사 구분은 발표문에 제시되었듯, 여러 논의가 얽혀 있는 것으로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도 보조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접사로 보기 어려워서 그 이유인 듯합니다. 보조사를 쓰레기통 개념으로 치부하고 있는 셈인데, 품사 구분이 중요한 문제인 건가요?

3. 끼리끼리는 부사이고, 끼리는 접사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탈문법화(역문법화/어휘화)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듯한데,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대로 넘겨주십시오. 발표문의 통찰력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토론문을 작성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2부

제1 발표장

특강

 HONGKONG LANGUAGE RESEARCH CIRCLE
한말연구학회

건재 선생이 현대 국어에 끼친 영향

- 현대 국어에 남은 정인승 선생의 업적 -

조오현(건국대)

<차 례>

1. 들어가기
 2. 건재 정인승 선생은 어떤 분인가?
 3. 사전 편찬의 개척자가 되다
 4. 국어 교육의 개척자-국어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다-
 5. 학교문법에 반영된 건재의 이론
 6. 맺음말
- 참고문헌

1. 들어가기

국권을 상실했던 시절, 나라의 말과 글과 얼을 말살하려 할 때, “말과 글을 그대로 지니고 지켜가고 있는 민족은 비록 남의 민족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독립이 되어 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되 말과 글을 잃게 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굳은 신념으로” <국어운동 50년> 나라의 말과 글을 지키는 일을 했고, 나라를 되찾은 뒤에는 교육의 황무지에서 개척 정신으로 국어 교육의 터를 닦아 오늘의 국어 교육이 있게 한 선각 중의 한 분이신 건재 정인승 선생의 업적과 정인승 선생이 현대 국어와 국어 교육에 끼친 영향을 살피도록 한다.

2. 건재 정인승 선생은 어떤 분인가?

2.1. 출생과 가정 환경

정인승 선생은 1897년 음력 5월 19일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129번지에서 한학자인 정상조님과 송성녀 여사의 3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동래이고 자는 경범(景範)이며 호는 건재(建齋)이다.

마을의 부호로 대대로 한학을 숭상하는 선비 집안이었다. 고조할아버지 정존성님은 한학자로 교류가 깊던 우의정 유후조의 천거로 정2품 판서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향리에서 학문에 몰두했고, 증조할아버지 정태유님, 할아버지 정기성 형제님, 아버지 정상조님이 모두 한학자인 선비 집안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족보 일로 서울에 자주 다녀서 세상을 보는 눈이 앞섰다. 서울에 갔다 올 때면 늘 책을 사 왔는데 책을 주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되 벼슬이나 출세는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2.2. 가풍에 따라 한문을 공부한 건재 정인승

정인승 선생은 한학을 숭상하는 가정의 영향을 받아 한학을 공부했다. 다섯 살 때 한학을 배우기 시작해서 다섯 살에 『천자문』을 떼고, 여섯 살에 『동몽선습』, 일곱 살에 『소학』을 떼었으나 『소학』을 떼지 못해서 다음 과정은 언해본을 통해 혼자 힘으로 공부했다. 아홉 살에 『자치통감』, 열한 살에 사서, 열세 살에 삼경, 열여섯 살에 『주역』을 끝으로 한문 공부를 마쳤다.

정인승 선생은 이때 언해본으로 공부한 것이 나중에 국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2.3. 경험에서 얻은 항일 애국 사상

2.3.1. 을사보호조약

정인승 선생이 나라 사랑, 겨레 사랑, 항일 사상이 싹트게 된 계기는 을사보호조약과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주둔하던 일본군의 만행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철이 들만하게 된 아홉 살 때의 어느 날, 당시의 애국신문이었던 <황성신문>에 특호 활자로 “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고 보도된 것을 보신 아버님의 통곡 소리에 영문을 모르고 함께 따라 울었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내 나이 여든일곱에)>

아홉 살 때였는가 싶다. 우리 집 사랑에 수 십 명의 어른들이 모여 방바닥을 치고 우는가 하면 비통한 목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무언가를 쓰는 것이었다. 아버님께 여쭙어보니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들려주시며 나라에 올리는 상소문을 쓴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에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얘기를 듣자 어린 소견에도 어찌나 분하고 억울한지 그 시절 이후부터는 왜놈만 보면 진저리를 치게 되었다.<(국어운동 50년)>

2.3.2. 의병토벌대

마을에서 가장 큰 정인승 선생 집을 징발해서 병참소로 사용하며 만행 저지름

덕유산 아래에 있던 정인승 선생의 마을은 의병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자 일본군의 토벌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일본군 토벌대는 마을에서 가장 큰 정인승 선생의 집을 징발해서 병참소로 사용하면서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정인승 선생은 이때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

이런 난리 속에 동네에서 가장 크던 우리 집은 일본군에게 징발당하여 병참소로 사용되었다. 우리 집을 근거로 주변에서 의병들의 토벌 작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밤이면 이들이 잡아 온 의병들을 고문하느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동네 앞산 소나무에 사람을 달아놓고 총살을 하는 일도 가끔 있었다. 우리 땅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와서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을 저처럼 무참히 죽이는 일본군의 잔인성에 피가 끓었지만, 힘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는 없는 일이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정인승 선생의 형이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다.

하루는 나의 형 인영이 일본군의 총에 맞아 팔을 다친 적도 있다. …… 그 마을 이장 집으로 쫓겨 가서 숨을 돌리고 보니 형의 바른팔에서 피가 새어 나오는 것이었다. 이장 어른이 일본군에게 가서 의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약을 얻어다 간단한 치료를 했다. 다행히 형의 상처는 심하지 않았다.

정인승 선생이 어릴 때 보고 겪었던 이러한 일들은 소년 정인승의 나라 사랑과 겨레 사랑,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2.4. 계몽 사상을 실천하다

2.4.1. 서당 없어진 자리에 동신학교를 세우다

정인승 선생은 한문 공부를 마친 뒤에 서당이 있던 자리에 동신학교라는 간판을 세우고 형 뺨, 아저씨뺨 되는 사람 30여 명을 모아 놓고 역사와 국문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 정인승은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런데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보통학교 졸업장이 필요했다. 정인승 선생은 19세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투 틀고 갓 쓰고(14세에 결혼했음) 용담보통학교 2학년에 입학해서 1년 반 만에 졸업했다.

2.5. 신학문에 대한 열망

2.5.1. 신학문을 접하게 된 배경

① 사촌 형의 영향

나의 고향에는 나보다 나이가 7세 위로서 글재주가 비범한 사촌 형이 있었는데, 17세 때 한문의 사서삼경을 다 떼고, 당시의 이른바 신학문을 공부하기 위하여 서울의 흥화학교(興化學校)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중에, 나라의 합방을 당하여 서울 유학을 중지하고 당분간 집에서 휴양하고 있었다.

나는 그보다 나이가 어리어서 그냥 한문 서당에서 구식대로 쉬운 한문책과 사서삼경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촌 형이 돌아온 뒤부터는 그에게서 여러 가지 신학문 서적과 새 지식 글을 얻어두고 배우고 하던 중에서, 사촌 형은 나의 공부 늘어가는 것을 무척 기뻐하여, 서울서 구해온 여러 가지 책들 외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의 문학 강의록과 정치학 강의록을 구해다가 둘이 함께 공부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나는 내간으로 차차 세계 형편 돌아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사고할 줄을 조금씩 알아 가게 되었다.<나의 국어생활을 돌아봄, 학술원, 1983.8.15.>

② 아버지가 사다 주신 책으로 공부하다

조부의 형제분과 선친께서도 모두 한학에는 통달하신 학자들이셨다. 그러나 동래 정씨의 족보 일을 위해 서울 왕래가 잦으셨으므로 깊은 산골의 한학자로서는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고가 많이 깨쳐있었던 것 같다.

.....

당시 선친께서 사다 주신 책은 조선역사, 동국사략, 만국지리, 이명철이라는 수학자가 쓴 산학통편이라는 산술책, 세계역사 외에 물리, 화학, 천문에 관한 것들까지 있었다.

나는 이 책들을 겹장이 떨어지도록 지니고 씨름을 하며 줄줄 외울 정도까지 익히고 익혔다. <국어운동 50년, 남기고 싶은 이야기, 중앙일보 연재 >

2.5.2.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준비하다

① 독학으로 신학문 공부하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려면 일본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박중화라는 사람이 쓴 『일어대해』라는 책을 익히기도 했다. 그때 일어책은 일본어에 우리 한글로 토를 달아서 독학도 가능했었던 것이다.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재미가 붙고 자꾸 욕심이 생겼다. 아버지가 사다주시는 대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신학문의 책은 거의 섭렵을 하고 이제는 당시 일본의 와세다대학에서 발행했던 강의록을 보기 시작했다. 문학 과목을 받아 보다가 법률·경제에 관한 것까지 받아 읽었다. 새로운 천지가 눈앞에 열리는 그러한 느낌이었다. 나라는 임금이 다스리는 줄만 알았는데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것도 이때였다. 그리고 산술에 특히 흥미를 느껴 이처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밥만 먹으면 책을 끼고 사니까 할아버지께서 저러다 병이 나면 어쩌느냐고 책을 빼앗은 일도 있었다.<국어운동 50년 >

② 세 번의 가출 끝에 허락을 받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서울로 가려 했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가출을 시도해서 가출 세 번째에 허락을 받고, 친척이면서 한학자인 정만조님 집에서 살면서 강습소 보결시험을 보았다. 독학으로 공부가 되었었기 때문에 4년 과정을 1년에 마칠 수 있는 중등학교 강습반에 입학했다. 중등학교를 1년 만에 마친 정인승 선생은 내자동에 있는 종교 예배당 영어 강습소에서 3개월간 공부를 했다.

2.6.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를 돌리며 참가하다

정인승 선생은 1919년 봄에 법률전문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서울에는 아직 대학은 없었고 전문학교로 법률전문, 의학전문, 고등공업, 고등상업 등 일본 사람이 세운 학교와 아직 총독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채로 기독교 계통의 서양인들이 운영하던 연희전문이 있었다.

법률전문에 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기다리던 3월 1일 기미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청년 정인승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낮에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어다니고 밤에는 등사판으로 복사판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골목골목 배달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 길에서 만난 청년들로부터 법률전문이 일본인이 세운 학교라는 소리를 듣는다. 청년 정인승은 법률전문이 일본인이 세운 학교라는 소리를 듣고 시험을 포기한다.

입학시험을 포기한 정인승 선생은 독립선언문을 숨겨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2.7. 건재 국어학에 영향을 준 분

2.7.1. 연희전문학교에서 받은 한글사랑 정신이 정인승 선생의 학문적 뿌리

일본인이 세운 학교가 싫어서 법률전문 입학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갔던 정인승 선생은 그해 겨울 다시 서울로 올라와 연희전문에 응시하여 1등으로 합격한다. 연희전문 재학 시절 청년 정인승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은 삼 년 선배인 김윤경, 위당 정인보 선생, 피셔(Fisher) 교수, 원한경(U. Underwood) 교수였다. 이 네 분들로부터 학문적·사상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김윤경 선생과 정인보 선생은 이후 정인승 선생이 국어학을 연구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다.

“김윤경님은 그의 옛 스승 주시경 선생의 창의적인 국어문법 학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나에게 우리 말을 연구하게 영향을 준 바가 적지 않아 영문법 교수인 백남석 선생의 『영어 구문론 해설』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것과 함께 나름대로 국어문법에 대한 이치를 전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내 나이 여든일곱에>

“위당 정인보 선생님한테서 수사학을 배웠는데 정인보 선생은 ‘새벽 소리 찬바람에’를 예로 들면서 ‘한문으로 된 국문보다 우리말이 더 재미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말의 우수성을 깨달았다.”<88세 때 건국대학교 대학원 종강에서, -한글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김윤경 → 주시경의 국어문법

백남석 → 영어 구문론

정인보 → 우리말의 우수성

2.7.2. 미국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하다

연희전문 졸업을 앞둔 정인승 선생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미국에 갈 결심을 한다. 피셔 교수가 스칼라십을 마련해주고 미국에서 돈을 버는 방법도 소개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에 가는 데는 두 가지 난관이 있었다.

첫째는 집안의 반대가 강해서 허락을 받을 수 없었다. → 정인승 선생은 전에 가출하던 방식으로 가족 모르게 미국으로 갈 결심을 했다.

둘째는 돈의 문제였다. → 이기연(주월 한국군 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세호 장군의 아버지) 씨가 미국 가는 것을 1년 늦추고 그동안 돈을 벌어서 내년엔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취직을 권유하고 송도고등보통학교 윤치호 교장에게 소개해주었다.

2.8. 국어운동의 시작

2.8.1. 민립학교라는 말에 고창고등보통학교(고창고보)의 교사가 되다

송도고등보통학교 윤치호 교장의 제의에 따라 송도고등보통학교의 영어 교원으로 가기로 함.

부임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고창고등보통학교 양태승 교장이 교육에 대해 토론하자며 만날 것을 제의. → 윤치호 교장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만나기를 거절했으나 거듭된 제의에 마지못해 양태승 교장이 머물던 전통여관을 찾아서 만났다. 첫날은 교육에 대한 토론만 하고 헤어졌으나 다음날 만나서는 고창고보가 민립이고 아직 체계가 덜 잡힌 학교라면서 고창고보로 와 줄 것을 제의한다. 처음에는 안 가려 했으나 민립이라는 말에 이끌려 고창고보로 가기로 한다.

2.8.2. 본격적인 국어 운동의 시작

고창고등보통학교의 부임은 정인승 선생을 본격적인 국어 운동으로 이끌었다. 정인승 선생은 고창고등보통학교에 영어 교원으로 부임했다. 같은 날 체조의 이병학(뒤에 사돈이 됨. 이미연 양의 증조부), 수학의 유찬식 선생도 부임했다. 이 세 선생은 ‘민족혼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점과 ‘학교를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이 통했고, 이후에도 함께 뜻

을 합쳤다.

① 영어 교사로 부임했지만 정규시간 외에 국어를 더 많이 가르치다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 부임한 것은 영어 교원이었다. 그런데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 부임해서 보니 일본어 시간은 1주에 여섯 시간씩 배정되어 독본, 습자, 작문 등을 골고루 가르치고 있으나 조선어(국어) 시간은 1주일에 한 시간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장차 조선어 시간을 없앨 움직임까지 있었다.

정인승 선생은 이때의 일을 “내가 고보에 간 것은 영어 교원으로 간 것이지만 이런 현실을 보니 분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국가관과 민족 관념을 심어주려면 국어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인승 선생은 교장에게 국어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어(조선어)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교장은 정인승 선생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총독부의 교육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정인승 선생은 하는 수 없이 정규시간이 아닌 과외로 지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지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비공식적인 방법에 한계를 느낀 정인승 선생은 교장을 움직여 고창고보를 설립하여 운영한 적이 있고 일본 중의원을 지낸 바 있는 마쓰도미를 설득했다. 조선 사람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던 마쓰도미는 총독을 설득해서 총독으로부터 교육령은 고칠 수 없되 고창고보에 한해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비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정인승 선생은 조선어 시간을 1주에 5시간(독본 2시간, 문법 1시간, 작문 1시간, 습자 1시간)으로 늘린다. 그리고 진급 제도에서도 평균 60점이면 과목낙제에 관계없이 진급되었으나 조선어 과목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진급시키지 않는 등 조선어 교육을 강화했다.

② 나라말과 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서 유학의 꿈을 버리고 국어 교사가 되다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 부임한 것은 영어 교사였지만 국어 교육에 몰두하느라 전공을 국어 교사로 바꾸고 영어 교사는 박희성이라는 분을 별도로 채용했다. 그뿐 아니었다. 정인승 선생은 그렇게 갈망하던 미국 유학의 꿈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국어(조선어) 교육에 몰두한다. 정인승 선생 자신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겨레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말과 글을 그대로 지니고 지켜가고 있는 민족은 비록 남의 민족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독립이 되어 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되 말과 글을 잃게 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굳은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다.”(<국어운동 50년>에서)

정인승 선생은 국어 교육의 시급성과 독립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소망하던 미국 유학의 꿈을 접었다.

③ 애국 학생을 보호하여 고창고보를 민족학교로 키우는 역할을 하다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 부임한 지 4년이 되는 1929년 11월 광주에서는 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 학생운동은 5개월 동안 전국에서 5만 4천여 명이 참가하는 학생운동으로 변어나

갔다.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총독부에서는 주요 학생들은 모두 퇴학시키도록 조치하고 퇴학당한 학생들의 명부를 작성해서 사상 불온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어느 학교에도 전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애국정신으로 똘똘 뭉친 정인승·이병학·유찬식 세 선생은 애국 학생의 전학을 받기로 하고 교장을 설득했고, 교장도 세 선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창고보에서는 총독부의 방침에 굴하지 않고 우수 학생들은 시험을 보아 모두 전학을 받아들였다. 이 소문이 전국으로 번지자 함경도, 평안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왔고, 일본 사람들에게 고창고보는 민족주의자들의 소굴로 인식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북에서는 오산 고등학교, 남에서는 고창고보가 민족정신이 가장 강한 학교가 되었다.

④ 일제의 감시를 피해 사표를 내다

조선어 교육의 강화에 이어 사상 불온으로 퇴학당한 학생들을 받아들이자 학무국에서는 고창고보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기게 되었다. 일제 당국은 결국 고창고보를 말 잘 듣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시간의 문제이지 고창고보가 공립이 되는 것은 뻔했다. 또 세 선생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심해졌다. 정인승(교무)·이병학(서무)·유찬식(교장) 세 선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의 끝에 1935년 8월 학교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정인승 선생은 서울로 올라와 돈암동에서 양을 기르며 책을 보고 있었다.

3. 사전 편찬의 개척자가 되다

3.1. 고창고보 교사 시절 물음과 대답을 통해 조선어학회와 관계를 맺다

정인승 선생이 조선어학회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늦어도 고창고보 교사(조선어 및 영어 담당) 때에는 ‘한글’을 구독했던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1934년 4월에 나온 ‘한글’ 제11호에 실린, 선생의 질의와 그 해답(김윤경 선생이 답변)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이것이 현재로서 기록으로 증명되는 최초의 기록이다.”<건재 선생의 ‘의문·해설 한글 강화 : 이의도>

3.1.2. 최현배 선생의 권유로 사전 편찬의 일을 맡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외솔 최현배 씨가 뜻밖에 나의 목장엘 찾아왔다. 외솔은 당시 연희전문에서 강의하면서 김윤경, 이희승 씨 등과 함께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간부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와는 고창고보에 있으면서도 늘 연락을 취해오던 터였다.

외솔은 나에게 아직껏 우리말사전이 없어 조선어학회에서 여기에 뜻을 두고 여러 방향으로 집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할 만한 사람이면 교편을 잡고 있어서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또 능력이 달려 간부들끼리 의논한 끝에 정 선생에게 맡기자고 결정이 되었으니 꼭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 그러자 외솔은 정 선생이 굳이 사양하면 사전을 만들지 못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권유하면서 충분치는 못하나마 경비도 시작할 만큼 준비는 되어있으니 꼭 맡아주어야 된다고 졸라댔다.<국어운동 50년>

3.1.3. 사전 편찬 준비 역사

① 조선광문회 : 주시경·권덕규·이규영·김두봉 등이 최초로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하기 시작하다.

- ② 계명구락부 : 1927년 계명구락부가 원고를 물려받고 이 사업을 이어갔으나 역시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다.
- ③ 조선어학회 : 1929년 10월 31일 제483돌 한글날 기념식을 갖고 1백 8명이 학회 회관(당시는 수표동)에 모여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만든 것은 주시경 선생 등이 이루지 못한 사업을 완수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조선어사전 편찬회’는 “일찍이 문화발전에 유지한 민족들은 언어 및 문자의 정리와 통일을 급무로 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과거의 모든 문명 민족이 제각기 자기 어문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어와 표준 문자를 제정하여 동시에 표준사전을 편성하여 어문의 통일을 도모하였고, ……… 금일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을 갱생할 첩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추진하는 방편으로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출발했다.

- ④ ‘조선어사전 편찬회’는 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의한 2년 뒤인 1931년 착수했다. 그러나 경비 부족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 ⑤ 경비 문제로 중단되었던 사전 편찬사업은 이우식·김양수·장현식·김도연·이인·서민호·신윤국·김종철·설태희·설원식·윤홍섭·민영옥·임혁규·조병식 등 열네 명의 인사들이 1만 원의 희사금을 거두어 냈고, 사전 편찬을 촉진하기 위한 비밀후원회를 조직하여 어느 정도 경비를 마련한 뒤에 3년을 기한으로 박차를 가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3.1.3. 사전 편찬 조직

최현배 선생이 정인승 선생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당시 최현배·김윤경·이희승 등이 조선어학회의 간부로 사전 편찬의 일을 맡았으나 이 세 분들은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집필에 전담할 사람을 찾던 중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서 퇴직하고 목장의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정인승 선생이 사전 편찬의 일을 맡기로 한 뒤로 업무 분담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 ① 외무 활동을 비롯한 전체 회무 : 이극로
- ② 예산의 집행을 비롯한 회계 : 최현배
- ③ 주필 : 정인승
- ④ 상임 집필 : 정인승·이극로·이중화·한징·이윤재 다섯 사람

정인승 선생이 최현배 선생의 제의에 따라 <우리말사전>을 착수한 것이 1936년 4월 1일이었다.

3.1.4.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규정 제정에 참여하다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등 세 가지 규범이 정해져야 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불규칙해도 사전을 만들 수 없다. 다행히도 조선어학회에서는 1929년 사전 편찬을하기로 결의한 뒤로 이 세 가지 일을 추진해왔다.

① 한글 맞춤법 통일안 고찬판 수정위원으로 활동하다

- ㉠ 맞춤법통일안 제정위원으로 권덕규·김윤경·이병기·이운재·이희승·장지영·정인섭·최현배·박현식·신명균·정열모·이극로 12명을 선정하다.
- ㉡ 12인의 위원이 2년 동안 69회, 211시간 심의를 해서 1932년 12월에 맞춤법 원안을 작성하다.
- ㉢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6명을 더 뽑아 19명의 위원회가 되다. 19명의 위원이 경기도 개성에서 1933년 1월까지 회의를 열고 원안에 대한 제1 독회를 가지다.
- ㉣ 이 원안에 대한 수정위원 10인을 뽑아 6개월에 걸쳐 수정을 가하고 전체 위원이 모여 화계사에서 제2 독회를 마치다.
- ㉤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리위원 9명을 뽑아 최종 정리를 끝내고 1933년 10월 19일 공표하다.

이때까지 정인승 선생은 조선어학회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정인승 선생이 사전 편찬의 일로 학회에 들어온 뒤로는 맞춤법 통일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정리하면,

- ㉦ 1937년 3월 1일 펴낸 고찬판에서 수정위원 7인 가운데 한 분으로 참여하다.
- ㉧ 1940년 6월 발표한 새판의 개정 조항 기초위원 3인(이희승·이극로·정인승)으로 참여하다.
- ㉨ 1980년 8월에 발표한 '한글맞춤법'의 수정위원으로 참여하다.

② 표준어 사정

- ㉠ 1935년 1월 2일 그동안 표준어로 수집한 4천여 어휘를 표준어 사정위원회 제1 독회를 열어 사정위원 40명에게 내어놓았다.
- ㉡ 제1 독회는 온양에서 이희승 선생이 의장이 되어 참석한 32인이 회의를 열고 사정한 뒤에 김창제·김윤경·김형기·방종현·신윤국·안재홍·이극로·이기윤·이만규·이숙종·이운재·이호성·이희승·최현배·한징·홍애스터 등 수정위원 16명을 뽑아 수정하도록 했다.
- ㉢ 제2 독회를 8월 우이동 봉황각에서 열었다.
- ㉣ 제3 독회를 1936년 7월 인천 제1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열다.(사정위원 73명이 됨)

정인승 선생은 제3독회에 참석하여 문세영·윤복영·이강동·이극로·이만규·이운재·이중화·이희승·최현배와 더불어 최종 수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종 수정위원은 총 5,669개의 낱말 가운데 3,001개 낱말을 골라 표준어로 정해서 1936년 10월 28일 표준말 발표식을 가졌는데 이운재 선생이 설명을 맡았다.

③ 외래어 표기법

- ㉠ 1931년 1월 24일 조선어학회 주최로 각계의 권위자 45명으로 구성된 <외래어 표기법 및 부수문제 협의회>의 결의로 조선어학회에서 책임을 맡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 ㉡ 책임위원으로 이희승·정인섭·이극로 3인을 뽑아 이들로 외래어 표기법, 일본말 소리 표기법, 우리말 소리의 로마자표기법, 우리말 소리의 만국음성기호 표기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 ㉢ 슬기를 모으기 위해 조선음성학회, 일본음성학회, 만국음성학협회, 세계언어학자대회, 국제실험음성과학대회, 세계음운학대회 등 권위 있는 연구 단체의 조언을 받았다.
- ㉣ 8년 동안 연구와 심의를 거쳐 1938년 가을에 외래어 표기법, 일본어음 표기법, 한국어음 로마자표기법, 한국어음 만국음성기호 표기법에 대한 원안 만들었다.
- ㉤ 원안 전문을 등사하여 각계 인사 3백여 명에게 보내어 비평과 수정을 받은 뒤에 10년만인 1940년 6월 25일 학회회원 전원의 결의로 확정 발표했다.

- ㉞ 연희전문 교수 정인섭, 조선어학회 대표 간사 이극로, 이화여전 교수 이희승 3인의 책임위원과 이종화·최현배·함병엽(보성전문 교수)·김선기(연희전문 교수)·정인승 다섯 사람의 심의를 거쳐서 완성했다.

정인승 선생은 사전편찬의 주필을 맡으면서 한글맞춤법통일안, 표준어 제정, 외래어 표기법 제정 등에서 핵심적인 일을 담당했다.

3.2. 사전 편찬의 인쇄 과정

3.2.1. 쉽 없는 노력으로 사전 편찬의 일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글강습회를 열고, 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국어 교과서를 만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전 편찬의 일은 계속되었다. 1946년에 들어 사전 원고의 정리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고 원고 총 분량의 6분의 1 정도가 탈고되어 인쇄에 들어갔다. 인쇄는 을유문화사가 맡았다. 이렇게 해서 1947년 한글날(10월 9일)을 기하여 『우리말 큰사전』 첫째 권이 세상에 얼굴을 보이게 되었다.

3.2.2. 록펠러 재단의 인쇄물자 원조

문제는 물자 부족에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정으로 책을 만들 종이도 잉크도 절대로 부족했다. 을유문화사가 무리를 해서 사전의 첫째 권은 억지로 만들어 냈지만, 당시의 물자 부족은 더 이상 사전을 편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미국의 록펠러재단에서 신생국의 보람 있는 문화 사업을 위해 원조를 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학회는 이 소식을 듣고 록펠러재단에 물자 원조를 요청하고 교섭을 시작했다. 원조를 요청하자 록펠러재단에서는 조사단이 여러 차례 한국에 와서 실정을 알아보고 갔다. 그리고 1948년 12월에 록펠러재단의 이사회에서 사전 편찬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통지가 왔다.

사전 편찬 팀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모처럼 좋은 일을 해 보려다 힘이 부쳐 어쩔 수 없이 고심만 하고 있던 을유문화사 측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록펠러재단에서 보내온 물자는 종이와 잉크, 그리고 제본에 필요한 실과 표지를 만들 종이 등 4만 5천 달러 상당의 것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배편으로 보내온 이 물자로 『큰사전』 여섯째 권까지 각 2만 책씩을 인쇄할 수 있는 물량이었다.

3.2.3. 6·25 사변이 모든 노력을 잣더미로 만들었다

- ① 1949년 봄부터 『큰사전』의 둘째 권 인쇄를 시작하여 5월 5일에 발행을 했다.
- ② 1950년 6월 1일에는 셋째 권의 조판과 교정을 마쳤다.
- ③ 6월 25일에는 2만 책 분량의 인쇄를 마치고 제본 중이었으며 넷째 권의 조판도 끝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에 뜻하지 않은 6·25사변이 일어났다. 6·25는 나라 전체에 막심한 피해를 가져왔다. 한글학회에도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잣더미가 되었다.

한글학회의 을지로 새 회관 건물과 출판사에 보관하고 있던 원조물자가 모두 잣더미가 되었고, 제본을 기다리던 셋째 권과 조판을 끝내고 인쇄를 기다리던 넷째 권 모두가 잣더미가 되었으며, 편찬위원들은 각자 흩어져서 피난길을 떠나야 했다.

3.2.4. 9·28 수복 뒤에 원고 사본을 만들어 비상시를 대비했다

9·28 수복은 흠여졌던 편찬위원들을 서울로 불러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였다. 그런데 최현배 선생 댁에 숨겨놓았던 4·5·6째 권의 원고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편찬위원들이 모였다 하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원고가 잿더미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사전편찬위원들은 11월 12일부터 10여 명의 필경사를 동원해서 원고 1벌을 베꼈다. 1개월 동안 밤을 새워 베낀 결과 모든 원고의 베김벌(사본)이 만들어졌다. 베김벌(사본)은 두 겹의 독에 넣어 혜화동에 있는 최현배 선생 댁의 땅속에 묻고, 원본은 천안의 유제한 선생 댁에 묻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3.2.5. 피난 시절에도 사전 편찬의 일은 계속했다

정인승 선생은 6.25가 터지자 부산으로 피난했다가 수복이 된 뒤에 전주에 머물면서 전시연합대학과 명륜대학¹⁾에서 국어학의 강의를 맡았다. 그리고 1951년 4월 전북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개교한 뒤에 교무처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분교의 출강도 맡았다.

정인승 선생은 학교의 일과 강의로 바쁜 중에도 사전 편찬의 일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때 전주에는 권승욱 선생이 전주여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주에서 정인승·권승욱 두 선생이 원고를 정리했고, 서울에서는 정태진·유제한 두 선생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 서울에 있던 정태진·유제한 두 선생은 셋째 권과 넷째 권의 교정을 마치고 지형을 뒀다. 그런데 1952년 11월 2일 정태진 선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인승 선생은 원고 수정을 위해 서울에 있던 유제한 선생을 전주로 내려오게 해서 전주에 임시사무소를 차리고 1953년 5월 26일까지 다섯째 권과 여섯째 권의 원고 수정을 마쳤다.

원고 수정을 마쳤으나 문제는 인쇄할 물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록펠러재단에서 3만3천 달러의 물자를 준다는 약속을 해왔다.

3.3. 한글 파동

3.3.1. 한글 파동으로 사전 만드는 일이 중단되었다

1953년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한글 간소화’를 강요하는 ‘국무총리훈령 제8호’가 공표되었고, 사전 편찬 사업도 중지되었다.

한글 간소화 정책이 발표되자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한글학회에서도 1953년 5월 24일 “과학적으로 법칙이 확립된 현행 맞춤법을 버리고 구식 맞춤법을 쓰라 하면 학술 진리의 존엄성을 모독하여 전문학자들의 총의를 짓밟는 권력의 문화 교살이다”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3.3.2. 정부에서도 강하게 밀고 나갔다

한글 간소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했다.

- ① 대통령은 문교부 장관으로 있던 김법린을 해임시키고 이선근을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간소화(안)’을 만들었다.

1) 전북대학교의 전신. 호남의 거부 유직양이 세워서 국가에 헌납했다. 유직양의 아들은 국회의원을 지낸 유청이고 유청의 아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유훈근인데 유훈근은 가수 김상희의 남편이다.

- ② 록펠러재단에서 지원하는 물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 ③ 1953년 '유네스코'가 '운크라'와 합동으로 한글학회의 사업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하기로 한 82만 1천 달러의 원조를 외면해 버렸다.
- ④ 1954년 7월 2일에는 이선근이 비밀리에 작성한 '한글 간소화(안)'을 국무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3.3.3. 한글 간소화 운동이 파동으로 번지자 이승만 대통령이 정책을 포기

한글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국회로 번져서 1954년 6월 8일 송방용 의원을 포함한 12인이 긴급 동의안을 마련하고 채택해서 6월 10일 이선근 장관을 국회로 불러 추궁했다.

국회의 반대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대로 강행하라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가 거세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9월 19일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유에 부치고자 한다”는 중대 담화를 발표하여 한글 간소화 방침을 철회했다.

3.3.4. 한글 파동이 종결되고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사전 편찬 완결

록펠러재단의 원조가 끊겨 실의에 빠져있을 때 록펠러재단에서 3만 6천 4백 달러의 인쇄물자를 보내주겠다고 통보했다. 록펠러재단의 통보에 따라 1956년 4월 1일부터 각지에 흩어졌던 편찬위원들을 모으고 다시 증원해서 편찬의 일을 계속했다.

오랫동안 절판되었던 1·2·3권을 간행하고, 4·5·6권을 간행하고 부록까지 간행해서 1957년 10월 9일 『큰사전』은 완질의 형태를 갖추었다. 『큰사전』이 완간된 것은 1936년 이래 21년간의 인고의 결과였다.

3.3.5. 『큰사전』 편찬의 의의

3.3.6. 『큰사전』이 완간된 뒤에 『중사전』과 『소사전』을 편찬하다

『큰사전』이 완결된 뒤에 일반 대중을 위한 사전 편찬에 들어가 1958년 6월 15일 『중사전』을 완성하고, 1960년 4월 30일에는 학생용 사전인 『소사전』을 간행했다. 『소사전』은 단순히 올림말의 숫자를 줄인 것이 아니고 교육 용어, 과학 용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용어를 보완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한 사전이다.

3.3.7. 사전 편찬이 끝난 뒤에 대학 교수, 대학 총장과 국어 관련 각종 위원회에서 국어 발전에 힘썼다

정인승 교수는 사전 편찬이 끝난 뒤에는 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총장, 국방부의 중앙 지명 제정위원, 문교부의 한글전용 특별 심의회 전문위원회 주간, 문화공보부의 방송 용어 심의위원회 위원, 학술원 회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 국역 교열위원, 문교부의 국어 조사연구위원회 위원, 한글학회 <한글맞춤법 통일안> 수정위원 등 한글과 관련된 일을 맡으며 국어 발전을 위해 힘을 쓰셨다.

3.4. 『한글』 편집

1937년 10월(49호) ~1942년 5월(93호) :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의 편집·발행을 담당하다.

3.5. 물음과 대답

『한글』은 동인지 한글과 학회지 한글 두 종류가 있다. 동인지 한글은 1호부터 9호까지 나오다가 끊어지고 학회지 한글이 발행되었다. ‘질의·응답’이 마련된 것은 1932년 6월에 간행된 학회지 한글 제2호부터다. 이때 시작된 ‘질의·응답’은 이갑·최현배·이운재·김선기·이극로·이희승 선생들이 분담하여 답했고,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는 김윤경 선생이 혼자 답했다. 이때까지 정인승 선생은 질의자로 등장한다. 14호(1934.7)부터 제46호(1937.6)까지는 이운재 선생이 도맡아서 답했는데, 이때 최현배 선생과 이극로 선생이 1회씩 답했다.

그런데 1937년 6월 이운재 선생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정인승 선생은 이운재 선생의 뒤를 이어 대답을 집필했는데 1차는 1937년 10월(49호)부터 1949년 7월(108호)까지 집필했고, 2차는 1959년 10월 9일(125호)부터 1963년 9월 30일(132호)까지 집필했다. 이 기간 동안 45회의 대답을 집필했는데, 이 시기는 정인승 선생이 한글의 편집과 발행을 책임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²⁾.

4. 국어 교육의 개척자 - 국어교육의 터전을 마련하다 -

4.1. 마지막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다

함흥 감옥소에서 석방된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는데 이 열차는 서울에 오는 마지막 열차였다.

이 기차를 타지 못했으면 우리들은 영영 서울에 오지 못하고 말 운명에 부닥칠 뻔했다. 이 기차가 서울에 내려온 마지막 열차였던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 당국이 3·8선 이남에의 왕래를 차단해버린 때문이다.<국어운동 50년>에서)

4.2. 건준 어문 분야 참여하기로 했으나 파벌싸움이 싫어서 정치에 관여 안 하기로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정태진은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도착하면 건국준비위원회에 찾아가서 어문 분야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다음날 정인승 선생 일행이 시내에서 만났으나 건국준비위원회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갈려 파벌싸움을 하다가 사무실에 수류탄이 터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일행은 건국준비위원회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우리 본래의 임무인 우리말을 찾아내고 갈고 닦아 그 일을 통해 민족정신을 복돋우는 국어운동에만 전념하기로 했다”<국어운동 50년>

2) 이의도(1996) 참고

정인승 선생 등은 대신 화동에 있는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갔다. 조선어학회사무실에 가서 뽀얗게 쌓여 있는 먼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정인승 선생 등이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4.3. 임시총회를 열고 해방된 조국에서 할 일을 정하다

조선어학회는 8월 25일 안국동 예배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고 국어 운동에만 전념한다는 학회의 슬로건을 결의함과 동시에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어학회가 할 일로 다음을 결의했다.

- 첫째, 종전의 사전 편찬 사업을 계속한다.
- 둘째, 초·중등학교의 임시 국어 교과서를 편찬한다.
- 셋째, 국어 교사 단기강습회를 연속 개최하여 교사를 양성한다.
- 넷째, 새 목표에 맞게 조선어학회의 진용을 새로 갖춘다.

한글학회는 정인승 선생의 주장에 따라 결의 내용을 신문에 내기로 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신문이 매일신보 하나만 남아있었는데 학회는 매일신보에 결의 내용을 발표했다.

결의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것은 뜻밖의 효과를 거두었는데 당시 총독부의 학무국에 근무하던 김세영은 조선인 직원에게서 거둔 국방헌금 82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매일신보를 읽고 민족 문화 운동에 써 달라고 학회에 보내와서 이 돈으로 학회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4.3.1 국어 모르는 사람에게 강습회 열어 국어를 가르치다

국어 사용과 교육이 금지된 뒤에 갑자기 찾아온 해방은 국민의 문자 생활에 큰 혼란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각급 학교·관청·회사·은행·사회단체들은 한글학회에 강습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요청에 따라 학회의 회원들은 경향 각처의 한글강습회 강사로 나갔다. 각 지방의 요구는 더욱 밀려들어 보낼 사람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4.3.2. 국어 교사를 양성하다

해방은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 우선 그동안 우리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던 국어 교육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현황이었다. 그런데 국어를 가르칠 교사가 없었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국어 교원이 모자라는 실정을 단시일 안에 보충하기 위해 1945년 9월 11일부터 다음 해 1월 18일까지 세 차례의 한글강습회를 열고 사법부를 두어서 1천 8백 36명의 교원을 양성해 내었다.

의의 :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이때 교육받은 국어 교사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간접적인 제자들이다.

4.3.3. 국어 교과서를 집필 제작하다

국어 교사 양성과 함께 필요한 것은 국어 교과서의 편찬이었다. 학회는 9월 1일부터 교과서

집필을 착수했다. 그때 제작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3·4·5학년용 『초등국어교본』, 초등학교 5·6학년용 『초등국어교본』, 중학교 1·2학년용 『중등국어교본 상』, 중학교 3·4학년용 『중등국어교본 하』, 중학교 1·2학년용 『중등국어교본』이었고, 교사용인 『한글 교육 지침』 외에 초등학교 3·4·5·6학년 및 중학교용으로 『한글 첫걸음』의 집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한글 첫걸음』은 초등학교 3·4·5·6학년과 중학생이 공통으로 사용했다. 이 시대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모두가 한글을 배우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말과 우리글을 모르는 것은 같은 처지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우선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 모든 교육보다 급했다. 그래서 정인승 선생은 하루라도 빨리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 모든 교육에 앞선다고 생각해서 공통과목을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모두 같은 교과서로 같은 교육을 받게 했다.

의의 : 한글학회에서 집필한 교과서는 교육부로 보내 국어 교육의 터전으로 삼았다

학회에서 집필한 교과서의 원고가 완성되고 인쇄에 넘기려 할 때 미군정청의 문교부장³⁾인 앤더슨 소장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에 찾아왔다. 학회를 찾아온 앤더슨은 “문교부 직원들에게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진척된 것이 없다면 당장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재가 없어 큰일”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런 뒤에 조선어학회에서 교과서 편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도 답답해서 왔으니 문교부의 책임자로서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학회에서는 기왕에 조선 민족의 교육을 위해 집필한 원고이고 관의 도움을 받으면 일이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를 모두 넘겨주기로 했다.

앤더슨의 요청에 따라 학회에서 한 사람이 인쇄에 참여했는데 정인승 선생이 참여했다. 인쇄는 총독부에서 어용인쇄소로 사용하던 조선인쇄주식회사에서 했다. 책을 만드는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1945년 11월 6일에 해방 후 첫 번째의 국어 교과서인 『한글첫걸음』이 간행되었다. 『한글첫걸음』은 지은이 한글학회, 발행인 군정청 학무국으로 출판되었다. 본문 용지는 갱지이고 제본은 호부장본이며 편형은 국판이고 활자는 전문(본문 문장) 4호 활자로 했고, 가로쓰기로 했다.

『한글 첫걸음』이 출판된 뒤인 11월 20일에는 『초등국어독본(상)』이 출판되었는데 두 책이 출판되자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교과서 증정식을 열었다.

4.3.4. 우리말 다듬기

① 교육용 용어 만들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교육에 쓰는 구호들이 모두 일본어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로 바꾸어야 했다.

“이 사이에 학교에서 쓰는 구령을 모두 우리말로 바꾸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차렷, 열중쉬어 등등인데 ‘차렷’이라는 구령은 ‘정신을 차리고 의복·행장을 차린다’는 뜻에서 두고두고 봐도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어의 기오쓰께나 영어의 어텐션보다 훨씬 발음이나 의미가 좋은 것 같다.”고 회고했다.(〈국어운동 50년〉에서)

3) 현재의 문교부 장관에 해당됨. 당시 미군정 시절에는 부장을 한국인 한 명과 미국인 한 명을 두어 두 명의 부장이 있었다. 당시 한국인 분교부장은 유억겸 연희전문 교수가 맡고 있었다.

②. 일상 어휘 다듬기

벵포 → 도시락, 우동 → 가락국수, 장껌뽕 → 가위바위보, 남자 호칭 : 선비(김 선비),
여자 호칭 : 아씨

♣ 이 일은 주로 정인승, 최현배, 류제한이 맡아서 함.

의의 : 국어 교사를 양성, 국어 교과서 집필, 교육 용어 제정을 통해 국어 교육을 빠르게 정상화시켰고, 문맹률을 낮춤으로 현대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

5. 학교문법에 반영된 건재의 이론

5.1. 학교문법 통일안 제정의 역사

문법 용어가 각기 다르고 학설이 달라 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통일시키기로 했다.

1963년 7월 25일 : 학교문법 통일안 제정
1965학년도 : 중학교에서 시행
1968학년도 : 고등학교에서 시행
1979년 : 9품사와 문법 용어 292개로 통일
1985년 : 단일 교과서

5.2. 학교문법과 건재 이론

건재 선생의 이름으로 나온 교재는 모두 11종이다. 이 가운데 말본에 관한 것은 7종이며, 이 가운데 현대 말본에 관한 것은 6종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겹고 더한 것 이외에 체계에는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건재 선생님의 문법적 특징은 고등학교 『표준문법(1968)』을 대상으로 살펴도록 한다. 『표준문법』의 체계는 3장으로 짜여 있다.

모두 풀이 - 우리말 소리에 관한 것, 우리말 형태에 관한 것
씨의 풀이 - 이름씨, 움직임씨, 그림씨, 매김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월의 풀이 - 월의 짜임, 마디, 월의 종류

이 글에서는 건재 문법의 특징이 배어 있는 부분만을 가려서 설명하고 이어서 학교문법에 반영된 것을 소개하도록 한다.

5.2.1. 씨갈(품사론)

① 기능문법에 의한 일곱 품사 체계

건재문법의 전체적인 특징은 기능주의 문법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씨가름의 목적을 ‘말의

조직 체계를 연구하여 밝히는 것'이라 규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직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형태"이고, 그 다음이 "내용"이' 라고 하여 기능주의 문법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의 적용 방법으로는 '월에서의 낱말의 성질인 "어떠한, 무엇이, 어떠한다"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과 '다른 요소와의 구조적 관계'에 둬으로써 다음과 같은 7품사 체계를 이끌어 내었다.

이름씨 : '무엇이나'의 물음에 대답하는 말.

움직씨 : '무엇하느냐'의 물음에 대답하는 말.

그림씨 : '어떠하냐'의 물음에 대답하는 말.

매김씨 : '어떤'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말.

어찌씨 :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말.

느낌씨 : 월 안의 어떤 말과도 직접 연락 관계가 없다.

토씨 : 주로 이름씨에 붙여, 어떠한 관계를 가지도록(말과 말의 관계, 앞 말의 뜻 도움)함이 근본이다.

건재 문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씨갈에 나타나고 있는데, 씨갈의 첫 번째 특징은 대이름씨, 셈씨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모두 이름씨의 범주에 넣은 점이다. 즉 무엇이나, 무엇하느냐, 어떠한냐 등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말의 기본형식을 이끌어 냈는데, 이렇게 하여 이끌어낸 기본형식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무엇한다(움직임으로 말함)

무엇이 어떠한다(상태로 말함)

무엇이 무엇이다(명칭으로 말함)

설명하자면, '무엇이 무엇이다'에서 '무엇이다'는 모두 명칭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끌리는 사람, 소, 자네, 하나, 둘 등은 모두 명칭으로 이끌려 말뜻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직능과 형태는 같기 때문에 같은 씨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씨를 다시 세 갈래로 분류했다.

제이름씨 - 두루이름씨, 홀이름씨, 매인이름씨

대이름씨 - 사람대이름씨, 물건대이름씨

셈이름씨 - 으뜸셈이름씨, 차례셈이름씨

② 토씨 체계

건재 문법의 씨갈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은 토씨 체계에 나타난다. 이것은 건재 문법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며, 동사에 현대 국어문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비친 것이기도 한데 건재 문법의 토씨 체계는 아래와 같다.

자리토씨 - 임자자리, 풀이자리, 매김자리, 어찌자리, 부림자리, 기움자리

도움토씨 - 두루도움토씨, 마침도움토씨, 부름도움토씨

건재 문법의 토씨 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다’를 풀이자리토씨에 넣은 점

둘째, 안갓은움직씨에 걸리는 말을 모두 기움자리토씨의 범주에 넣은 점

셋째, 도움토씨의 처리 기준

㉔ ‘이다’를 풀이자리토씨(서술격조사)로

건재 문법에서는 ‘이다’를 풀이자리토씨의 범주에 넣고 있다. ‘이다’풀이자리토씨설은 현대 국어문법 논쟁사 가운데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인 동시에 건재 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 것으로 현재 학교문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다는 이름씨에 직접 붙는 토씨의 하나로서, 풀이자리로의 직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건재 문법이 기능주의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이다’의 끝바꿈이라는 형태상의 특징을 접어둔 것이다.

㉕ 기움자리토씨의 처리

기움말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대체로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기움말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 허용

‘~이/가 ~이/가 된다.’ ‘~이/가 ~이/가 아니다.’의 줄친 부분만 기움말로 인정하는 견해 - 대부분의 학자.

안갓은풀이씨에 걸리는 모든 말을 기움말의 범주에 포함 - 정인승

『표준문법』에서는 월의 조각을 임자말(조각), 풀이말, 매김말, 어찌말, 부림말, 기움말로 분류하고, 월에 대해서 ‘임자말과 풀이말은 언제나 갖추어야만 월이 되는 것이요, 매김말과 어찌말은 있든지 없든지 월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부림말과 기움말은 각각 남뭉지 씨나 안갓은풀이씨가 풀이말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월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와/과 같(비슷하, 다르)다.’와 ‘~만 못하다’의 ~와/과와 ~만을 기움말에 포함시킴으로써 월조각(성분) 사이의 기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85년에 개정된 학교문법에서는 건재 문법에서 기움말로 분류한 ~만과 ~와/과를 필수부사어로 처리하고 있다.

기움자리토씨 : 이름씨를 안갓은풀이씨의 기움말 되게 정하여 주는 토씨.

안갓은움직씨의 기움말 되게 함 :

~이 : 나는 장래 대장이 되련다.

~가 : 나는 장래 학자가 되련다.

안갓은그림씨의 기움말 되게 함 :

~이 : 저 애는 학생이 아니다.

~가 :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과 : 솔잎이 바늘과 같(비슷하, 다르)다.

~와 : 연기가 안개와 같(비슷하, 다르)다.

~만 : 내 키가 네 키만 못하다.

5.2.2. 씨끝 체계

『표준 고등말본』에 나타나는 씨끝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마침꼴 - 베풀법, 물음법, 시킴법, 이끄법, 느낌법
 이음꼴 - 마주이음법, 꾸밈이음법, 도음이음법, 따음이음법
 매김꼴 - 이제매김법, 지난적매김법, 도로생각매김법, 올적매김법, 따옴매김법
 이름꼴 - 박인법, 안박인법

형식을 ‘꼴’로 방법을 ‘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형식에는 말끝을 마치는 형식(마침꼴), 말끝을 마치지 않고 다시 다른 말과 이어지는 형식(이음꼴), 이름씨의 뜻을 매기는 형식(매김꼴), 이름씨 노릇을 하게 하는 형식(이름꼴) 네 가지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재 문법이 현행 학교문법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 -게, -지, -고’의 처리이다. ‘-아, -게, -지, -고’는 종전의 학교문법에서는 최현배 문법에서 부사형으로 처리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사형으로 처리하였으나, 1985년에 개정된 학교문법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도음이음법(보조적 연결어미)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형태상의 특징에 기대어 전성어미로 처리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이다.

5.3. ‘ㅣ’의 역행동화 문제

< ‘ㅣ’의 역행동화 문제(1936 : 『한글』 제41호)>는 ‘ㅣ’역행동화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 현상을 분류함은 물론 그 제약 조건을 밝혀서 설명한 글이다. 이 논문에서는 ‘ㅣ’치닿기의 원인을 ‘웃 음절 소리를 낸 구현(口形)은 그 소리의 끝을 막기 전에 곧 다음 음절 소리를 낼 준비 자세를 취함으로 인하여 자연히 소리에 이변이 생기는 것’이라 밝힘으로써 소리 낼 때의 경제성의 원리를 조음음성학적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ㅣ’치닿기의 유형을 3부류로 설명했다.

5.4. 어감과 어의 구별

< 모음상대법칙과 자음가세법칙 >

< 모음상대법칙과 자음가세법칙(1938 : 『한글』 제60호)>은 ‘국어 상징성의 풍부함을 파헤침과 동시에 거기에 정연한 법칙이 있음을 보여 준 논문’이다. 국어의 상징어가 홀소리 대립과 닿소리 첨가로 인해 어감과 어의(말뜻)에 변화가 생김을 밝힌 논문이라는 가치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상징어 연구라는 가치를 지닌다.

어감 표현의 각양 방식을 제시했다.

또 이 논문은 사전을 편찬할 때에 올림말을 정하고 뜻풀이를 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연구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물로 평가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 논문에 나타난 논리성은 건재 선생의 논리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90년 가까이 된 지금도 연구의 기본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5. 상징어의 풍부함을 밝힘

5.4. 참고

6.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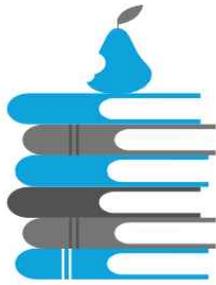
지금까지 정인승 선생이 현대 국어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 ① 정인승 선생은 『큰사전』 편찬에 처음부터 완간될 때까지 주필로 참여하여 완성시킨 국어사전 편찬의 개척자이며, 한글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을 제정할 때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어문규정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다.
- ② 나라를 되찾은 뒤에는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고 국어 교사를 양성했으며 교육 용어를 제정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터전을 마련한 국어 교육의 개척자이다.
- ③ 한글강습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가 혼란 없이 안정되게 했다.
- ④ 기능주의 문법관에 따라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분류하여 현재 학교문법에 반영되게 했으며 부사형 어미로 다루던 -아, -게, -지, -고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처리하여 학교문법에서 받아들이게 했다.
- ⑤ 논문 <모음상대법칙과 자음가세법칙>은 국어 상징성의 풍부함을 밝힌 논문으로 오늘날 상징어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고, 어감과 어의를 구별한 논문이다.
- ⑥ <'ㅣ'의 역행동화 문제>는 'ㅣ'역행동화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제약 조건을 제시한 논문으로 아직도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논문이다.

♣ 한말연구학회는 정인승 선생으로부터 국어학을 배운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정인승 선생의 학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회라는 점에서 정인승 선생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 있다.

■ 참고문헌

- 김승곤(1996). 「건재 정인승 선생의 생애와 학문」. 국립국어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이강로(1996). 「건재 선생이 사전 편찬에 남긴 이야기」. 국립국어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이의도(1996). 「건재 선생의 ‘의문·해설 한글 강화」. 국립국어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조오현(1996). 「나의 스승 건재 정인승 박사님」. 국립국어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조오현(1995). 「정인승」. 주시경학보 17집.
- 정인승(1972). <남기고 싶은 이야기>. 중앙일보 제2223호~2247호. 『건재 정인승 전집』6권.
- 한글학회(1986). “건재 정인승 선생 구순 기념 특집”. 한글 제191호.
- 정재도(1997). 「건재 선생의 생애와 사상」. “건재 정인승 특집호”. 나라사랑 제95집.
- 조오현(1997). 「기능주의 관점에서 살핀 건재 선생의 학문」. 나라사랑 제95집.
- 김승곤(1997). 「교육자로서의 건재 정인승 선생」. 나라사랑 제95집.
- 이의도(1997). 「건재 정인승 선생의 애국운동」. 나라사랑 제95집.
- 이강로(1997). 「우리말 큰사전과 건재 선생」. 나라사랑 제95집.
- 류제한(1997). 「건재 정인승 선생과 나」. 나라사랑 제95집.
- 정인승(1997). 「국어운동 50년」. 전북일보 연재. 『건재 정인승 전집』6.
- 김일근(1997). 「인간 건재 선생의 편모」. 나라사랑 제95호.
- 박지홍(1997). 「인간 건재 선생의 이모저모」. 나라사랑 제95호.
- 박병순(1997). 「건재 정인승 스승님의 추모」. 나라사랑 제95호.
- 정인승(1983). 「내 나이 여든 일곱에」. 『건대학보』36.



제3부

제1 발표장

주제 발표: 국어학사

[한말연구] HANMAL RESEARCH CIRCLE
한말연구학회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1938)과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1920) 미간행 원고의 비교 연구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 차례 >

1. 서론
2. 거시구조의 비교
3. 미시구조의 비교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1938년 7월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이하 『조선』)은 출판이 이루어진 최초의 종합적¹⁾ 국어사전이다. 『조선』이 간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²⁾ 몇 달 만에 초판 1,000부³⁾가 매진되자 박문서관은 그해 12월 재판을 2,000부 발행하였다⁴⁾.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어사전이 없던 상황에서 『조선』은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조선』이 출판되기 전에도 국어사전을 발행하기 위한 작업들은 여러 경로로 진행되곤 있었다.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과 그의 제자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등이 1911~1913년 사이에 『말모이』 편찬 작업을 시작해 1916년경 집필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주시경의 사망과 김두봉의 중국 망명으로 출판에는 이르지 못했고, 현재는 표제어 ‘가~갈죽’ 부분의 원고만 남아 있다⁵⁾. 또한 1929년부터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도 『큰사전』 편찬을 시작했는데 1939~1940년 신문 기사들을 보면⁶⁾ 출판이 머지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보이나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이운재와 한징 등 사전 편찬의 핵심 인사들이 투옥되었다가 사망하고 사전 원고도 증거물로 압수되며 결국 28년 만인 1957년에 완간되었다.

1) 이보다 13년 앞선 1925년에 심의린이 편찬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이 간행된 바 있지만 이는 특수 목적 사전으로 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사전이었다. 6,000여 개 되는 이 사전의 표제어는 대부분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었고 일부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통 사용되는 말도 포함되었다(박형익 2004/2006:178).

2) 「心血傾注! 九年間 朝鮮語辭典 獨力 完成」, 『조선일보』, 1938.7.12., 3면.; 「文世榮 氏의 朝鮮語辭典」, 『조선일보』, 1938.7.13., 1면.; 「朝鮮語辭典 出來」, 『동아일보』, 1938.7.13., 1면.; 「新刊評: 文世榮 氏 力著 朝鮮語辭典 評」, 『조선일보』, 1938.7.22., 5면.

3) 1939년 1월 1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單 두 坪 되는 마루에서 朝鮮語辭典 完成」에서는 『조선어사전』 초판이 1천 부가 매진되어 재판을 내게 되었다고 한 것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1939년 1월 11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永遠不朽의 功績을 싸흔 朝鮮語辭典再版遂發賣」에서는 초판 2천 부가 매진되었다고 하여 수치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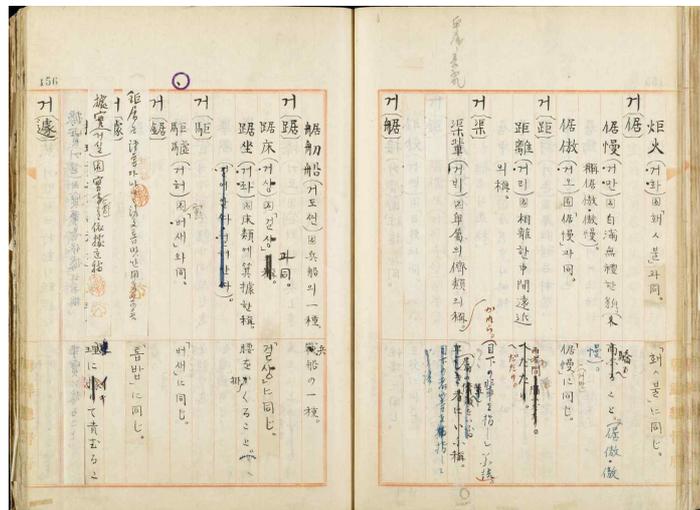
4) 「永遠不朽의 功績을 싸흔 朝鮮語辭典再版遂發賣」, 『조선일보』 1939.1.11. 재판 발행 부수에 대해서는 박용규(2011b:79)를 참고하였다.

5) 디지털한글박물관(<https://archives.hangeul.go.kr/>) 『말모이』 해제 참고.

6) 「조선말광 完成在邇 四月까지는 出現!」, 『조선일보』 1939.1.18., 2면.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자료는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1920)의 집필 과정에서 작성된 「조선어사전원고(朝鮮語辭典原稿)」(이하 ‘원고’)의 한국어 뜻풀이 부분이다. 『조선어사전』은 조선총독부의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 중 사서 편찬 작업의 결과물로, 이 사업은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해 조선의 역사, 토지, 관습, 제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선의 옛 문헌에 대한 해독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일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선식 한자어나 조선의 고유어들을 일본어로 풀이한 사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1911년 4월부터 어사의 수집에 착수하였고 이듬해 참서관실로 이관된 이후 1913년 제1~3회 심사위원회, 1914년 제4~5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1917년 12월 초본이 완성되었는데, ‘원고’는 바로 이 초본으로 추정된다(안예리 2017:69-73)7).

‘원고’의 체제는 <그림 1>과 같이 한국어 표제어를 먼저 한국어로 풀이하고 그 하단에 일본어 풀이를 덧붙인 것이었는데, 최종 출판 시에는 한국어 뜻풀이 부분은 삭제되어8) 결국 『조선어사전』은 한국어 표제어를 일본어로 풀이한 이중어사전으로 간행되었다. ‘원고’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奎15542)9).



<그림 1173> 규장각 소장 「조선어사전원고(朝鮮語辭典原稿)」

- 7) 출판본에서 일부 표제어가 삭제되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예를 들어, ‘원고’에는 ‘可’ 항목 아래 ‘가궁(可矜)’이 실려 있고 이후 고유어 및 혼종어 목록에 ‘가궁(可矜)하다’가 실려 있던 반면, 『조선어사전』에는 ‘가궁(可矜)하다’가 빠져 있었다. 어근의 의미만 수록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8) 『조선어사전』의 집필 과정에서 남겨진 한국어 뜻풀이에 대해 최경봉(2017)에서는 일본어 뜻풀이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녔을 뿐 최종 출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안예리(2017)에서는 이병근(1985)에서 주장한 대로 본래 단일어사전과 이중어사전을 겸하도록 기획되었으나 편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1918년 1월~1919년 3월 사이 사전의 체제를 이중어사전으로 바꾸면서 조선어 뜻풀이 부분과 일부 표제어들이 삭제되었다고 하였다.
- 9) 『조선어사전』의 집필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사서원고(朝鮮辭書原稿)」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원고(奎15543)」가 있는데, 전자는 1914년경의 편찬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어 뜻풀이와 일본어 뜻풀이가 모두 실려 있는 반면, 『조선어사전』 인쇄 직전인 1919년 3월에 완성된 「원고(奎15543)」에는 한국어 뜻풀이가 삭제되고 일본어 뜻풀이만 실려 있다. 「조선사서원고」에 대해서는 이병근(1985), 矢野(1986), 최경봉(2017), 안예리(2017)를 참고할 수 있으며, 안예리(2017:68)에 따르면 「조선사서원고」와 본고의 검토 대상이 되는 ‘원고(1917 추정)’ 간에는 표제어나 뜻풀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다.

『조선사서원고』나 ‘원고’에 포함된 한국어 뜻풀이는 이중어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일본어 뜻풀이 번역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띠었을 수도 있고(최경봉 2017), 단일어사전을 겸하는 구실로 작성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안예리 2017). 어느 경우든 앞서 언급한 국어사전 편찬 작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전의 체제 속에서 한국어 표제어를 한국어로 풀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들은 국어사전사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전의 편찬자는 사전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표제어의 범위를 정하게 되고, 개별 어휘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 그 표기와 발음, 그리고 의미를 규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편찬된 사전이라 해도 수록하고 있는 내용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20세기 전반기에 집필된 국어사전들은 일종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기출판 사전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집필자의 관점에 따른 차이가 더욱 컸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규범화의 초창기에 집필된 『조선』과 ‘원고¹⁰⁾’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비교·대조해 보고자 한다. 『조선』은 문세영 개인이 편찬했지만 조선어학회의 어문 규범을 반영했고, “지은이 말씀”에서 사전의 체계를 세울 때나 교정 과정에서 조선어학회 이운재의 지도를 받았다고 밝힌 것처럼 민족주의 어문운동 단체인 조선어학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전이었다. 반면 ‘원고’는 일본 제국주의 최고의 식민 통치 기구에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식민 통치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된 것이었다¹¹⁾. 이러한 편찬 주체의 성격 차이가 두 사전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¹²⁾.

2. 거시구조의 비교

2.1. 표제어의 선정

사전 편찬자는 사전의 편찬 목적과 대상 독자를 고려하여 그 사전의 성격에 맞는 표제어를 선정한다. 그런 점에서 ‘원고’와 『조선』의 표제어 목록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은 각 사전의 특징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원고’와 『조선』은 수록한 표제어의 목록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원고’의 표제어 목록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특징은 오직 한자어와 고유어만을 등재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외래어¹³⁾를 수록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조선』에는 1,800개가 넘는 외래어 표제어가 실려 있었는데, (1)과 같이 대부분이 영어 외래어였지만 일부 일본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서 차용된 외래어도 있었다.

(1) ㄱ. 껌 (Game) 『名』 ① 경기(競技). 투기(鬪技). ② 유희(遊戱). ③ 승부의 점수.<조선>

10) 연구를 위해 ‘웹으로 보는 조선총독부사전(1.0 v.)’ 입력본을 활용하였다. 이는 홍윤표 교수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정보학센터에 기증한 입력본을 DB화한 자료로, 그 기본이 되는 1차 입력본은 이기문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 자료를 구축하고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11) 사전 집필에 일본인뿐 아니라 현은(玄纘), 유길준(兪吉濬), 강화석(姜華錫), 어윤직(魚允迪), 김돈희(金敦熙), 정만조(鄭萬朝), 정병조(鄭丙朝) 등 한국인들이 참여했지만 이들의 작업은 총독부 취조국 및 참서관실의 관리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12) 『조선』의 표제어는 주표제어와 접두사 표제어에 딸린 부표제어를 합할 때 약 86,500개에 달하며, ‘원고’의 표제어는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를 합해 약 55,000개로 추산된다.

13) 엄밀히 말해 한자어 역시 외래어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한국어 어종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한자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외래어와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외국어에서 음역 차용된 경우만을 외래어라고 지칭하겠다.

- ㄴ. 노오 (No) 『感』 아니. 그렇지 않다.<조선>
- ㄷ. 다이버 (Diver) 『名』 잠수부(潛水夫). 잠수업자(潛水業者).<조선>
- ㄹ. 라디오 (Radio) 『名』 ① 방사(放射). 복사(輻射). ② 「라디오폰」의 준말.<조선>
- ㄹ. 가마보꼬 (カマボコ) 『名』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밀가루를 섞어서 찌서 굳힌 식료(食料).<조선>
- ㅂ. 가방 (カバン) 『名』 ① 가죽이나 쓰꾸들로 싸서 만든 상자. 여행할 때에 가지고 다니는 것. ② 「돈지갑」의 사투리.<조선>
- ㅅ. 다마네이 (タマネギ) 『名』 植 인경(鱗莖)이 마늘 모양으로 된 파의 한 가지. 양파.<조선>
- ㅇ. 레스토랑 (Restaurant) 『名』 프랑스 말로 양요리점.<조선>
- ㅈ. 리베 (Liebe) 『名』 덕어(德語)로 연인. 영어의 「러버」와 같음.<조선>

외래어 등재 여부의 차이는 ‘원고’가 집필되던 1910년대와 『조선』이 집필되던 1930년대의 외래어 사용 양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¹⁴⁾, 『말모이』 원고나 계열의 『한영조연』(1911, 이하 『한영』)에 (2), (3)과 같이 이미 외래어가 등재¹⁵⁾되어 있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에 이러한 단어들이 전혀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2) ㄱ. *가방¹⁶⁾ (제) 집이나 가죽 따위로 거죽을 두르어 싸고 그 어울어지는 두 가지 태는 쇠로 두르고 그기에 잠그는 틀을 갖춘 주머니. 나다닐 때에 가지고 다니기 좋음(그림).<말모이>
- ㄴ. *가스 (gas) (제) ㉠ 尋常한 狀態에서는 液化하기 難한 基体니 水素治氣 따위 ㉡ 石炭가스의 俗稱.<말모이>

- (3) ㄱ. *가피 s. 加皮 (더홀) (가죽) Coffee.<한영>
- ㄴ. 그리스도 s. 基督 (터-*그) (거느릴-*독) Christ.<한영>
- ㄷ. *라마즈 s. 羅馬字 (별) (물) (글주) Roman letters.<한영>
- ㄹ. *론돈 s. 論敦 (의론) (도타올) London.<한영>
- ㄹ. *립방센티미터르 s. 立方..... (설) (모) Cubic Centimetre.<한영>
- ㅂ. 막니시엄회석 s. 灰石 (지) (돌) Magnesium Lime Stone.<한영>
- ㅅ. *산화칼시엄 s. 酸化 (실) (뒸) Calcii Oxidum.<한영>
- ㅇ. 썰포날 s. Sulphonal.<한영>

외래어의 누락은 조선총독부의 사전 집필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조선어사전』은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이 조선의 옛 문헌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적에 나타난 한국식 한자어나 한국어 고유어들은 표제어가 될 수 있었지만, (3)과 같은 외래어들은 표제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근대 신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에도 (4)와 같이 근대의 신문물을 반영한 표제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영』과 비교할 때 근대 신어의 대다수가 ‘원고’에는 누락되어 있었다¹⁷⁾.

14) ‘원고’의 경우는 1911년 4월부터 어사의 수집을 시작해 약 6년의 집필 작업 끝에 1917년 12월에 마무리된 초본이며, 『조선』의 경우 1929년경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1938년 7월에 출판되었다.

15) 『조선』과 비교할 때 『한영』에 수록된 외래어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한영』에 수록된 외래어는 지명이나 인명 등 고유명사, 단위명, 화학물질명이 주를 이뤘다.

16) 『한영』에도 ‘가방’이 표제어로 실려 있긴 했지만 원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 가방 l. A leather valise; a satchel.<한영>

- (4) ㄱ. 時計(시·계) 『名』時刻을 指示하는 機具.(時表).<원고>
 ㄴ. 時表(시표) 『名』‘時計’와 同.<원고>
 ㄷ. 電杆木(·던·간목) 『名』電線을 架設하는 長桿의 稱.<원고>
 ㄹ. 電車(·던차) 『名』電氣로 軌道에 運行하는 車의 稱.<원고>
 ㅁ. 千里鏡(천·리경) 『名』‘望遠鏡’과 同.<원고>

‘원고’에서 한국어 뜻풀이가 삭제되며 『조선어사전』이 출판되었는데, 이 사전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에서도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인식이 보인다. 안확의 경우 ‘그 내용은 고사(姑捨)할지라도 일개 웅대 사전’이라고 평가했고, 오구라 신편이(小倉進平)도¹⁸⁾ ‘어휘가 풍부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한일이중어사전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사전’이라고 평가했다(황호덕·이상현 편 2012:8).

한편, 『조선』과 비교할 때 ‘원고’의 표제어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가표제어를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5)와 같이 『조선』의 경우 비표준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에 보라’라고 풀이하여 이를 주표제어로 연결시켰는데 ‘원고’에서는 이러한 가표제어가 확인되지 않는다.

- (5) ㄱ. 가랭이 『名』「가랑이」에 보라.<조선>
 가랑이 『名』 두 다리 사이. 다리와 다리 사이.<조선>
 ㄱ'. 가랑이 『名』 Y分한 兩股의 稱.<원고>
 ㄴ. 성냥 『名』「석냥」에 보라.<조선>
 석냥 『名』 ① 얇은 나무조각 끝에 유황(硫黃)을 발라서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물건. ② 문질러서 불을 이끄는 물건. 가는 나무 끝에 발화약을 바른 것. 燐寸.<조선>
 ㄴ'. 석냥 『名』 起火具.(薄木札에 硫磺을 點하여 火를 引起하는 者).<원고>
 ㄷ. 아지랑이 『名』「아지랑이」에 보라.<조선>
 아지랑이 『名』 봄날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기운. 野馬. 陽炎. 遊絲.<조선>
 ㄷ'. 아지랑이 『名』 春日晴空에 氤氳한 氣의 稱.(靄:陽炎;遊絲:野馬).<원고>
 ㄹ. 놈팡이 『名』「놈팡이」에 보라.<조선>
 놈팡이 『名』「놈」을 더욱 멸시하는 말. 놈장이.<조선>
 ㄹ'. 놈팡이 『名』 男子를 指稱하는 弄談의 稱.(놈생이).<원고>
 ㅁ. 산양 『名』「사냥」에 보라.<조선>
 사냥 『名』 ① 활·총을 이용하여 짐승이나 새들을 잡는 것. ② 개·매들을 시키어 새·짐승을 잡게 하는 것. 畋獵. [-하다 他]<조선>
 ㅁ'. 산양 『名』 禽獸類를 射擊捕獲하는 總稱.(畋獵:산양질).<원고>
 ㅂ. 샧기-발가락 『名』「새끼발가락」에 보라.<조선>
 새끼-발가락 {-까-} 『名』 발가락 중에 제일 작은 발가락.<조선>

17) 최경봉(2017:21-22), 신중진(2005:65)에서도 『조선어사전』이 근대 신어 한자어를 소극적으로 등재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8) 그런데 ‘원고’의 작성 시점보다 3년 앞선 1914년경의 편찬 현황을 보여주는 『조선사서원고』에는 ‘국회의원, 내과의, 보통교육, 물리학, 분주, 공극압, 세포, 보험, 스법, 가비다, 교과서, 선풍곡, 디하털도, 비행기’ 등 근대의 제도명과 문물명, 과학적 개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안예리 2017:92-96). 해당 단어들은 ‘원고’에서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최종 출판된 『조선어사전』에도 실리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를 볼 때 편찬 과정에서 표제어의 범위를 놓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황호덕·이상현(2012:8-9)에 따르면 오구라 신편이는 일상어와 근대어를 모두 수록해 조선어 어휘 전체를 담고자 했던 반면 다른 일본인들은 조선식 한자어와 순수 조선어만을 수록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선사서원고』까지는 오구라 신편이의 주장대로 편찬이 진행되었다가 이후 그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글의 순서와 한자의 순서가 뒤섞인 양상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조선』에는 동일한 표제어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6ㄱ)은 ‘원고’의 ‘ㄱ’항 표제어들을 제시된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고 (6ㄴ)은 『조선』의 ‘ㄱ’항 표제어들의 제시 순서를 보인 것이다.

- (6) ㄱ. 가, 가(加), 가(加), 가, 가[加], 加減(가-감), 加減不得(가감부득), 加減乘除(가감승제), 加結(가결), …… 가[可], 可嘉(·가가), 可堪(·가감), 可堪之人(·가감지인), 可居之地(·가거지디), …… 가[價], 價格(가격), 價金(가금), 價文(가문), 價額(가익), 價錢(가전), 價折(가절), 價值(가치), ·가계주, ·가·궁(可矜)하다, 가난, 가난뱅이, 가느다, 가느다라타, 가는귀먹다, 가는대, 가늘다, 가늠보다, 가늠쇠, 가다<원고>
- ㄴ. ㄱ, 가, 가(加), 가(賈), 가(加), 가(加), 가:가(可嘉), 가:가(假家), 가-가(家家), 가가:-대:소(呵呵大笑), 가가-례:(家家禮), 가가-호호(家家戶戶), 가까스로, 가까스루, 가까워-지다, 가까워-지다, 가깝다, 가까이, 각각-하다, 가간-사:(家間事), 가:감(可堪), 가-감:(加減), 가감:-부득(加減不得), 가:-감역관(假監役官), 가:감지인(可堪之人), 가감:-하다, 가깝이, 가깝다, 가깝-증, 가깝-하다<조선>

『조선어사전』의 편찬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는 규장각 서류철 및 중추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사전의 표제어 배열 순서와 관련해 여러 차례의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예리(2017:69-73)에서 『조선어사전』 편찬 경위의 중요 사항을 정리한 <표 1>을 토대로 표제어 배열 순서에 관한 기록들을 재정리 해 보면 (7)과 같다.

- (7) 1912.12.
- 모든 단어를 조선 언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할 것, 한자가 있는 어사는 머리글자에 따라 한곳으로 모아서 언문, 50음, 한자획 세 가지 양식의 색인을 붙일 것
- 1913.6. (제1회 심사위원회)
- 고유어와 대표 한자는 가나다라 순으로, 한자어(熟語)는 漢和사전과 동일하게 대표 한자 아래에 모아쓰되 두 번째 글자의 획수 순으로 배열한다.
- 1913.11. (제3회 심사위원회)
- 표제어의 배열은 가, 나, 다, 라의 순서로 하고, 해당 부분에서 각 문자를 첫 표제어로 삼는다.
- 1914.5. (제5회 심사위원회)
- 배열은 제1음절에 따라 한글 순으로 나열한다. 단 한자어와 이두의 경우 첫 글자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찾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이때 한자는 획수가 작은 순서로 배열한다.
 - 한자와 한글이 결합된 표제어는 한글로 된 단어로 간주하고 배열한다. 이때 한자는 괄호 안에 표시한다.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고’와 같은 상태의 배열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제1회 심사위원회 기록을 보면 한자어를 대표 한자 아래 모으는 방식이 한자를 일본어로 풀이한 일본식 옥편과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제3회 심사위원회에서는 옥편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한글 자모의 순서대로만 배열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제5회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원안대로 돌아갔는데, 한자어뿐 아니라 이두 역시 첫 글자가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찾기에 편리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후에는 표제어 배열에

획순에 따라 배열되어 있고 대표 한자로 시작되는 한자어 표제어가 한 칸 아래에 제2음절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거(蹠)’라는 대표 한자 다음에 ‘蹠床(거상)’, ‘蹠坐(거좌)’가 제시된 것이다.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데, ‘원고’는 제5회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제5회 심사위원회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혼종어에 대해 이를 고유어로 간주하고 배열하되 한자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67)에서 ‘가공(可矜)하다’가 고유어들 사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조선』은 표제어의 배열 순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원고’와 같은 방식은 어종에 따른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어근을 공유해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한데 모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최경봉 2017:26). 일본인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의 고문헌에 쓰인 낯선 단어가 조선식 한자어인지 조선의 고유어인지를 아는 것은 한자문화권의 사용자로서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²⁴⁾. 또한 어근이 같은 단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찾았을 때 그 앞뒤에 제시된 복합어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학습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한자라 해도 그 한자의 한국식 한자음을 모르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한자의 획수로 해당 표제어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어사전』은 한자음이 아니라 한자 자체의 형태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배열했던 것이다(이지영 2011:173)²⁵⁾.

이처럼 ‘원고’와 이를 토대로 편찬된 『조선어사전』은 배열 순서가 여러 층위로 나뉘어 층위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고, 같은 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여러 위치에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복잡성을 띠었는데,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 『조선』의 경우는 한국어 화자들을 위한 사전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복잡한 배열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한자음이 아닌 한자 글자 자체를 통해 표제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일러두기’에서 “한문 글자로는 알되 그 음을 모를 때는 책 끝에 있는 부록 「한문글자음찾기」에 가서 첫 자를 획수대로 찾아 보면 그 글자에 반드시 음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음만 알게 되면 다음에는 ㄱ의 법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그러한 고려를 엿볼 수 있다. 즉, ‘獨身’이라는 단어의 한자 표기만 알고 그 음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 ‘獨’은 16획 한자의 목록에서, ‘身’은 7획 한자의 목록에서 각 글자를 찾아 이를 ‘독신’이라 읽는 것을 확인한 뒤 사전 본문으로 가서 가나다 순으로 배열된 해당 표제어를 찾도록 한 것이다. 한자 중심의 문자 생활을 벗어나는 과정에 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배열 방식과 『조선』의 배열 방식은 사전 편찬자로서는 반드시 고민했어야 하는 문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문세영의 경우 한자의 획수를 보조 장치로 활용해 한글 중심의 문어 생활을 보다 빠르게 정착시키는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사전의 배열 순서 차이는 단지 대상 독자만이 아니라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도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3. 표제어의 표기

표제어의 표기라는 관점에서 ‘원고’와 『조선』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24) ‘원고’에서는 한자어 표제어의 경우는 ‘한자(한글)’로 표기했고, 고유어 표제어에 섞인 혼종어의 경우는 ‘한글(한자)’로 표기해 직관적으로도 어종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다.

25) 이러한 관점은 이두의 배열 순서에서도 확인된다. ‘원고’는 이두를 제시할 때 한국어 발음과 무관하게 첫 한자의 한자음에 따라 배열하였다. ‘敎是(이시) 『助』 吏讀이니 尊者를 指擧하는 敬稱.(씨서).’를 ‘敎’라는 대표 한자 아래에 제시한 것이다. 반면 『조선』은 ‘이’항에서 ‘이시(敎是)’를 제시한 것처럼 이두를 실제 독법에 따라 배열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음소주의 표기의 유지 여부 및 옛 한글의 사용 여부라 할 수 있다. 먼저 표기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 (8) ㄱ. 것엿덥이, 것눈질, 대낫, 입나무, 子女(즈녀), 自手成家(즈슈성가), 짝엿다, 잠스자리, 暫間(잠스간), 菜蔬(치소), 한숫<원고>
 ㄴ. 걸-꿍더기, 꺾-눈-질²⁶⁾, 대:-낫, 잎-나무, 자-녀(子女), 자수:-성가(自手成家), 짝-엿:다²⁷⁾, 잠-자리{짜}, 잠:간{-간}(暫間), 채:소(菜蔬)²⁸⁾, 한-끝<조선>

(8ㄱ)에서 볼 수 있듯이 ‘원고’는 종성 표기에 전통적인 7종성만 사용했고, 된소리 표기에 합용병서를 사용했으며, ‘·’, ‘-’, ‘-’를 사용했다. 반면 『조선』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발표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이하 ‘통일안’)'에 따라 모든 종성을 받침에 사용했고, 된소리 표기에 각자 병서를 사용했으며, 아래아는 사용하지 않았다²⁹⁾. 물론 이러한 차이는 두 사전의 집필 시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집필이 이루어지던 1910년대에는 아직 ‘통일안’과 같이 형태주의 철자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 유일한 표기 규정으로 존재하던 시기였다.

‘원고’와 『조선』의 표기상의 차이점 중에 사전 편찬자의 의도나 관점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특수 기호와 한자의 사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특수 기호의 사용을 보면, (8ㄱ) ‘원고’의 예에서는 형태론적 경계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8ㄴ) 『조선』의 예에서는 ‘-’를 사용해 표제어의 내적 구조를 보였다.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조선』에서만 제시한 것은 의미 해독에 초점을 둔 ‘원고’와 달리 『조선』은 국어사전으로서 표제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³⁰⁾.

한편, ‘원고’와 『조선』은 모두 음장에 대한 정보를 특수 기호로 표시했는데, ‘원고’는 길게 소리 나는 음절에 ‘·’를, 『조선』은 ‘:’를 덧붙였다. 두 사전이 모두 음장에 대한 정보를 표제어에 명시한 것은 동음이의어의 경우처럼 장단에 따라 뜻이 변별되는 경우가 있어 필수적인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³¹⁾.

표기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한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앞서 표제어의 배열 순서에서 살펴봤듯이 『조선』은 한글이 중심이 되고 한자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전이었던 반면 ‘원고’는 부분적으로 한자가 한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전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원고’는 한자가 더 중심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앞서 제시한 (8ㄱ)을 보면 고유어는 한글로 표기했지만 ‘子女(즈녀), 自手成家(즈슈성가)’ 같은 한자어는 먼저 한자로 적고 한글을 괄호 안에 병기했다. 이와 달리 (8ㄴ)에서는 ‘자녀(子女), 자수성가(自手成家)’와 같이 한글로 먼저 적고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했다.

그뿐 아니라 혼종어의 표기에서도 두 사전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9)의 예를 보면 ‘원고’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표제어에 대해 한자어 부분에 대응 한자를 병기했다.

26) 증보판: 것눈-질

27) 증보판: 짝-없다

28) 증보판: 채소

29) 문세영은 『조선』의 ‘일러두기’에서 해당 사전에 적용된 철자법 중 종래의 관습적 표기와 달라진 부분들을 “재래에 쓰던 조선말 가운데 『ㄹㄴ』으로 된 말은 죄다 『ㄹㄹ』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갈리다(갈니다), 설렁설렁(설녕설녕), 얼른(얼는) 따위.”와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30) 『조선』 이전에 집필된 『말모이』 원고에서도 ‘-’를 사용해 표제어의 형태론적 경계를 표시한 바 있다.

31) 두 사전보다 앞선 『말모이』의 경우 높은 소리에 ‘·’를, 낮은 소리에 ‘:’를 표시하였는데, 당시까지는 한국어의 운소를 장단이 아닌 높낮이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9) ㄱ. ·샤향(麝香)노루 『名』 「動」 ‘국노루’와 同.<원고>
 ㄴ. 욕심(慾心)쓸억이 『名』 無厭한 慾이 有한 人의 譚稱.<원고>
 ㄷ. ·가·공(可矜)하다 『活』 懇切히 矜測한 稱.(가련하다; 측은하다).<원고>
 ㄹ. 속(俗)되다(속되여/속된) 『活』 清雅치 못한 稱.<원고>

반면 (10)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은 혼종어에 대해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세영은 ‘일러두기’에서 “우리말과 한문 글자가 합하여 된 말은 죄다 한글로만 적었고 참고가 될 만한 말에만 주해 끝에 한문 글자를 기록하여 놓았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10)과 같이 혼종어의 한자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10ㄷ)의 ‘가공하다’나 (10ㄹ)의 ‘속되다’의 경우처럼 뜻풀이의 마지막에 ‘可矜’, ‘俗’을 덧붙인 것이다.

- (10) ㄱ. 사:향-노루 『名』 動 「국노루」와 같음.<조선>
 ㄴ. 욕심-구러기 {-꾸-} 『名』 욕심이 많은 사람의 별명.<조선>
 ㄷ. 가:공-하다 여변 [하여-한] 『形』 불상하다. 가련하다. 가없다. 可矜.<조선>
 ㄹ. 속-되다 形 ① 고상하지 않다. ② 짐잡지 않다. 俗.<조선>

(10ㄱ)의 ‘샤향’이나 (10ㄴ)의 ‘욕심’에 대해서는 뜻풀이의 마지막에 별도로 한자 표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하다’, ‘-되다’, ‘-스럽다’ 등이 결합된 용언 파생어의 어근 부분이 한자어일 경우 해당 한자어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언어 정보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보다 ‘원고’의 혼종어 표기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표제어의 형태론적 구성이나 활용 양상, 발음 등 전반적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시했던 『조선』이 어종에 대해서는 고유어와 혼종어를 구별하지 않은 점은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국어사전 편찬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말모이』 원고를 살펴본 결과, (11)과 같이 『말모이』에서도 혼종어의 한자를 밝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³²⁾.

- (11) ㄱ. 간거리-장사 (제) 거간하는 장사.<말모이>
 ㄴ. 간-막이 (제) 사이를 가로막는 것.<말모이>
 ㄷ. 개상-반+ (제) 막우 만들어 잘 꿈이지 못한 반. 또 「개다리소반」.<말모이>
 ㄹ. 갓-모자+ (제) 갓양에 박는 모자.<말모이>
 ㅁ. 갓-방+ (제) 갓 꾸미고 만드는 방.<말모이>

(11)의 표제어들은 ‘間거리-장사’, ‘間막이’, ‘개床-盤’, ‘갓-帽子’, ‘갓-房’과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모이』는 ‘알기’에서 ‘한문말’과 ‘다른 나라 말’에 대해서는 따로 부호를 붙여서 알아보기 쉽게 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한자어 표제어의 좌측에는 ‘+’ 부호가, 외래어 표제어의 좌측에는 ‘x’ 부호가 붙어 있다. 『말모이』 편찬자들이 혼종어를 다른 고유어 표제어들과 마찬가지로 한글로만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표제어 좌측에 ‘+’를 붙이지 않은 것은 해당 단어들이 고유어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단, (11

32) 심익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의 경우 “손슈건(手巾 슈건): 손 씻는 헌겁.”과 같이 혼종어의 한자를 표시하였다.

ㄷ)~(11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혼종어에 대해서는 한자어 부분의 우측에 ‘+’를 붙여서 그 기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세영이 『말모이』 원고를 참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선어학회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사전을 편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시경 제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혼종어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사전에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구성 성분의 일부가 한자어라 해도 고유어와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면 해당 단어는 더 이상 외래적인 단어가 아니라 고유어화된 어휘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조선총독부의 편찬원들의 입장에서는 혼종어 내부의 한자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문헌 해독을 위한 목적에 더 부합한 처리였을 것이다.

3. 미시구조의 비교

3.1. 품사

사전의 표제어는 보통 품사에 따라 분류되지만 사전 표제어에는 자립성이 없는 문법 형태나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구나 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품사 분류에 속하지 않는 몇 가지 목록이 추가되게 된다. ‘원고’와 『조선』은 모두 표제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했는데 그 목록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원고’는 표제어를 ‘名, 代, 副, 活, 感, 助, 接, 接頭, 接尾, 句’의 10가지로 분류하였고, 『조선』은 ‘名, 代, 副, 自, 他, 形, 指, 感, 助, 接, 接頭, 接尾, 句, 吏’의 14가지로 분류하였다³³⁾. 여기서 보이는 주요 차이는 두 가지이다. 첫째, ‘원고’는 모든 용언을 ‘活’로 단일하게 처리한 반면, 『조선』은 ‘自, 他, 形, 指’의 네 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둘째, ‘원고’는 이두에 대해 별도의 표지를 주지 않았던 반면, 『조선』은 ‘吏’라는 표지를 부여하였다. 지금부터 이러한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사전의 품사 분류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용언 표제어의 수록 양상을 비교해 보면, ‘원고’는 (12)와 같이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가 모두 활용을 한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活’이라는 단일한 표지를 붙였다. 이는 한국어 용언에 대한 문법론적 판단을 최소화한 처리라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은 용언 각각이 갖는 격틀 구조 및 활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사와 타동사, 형용사를 구별했을 뿐 아니라 ‘이다’, ‘아니다’를 지정사로 표시해 매우 상세한 분류 체계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 (12) ㄱ. 싸히다(싸혀/싸인) 『活』 重疊히 堆積한 稱.<원고>
ㄴ. 읽다(읽어/읽은) 『活』 書冊類를 朗讀하는 稱.(읽다).<원고>
ㄷ. ·싸다롭다(싸다로워/싸다로운) 『活』 苛刻의 稱.<원고>
ㄹ. 안이다 『句』 不然의 稱.<원고>

- (13) ㄱ. 쌓이다 『自』 ① 많이 놓이다. 덧놓이다. ② 모이다. ③ 늘다. ④ 포개지다. ⑤ 근심·걱정이

33) 체언을 명사와 대명사로만 나누고 수사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점은 ‘원고’와 『조선』이 공통적이었다. 근대 초기 문법서 중 주시경(1910)과 김두봉(1916)은 체언의 종류로 명사만을 설정했고, 유길준(1909), 김규식(1909), 김희상(1911)은 명사와 대명사만 인정했는데, 1910년대에 작성된 ‘원고’는 이러한 문법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선』의 편찬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안확(1923), 최현배(1937)은 명사, 대명사와 더불어 수사도 품사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문세영은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많아지다. ⑥ 일이 바빠서 몸을 빼치지 못하게 되다. ⑦ 「싸이다」에 보라.<조선>
 L. 읽다 『他』 ① 소리를 내어 책을 보다. ② 소리를 내어 경을 외우다.<조선>
 C. 까다롭다 ㅂ변 [로워·로운] 『形』 ① 엄하다. ② 너그럽지 못하다. ③ 편협하다. ④ 이상하다.
 ⑤ 성질이 쌀쌀하다.<조선>
 R. 깜빡-거리다 『自』『他』 「깜박거리다」를 힘 있게 쓰는 말.<조선>
 M. 아니다 『指』 「이다」를 부정하는 말.<조선>

(13ㄷ)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용언에 대해 ‘自’와 ‘他’의 두 개의 품사 표지를 주어 개별 용언의 용법을 상세히 반영했다. 또한 『조선』에서 ‘이다’와 ‘아니다’를 지정사로 수록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근대 초기 문법서 중 지정사라는 품사를 설정한 것은 박승빈(1935)가 최초였는데, 박승빈이 ‘이다’만을 지정사로 봤던 것과 달리 최현배(1937)은 ‘이다’ 외에도 ‘아니다’를 지정사의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후 정렬모(1946)에서도 지정의 ‘이다’를 설정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문세영은 지정사를 설정함에 있어 최현배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와 『조선』의 품사 분류에서 보이는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이두에 대한 처리이다. (14)에서 볼 수 있듯이 ‘원고’의 경우 이두 표제어 각각에 대해 그 문법적 특성을 고려해 ‘句’, ‘名’, ‘副’, ‘助’와 같이 추가적인 분류를 했던 반면³⁴⁾, 『조선』의 경우는 (15)에서처럼 이들을 모두 ‘吏’로만 표시하였다.

- (14) ㄱ. 亦爲有昆(여하잇곤) 『句』 吏讀니 所言이 如是라 云하는 稱. (라하오니, 敬稱亦爲白有昆).<원고>
 L. 進賜(나으리) 『名』 吏讀이니 下等人이 堂下官에 對한 尊稱.<원고>
 C. 先亦(먼저) 『副』 吏讀이니 凡事를 預先하는 稱.(미리, 먼저).<원고>
 R. 了以(에로) 『助』 吏讀이니 某處로 傾向하는 境遇에 用하는 辭.<원고>

- (15) ㄱ. 여하잇곤(亦爲有昆) 『吏』 라 하오니.<조선>
 L. 나으리(進賜) 『吏』 나으리.<조선>
 C. 먼저(先亦) 『吏』 먼저. 미리.<조선>
 R. 에로(了以) 『吏』 에. 로.<조선>

‘원고’는 이두 표제어의 품사 정보를 자세히 제시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도 상세히 풀이한 반면 『조선』은 간략하게 대응 한국어를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대응어 제시 이외의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았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뜻 풀이가 필요했던 것이다. 품사 정보를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도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句’의 경우 두 사전 모두 해당 표지를 설정하였지만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사자성어 표제어들의 분류에서 불일치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원고’의 경우 (16)과 같이 사자성어에 대해 일부는 명사로 일부는 구로 분류하였다. 반면 『조선』의 경우는 (17)과 같이 모든 사자성어를 명사로 등재하였다.

- (16) ㄱ. 加上尊號(가상존·호) 『名』 帝王과 后妃의 先上한 尊號가 已有한대 新尊號를 又上하는 稱.<원고>
 L. 藏頭隱尾(장두은미) 『名』 事實의 始末을 分明說去치 안이하는 稱.<원고>

34) ‘원고’에 실린 이두 표제어는 대부분 ‘句’로 분류되었다.

- ㄷ. 淸心寡慾(청심·과욕) 『名』 恬靜淡泊의 意.<원고>
- ㄹ. 果若其言(·과약기언) 『句』 深信치 아니한 言이 實事와 符合하는 稱.<원고>
- ㄹ. 鼎足之勢(·덩족지·세) 『句』 三方이 竝立한 境遇의 譬稱.(鼎의 三足과 如한 意).<원고>
- ㅂ. 悔之無及(·회지무급) 『句』 己誤한 事를 晩後恨歎하는 意.<원고>

- (17) ㄱ. 加尊(加上尊號) 『名』 임금의 존호에 다시 존호를 더 하는 것. [-하다 他]<조선>
- ㄴ. 藏頭隱尾(藏頭隱尾) 『名』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것. [-하다 他]<조선>
 - ㄷ. 淸心寡慾(淸心寡慾) 『名』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적은 것. [-하다 他]<조선>
 - ㄹ. 果若其言(果若其言) 『名』 미리 말하였던 것과 사실이 드러맞는 것.<조선>
 - ㄹ. 鼎足之勢(鼎足之勢) 『名』 출발같이 세쪽에 마주 서는 것.<조선>
 - ㅂ. 悔之無及(悔之無及) 『名』 「후회막급」(後悔莫及)과 같음.<조선>

‘원고’에서는 ‘名’과 ‘句’를 구별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는데 해당 표제어들의 『조선』 등재 양상을 살펴보면 ‘원고’에서 ‘名’으로 분류된 사자성어들은 ‘-하다’와 결합하여 용언을 파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16ㄱ)~(16ㄷ)의 사자성어들은 (17ㄱ)~(17ㄷ)에서처럼 ‘-하다’와 결합해 타동사로 쓰였는데, 이런 경우가 ‘원고’에서 명사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집필자들이 한국어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사자성어들을 ‘名’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句’로 분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세영의 경우는 단어 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어 문장에서 쓰이는 사자성어들을 모두 명사로 수록하였다.

3.2. 부표제어

부표제어는 다른 표제어에 딸린 표제어로, 현대 사전에서는 주로 해당 표제어가 포함된 속담이나 관용구, 혹은 해당 표제어가 어근으로 쓰이고 뒤에 ‘-하다’나 ‘-되다’가 붙은 경우가 부표제어로 등재된다. ‘원고’와 『조선』은 모두 부표제어를 설정하였지만 부표제어의 범위가 현대 사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원고’의 경우, (18)과 같이 어떤 표제어가 다른 말과 결합해 복합어를 형성할 경우 해당 표제어의 하위에 부표제어로서 복합어를 등재하였다.

- (18) ㄱ. 伽倻(가야) 『名』 三國時代に 南方의 小國名.<원고>
 伽倻琴(가야금) 『名』 樂器의 一種(伽倻國 嘉賓王이 樂師 于勒을 命하여 始造한 十二絃琴).<원고>
- ㄴ. 獅子(스즈) 『名』 『動』 食肉類中 貓科에 屬한 猛獸로 亞弗利加:亞刺比亞 ‘이란’ 地方에 多産하는 者라. 頭는 圓大하고 腰細尾長하며 體毛는 黃褐色이오 牡는 鬣를 有하되 牝은 此를 有치 아니하며 古來로 獸中王이라 稱呼.(轉稱 스지)<원고>
 獅子舞(스즈·무) 『名』 呈才時의 舞名.<원고>
 獅子鼻(스즈·비) 『名』 鼻孔이 仰天한 鼻形의 稱.(相術家의 語).<원고>
 獅子吼(스즈후) 『名』 妒妻의 咆喝하는 譬稱.(獅子의 怒號와 如히 可畏한 意).<원고>
 - ㄷ. 닷 『接頭』 五箇의 意를 表하는 辭. (例) ‘닷말’. ‘닷되’. ‘닷근’.<원고>
 닷곱 『名』 五습의 稱.<원고>
 닷곱·장님 『名』 視物이 完全치 못한 眼昏者의 諱稱.<원고>
 닷새 『名』 (一) 五箇日數의 稱. (二) ‘닷새스날’과 同.<원고>
 닷새스날 『名』 每月第五日의 稱.(닷새).<원고>
 - ㄹ. 얼는 『副』 ‘얼핏’과 同.<원고>
 얼는얼는 『副』 ⊖ 光潤이 映發하는 貌. ⊖ ‘얼핏얼핏’과 同.<원고>

(18ㄱ)과 (18ㄴ)은 한자어의 예로, ‘가야금’이 명사 ‘가야’의 부표제어로, ‘스즈무, 스즈비, 스즈후’가 명사 ‘스즈’의 부표제어로 기술되어 있다. (18ㄷ)과 (18ㄹ)은 고유어의 예로, ‘닷굽, 닷굽장님, 닷새, 닷새스날’이 접두사 ‘닷’의 부표제어로, ‘얼는얼는’이 부사 ‘얼는’의 부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에서는 합성어나 파생어를 어근 또는 접두사의 부표제어로 설정했기 때문에 복합어의 대부분이 부표제어가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한자어 어근에 고유어가 결합된 혼종어들은 2.2에서 논의한 대로 어근 한자어와 분리하여 별도로 서술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표제어가 되었다.

- (19) 内外(·니·외) 『名』 ⊖ 內와 外의 稱. ⊖ 「夫婦」와 同.<원고>
 内外從(·니·외·종) 『名』 外從과 內從의 竝稱.(中表兄弟).<원고>
 内外戚(·니·외·척) 『名』 父邊親屬과 母邊親屬의 竝稱.<원고>
 (…)
 內行(·니·행) 『名』 ⊖ 旅行하는 婦人의 稱. ⊖ 內庭의 行實.<원고>
 內協(·니·협) 『名』 「內部協辦」의 略稱.<원고>
 內患(·니·환) 『名』 妻의 病의 稱.<원고>
 內凶(·니·흉) 『名』 心地가 心險한 稱.<원고>
 ·니·외(内外)술집 『名』 主人女子가 賓席을 面對치 안이하는 酒家の 稱.<원고>
 ·니·외(内外)하다 『活』 婦女가 親戚外 男子를 面接치 안이하는 稱.<원고>

(19)를 보면 ‘원고’는 ‘니외’를 포함한 복합어 표제어에 대해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니외종’과 ‘니외척’은 ‘니외’의 부표제어로 삼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니외술집’과 ‘니외하다’는 따로 분리하여 주표제어로 삼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고유어든 한자어든 어근이나 접두사를 공유하는 복합어들을 한데 모아 부표제어로 등재하면서도 혼종어는 예외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처럼 부표제어를 광범하게 설정했는데 이로 인해 사전 전체의 배열 순서에 이중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즉, 주표제어가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었다고 해도 주표제어에 딸린 부표제어들은 그 순서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다시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었던 것이다. (20)을 보면 동음이의 관계의 ‘제비’ 각각이 ‘제비가’와 ‘제비뽑다’를 부표제어로 안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합성어나 파생어의 어근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표제어만 찾아도 관련된 합성어나 파생어를 함께 익힐 수 있다는 학습상의 장점도 있었을 것이다.

- (20) ·제비 『名』[動] 燕雀類에 屬한 鳥니 鶯는 短하며 扁平하고 體는 紫黑色이오 翅及尾는 共히 長하며 春分頃에 暖地로부터 渡來하여 秋分頃에 又暖地로 去息.(鶯:鶯;玄鳥:鷓鴣).<원고>
 ·제비가(歌) 『名』 俗謠의 一種(놀부타령中의 燕子馴養하는 句語만 節演하는 者).<원고>
 ·제비 『名』 抽하여 得失를 定하는 紙籤.<원고>
 제비뽑다(제비뽑아/제비뽑은) 『活』 紙籤을 抽하여 得失를 定하는 稱.<원고>

한편, 『조선』의 경우는 접두사 표제어에 대해서만 부표제어를 두어³⁵⁾ 부표제어의 범위가

35) 『조선』의 ‘일러두기’에서는 “우리말의 접두어(接頭語)에 딸린 말은 만 줄을 잡지 않고 그 줄에 잇달아 따루따루 설명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접두사의 풀이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매우 제한적이었다³⁶⁾. (21)은 접두사 ‘만’의 사전 기술 내용이다.

(21) 만 接頭 연장·시초(年長·始初)의 뜻을 표하는 말. -누의 名 제일 나이가 많은 누의. 큰 누의. -딸 名 맨먼저 낳은 딸. 큰 딸. 長女. -며누리 名 말아들의 안해. 冢婦. -물 名 맨처음 나는 물건. -배 名 이른 봄에 간 병아리 또는 새새끼. -사위 名 맏딸의 남편. -손녀 名 맨먼저 본 손녀. 큰 손녀. 長孫女. -손자 名 맨먼저 본 손자. 큰 손자. 長孫. -아들 名 맨먼저 낳은 아들. 그 집안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 큰 아들. 長子. 長男. 冑子. -아저미 名 큰형의 안해. -양반 {만냥-} 名 남의 말아들의 존칭. -파 名 적장손(嫡長孫)의 계통. 長派.<조선>

『조선』에서 합성어는 모두 주표제어로 등재하면서도 접두사 파생어들만은 접두사에 딸린 부표제어로 한데 모아 제시한 것은 접두사가 갖는 생산성을 의식하고 이를 사전의 구조에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3.3. 예문

예문은 『조선』에는 없고 ‘원고’에만 있는 언어 정보이다. ‘원고’의 모든 표제어에 예문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22)와 같이 품사를 불문하고 필요에 따라 예문을 제시하였다.

- (22) ㄱ. 과 『助』 竝列한 同趣의 語를 接續하는 辭. 但 子音으로써 終한 것의 下에만 附息.(及). (例) “사람과 말이 빈다”
- ㄴ. 구려 『感』 親함을 表하는 境遇에 語句를 結함에 用하는 語. (例) “잘 오섯소구려”
- ㄷ. 씩 『接尾』 同一한 數로 各其分配하는 意를 表示하는 辭.(式). (例) ‘한 장에 닷 낭씩이오’; ‘삭슨 얼마씩이나’.
- ㄹ. 그러나 『接』 事勢固然한 中에 不然한 事端이 又有한 意.(雖然). (例) “꽃은 핀다 그러나 열매는 열지 못한다”
- ㄴ. 그자리 『名』 凡事에 時刻도 遲滯치 안이하는 稱.(即席; 即地即其他; 當席; 當場; 고자리). (例) “그자리에서 일을 한다”
- ㄹ. 그리 『代』 方向을 指示하는 辭.(고리). (例) “그리 올라 가시오”
- ㅅ. 썩 『副』 一般 事物에 對하여 頗洽한 意. (例) “썩 만타”
- ㅇ. 속다(속아/속은) 『活』 人에게 欺瞞을 被한 稱.(속았다). (例) “남에게 속았다”
- ㅈ. 그야말로 『句』 指論하는 事物이 眞箇如此한 意.(眞所謂). (例) “그야말로 쫄소”

여러 품사 중에 특히 ‘助’의 경우는 ‘~과 同’ 혹은 ‘~의 略稱’과 같이 풀이된 경우가 아니라 온전한 의미 풀이가 제시된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접사, 접속사, 대명사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예문 제시의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원고’가 『조선어사전』으로 최종 출판되는 과정에서 한국어 뜻풀이는 전부 삭제되었지만 한국어 예문들은 사라지지 않고 일본어 뜻풀이 안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만큼 예문 제시의 필요성이 강하게 의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문은 사전에서 표제어의 실제 사용 맥락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20세기 전반기 사전들 중에서 예문을 수록한 사전은 거의 없었다. ‘원고’ 이전에 간행된 이중어사전 중 예문을 제시한 사전

36) 『조선』에서는 명사에 ‘-하다’가 붙는 경우, 해당 명사의 풀이 끝부분에 ‘[-하다 自]’와 같이 파생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품사만을 제시했을 뿐 뜻풀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다 自]’ 부분을 부표제어로 보기 어렵다.

은 없었고, 이후에 간행된 사전 중에는 김동성이 1928년에 발행한 『最新鮮英辭典』에서 예문을 제시한 바 있으며³⁷⁾, 단일어사전에서 예문을 제시한 것은 『큰사전』에 이르러서였다.

4. 결론

지금까지 ‘원고’와 『조선』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비교해 두 사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편찬 목적은 서로 달랐지만 한국어 표제어를 삼고 이를 한국어로 풀이한 자료였다는 점에서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고’의 경우 비록 최종 출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조선총독부가 조선 통치를 위해 한국어 어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결과물이었고, 『조선』은 민족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한국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세영이 조선어학회의 도움을 받아 당대의 한국어 어휘를 집대성한 것이었다.

‘원고’는 조선의 고문헌 해독에 목적이 있었던 만큼 한자어와 고유어만을 수록하였고 외래어는 수록하지 않았다. 이두에 대해 일일이 품사를 부여하고 그 뜻을 자세히 밝힌 것도 고문헌 해독을 위한 자료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사전의 체제나 이용자의 설정 문제에서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이는 일본인들을 위한 사전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어사전』은 한자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편찬되었다. 표제어의 배열 순서가 기본적으로는 가나다 순을 따르지만 한자어에 대해서는 대표 한자 아래에 해당 한자로 시작되는 한자어들을 모아 놓았고, 이두의 경우도 실제 독법이 아니라 한자를 기준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한국식 발음을 몰라도 한자를 통해 표제어를 찾을 수 있었다. 어종에 따라 한자어와 고유어를 따로 제시하고, 혼종어를 고유어의 일부로 넣되 혼종어 내의 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를 해 주었다. 이처럼 한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해 놓은 것과 달리 한국어 자체에 대한 분석은 의미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단음에 대한 정보를 반영했고 유의어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메타술어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표제어의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지 않는 등 품사 정보도 간단한 제시에 그쳤다. 한편, 모든 조사 표제어에 대해 예문을 제시하고 기타 품사 표제어에 대해서도 그 용법을 보여주는 예문을 제시한 점은 선구적이었다.

‘원고’와 비교할 때 『조선』은 확고하게 한글 중심의 배열 순서를 취했다. 어종과 관계 없이 가나다 순으로 표제어를 배열했으며 이두 표제어도 그 독법에 따라 배열 순서를 정했다. ‘원고’에서는 혼종어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자어나 고유어 복합어들을 어근이나 접두사에 딸린 부표제어로 설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부표제어 안에서 이중적으로 가나다 순이 적용되게 된다. 『조선』에서는 접두사에 대해서만 부표제어를 설정하고 합성어들은 모두 주표제어로 처리함으로써 배열 순서가 흐트러지는 문제를 최소화했다. 당대 한국어 어휘를 총망라하고자 했기 때

37) 『最新鮮英辭典』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어 예문에 대한 영어 대역문도 함께 제시하였다. (사전 원문에는 예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여기서는 현대식으로 띄어쓰기하였다.)

예) 마구 ad. Roughly; rudely; surlily. ㉠ 그러케 마구 굴지 마라 You must not handle it so roughly. ㉡ 친구의 청을 그러케 마구 거절할 수는 업소 We can not refuse a friend's request so surlily.

문에 다양한 외국어에서 차용된 외래어 표제어들을 수록했고, 표기법의 혼란으로 여러 변이형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를 주표제어로 나머지를 가표제어로 설정해 규범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조선』이 갖는 특징이다. 복합어 표제어의 경우 그 내부 구조를 ‘-’를 통해 자세히 밝힌 점이나 용언을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지정사로 세분하고 자타 양용동사에 대한 정보까지 제시하는 등 당대 문법 연구의 성과를 반영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전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으나 두 사전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세영이 편찬 과정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원고’를 보지는 못했더라도 『조선어사전』 간행 이후에 어휘 수집 및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한 문세영이 『조선어사전』을 참고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뜻풀이의 유사성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표제어의 목록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문세영이 어휘 수집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조선어사전』의 표제어 목록을 검토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두나 사자성어 표제어의 경우 두 사전의 일치도가 높아 보인다.

■ 참고문헌

- 김동성(1928), 『最新鮮英辭典』, 博文書館. (황호덕·이상현 편(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IX권, 박문사.)
- 김두봉(1916), 『조선말본』, 新文館. (김민수·고영근 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第1部 第8冊, 박이정.)
- 김민지(2011),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 대하여」, 『국어학논집』 7, 역락, 199-217.
- 김희상(1911), 『朝鮮語典』, 普及書館. (김민수·고영근 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第1部 第7冊, 박이정.)
- 박승빈(1935), 『朝鮮語學』, 京城 朝鮮語學研究所. (김민수·고영근 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第1部 第20冊, 박이정.)
- 박용규(2011a),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59-300.
- 박용규(2011b), 「『조선어사전』 저자 문세영 연구」, 『史叢』 7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77-102.
- 박용규(2011c), 「이희승의 문세영 《조선어사전》 비판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427-453.
- 박형익(2004/2006),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 신중진(2005), 「개화기(開化期)에 신생(新生)한 “전(電)” 관련 어휘에 대하여」, 『한국어학』 29, 한국어학회, 61-88.
- 안예리(2017),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경위: ‘조선사서원고’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0, 한국사전학회, 67-99.
- 안예리(2020), 「1930년대 사전의 외래어 수용 양상: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과 『조선어사전』(1938)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관점』 5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7-34.
- 안의정(2015), 『사전과 정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확(1923), 『修正 朝鮮文法』, 滙東書館. (김민수·고영근 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第1部 第9冊, 박이정.)
- 유길준(1909), 『大韓文典』, 同文館. (김민수·고영근 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第1部 第2冊, 박이정.)
- 이병근(1985),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목적과 그 경위」, 『진단학보』 59, 진단학회, 135-154.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지영(2011), 「朝鮮語研究會의 『鮮和新辭典』에 대한 考察: 朝鮮總督府의 『朝鮮語辭典』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65-185.
- 정렬모(1946), 『신편고등문법』, 한글 문화사. (김민수·고영근 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第1部 第25冊, 박이정.)
- 朝鮮總督府(1920),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황호덕·이상현 편(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VII권, 박문사.)
- 조재수(1984), 『국어사전 편찬론』, 과학사.
- 주시경(1910), 『國語文法』, 博文書館. (김민수·고영근 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第1部 第4冊, 박이정.)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 최경봉(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 최경봉(2017),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맥락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국어학』 81, 국어학회, 3-38.
- 최낙복(2009), 『개화기 국어문법의 연구』, 역락.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황용주(2014),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사전학회), 111-139.
- 황용주(2016), 「《朝鮮語辭典》의 편찬과 현대 한국어문학: 《朝鮮語辭典》의 출판 이력과 사전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반교어문학』(반교어문학회) 42, 99-132.
- 황호덕·이상현 편(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VII권, 박문사.
- 矢野謙一(1986), 「朝鮮總督府編『朝鮮語辭典』編纂の経緯」, 『韓』 104, 184-222.
- 植田晃次(2013), 「朝鮮總督府『朝鮮語辭典』の書誌学的研究」, 『大阪大学言語文化学』 22, 95-104.

■ 토 론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1938)과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1920) 미간행 원고의 비교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동근(대진대)

이 연구는 사전 편찬사에서 의미 있는 두 사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비교를 한 연구로 당시로서는 사전의 규모가 적지 않고 출판의 주체나 배경이 목적이 다르며, 특히 조선총독부 편인 경우 미간행 ‘원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찬의 취지나 과정까지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고 흥미로운 비교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성격이 사실적인 자료 비교에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발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가적으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사전 편찬은 앞 사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표제어 선정은 앞 사전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전의 주체가 다르고 사전의 편찬 목적의 다르더라도 ‘원고’에 비해 18년 뒤에 출판된 『조선』의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나 참고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원고(『조선어사전(1920)’)이 『조선』의 출판에 미친 영향으로 볼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에는 있는데 『조선』에는 없는 표제어가 있는지 여부 등)

2. 『조선』과 비교할 때 ‘원고’의 표제어가 갖는 또 다른 특징으로 가표제어를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발표자께서는 “『조선』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이나 표준어 사정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당시의 언어적 혼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던 반면, ‘원고’는 애당초 어문 규범화를 목표로 한 사전이 아니라 조선의 옛 문헌을 해독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표기 혼란에 대해 가표제어를 설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편찬 목적이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일인(日人)의 경우 조선의 옛 문헌에 등장하는 다양한 변이형을 그대로 수록하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원고’는 종성 표기에 전통적인 7종성만 사용했고, 된소리 표기에 합용병서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표기원칙이 있는 듯합니다. 이에 ‘원고’의 표기에 기준으로 삼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에서 7종성만 사용했고, 형태소 경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분철보다 ‘연철’ 표기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드러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 된소리 표기와 관련해서 ‘원고’에는 합용병서를 사용하였는데, 그렇다면 사전 배열에서는 발음을 중심으로 했는데, 아니면 표기를 중심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에서 ‘씩엿다’는 ‘ㅅ’ 항목에 배치되어 있는지 ‘ㅈ’에 있는지?)

5. ‘원고’가 『조선어사전』으로 최종 출판되는 과정에서 한국어 뜻풀이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문을 수록한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2)에 제시한 예문들을 보면 모두 대화체로 보입니다. 문어체의 예문은 없는지, 모두 대화체라면 일인의 한국어 습득 목적도 의도되었다고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석영과 주시경이 만나는 곳과 갈라지는 곳

-「신정국문」의 길과 「한글마춤법통일안」의 길-

김병문(연세대)

< 차 례 >

1. 들어가는 말
 2. 지석영과 주시경의 ‘국문론’
 3. 「대한국문설」과 『국문문법』
 4. 「신정국문」과 「국문연구의정안」, 그리고 「통일안」
 5. 나가는 말
- 참고문헌

1. 들어가는 말

주시경이 그의 문법을 온전한 형태로 처음 제시한 『국어문법』(1910)의 검열본(원고본)을 살펴보면 이 책의 제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된다.¹⁾ 즉, 본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 제시된 ‘이 온 글의 잡이’에 본래는 “이 글은 광무 이년 무술에 다 만들었던 것을 이제 얼마큼 덜고 더흠인데 이름을 漢字로 國語文法이라 흠은 그때에 지석영 시가 줌이요…”라고 되어 있던 것을 “지석영 시가 줌이요…”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때의 이름대로 둬이라”고 수정을 가한 것이다.(검열본 72b) ‘국어문법’이라는 서명(書名)이 실은 지석영이 지어준 것이라는 점을 인쇄를 앞두고 구태여 삭제했다는 이 사실은 지석영과 주시경의 관계가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학계에서 대체로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1906년의 유인(油印) 간행물(표제는 ‘國文講義’)에서 주시경은 자신의 국문 연구 이력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 인물로 등장하는 이가 지석영이다. 주시경에 따르면 1896년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 그 다음 해 ‘국문식(國文式)’한 편을 지었는데, 국문에 고저장단을 구별하는 법이 없어 아쉬워하던 차에 점을 쳐서 높고 낮은 음을 분별해야 한다는 지석영의 글²⁾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02년 김선신이라는 이의 소개로 지석영을 직접 만나게 되어 국문에 대한 것을 의논하다가 1905년 여름에는 그를 통해 『증보문헌비고』 「악고(樂考)」에 실린 『훈민정음』을 얻어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국문강의』 31b-32a) 물론 이때의 『훈민정음』이란 어제서와 예의, 정인지 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받침의 확대 문제와 ‘·’의 음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더욱 확신하고 이를 적극 주창해 나가게 된다.

아마도 주시경이 『국어문법』의 ‘이 온 글의 잡이’에서 ‘광무 2년(1898) 무술에 다 만들었다’고 한 책은 국문동식회 조직 후에 지었다는 ‘국문식 한 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기상 지석영이 제목을 지어주었다는 책은 1906년에 나온 유인 간행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내제(內題)가 ‘대한국어문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 맨 앞의 ‘약례’와 맨 뒤 발문 격의

1) 이 검열본은 『한민족연구』 3호(1990)에 영인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고영근(1995)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2) 1896년 12월 30일에 『대조선독립협회보』에 실린 「국문론」을 가리킴.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음.

글에서 주시경은 이 책이 문법을 다루지 않았고, 다만 음리(音理)의 대강만을 다루었을 뿐이라며 국어는 다음에 교수하겠다고 하였다.³⁾ 즉,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던 수업 자료를 묶은 이 책이 처음에는 ‘국어문법’에 해당하는 것까지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에 이르지 못하고 ‘국문’에 관한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제와 달리 표제를 ‘국문강의’로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으로 풀이된다.⁴⁾

결국 주시경은 1906년의 유인 간행물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대한국어문법’을 1910년의 『국어문법』에서야 실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작 그 『국어문법』에서는 ‘지석영’이라는 이름을 지우게 된다. 대략 1905년경까지 지석영과 주시경은 상대의 글을 참조하고 국문과 국어 연구에서 협력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그것은 물론 ‘·’에 대한 처리나 받침 확대 문제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대적인 어문 규범화에 대한 지향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부분도 있었다. 그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석영의 「통일안」과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이하 편의상 「통일안」으로 줄임)의 내용과 형식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그들이 서로를 참조 인용하던 시기의 글을 검토하고, 1905년 이후 의견이 달라지는 개별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근대적 어문 규범화에 대해 각각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보겠다.

2. 지석영과 주시경의 ‘국문론’

지석영(1855~1935)과 주시경(1876~1914)이 처음 만난 1902년 무렵 이 둘은 21살의 나이 차이만큼이나 사회적 지위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지석영은 이미 1883년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간 경험이 있었고, 그 뒤 비록 유배를 당하기도 했으나 1894년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다시 관직에 복귀했으며, 1899년부터는 의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가 일본인에게 종두법을 배워 처음으로 이를 조선에 보급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 그에 비해 주시경은 당시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다는 것 외에는 별달리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석영은 주시경에게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⁶⁾와 같은 당시로는 귀중한 자료를 보여 주며 그의 연구를 독려했고, 국문에 관한 그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주시경이 국문, 국어 연구의 전문가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시작한 데에는 지석영과의 교류와 그에게서 받은 인정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컨대 「대한국문설」에서 지석영은 ‘문법이라면 주시경 군이 저술한

3) “蓋此書非圖準其字樣之法而定式也 蓋此書非圖準其字樣之法而定式也 將欲先解此義而後自改正也” 주시경, 『국문강의』 ‘약례’, 1906, 1a. “다만 余의 研究로 學生에게 教授하다가 其餘紙를 收編하니 이는 音理만 大綱 말한 것이요 國語는 次期에 教授코자 하니” 주시경, 『국문강의』 (‘발문’), 1906, 5a-b.

4)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시경이 1906년에 유인 간행한 이 책을 그 내용과 저자의 의도에 따라 ‘국문강의’로 칭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문(2013: 110-114)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이 자료를 학계에 처음 소개한 이기문(1970: 21)과 국어사 자료의 서명(書名)에 관해 논의한 안병희(1982: 276) 역시 ‘국문강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특히 안병희(1982)에서는 내제보다도 오히려 내용에 부합하는 외제를 책명으로 채택해야 하는 경우로 주시경의 이 저술을 특기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을 소개하는 다음의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당시 이 책이 ‘국어문법’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國文研究 尙洞青年學院 教師 周時經 氏가 比年以來로 國文研究를 精密히 研究 爲先 冊子를 編輯한것은 其 音義에 明白함과 綴合에 精緻함이 可謂 我東 國文에 指南 될듯하다고 稱賀한다더라” 『황성신문』, 1906.7.18.

5) 지석영의 이력 전반에 대해서는 이광린(1993) 및 송철의(2013) 참조

6) 주시경은 『국어문전음학』(1908)의 58쪽에서 1907년 12월 지석영을 통해 『용비어천가』를 보고 거기에서 ㅅ, ㅊ, ㅍ 받침을 발견했음을 밝힌 바 있다.

대한국어문법이 있으니, 여기서서는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겠다.’⁷⁾라고 하여 그의 전문성을 높이 사고 있었다. 이때의 ‘대한국어문법’이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영이 직접 지어준 제목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모두 국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문으로 상징되는 구질서를 대체할 새 질서의 가능성을 국문에서 찾았는데 그들은 뜻을 같이하는 동지였던 셈이다. 그러한 사실은 이 둘이 만나기 전에 1년의 시차를 두고 각자 발표한, 그러나 제목마저 동일한 ‘국문론’이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영과 주시경이 이 ‘국문론’에서 공통적으로 주창했던 것은 국문으로 우리말의 소리를 분명하고 정확히 적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에는 문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리를 있는 그대로 재현해 내야 한다는 음성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지식영은 1896년 『대조선독립협회보』에 발표한 「국문론」의 서두에서 사람이 입이 있어 말을 하되 어음이 분명치 못하면 ‘반 병어리’라고 업신여김을 받듯이, 나라에 국문이 있되 전일하지 못하면, 즉 통일되어 있지 못하면 국문이 귀중한지를 모르니 나라에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야말로 국문이 전일하지 못하니, 그 까닭은 바로 국문으로 어음을 분명히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어음을 분명히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음의 높낮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東(동녘 동), 動(움직일 동), 棟(대들보 동)’의 음 ‘동’은 모두 높낮이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 하나로밖에 적을 수가 없으며, ‘擧(들 거), 野(들 야)’의 훈인 ‘들’ 역시 그 높낮이를 구분하여 적을 수 없다는 것이다.⁸⁾ 이는 국문으로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 어찌보면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은 표음문자의 태생적인 한계일 수 있다. 표음문자란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기호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영은 이 문제를 오히려 소리의 보다 더 정확하고 엄밀한 반영, 즉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여 적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더 이상 음절의 고저에 의한 의미 변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훈민정음』에서 정한 평성, 상성, 거성에 따라 점을 달리 치는 방법에 따라 국문을 적으면 ‘음과 뜻이 거울 같이’ 분명히 드러나서 위에서 지적한 동음이의어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다고 보았다.¹⁰⁾ 심지어 아이들에게 시험 삼아 상성, 거성에 따라 점치는 법만 알려주고 책에 점을 찍어 보여 주니 가르칠 것도 없이 그 글의 뜻을 훤히 다 알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높낮이에 따라 점을 달리 치는 법이야말로 ‘국문에 제일 요긴한 것’이라며 이를 실행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게 하면 어음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인민이 국문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이는 독립한 나라의 확실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근대 전환기 국문에 관한 논의는 대개 ‘왜 국문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국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의 2가지 문제로 수렴된다. 예컨대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서 남녀와 노소, 빈부와 귀천을

7) “至若文法有周君時經所著大韓國語文法此不贅焉” 지식영, 「대한국문설」, 『대한자강회월보』 11호, 1907.5.25.

8) “우리 나라 국문을 읽어 보면 모다 평성뿐이오 높게 쓰는 거슨 업스니 높게 쓰는 거시 업기로 어음을 기록하기 분명치 못하야 東 동녘동즈는 본릭 나즌 즈죽 동 흐려니와 動 움죽일동즈는 높흔 즈연마는 동 외에는 다시 표호 거시 업고 棟 디들뽕동즈는 움죽일동즈 보다도 더 높것마는 동 외에는 쏘 다시 도리가 업스며 … 擧 들거 野 들야 두즈도 국문으로만 보면 과연 분간하기 어려운지라” 지식영, 「국문론」, 『대조선독립협회보』 1, 1896.12.30.

9) 지식영의 입장에서 보면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므로 이들이 동음어는 아니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동철이의어(同綴異義語)를 각각의 소리대로 다르게 적게 하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 그러나 당시 지식영이 『훈민정음』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무주의 적상산 사고에 포쇄관으로 갔던 서상집이란 이를 통해서 실록의 기사를 전해 들은 것이다. 지식영이 「국문론」에서 상성에 점 하나, 거성에 점 두 개를 찍는다고 한 것은 그러한 전달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리지 않고 이들 모두를 독자로 삼기 위해 국문을 쓴다고 한 것은 ‘왜’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읽기 쉽게 ‘구절을 띄어 쓴다’는 것은 ‘어떻게’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한문보다 쉽다는, 그래서 한문을 대신할 새로운 매체로 삼아야 한다는 국문이 막상 실제로 읽어 보면 그 뜻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의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했던 것인데, 『독립신문』은 그 방법을 띄어쓰기에서 찾았고, 지석영은 음의 높낮이에 따른 점찍기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 ‘어떻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석영처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래 모습을 참조하려는 노력 역시 이후까지 지속된다.

주시경이 1897년 『독립신문』에 발표한 「국문론」 2편의 주제 역시 ‘왜’와 ‘어떻게’의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4월에 발표한 글에서 주시경은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우열을 논한다. 그의 입장에서 글자란 모름지기 ‘말하는 것을 써놓은 것이나 써놓은 것을 읽은 것이나 그 음이 서로 똑 같아야’ 하므로 표음문자만이 진정한 글자이고, 표의문자는 글자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림에 가깝다고 평한다. 언문일치의 문제의식이 엿보이는 부분인데, 글자의 우열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느 글자가 더 익히기 쉬운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이때의 핵심도 말소리의 반영 여부이다. 즉, 표음문자는 자음과 모음의 개수만큼만 글자를 만들면 되지만, 표의문자는 말소리가 아니라 사물의 형상을 반영해야 하므로 그 수가 몇만 개나 되고 글자 수가 많은 만큼 그것들을 구별해 주기 위해 획이 번다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글자의 우열은 분명해지고 말소리를 반영하는 국문을 써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진다. 이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좋은 글자를 만든 세종의 거룩한 뜻이다. 한문 배우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서장국(西藏國) 글자’를 참조하여 말소리대로 쓰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주시경 역시 『훈민정음』을 보지 못했으므로 국문의 원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는 없었다. ‘맑은 음 일곱 줄은 바른편에, 흐린 음 일곱 줄은 왼편에 두고 가운데 모음을 끼워서’ 운운한 것을 보면 그의 국문에 대한 설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반절표를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시경은 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점치는 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석영씨의 국문론에 자세히 실려 있다’는 언급을 덧붙이고 있다.¹¹⁾

요컨대 글자가 말소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주시경은 지석영과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도 그의 제안을 따르고 있었던 셈이다. 4월의 「국문론」이 ‘왜’의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 같은 해 9월에 발표한 두 번째 「국문론」에서 주시경은 ‘어떻게’의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여기에서도 점치는 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석영의 제안에 얼마나 깊이 찬동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반드시 국문으로 ‘옥편’, 즉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전에서는 각 글자들의 음을 분명히 표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높고 낮은 음에 점을 쳐서 그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주시경은 ‘ㅏ’와 ‘ㅑ’의 음가에 관한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는다. 즉, ‘ㅏ’는 높은 음에 쓰는 ‘웃자’이고 ‘ㅑ’는 낮은 음에 쓰는 ‘아랫자’이라서 그 음의 높낮이가 구분되지만, ‘중간 글자’는 그런 구별을 할 수 없으므로 점치는 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웃자, 아랫자, 중간 글자’는 앞서 언급한 반절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주시경은 ‘ㅏ’와 ‘ㅑ’가 그 높낮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석영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시경 자신 역시 이후 다른 견해를 제시하게 되지만, ‘ㅑ’의 음가에 대한 그의 첫 번째 견해가 높낮이를 구별해서 표시해야 한다는 지석영의 제안에 강하게 영향받은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11) “특별히 글자 음의 높고 나즌데에 다 세 가지 표 하는 거시 잇시니 나즌 음 글자에는 아모 표도 업고(업는거시 표라) 반딤 높히는 음 글자에는 덤 하나를 치고 더 높히는 음 글자에는 덤 둘을 치는지라(이 표 하는 말은 독립 협회 회보 첫지 번으로 난 칙 지석영씨 국문 론에 자세히 나뉘더라)” 주시경, 「국문론」, 『독립신문』, 1897.4.22.

그런데 ‘어떻게’에 관한 주시경의 제안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두 번째 「국문론」에서 주시경이 제일 먼저 강조한 내용은 글을 옳게 쓰려면 ‘문법, 말의 법식’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문리와 경계’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었다. ‘조선말로 문법책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때의 ‘문법, 법식, 문리와 경계’가 무엇인지는 이 글의 후반부에 든 예에서 확인된다. ‘이것시, 이거시’ 같은 표기가 바로 ‘문법’을 모르고 잘못 쓴 사례이니, ‘이것’은 어떤 말을 ‘대신 이름한 말’이고, ‘이’는 이런 말 뒤에 붙는 ‘토’이니 이 두 말을 구분하여 경계를 분명히 밝혀 주는 것이 바로 ‘문법’에 맞다는 것이다.¹²⁾ 그리고 그와 같은 예로 ‘머그로-먹으로, 소네-손에, 바른-밭은, 마미-맘이, 부세-붓에’ 등을 더 들었다.

이는 물론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체언과 거기에 붙는 조사의 형태를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특별하거나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법’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나 지식영의 높낮이에 따른 점 찍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체언과 조사에 관한 것만이 언급되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관점, 즉 ‘문법과 법식’, ‘말의 경계’라는 기준을 용언 어간과 어미에까지 적용한다면, 1905년 이후 나타나는 주시경 특유의 표기법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국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주시경의 지향이 지식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계기 역시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3. 「대한국문설」과 『국문문법』 - ‘·’의 처리와 받침 표기에 대한 입장 차

앞서 언급한 지식영의 「대한국문설」은 1907년 5월과 7월에 나누어 발표된 글이다. 그 가운데 ‘문법이라면 주시경 군의 대한국어문법이 있으니 여기에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첫 번째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이다. 바로 그 뒤에 “光武 九年 孟夏 松村 居士書”라고 하여 이 글이 실제 발표된 시기보다 2년이 빠른 광무 9년, 즉 1905년에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렇다면 ‘문법’에 관한 것을 주시경에게 돌린 지식영 자신은 이 글에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글의 서두에서 그는 창힐이 만든 글자에서부터 주나라의 전주(篆籀), 진나라의 전서, 한나라의 예서 등 서체가 여러 번 바뀌었으나 경전의 깊은 뜻은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 문자는 다만 그 뜻을 취할 뿐이지 그 모양에 구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는 ‘·’ 대신 ‘=’를 새로 만들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글자의 형태나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표시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는 훈민정음이 창제 당시의 참 뜻을 잃어버린 예로 ‘언문 매행의 처음과 끝’, 즉 ‘ㅏ’와 ‘·’가 구별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¹³⁾ 그리고 나서 ‘근래 ㅏ와 ㅏ의 함음이 ㅏ가 되는 묘를 깨닫고는 번갈아 써내려 가며 그 소리를 얻으니, 비로소 ㅏ의 원음을

12) “이것이 나의 칙이다 훗길 궂히면 그 물건은 원 일흠은 칙인디 이것 이라고 흐는 말은 그 칙을 디히야 잠시 디신 일흠 흠이니 그런즉 이것 이 두글주는 그 칙을 디 히야 디신 일흠된 말이요 이 한글주는 그 디신 일흠된 말 밋헤 토로 드러 가논것인디 … 이것시 이러케 쓰는 사릅은 이것 이주는 울케 췌거니와 그 토는 이 이주로 쓸것을 시 이 주로 췌스니 흐가지는 틀렸고 이거시 이러케 쓰는 사릅은 이것 이러케 쓸것을 이거 이주로 췌스며 이 이주로 쓸것을 시 이주로 췌스니 일흠된 말이나 그 일흠된 말 밋헤 드러가는 토나 두 글주가 다 틀렸스니 문법으로는 대단이 실수 흠이라” 주시경, 「국문론」, 『독립신문』, 1897.9.28.

13) 이 역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의 순서인 반절표를 기준으로 한 표현이다.

회복할 수 있었다' 고 했다. 이때의 '14자'란 반절표에서 '·'가 사용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를 가리키므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 원래 소리를 깨달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그 이치를 설명하는 글 한 편을 짓어 대한국문설이라 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¹⁴⁾ 이 「대한국문설」 자체가 7월에 발표된 두 번째 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의 처리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결국 '문법'은 주시경에게 돌리고 지식영이 집중한 것은 국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였던 셈인데, 물론 그가 거론한 것이 '·'만은 아니었다. '사-샤', '자-쟈', '차-챠', '다-쟈', '타-차'와 같은 글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발음하는 문제¹⁶⁾, 그리고 '눈[雪]-눈[目], 동(東)-동(動)'을 역시 변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표기하는 문제를 국문의 본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사례로 든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만을 지적할 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대한국문설」의 주된 관심사는 '·'의 처리 문제였다. 이를 위해 그가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은 'ㅏ'와 '·'가 음의 고저에 따라 구분된다는 설, 즉 주시경이 「국문론」에서 언급한 의견인데, 옥편과 운서를 근거로 그것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한다. 그리고 『훈민정음』에서 'ㅏ'를 '如覃字中聲', '·'를 '如舌字中聲'이라 하고, 『화동정음통석운고』에서는 'ㅏ'의 음을 '阿', '·'의 음을 '思[不用初聲]'로 표시한 것을 두고¹⁷⁾ 역시 이들이 구별되는 별개의 소리가 확실함을 거듭 강조한다.

그가 '·'의 처리 문제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거로 제시한 것은 반절표 상에서의 중성자의 순서와 그 구성 원리였다. 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에서 'ㅑ'는 'ㅣ, ㅏ'를 '합독(合讀)'한 글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ㅕ'는 'ㅣ, ㅓ'를, 'ㅛ'는 'ㅣ, ㅗ'를, 'ㅠ'는 'ㅣ, ㅜ'를 '합독'한 글자인데, 유독 'ㅡ'만 'ㅣ'와 '합독'한 것이 없을 리 없으니 '·'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글자라는 것이다.¹⁸⁾ 이는 5월에 발표한 글에서 '근래 ㅣ와 ㅏ의 합음이 ㅑ가 되는 묘를 깨닫고는 번갈아 써내려 가며 그 소리를 얻으니, 비로소 14자의 원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 언급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글자들의 모양으로 미루어 보건데 원래 'ㅣ, ㅡ'를 '합독'한 글자는 '≡'여야 할 터인데 필획을 줄여 '·'로 한 것이니, 이것을 다시 '≡'로 바꾸어야 그 소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겠다는 것이 지식영의 결론이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신정국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 'ㅣ, ㅡ'를 '합독'한 것이라는 지식영의 이 주장은 그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시경에게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은 『국문문법』(1905)에서부터 '·'가 'ㅣ, ㅡ'의 '합음(合音)'이라고 했고 이러한 주장은 그의 마지막 저술인 『말의 소리』

14) “近悟伊阿合音爲也之妙 遞而下之爰得其聲 於是乎 十四字復其原音 迺構辨說一篇顏之曰大韓國文說” 지식영, 「대한국문설」, 『대한자강회월보』 11, 1907.5.25.

15) 그런데 1907년 5월의 글과 7월의 글은 전자가 순한문으로 씌어진 데 비해 후자가 국한문 혼용의 문체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것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후자가 먼저 씌어지고 나중에 이에 대한 해설로 앞의 글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16) '다-쟈', '타-차'의 문제는 물론 일반적인 의미의 (동시적인) 구개음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그 밖에 '자-쟈', '차-챠'는 물론이고 '사-샤' 역시 원래 구개음이 아니었던 음운이 구개음으로 재음운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겠다.

17) 이는 『훈몽자회』 '법례'의 '중성독용11자'에서 사용한 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훈몽자회』가 아니라 『화동정음통석운고』를 인용했다는 것은 지식영이 이 시점까지도 『화동정음통석운고』에 인용된 『훈몽자회』의 '속소위반절27자(俗所謂反切二十七字)'를 참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 “ㅣ에 ㅏ를 合讀하면 ㅑ가 되고 ㅣ에 ㅓ를 合讀하면 ㅕ가 되고 ㅣ에 ㅗ를 合讀하면 ㅛ가 되고 ㅣ에 ㅜ를 合讀하면 ㅠ가 되고 ㅣ에 ㅡ를 合讀하면 ≡가 되니 此는 ㅣ字가 上下를 貫徹한 證據가 的確하다.” 지식영, 「대한국문설」, 『대한자강회월보』 13, 1907.7.25.

19) “今에 비록 新定한 音으로 命할지라도 混淆하고 防碍한 弊가 必有하리니 ㅁ字를 ㅁ字로 換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定例함이 妥當할 듯하기에 敢히 質言하노니” 지식영, 위의 글. 1907.7.25.

에까지 이어진다. 그 이유 역시 ‘ㅈ’가 ‘ㄱ, ㅋ’, ‘ㄷ’가 ‘ㄱ, ㄴ’, ‘ㅇ’가 ‘ㄱ, ㄴ’, ‘ㅍ’가 ‘ㄱ, ㅌ’의 ‘합음’이라면 ‘·’는 ‘ㄱ, 一’의 ‘합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어서 지식영의 논리와 완전히 동일했다.²⁰⁾

그런데 『국어문전음학』에서 주시경은 ‘·’가 ‘ㄱ, 一’의 ‘합음’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지식영에게 알려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국문설」이 지어졌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²¹⁾ 주시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지식영은 ‘·’가 ‘ㄱ, 一’의 ‘합음’이라는 주시경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 대신 ‘≡’를 써야 한다고 제안했던 셈이 된다. 그러나 정작 주시경은 ‘·’를 대신하여 ‘≡’를 새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국문연구소의 ‘≡字 창제 ·字 폐지의 當否’에 대한 의제에 대해 주시경은 거듭 ‘·’는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으니 ‘≡’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별 이익이 없다고 했다.²²⁾ 즉, ‘·’가 ‘ㄱ, 一’의 ‘합음’에 해당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말에는 이것으로 적을 만한 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를 구태여 만들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식영은 ‘≡’를 대신 만들어야 한다는 쪽에, 주시경은 ‘·’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하는 쪽에 섰던 것이다.

지식영이 ‘·’에 대한 위와 같은 생각으로 「신정국문」과 「대한국문설」을 지은 1905년은 주시경이 자신의, 당시로서는 대단히 독특한 표기 이론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1902년부터 교류하고 있던 지식영에게도 받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을 리 없다. 1905년경의 강의 노트로 알려져 있는 『국문문법』에서 그는 우리 말에는 중성으로도 ‘ㄷ, ㅌ, ㅍ, ㅅ, ㅊ, ㅍ’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글에는 쓰지 않으니, 말과 글이 서로 어긋나 있고 ‘원체, 본음, 법식’에 맞지 않아 그 해(害)가 지극히 크다고 했다.²³⁾ 예컨대 ‘떡’과 ‘어도, 으면’을 구분해서 적어야 하듯이 ‘더퍼도, 더프면’, 혹은 ‘덥허도, 덥흐면’이 아니라 ‘덮어도, 덮으면’으로 적어야 말과 글의 부합하고 ‘원체, 본음, 법식’에 맞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1897년의 두 번째 「국문론」에서 문법을 알고 글을 써야 한다고 했을 때의 원리를 용언 어간과 어미에까지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것처럼 ‘원체, 본음, 법식’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쓰지 않던 새로운 글자들을 받침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래와 같은 목록을 제시했다.

우리 말의 ㅅ중성	씻洗, ㅅ뽀, ㅅ뽀, 잇有, ㄴ뽀面, ㅅ志, 리웃隣, ㅅ淵釘 ㅅ束 …
우리 말의 ㄷ중성	건捲撤, 단閉, 묻埋, 민信, 받受, 변蔓, 북돋培, ㅅ瀉, 곧直, 곧堅
우리 말의 ㅌ중성	얕淺, 같似, 맡任臭, 부를跣, 흩散, ㅅ末, 밭田, ㅅ外邊
우리 말의 ㅍ중성	ㅅ짓叱, 잇忘, 맞迎, 맺結, 물젓濁, 부뽀着, ㅅ吠, ㅅ裂 …
우리 말의 ㅊ중성	ㅅ從, ㅅ及
우리 말의 ㅍ중성	음吟, ㅅ痛, 높高, ㅅ前
우리 말의 ㅍ중성	ㅅ雜, ㅅ削, ㅅ修, ㅅ編 (『국문문법』 15a-b)

20) 그 근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보태져서 『국어문전음학』에 이르면 글자의 모양, ‘며느리>며느리’ 등의 변화, 운서나 자전의 한자음, 중국인 한자 발음 등 6개까지 늘어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것이다.

21) “壬寅(1902년 - 인용자) 元望불어 池松村公을 訪從하여 ·가 一의 合音됨을 陳說하더니 乙巳(1905 - 인용자) 春에 至하여 池公이 大韓國文說을 纂하여 其序에 近悟伊阿合音爲也之妙 遞而下之爰得其聲이라 하고 其文에 多少 辨說이 有하니 此는 ·가 一의 合音이라 ㅎ이 漸漸 解明되어 감이로다” 주시경, 『국어문전음학』, 1908, 34쪽.

22) “·는 一合音의 準備로만 眞하고 實地에는 不用ㅎ이 可하다 ㅎ …字를 一의 合音의 準備로만 眞ㅎ이 足하다 하고 ≡字로 變制ㅎ이 더 有益할 바는 覺悟치 못함.” 주시경, 「국문연구」, 1909, 76b-77a

23) “말에는 ㄷ, ㅌ, ㅍ, ㅅ, ㅊ, ㅍ 이런 것들이 만이 이쓰되 글에는 쓰지 안이하는 고로 말과 글이 상좌되어 그 글자의 원테와 본음과 법식이 잘맞되 심히 혼잡하고 문리가 엷서서 그 ㅎ이 지극히 큰 고로 아래에 변록하노라.” 주시경, 『국문문법』, 1905, 13b-14a

설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시경의 생각을 지석영 역시 대단한 발견이라고 높이 평가했다.²⁷⁾ 그러나 그것이 이론으로는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실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지석영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차는 새로운 표기 규범의 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둘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지향이 달랐던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 「신정국문」과 「통일안」은 아마도 그러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일 터이다.

4. 「신정국문」과 「국문연구의정안」, 그리고 「통일안」

「신정국문」(1905)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석영이 올린 상소를 고종이 재가하여 관보에 게재된 문건이다.²⁸⁾ 비록 지석영이라는 개인의 의견에 바탕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전환기에 진행된 국문 사용에 관한 여러 논의에 처음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한 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정국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민수(1963), 이기문(1970) 등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므로²⁹⁾ 여기에서는 「국문연구의정안」 및 「통일안」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 지향이나 성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신정국문」은 ‘오음 상형변,³⁰⁾ 초중중 삼성변, 합자변, 고저변, 첩음 산정변, 중성 이정변’ 6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국문을 신정(新訂), 즉 새로 교정한다는 이 「신정국문」은 근대적 표기 규범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우선 국문을 새로 교정한다는 것은 국문의 원류, 즉 훈민정음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고수하려 들지 않고 현실에 맞게 새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그런 측면에서 「신정국문」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면모를 갖는다. 그러나 그 혁신은 어떤 이론이나 학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까지 문자 사용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표기 관습을 가급적 존중하려는 방향을 취한다. 그런 측면에서 「신정국문」은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³¹⁾

「신정국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초중중 삼성변’은 그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초중중 삼성변’은 『훈민정음』의 28자 체계를 최세진의 『훈몽자회』를 참조하여 초성중성통용 8자, 초성독용 6자, 중성독용 11자의 25자 체계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우선 당대에는 쓰지 않던 ‘△, ◡’를 구태여 되살리지 않고, 또 ‘ㅇ, ㅎ’를 구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 ㅅ, ㅋ, ㅌ, ㅍ, ㅎ’를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국문연구소에 제출한 의견에서 이론을 좇다 보면 ‘한단지보’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석영은 당대

27) “周委員 時經이 苦心血誠으로 多年 研究하여 스스 等字의 終聲됨을 發明하여 尋찾을 濕젖을 從 좃을 逐 좃을 似 같을 淺열을 覆 덮을 深 깊을 積 쌓을 好 좋을 等字를 用 한단 것이 音理에 合當하다 하니 此 단 前人의 未發한 바를 發 함이니 참 國文의 學者로다” 지석영, 「국문연구」, 1909, 51a

28) 이 글에서 대본으로 삼은 「신정국문」은 1907년 7월 25일자 관보에 게재된 것이다. 이 밖에도 「신정국문」은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1905년) 7월 19일자 기사에도 실려 있으며, 앞서 언급한 1907년 7월 25일 발행의 『대한자강회월보』 13호에 실린 「대한국문설」에도 소개되어 있다. 또 1908년 지석영이 발행한 『아학편』에는 「大韓國文」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이들 네 가지의 이본들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다소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백채원(2021) 참조.

29) 최근의 연구로는 송철의(2013), 안예리(2021)를 참조할 수 있다.

30) ‘오음 상형변’은 이미 김민수(1963)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홍양호의 『이계집』에 실려 있는 「경세정음도설서」의 ‘훈민정음 초성 상형도’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지석영은 홍양호의 이 「경세정음도설서」를 『훈민정음』 ‘예의’가 실려 있던 『증보문헌비고』 「악고(樂考)」에서 참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경세정음도설서」의 원문이나 『증보문헌비고』에 실린 것이나 모두 「신정국문」에서와 같은 표의 형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형식은 당시에 널리 인용되던 『화동정운통석운고』 범례의 ‘오음초상’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31) 송철의(2013:37)에서 역시 「신정국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지석영의 표기법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지 않은 보수적인 표기법을 주장하였다고 평가했다.

자 사용자들의 표기 관행을 존중하기보다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당대의 현실을 개혁하는 방향을 취했다. 그리고 그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형, 즉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라면 문자 사용자들이 오랜 세월 형성해 온 표기 관행은 원리와 원칙에 위배된 오류일 뿐이며, 따라서 교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신정국문」에서의 교정 대상이 오히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본 모습이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 셈이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받침 문제에 대해서 「국문연구의정안」의 결론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훈민정음』의 ‘중성부용초성’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식영이 「신정국문」의 ‘초중중 삼성변’에서 ‘초중성 통용, 초성 독용, 중성 독용’의 체계를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를 따른 것임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고, 이는 물론 당시의 표기 관습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문연구의정안」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자만 초성과 중성에 통용하고 그 나머지 글자들은 초성에만 쓰도록 한 이 『훈몽자회』의 규정이 『훈민정음』 예의와 ‘국어음’을 위반한 ‘극대한 오류’라고 강조했다.³⁷⁾ 이는 물론 『훈몽자회』에 대한 비판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표기 방식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국문연구소의 참여 위원들 가운데 받침의 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이는 주시경과 어윤적이었으며, 이능화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그에 반해 지식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침의 확대 자체에 반대했으며 심지어 ‘ㄷ’ 받침의 사용까지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문연구소의 최종보고서였던 「국문연구의정안」은 지식영의 의견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 않았다. 오히려 ‘ㄷ’을 제외한 7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불규칙’과 ‘무정의(無定義)’가 더욱 심해져 ‘문학의 멀렬’ 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초성의 모든 글자를 “原則에 依호야 斷然 通用함이 正當호도다”라고 하였다. 「국문연구의정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7중성법에 입각한 당대의 표기는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였고, 따라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 일거에 일소되어야 할 문제적 상황이었다.

된소리 표기에 대한 문제 역시 「신정국문」과 「국문연구의정안」의 태도는 상반된다. 「신정국문」은 지적한 바와 같이 원래대로라면 ‘ㄱ, ㄷ, ㅁ’가 옳겠으나, 시속에서 사용하는 ‘ㅅ, ㅈ, ㅊ’가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문연구의정안」에서는 『훈민정음』에서 소리의 예까지 특별히 기재한 바와 같이 ‘ㄱ, ㄷ, ㅁ’가 “制字의 本義오 音理의 原則”이며, “ㅅ字를 左加호야 俗語에 된시웃이라 稱호여 行用”하는 것은 “音理에 不當”하니 “訓民正音を 遵”하여 “同字의 竝書로 一定함”이 옳다고 하였다.(「국문연구의정안」, 10b) 역시 『훈민정음』의 본의와 음리, 원칙에 따라 일상의 표기 관행을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심지어 「국문연구의정안」에서는 자모의 순서까지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ㆆ, ㆏, ㆐’으로 바꾸고자 했는데, 이때의 기준은 ‘아설순치후의 오음과 청탁의 구별’이었다. 이 또한 「신정국문」이 ‘초중중 삼성변’에서 제시한 자모의 순서가 당대의, 그리고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관습 그대로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이 「신정국문」과 「국문연구의정안」은 새로운 표기 규범의 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방향을 취했다. 전자가 가급적 문자 사용자들의 표기 관습을 존중하려는 방향이었다면, 후자는 그러한 관습을 오류와 무질서로 치부하고 이를 특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개혁하려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모두 문자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할 문자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글자를 가리는 문제에 집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글

36) 국문연구소의 운영 방식 및 사업의 전망, 「국문연구의정안」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이기문(1970), 신창순(2001), 한동완(2003) 등 참조.

37) “訓民正音에는 初聲 諸字를 并히 終聲에 復用호던 것인데 訓蒙字會에 ㄱㄴㄷㄹㅁㅂㅅㅇ 八字만 初終聲에 通用호고 其餘字는 初聲獨用으로 區別호았으니 此를 推想컨디 梵文의 八終聲例를 倣호든 듯호나 訓民正音 例義와 國語音에 違反호았으니 此는 極大호 謬誤로다.” 국문연구소, 「국문연구의정안」, 1909, 12a

자를 제한할 것인가, 된소리 표기는 ‘ㄱ, ㄲ, ㅋ’로 할 것인가 아니면 ‘ㅈ, ㅉ, ㅊ’로 할 것인가 등이 모두 그러한 문제였다. 「국문연구의정안」에서 ‘ㅎ, ㅅ, ㅆ, ㅈ, ㅉ, ㅊ, ㅋ, ㆁ’ 같은 글자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룬 것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신정국문」에서는 ‘초중종 삼성변’을 통해 쓸 수 있는 자모를 25자로 한정해 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필요 없었다. 「국문연구의정안」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히 논한 ‘국문의 연원, 연혁’ 역시 ‘국어’가 아니라 글자의 문제를 다룬 것인데, 송철의(2013:31-32)의 지적처럼 「신정국문」에서는 ‘오음 상형변’이 바로 국문의 연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통일안」은 매우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통일안」의 각론 ‘제1장 자모’는 자모의 수와 순서, 그 이름을 정해 줌으로써 「신정국문」이나 「국문연구의정안」이 하고자 했던 바를 하고 있다. 즉, 「통일안」은 이 ‘제1장 자모’를 통해 ‘·’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된소리를 ㅅ계 합용병서가 아니라 ‘ㄱ, ㄲ, ㅋ’ 등과 같이 표기하며, 받침에도 ‘스, ㅅ, ㅈ, ㅉ, ㅊ, ㅋ, ㆁ’ 등을 쓸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자모에 대한 규정은 「통일안」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토대이기는 하지만, 근대적인 표기 규범으로서 「통일안」이 지향하는 바는 이 자모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통일안」이 지향하는 바는 두말할 필요 없이 총론의 첫 항목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에서 명료히 드러난다. 이는 물론 문자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형성한 표기 관습이 아니라, ‘소리와 어법’을 원칙으로 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표기 규범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천명함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때의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여지는 대로, 들리는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 아니었다. ‘소리대로’란 역사적인 표기가 아니라 당대의 현실음을 반영한 ‘표음적 표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구개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그 당대의 소리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환경에 따른 형태 음소론적인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시경이 1905년경부터 주창해 온 것이며, 『국어문전음학』에서는 그러한 표기 원칙이 ‘국어문전’, 즉 ‘국어문법’을 ‘인도’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통일안」의 ‘제3장 문법에 관한 것’은 주시경의 그러한 지향을 충실히 구현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제3장의 ‘제1절 체언과 토’, ‘제2절 어간과 어미’는 이 「통일안」이 더 이상 주시경이 아니라 최현배의 문법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러한 문법의 수정 역시 국문의 올바른 표기란 ‘국어문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시경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더욱 온전히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체언과 토가 어우를 적’에 소리가 변해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주시경의 문법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제7항), 용언의 경우에는 ‘규칙용언’과 ‘변격용언’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주시경 문법의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제8항~제10항). 주시경은 ‘본음, 원체, 법식’이라고 하고 「통일안」에서는 ‘어법’이라고 한 이 표기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기존에 쓰지 않던 새로운 받침의 목록(제11항)을 만들어 낸다. 「통일안」의 이 목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시경이 1905년 자신의 표기 이론을 주창한 이래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온 최종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안」이 근대적인 표기 규범으로서 지향한 것은 자모의 확정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통일안」은 무엇보다도 이 표기 규범이 대상으로 삼는 언어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를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필요로 했다. 물론 그것은 ‘표준어’라는 언어 정책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통일안」작성자들이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한 것은 언어학이라는 근대의 학문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한 ‘조선어’의 내적 규칙, 즉 ‘어법’이었던 것이다. 표기는 바로 그 ‘어법’에 따라 결정되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 ‘어법’을 파

악하는 데 문자 사용자들의 감각이나 관습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로지 언어학적 훈련을 받은 이들만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법’이다. 「국문연구의정안」에서도 당대의 표기 관행은 오해와 오류로 치부되었으나 그때의 기준은 대체로 훈민정음 창제의 본의였다. 그러나 「통일안」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훈민정음」의 예의가 표기의 원칙이나 근거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법조문을 방불케 하는 「통일안」의 형식은 이와 같은 지향에 입각해 있다. 근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어법’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표기 관행을 개혁하는 것. 문자 사용자들의 표기 감각과 관행은 그러한 개혁에 결코 간단치 않은 저항을 불러일으켰지만, 과학과 합리, 그리고 진보의 이름으로 그러한 개혁은 정당화되었다. 「통일안」을 「신정국문」, 「국문연구의정안」을 뛰어넘는, 보다 진보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표기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언어권과 비교해 본다면 「통일안」은 대단히 특수한 형식의 표기 규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신정국문」이나 「국문연구의정안」 정도의 성문화된 규정과 각종의 사전들이 조화를 이룬 규범 체계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정국문」은 「통일안」에 미달하는 낮은 수준의 규범이라기보다는 「통일안」과는 다른 형태의 규범 체계를 지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처음에 의기투합했던 지식영과 주시경이 점차 의견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과정 역시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5. 나가는 말

한국어 표기법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언어학적 지식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예컨대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사이시옷 규정만 해도 그렇다. 사이시옷을 규정에 따라 옳게 적기 위해서는, 그 말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어종(語種)을 판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 그 말이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 명사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잇소리 현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뒷말이 ‘ㄹ, ㄴ’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하나 덧붙이고,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에 ‘ㄴ’이 둘 덧붙이는 현상”(『표준국어대사전』)을 언어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표기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소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한글 맞춤법」의 거의 모든 항목은 이와 같은 언어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다. 이런 사실은 물론 「한글 맞춤법」이 그 어떤 언어권의 규범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한글 맞춤법」은 대단히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맞춤법이 어렵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자 사용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해 온 표기 감각이나 관습보다는 전문가들의 언어학적 지식이 표기 규범의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한글 맞춤법」은 엘리트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남과 북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의 기원은 「통일안」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글 맞춤법’의 특수성은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문자 사용자들의 관행이나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의 규범을 고민하는 자세 역시 필요할 터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지석영의 길’일 수 있겠다. 그와 같은 고민은 물론 「신정국문」이 「통일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주시경의 길’과는 또 다른 성격의 충분히 가능한 길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지석영, 「국문론」, 『대조선독립협회보』 1, 1896.12.30.(김민수·고영근 편(2008), 『역대한국문법대계(제2판)』 제3부 제3책, 박이정)³⁸⁾
- 주시경, 「국문론」, 『독립신문』, 1897.4.22.-24.(김민수 편(1992), 『주시경전서』 1, 탑출판사)³⁹⁾
- 주시경, 「국문론」, 『독립신문』, 1897.9.25.-28.(『전서』 1)
- 주시경, 『국문문법』, 1905(『전서』 1)
- 주시경, 『국문강의』, 1906(『전서』 1)
- 지석영, 「대한국문설」, 『대한자강회월보』 11, 1907.5.25.(『역대』 3-3)
- 지석영, 「대한국문설」, 『대한자강회월보』 13, 1907.7.25.(『역대』 3-3)
- 주시경, 『국어문전음학』, 박문서관, 1908, 62쪽.(『전서』 1)
- 지석영, 「국문연구」, 1909, 51b(『역대』 3-6)
- 주시경, 「국문연구」, 1909(『전서』 2)
- 주시경, 『국어문법』, 1910(『전서』 3)
- 조선어학회, 「한글마춤법통일안」, 1933(한글학회(1989) 편,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

■ 논저

- 김민수(1963), 「신정국문에 관한 연구 - 특히 “이으” 함음과 아래아를 문제로 하여」, 『아세아연구』 6-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5-247.
- 고영근(1995), 주시경 <국어문법>의 형성에 얽힌 문제 - 검열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0, 대동문화연구원, 233-277,
- 안병희(1982), 「국어사 자료의 書名과 卷冊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69-292.
- 이기문(1970), 『開化期の 國文研究』(韓國文化研究叢書 1), 한국문화연구소.
- 김병문(2013), 『언어적 근대의 기획 -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 이광린(1993), 「松村 池錫永(1855~1935)」, 『開化期の 人物』, 연세대학교 출판부
- 송철의(2013), 「지석영과 개화기 어문 정리」, 송철의·김명호·양승국 외,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학자』, 태학사
- 안예리(2020), 「근대 한국어학의 지적 계보를 찾아서 - 지석영의 국문·국어 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편,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 소명출판.
- 백채원(2021), 지석영의 「신정국문」 이본 텍스트의 비교 연구 - 관보본, 실록본, 대한국문설본, 아학편본을 중심으로, 국어학 98, 국어학회, 2021, 267-298.
- 신창순(2001), 「國文研究所 「國文研究議定案」의 檢討」, 『어문논집』 44, 민족어문학회, 5-49.
- 한동완(2006),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38) 편의상 이하 ‘『역대』 ○-○’과 같은 형식으로 줄임.

39) 편의상 이하 ‘『전서』 ○’과 같은 형식으로 줄임.

■ 토 론

“지석영과 주시경이 만나는 곳과 갈라지는 곳- 「신정국문」의 길과 「한글마춤법통일안」의 길”에 대한 토론문

조태린(연세대)

이 발표문은 한국어 표기 규범에 대한 인식과 지향에 주목하면서 근대 국어/국문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지석영과 주시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연구로, 한국어 표기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논쟁의 역사를 충실한 문헌 검토를 통해 잘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한글 맞춤법>의 특성과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덕분에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토론자는 발표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몇 가지 소박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2장에서는 지석영과 주시경이 만나는 곳이 글자가 말소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과 그 구체적 방법론(높낮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점을 달리 치는 방법)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시경이 지석영보다 더 나아간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나 지석영의 높낮이에 따른 점 찍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제안인 ‘문법’이라는 기준이다. 그런데 토론자는 이처럼 표기 규범에서 문법(말의 법칙)을 강조한 주시경에게서 표기 규범을 언어학적 개념으로서의 문법과 동일시하는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하 통일안)>과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언어학적 논리와 체계가 과도하게 고려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표기 규범은 문법이 아니고 문법이어서도 안 되며, 현행 <한글 맞춤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표기 규범을 문법(어법, 법칙)이라는 원칙과 체계로 과도하게 꿰맞추려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통일안>과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말하는 ‘어법’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법’도 아니며, 단지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형태주의 표기의 원칙을 의미할 뿐인데, 현행 초중등 국어교육과정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문법’의 영역에 배치하고 ‘문법’의 일부로 다루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론자의 이러한 거친 소견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린다.

둘째, 4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통일안>을 지석영의 <신정국문>을 뛰어넘는, 보다 진보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표기 규범으로 이해하기보다 <통일안>과 <신정국문>을 서로 다른 형태의 규범 체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안>은 다른 언어권과 비교할 때 대단히 특수한 형식의 표기 규범이며, 다른 언어의 표기 규범은 <신정국문>이나 <국문연구의정안> 정도의 성문화된 규정과 각종 사전이 조화를 이룬 규범 체계가 일반적임도 설명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도 세계 어느 언어권에서도 <통일안>에서 출발한 남북한의 현행 맞춤법처럼 수많은 표기 규정을 원칙과 체계를 세워 성문화한 경우를 찾지 못했고, 역사적 의의와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어 표기 규범의 존재 형식과 적용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이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셋째, 나가는 말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거의 모든 항목이 상당한 수준의 언어학적 지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사실은 <한글 맞춤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대단히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특수성은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문자 사용자들과의 관행이나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표기 규범을 고민하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의 모델로 ‘지석영의 길’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 한국어 표기 규범에서의 엘리트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반인들의 표기 관행이나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글 맞춤법>의 특수성을 그 자체로 인정한다는 것과 ‘지석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추가적인 설명을 기대한다.

‘-답-, -스럽-, -롭-’이 접사가 되기까지

- 20세기 초의 문법서 검토 -

정한대로(가천대)

< 차례 >

1. 머리말
 2. 비문법적 성분 - ‘더한 것, 더한 소리, 붙인 것’
 3. 단어(씨, 單語) - ‘업, 助動詞, 不完全 形容詞’
 4. 접사 - ‘받가지, 接尾辭, 接尾語’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현대 한국어 문법에서 ‘-답-, -스럽-, -롭-’은 명사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학교 문법(규범 문법)에 통용되며 매우 견고한 주류적 시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학계(학문 문법)에서는 사실상 이들의 문법적 지위에 관해 적지 않은 입장 차이가 이어져 왔다. 특히 김창섭(1984) 이후로 ‘-답₁-’과 ‘-답₂-’의 구분과 함께 명사구와 결합하는 ‘-답₁-’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이와 유사한 통사적 양상을 보이는 대상(-스럽-, -하-, -이-)을 중심으로 ‘통사적 파생접사, 통사접사, 의존형용사’ 등의 용어로 관련 현상이 기술된 바 있다.¹⁾

‘-답-, -스럽-, -롭-’을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파악한 입장은 일찍이 최현배(崔鉉培)의 『우리말본』(1937)에서 확인된다.²⁾

(1) 최현배(1937: 921-923)의 ‘받가지’

(2) 이름씨를 어떻씨로 만드는 ㉠받가지: (중략)

「-답다」 ㉠(可值, 값어치가 있다).

사람답다, 사내답다, 계집답다, 어른답다, 아이답다, 先生답다, 學者답다, 牧師답다.

「-답다」 ㉠(많다).

1) ‘-답-, -스럽-’의 통사적 특성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 김창섭(1984, 1996), 임흥빈(1989), 김민국(2008)이 있다. 김창섭(1984: 149)에서 ‘-답₁-’이 명사구에 붙어 형용사구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조명된 이후, 김창섭(1996: 166-179)은 명사구와 결합 가능한 ‘-답-’을 ‘-이-, -갈-’과 마찬가지로 용언의 일종인 ‘의존형용사’로 파악한 반면, ‘-스럽-, -롭-’은 형용사 파생접사로 분류함으로써 그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임흥빈(1989)는 ‘-답-, -스럽-, -실-, -하-’ 등을 ‘통사적 파생’의 대상으로 다루었으며, 김민국(2008)은 ‘-스럽-, -답-, -이-’를 ‘통사적 접사’로 보고 이들의 공시적 단어 형성을 논의한 바 있다. 통사적 접사 설정과 관련한 논의로 고창수(1992), 황화상(2005)도 참고된다.

2) 이하 인용한 원문의 밑줄, 굵은 표시 및 기호(㉠, ㉡ 등)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원문에 주석 형식으로 기술된 내용은 []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3) 참고.

정답다.

「-스럽다」 ㉔(然).

들스럽다(野), 탐스럽다, 사랑스럽다, 생광스럽다,多情스럽다,人情스럽다,福스럽다,幸福스럽다,弊端스럽다,弊스럽다,좁스럽다(劣小,齷齪),天成스럽다(중략)

「-롭다」.

해롭다, 슬기롭다, 보배롭다, 괴롭다, 수고롭다, 폐롭다(폐단스럽다, 심술궂다),可笑롭다.

최현배(1937)은 (1)과 같이 명사(이름씨)를 형용사(어떻씨)로 만드는 단위를 ‘접미사(발가지)’로 파악하였으며(1㉔), ‘-답다(2개), -스럽다, -롭다’를 해당 접미사 목록에 포함하였다. 함께 등장하는 다수의 형용사 예시를 통해 이들 접미사의 당시 활발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접미사 옆 괄호 안에 병기한 뜻풀이(1㉔~1㉔)는 최현배(1937)이 분포(어근 뒤), 품사(형용사 형성)와 같은 형태 정보는 물론이고 각 접미사의 의미 정보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답다’는 서로 다른 2개의 의미로 기술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는 상이한 시각에서 ‘-답-, -스럽-, -롭-’에 다른 문법적 지위를 부여한 당시 문법가의 기술도 확인된다. 박승빈(朴勝彬)의 『朝鮮語學』(1935)이 대표적이다.

(2) 박승빈(1935: 196)의 ‘不完全 形容詞’

形容詞의 構成 (중략) 다른 語原으로부터 構成된 形容詞에 文法的으로 論議할 價値가 있는 主要한 것을 以下에 論述하라 함 (중략)

一 「다오」의 添附

例 꽃다오며 芳, 情다오니

二 「스러우」의 添附

例 常스러우니, 썩썩스러우오

【註】 ㉔名詞에 「다오, 스러우」가 連續한 말에 「다오, 스러우」를 不完全 形容詞로, 名詞를 그 補語로 說明하게 되는 것이 原則임 例로 「男子 다오며, 勇猛 스러우오」 그러나 ㉔右記 「一, 二」의 例에 記載된 말과 가튼 것은 一個의 單語로 處理함이 可한 것임

박승빈(1935)는 ‘다오, 스러우’를 ‘불완전 형용사’로, 그에 선행하는 명사를 보어로 파악함으로써(2㉔), 이를 [명사#불완전 형용사]의 통사 구성으로 파악한다. 즉, ‘답, 스럽’에 접사가 아닌 독립된 단어(형용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답, 스럽’이 관여한 구성을 1개의 단어로도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2㉔) 그 예시로 ‘꽃다오며, 情다오니, 常스러우니, 썩썩스러우오’를 제시하였다. 다만 단어 판단 기준이 뚜렷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1)과 (2)는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문법서이지만, ‘답, 스럽’의 문법적 지위 판단에 있어서는 ‘접사(접미사)’와 ‘단어(형용사)’로 선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낸다.³⁾ 전자는 ‘답, 스럽’ 구성을 ‘단어’(어근과 접사의 형태적 결합)로 파악한 반면, 후자는 ‘답, 스럽’ 구성을 ‘구’(보어와 불완전 형용사의 통사적 결합)로 이해한 것인데, 동일 대상을 달리 해석한 당시 두 문법가의 시선

3) ‘-답-, -스럽-, -롭-’을 접사로 명확히 제시할 때를 제외하고는 중립적 차원에서 ‘답, 스럽, 롭’처럼 붙임표 없이 기술하고자 한다.

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답-, -스럽-’을 파생접사로 인정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1930년대 두 문법서의 차이가 다소 낫설게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문법 기술을 극복하고 당대 연구자들의 인식을 우선함으로써 (1)의 주류적 관점(‘접사’)이 자리 잡기 이전에 역동적으로 펼쳐졌던 20세기 초 문법 연구의 흐름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글은 주시경(1910)에서부터 박승빈(1935), 최현배(1937) 등에 이르기까지 ‘답, 스럽, 룡’ 관련 용례가 등장하는 대표 문법서를 검토함으로써, 이에 관한 각 문헌별 특성과 저자의 인식을 정리하고 유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후,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이나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1957)과 같은 사전류에 이들 대상이 어떻게 등재되는지까지 함께 살피면서 그 정착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답, 스럽, 룡’에 뚜렷한 문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던 당대 문법서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이들 대상을 각각 ‘단어’와 ‘접사’로 인정한 논의를 구분하여 차례로 확인할 것이다.

2. 비문법적 성분 - ‘더한 것, 더한 소리, 붙인 것’

20세기 초 문법서에서 ‘답, 스럽, 룡’에 관한 기술은 일찍이 주시경(周時經)의 『말』(1908)과 『國語文法』(1910)에서 확인된다.

(3) 주시경(1910: 103)의 ‘룡, 스럽, 답’

임본엇

정하 [정은 漢字 精의 음인데 (중략) 하는 임몸 정을 엇몸 되게 하는 것]

(알이) ㉠해룡 [해는 漢字 害의 음인데 ㉠룡을 더하여 엇몸 되게 하는 것]

㉡사람스럽 [임몸 사람에 ㉡스럽을 더하여 엇몸 되게 하는 것]⁴⁾

㉢사람답 [답은 스럽과 한가지니 임몸 사람에 ㉢더하여 엇몸 되게 하는 것]

널리 알려져 있듯이 주시경(1910)의 ‘기몸박굼’은 한 문장 안에서 단어(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사론적 요구에 따라 실현된 품사 변화(박굼)를 의미한다(고영근 1979, 김석득 1979).⁵⁾ 그중 ‘임본엇’ 즉 명사(임)가 형용사(엇)로 변화한 예로 ‘해룡, 사람스럽, 사람답’이 등장한다(3㉠~3㉢). 밑줄 친 (3㉠~3㉢)의 기술을 고려할 때 ‘룡, 스럽, 답’이 선행 명사에 ‘더해진’ 대상임이 명확히 드러나기는 하나, 이때 이들의 문법적 지위는 뚜렷하지 않다. 주시경(1910)에 제시된 9개의 품사(기) 중에는 이들을 지시하는 대상이 없으며, 별도로 명명된 용어 역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⁶⁾

앞서 주시경(1908: 30)에서는 ‘名本形容 [名号를 形本되게 하는 것]’의 본문 예시로 ‘정하’

4) 이때 ‘스럽’으로 표기된 것(2회)은 ‘스럽’의 오자이다.

5) 주시경(1910: 101)의 기술은 아래와 같다.

“기몸박굼 어느 기든지 서로 박구어 쓰지 못하면 말을 꿈일 수가 없으므로 각 기의 결애를 서로 박구어 씬이 잇으니 이를 기몸박굼이라 이름이라”

6) 송철의(2010: 59), 김해금(2016: 35-36)은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ㄹ, 기’를 “단어형성 요소”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이들은 ‘변화’에 기반한 ‘바꿈의 요소’이지 ‘단어 형성’과 관련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3)의 주시경(2010)에서 언급한 ‘룡, 스럽, 답’도 마찬가지이다. 주시경(2010)의 ‘기몸박굼’을 파생법으로 파악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은 정한데로(2020 7)에서 논의한 바 있다.

만이 등장하였을 뿐 ‘해롭, 사람스럽, 사람답’은 본문이 아닌 난상(欄上)에 제시된 바 있다. 이후 주시경(1910)에 이르러서 (3)과 같이 본문에 재배치되어 이들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부가된 것은 ‘롭, 스럽, 답’의 중요성에 관한 저자의 미세한 인식 변화가 드러나는 결과로 판단된다.⁷⁾

(4) 김두봉(1916: 68-70)의 ‘롭, 스럽’⁸⁾

넷째 임의 바꿈[變化] (중략)

이 말에 가물은 그대로 얻으로 바꾸인 것이요 ㉔슬기롭, ㉕들스럽, 건방지, 냅 들은 ㉖롭, 스럽, 지, 뉘 들의 소리를 더하여 얻으로 바꾸인 것이니라

김두봉(金斗奉)의 『조선말본』(1916)에서는 ‘롭, 스럽’ 소리를 더하여 명사(임)가 형용사(얻) ‘슬기[智]롭, 들[野]스럽’(4㉔, 4㉕)으로 바뀐 것으로 기술된다. 이러한 임의 ‘바꿈[變化]’은 이전 주시경(1908, 1910)의 ‘變, 박굶’을 계승한 차원에서 단어 ‘슬기롭, 들스럽’을 이해한 결과이다. 이때 ‘롭, 스럽’ 성분이 뚜렷한 문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한 소리’ 정도로 이해될 뿐이다.⁹⁾ 주시경(1908, 1910), 김두봉(1916)은 ‘變, 박굶(바꿈)’의 관점에서 “~을 더하여 ~되게 하는” 또는 “소리를 더하여 ~로 바꾸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품사 변화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로 이들 대상을 이해한 점에서 공통된다.

주시경(1910)을 포함해 후술할 문법서 대다수가 ‘답’을 ‘스럽’과 함께 우선적으로 다룬 것과 달리, 특이하게도 김두봉(1916)은 ‘답’을 배제한 채 ‘롭, 스럽’만을 언급한다. 집필 과정에 나타난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답’을 ‘롭, 스럽’과는 상이한 성격의 단위로 파악했을 가능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¹⁰⁾

(5) 이상춘(1925: 70-71)의 ‘스럽, 답, 롭’¹¹⁾

九 變體形容詞는 다른 갈래의 말이, 바꾸이어 된 形容詞이니, 名形詞, 動形詞, 副形詞, 셋이 있나니라. (중략)

7) 주시경(1908: 30)의 난상에 제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띄어쓰기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해롭 [해는 漢文 害字의 음인디 우리말로 漢文 字音을 쓰는 法은 名號로만 認用으로 名號體 노릇 하는 해에 롭을 더하 形本體 되게 하는 것]
 사람스럽 [사람은 名號요 스럽은 名號 사람에 더하여 形本體 되게 하는 것]
 사람답 [답은 스럽과 同]

8) 띄어쓰기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9) 이규영의 『現今朝鮮文典』(1920: 22)에서도 ‘더하여 바꿈’의 예로 ‘슬기롭, 사람스럽’이 제시된다. 명사 ‘슬기, 사람’이 ‘롭, 스럽’을 더하여 형용사로 바뀐 ‘몸바꿈’의 예로 소개된 것인데, 이는 김두봉(1916)과 기술 방식이나 용례가 매우 유사하다.

10) 김윤경의 『나라말본』(1948: 44)은 “‘답’은 대개 임씨에다 붙일 수 있는 좀 본있는 것이지만은 “롭”은 어떠한 임씨에만 붙이어 쓰는 것이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답’과 ‘롭’의 분포적 차이를 상술한 바 있다. ‘답’의 선행 성분 제약이 비교적 덜하다는 현상을 포착한 것으로서, 현대 한국어에서 명사구와 결합하는 이른바 ‘-답₁-’의 특징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김두봉(1916) 역시 이러한 ‘답’과 ‘롭’의 비대칭성을 고려했던 것일 수 있으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22)에 후술할 문세영(1938)에서도 ‘답다’는 형용사로, ‘롭다, 스럽다’는 접미사로 달리 처리된다.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김창섭(1996)도 ‘-답-’은 의존형용사로, ‘-스럽-, -롭-’은 형용사 파생접사로 상이하게 분석한 바 있다. 이렇듯 여러 문헌에서 ‘답’과 ‘스럽, 롭’ 간에 미세한 차이가 확인된다.

11) 원문의 띄어쓰기는 각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 있는데, 현대 규범에 맞추어 붙여 정리한 것이다.

1. 名形詞는 名詞가 바뀌어 形容詞이니라.
 (例) 사람스럽. 암상스럽. 수선스럽(㉠「스럽」을 더함). 사내답. 일답. 그릇답(㉡「답」을 더함). 슬기롭. 새롭(㉢「롭」을 더함) 따위.
 (중략)
 (備考) ㉡漢字의 끝에 「하」「롭」「답」「스럽」들을 더하여, 形容詞를 만든다니,
 (例) 高尚하. 遠大하. 寂寂하. 薄하. 甚하. 危險하. 義롭. 利롭. 害롭. 智慧롭. 男子답. 學生답. 法律답. 山답. 奸詐스럽. 福스럽. 德스럽 따위.

이상춘(李常春)의 『朝鮮語文法』(1925)도 앞서 살펴본 주시경(1910), 김두봉(1916)과 마찬가지로 ‘變(바꿈)’의 관점에서 관련 형식을 파악하였으며, 이 역시 ‘스럽, 답, 롭’에 관한 뚜렷한 문법적 지위는 드러나 있지 않다(5㉠~5㉢). 앞선 두 문헌과 비교할 때 훨씬 다양한 예시가 소개되며, 선행 명사가 고유어일 때(5㉠~5㉢)와 한자어일 때(5㉢)를 구분하여 기술하는 등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된 모습이다. 상세한 예시와 유형 분류가 마련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럽, 답, 롭’에 대해서는 이전 문법서들과 마찬가지로 ‘더한 것’ 정도로 여전히 간략하게 서술되었을 뿐이다.

(6) 홍기문(1927: ㉢-129)의 ‘답, 슨, 럽’¹²⁾

第六節 說明形容詞 (二)
 (一), ㉠名詞에 『답』을 부치어 形容詞를 만든다
 웃답 사람답 들답 사자답 웃답 부인답
 (二), ㉡名詞 表示形容詞(性質 及 狀態) 副詞 『스럼, 럽』을 부치어 說明形容詞를 만든다
 틀스럼 용맹스럼 (名)
 ㉢이럼 해럼 (名)
 함박스럼 끈적스럼 (複副)
 걸썩스럼 덜퍽스럼 (複副)
 ㉣외럼 새럼 (表形)

홍기문(洪起文)의 『朝鮮文典要領』(1927)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답’과 ‘스럼, 럽’을 붙여 형용사를 만든다고 파악한 점에서, 앞서 확인한 세 문헌과 평행한 모습이다. 명사에 붙인 대상을 어떻게 명명하는지는 (6)에서도 역시 독자적인 용어로 확인되지 않는다.¹³⁾ 다만 앞의 문헌과 비교할 때 선행하는 성분의 유형을 품사별(명사, 표시형용사, 부사)로 세밀하게 분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답’은 명사에(6㉠), ‘스럼, 럽’은 명사, 표시형용사, 부사에(6㉡) 후행한다는 분포적 차이가 제시된 점에서 구체적이다.

(6㉢, 6㉣)의 ‘이럼, 해럼, 외럼, 새럼’ 예시를 참고할 때, 이때의 ‘럼’은 오늘날 ‘롭’에 대응한다. 그런데 ‘럼’을 마치 이형태로 처리하듯이 ‘스럼’과 함께 묶어 제시한 점이 특이하다.¹⁴⁾

12) 『現代評論』(1927) 제4호에 수록된 ‘第三編 動詞, 形容詞’[(6)에 ㉢으로 표시함]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띄어쓰기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13) 홍기문(1927: ㉡-139)에서는 ‘심술멸이’의 ‘멸이’, ‘울탈이’의 ‘탈이’ 등을 “名詞의 添加”로 칭하는 데 반해, ‘답, 슨, 럽’에 대해서는 ‘첨가’ 또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대조된다. 홍기문(1927: ㉡-141)에서 ‘넓이, 덜개, 얼음’의 ‘이, 개, 음’도 형용사와 동사에 “부치어 名詞를 만든” 것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별도의 문법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늘날 접미사 ‘-스럽-’이 ‘-롭-’과 중복된 분포의 어근 결합 양상을 보이며(☞ 수고스럽다:수고롭다, 영예스럽다:영예롭다), 통시적으로도 ‘X롭다’ 구성의 단어가 ‘X스럽다’로 대체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듯이(송철의 1992: 204-205), ‘스럽’과 ‘롭’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형태처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⁵⁾ 홍기문(1927)의 이러한 분석은 필자의 직관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3. 단어(씨, 單語) - ‘업, 助動詞, 不完全 形容詞’

이규영(李奎榮)은 주시경학파의 대표적인 문법가로서 주시경, 김두봉과 함께 조선광문회(朝鮮廣文會)에서 『말모이』 사전 편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가 저술한 『現今朝鮮文典』(1920)은 김두봉(1916)과 깊은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¹⁶⁾ 이렇듯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의 문법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는데, 1913년경에 작성된 이규영의 비망록 『온갖것』은 다소 차별화된 체계의 씨 갈래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¹⁷⁾

(7) 이규영(1913: 22)의 ‘우리말 씨몬음의 갈래’

씨	몸	밋	-	입(제, 녓, 억, 언, 드), 움(안, 박), 엇
		㉠빋	-	㉠입, 읍, 업
	토	밋	-	만(심, 맺), 금(뚝, 갈, 손, 깎), 돕(잇, 들)
		㉠빋	-	매, 높, 솔

(7)의 『온갖것』에 제시된 품사의 수는 총 22개로서, 이는 주시경(1910), 김두봉(1916)의 9품사 체제와 차이가 크다. ‘몸’과 ‘토’의 하위 범주로 ‘밋’과 ‘빋’(7㉠)이 각각 제시되는데, 그중 몸씨의 체계 내에 ‘입, 읍, 업’(7㉠)이 자리 잡은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이규영(1913: 24)은 ‘업’의 예로 ‘롭, 슨’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그가 작성한 『한글적새』(1919?: 14-16, 43)의 ‘씨 갈래의 그림’에서도 ‘입, 읍, 업’이 한데 묶여 ‘빋몸’으로 중간 범주화되며 그중 ‘업’은 ‘얼씨의 빋몸’으로 기술된다. 빋몸을 더해 명사(임)를 형용사(업)로 바꾸는 ‘업’의 예로 ‘사람스롭’이 명확히 제시되기도 한다. 오늘날 대개 접사로 처리되는 ‘싸개’의 ‘개’, ‘얼음’의 ‘음’, ‘높이’

14) 홍기문(1927)의 형용사는 ‘표시형용사’와 ‘설명형용사’로 구분되며 각각 오늘날의 관형사(관형어) 및 형용사에 대응되는 경향이 있다. ‘複副’는 ‘複副詞’를 가리킨다.

15) ‘-롭-’이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스럽-’으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은 근대 한국어에 와서 등장한 ‘-스럽-’이 부분적으로 중세 한국어의 ‘-돕(답)/롭(롭)-’이 수행하던 의미 기능을 이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과 관련 깊다(송철의 1992: 204-205, 208-209).

16)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 문헌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로 김해금(2016, 2017)을 참고할 수 있다.

17) 『온갖것』에 제시된 분류 체계가 누구의 이론인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김민수 1980: 72). 이규영이 스승 주시경과 함께 수행한 사전 『말모이』 작업 과정에 남긴 기록이라는 사실을 참고할 때, 『온갖것』과 『말모이』에서 확인되는 분류 체계를 주시경의 입장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병문(2023: 115-117)은 이를 주시경의 입장으로 기술하며 정렬모와 비교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시경(1913, 1914)이 여전히 『온갖것』과는 상이한 씨 체계를 보이는바 이 글에서는 필자인 이규영을 기준으로 『온갖것』의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최형용(2020: 92)은 품사 체계를 기준으로 이규영의 문헌을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는데, 『말뚝』(1913?)과 『현금 조선문전』(1920)이 한 부류, 『온갖것』(1913)과 『한글적새』(1919?)가 다른 한 부류를 이룬다.

의 ‘이’, ‘흔들거리’의 ‘거리’ 등과 평행하게 ‘롭, 스럽’도 빛몸으로 처리된 것인데, 이들 단위를 독자적인 별도의 용어로 명명한 것은 이전의 주시경(1910)과 김두봉(1916)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이규영 문헌의 독자적인 특징이다.

『말모이』(1911~?)는 정식으로 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최초로 시도된 우리말 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1책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알기’에 제시된 (8)의 용어는 당시 사전 편찬을 위해 매우 상세하게 단어를 분류한 사실을 보여준다.¹⁸⁾

(8) 『말모이』(1911~?)의 ‘알기’

(제) [名詞]	(넛) [代名詞]	(역) [副詞]
(언) [名詞 우에 쓰는 말]	(드) [느끼고 부르고 對答하는 소리들]	
(안) [內動詞]	(밖) [外動詞]	
(엇) [形容詞]		
㉠(입) [名詞를 뜻 바꾸게 하든지 形動을 名詞 되게 하는 몸]		
㉡(읍) [動詞를 뜻 바꾸게 하든지 名形을 動詞 되게 하는 몸]		
㉢(엷) [形容詞를 뜻 바꾸게 하든지 名動을 形容詞 되게 하는 몸] (하략)		

‘알기’에 제시된 용어 22개 가운데 (8㉠~8㉢)을 참고할 때, ‘입, 읍, 엷’으로 명명된 단위가 체계 내에 명확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풀이된 내용으로부터 이들이 뜻바꿈 및 몸바꿈을 실현하는 ‘몸’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제[名詞], 넛[代名詞], 역[副詞]’ 등과 함께 대등한 수준에서 각 형식별 기능이 기술되었다. 앞서 언급한 『온갖것』과 『한글적새』에 기록된 구체적인 용례 및 도식 체계와 더불어 (8)의 각 뜻풀이는 본고의 관심 대상인 ‘답, 스럽, 롭’이 당시 ‘엷’으로 명명되며 단어 분석 체계 내에 단어(씨)로서 명확한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답, 스럽’을 단어 지위의 독립된 단위로 인정한 또 다른 연구로 안확(安廓)의 『修正朝鮮文法』(1923)을 들 수 있다.

(9) 안확(1923: 90-97)의 ‘助動詞’

<p>第十章 助動詞 (중략)</p> <p>助動詞라 하는 것은 ㉠助詞의 一種으로 語尾가 變化하는 것이오 또한 ㉡動詞 形容詞 또는 他語에 附하여 其 義意를 助役하는 것이니라 (중략)</p> <p>助動詞는 其 外形 及 役用에 就하여 二下 十二類에 分하니라</p> <p>(一) 「거리」 象刑音 又 或 種動詞에 ㉠熟습하여 自動詞를 ㉡成하는 것 통통거리-다 출녕거리-다 머뭇거리-다 주물너거리-다</p> <p>(二) 「치」 「하」 名詞 或 動詞 形容詞에 ㉠熟습하여 自動詞 또는 形容詞로 ㉡成하는 것 삭하-다 망하-다 상하-다 시작하-다 (중략) 삭치-다 망치-다</p> <p>(三) 「답」 「스럽」 名詞에 ㉠熟습하여 形容詞를 ㉢作하는 것 ㉣정답-다 아릅답-다 사람스럽-다 잡스럽-다</p>

18) 『말모이』에 관한 사항은 이병근(1977, 1986), 김민수(1980, 1983), 김병문(2013ㄱ, 2013ㄴ)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김병문(2013ㄱ)은 『말모이』와 주시경의 품사 체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중요한 연구이다.

- (四) 「넉이」 副詞 又에 形容詞에 ㉑습하야 特種 形容詞를 ㉒成하는 것
 크케넉이-다 올케넉이-다 깃버넉이-다 섭섭히넉이-다
- (五) 「트리」 或種의 自動詞에 ㉑습하야 他動詞를 ㉒成하는 것
 썩러트리-다 문허트리-다 깨트리-다 찌저트리-다
- (六) 「지」 他動詞에 ㉑습하야 自動詞 又 被動詞를 ㉒成하는 것
 쓸어지-다 헤어지-다 넘어지-다 썩러지-다
- (七) 「고십」 「고자하」 希望의 意를 ㉓表하는 것
 눅고자하-다 가고자하-다 눅고십-다 가고십-다
- (八) 「번하」 「보」 推測 想像의 意를 ㉒成하는 것
 잠을번하-다 죽을번하-다 (중략) 가나보-다 먹은가보-다
- (九) 「안」 「못」 語의 或前或後에 ㉑置하야 否定의 意를 ㉓表하는 것
 먹지못하다 주지못하다 먹지안하다 (중략) 안먹다 안주다 (중략)
- (十) 「말」 防制의 意를 ㉓表하는 것
 가지말어라 쓰지말것이라 가지말지라
- (十一) 「버리」 濟成의 意를 ㉓表하는 것
 니저버리다 닐허버리다 삭어버리다 먹어버리다
- (十二) 「듯하」 比較의 意를 ㉓表하는 것
 가튼듯하다 짝근듯하다 먹을듯하다 먹는듯하다 먹듯하다 칼인듯하다

안확(1923)은 조동사를 포함해 총 10종의 품사[元詞]를 두었는데, (9)에 제시된 ‘거리, 치, 하, 답, 슥, 넉이, 트리’ 등 12개 유형이 “조사의 일종으로 어미가 변화하는” 조동사로 분류된다(9㉑).¹⁹⁾ 안확(1923)의 조동사는 (9)에 제시된 예와 같이 선행 단어에 붙어 특정한 문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음운론적으로는 의존 형식에 해당한다(9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동사가 안확(1923)이 제시한 품사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규영(1913)의 ‘업’과 마찬가지로 (9)의 ‘답, 슥’도 단어 지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²⁰⁾

정한대로(2020L: 340-341)은 (9)에 밑줄 친 ‘㉑熟습, ㉑습, ㉑置 및 ‘㉒成, ㉓作, ㉓表’ 간 차이에 주목하고, 조동사와 선행 성분의 긴밀한 정도를 달리 이해한 저자 안확의 인식이 표현에 반영되어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㉑熟습 > ㉑습 > ㉑置’, ‘㉒成/㉓作 > ㉓表’의 강도로 성분 간의 형태론적 관계를 파악할 때, 그중 ‘㉑熟습, ㉓作’과 관련한 ‘답, 슥’은 선행 성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답, 슥’만이 유일하게 ‘作’(9㉓)으로 기술되는데, 안확(1917, 1923)에서 단어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 ‘作法, 作’을 핵심어로 삼아 정리된 점에 주목

19) 일찍이 언더우드(Underwood)의 『한영문법』(1890: 161-165, 189)에서 ‘스릅’이 조동사(Auxiliary Verbs)로 분류되고 ‘스랑스릅소, 원슈롭소’의 예가 언급되었으며, 고영근(2001: 80)은 안확(1923)의 조동사가 리델(Ridel), 언더우드의 조동사와 거리가 가깝다고 기술한 바 있다. 안확은 『辭書의 類』(『啓明』 8. 1925.5.)에서 언더우드의 『한영조언』(1890)을 “現今 行用되는 朝鮮語辭典 中 重要한” 것으로 평가하며 관련 해제를 남긴 바 있는데[황호덕 외 편(2012: 8) 참고], 안확(1923)의 이러한 입장은 언더우드 문헌의 영향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 안확(1923: 100)은 품사로 인정된 10종 외에 ‘접두어, 접미어, 속어’와 같은 特種語를 따로 소개하고 있다. 접두어로는 ‘애’(㉑ 애초, 애시, 애전), ‘싯’(㉑ 싯푸르다, 싯겁다, 싯누르다), 접미어로는 ‘군’(㉑ 일군, 나무군, 모군군), ‘개’(㉑ 베개, 덩개, 쓰개)가 제시되며, 이들은 ‘답, 슥’과 달리 단어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후술할 박승빈(1935: 376-377)도 이와 유사하다. 접미어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있기는 하나, 이들 역시 품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예로 ‘들’(㉑ 學生들), ‘마다’(㉑ 사람마다), ‘썩’(㉑ 五圓썩)만이 제시되었을 뿐, ‘다오, 스러우’는 불완전 형용사로 분류된다.

한다면(정한데로 2020L: 333-340), (9)의 ‘답, 스럽’이 조동사로서 단어 지위에 있기는 하나 선행 성분과 함께 복합어 구성을 이룬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박승빈의 저술에서도 ‘답, 스럽’의 단어 지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안확(1923)과 마찬가지로 ‘럽’은 배제한 채 ‘답, 스럽’만이 관련 형식으로 등장한다. 먼저 『朝鮮語學講義要旨』(1931)와 『朝鮮語學』(1935) 사이에 진행된 미세한 변화가 주목된다.

(10) 박승빈(1931: 93-94)의 ‘다우, 스러우’

㉠不完全形容詞 補語를 要하는 形容詞를 니썸

例

比較表示	感情表示	推量表示
얼굴이 玉 가트 오	밥이 먹고 시프 다	비가 올가 보 다
A는 B와 다쓰 오	나는 가기 실흐 오	일이 될성 부쓰 다

形容詞의 構成 本來에 形容詞로 構成된 單語에 當하여서는 論議할 것이 업슴 ㉡다른 語源으로부터 構成되는 것 中에 主要한 것을 論述함

一 ㉢名詞에 「다우」가 添附함(特殊 手段 活用)
例 ㉣男子 다우 며, 집 다우 ㄴ 집

二 ㉤名詞에 「스러우」의 添附
例 ㉥勇猛 스러우 며, 精誠 스러우 다

三 ㉦語尾 하(ᄒ)形容詞 무슨 말이 語幹이 되고 「하(本來ᄒ)」가 語尾로 되어서 形容詞인 單語로 組成되는 것임

【附記】 이 組織은 朝鮮語에 잇는 特殊한 制度이요 文典上 重要한 關係가 잇는 것이라
例 서늘(涼)하 오, 弱하 다 (후략)

박승빈(1931)은 형용사 가운데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불완전 형용사’로 따로 구분하고(10㉠) 해당 예시로 ‘가트, 다쓰, 시프, 실흐, 보, 부쓰’가 참여한 문장을 제시하는 한편, 이와는 구분된 별도의 ‘形容詞의 構成’ 항목에서 ‘다른 어원으로부터 구성된’(10㉡) 형용사 예시로 ‘다우, 스러우, 하(ᄒ)’ 형용사를 소개한다. 그중 (10㉢)의 ‘하’는 ‘語尾’로서 그 정체를 명확하게 밝힌 데 반해, (10㉣, 10㉤)의 ‘다우, 스러우’는 ‘添附’된 성분 정도로만 언급된 점에서 문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이는 앞서 확인한 주시경(1910)이나 김두봉(1916)의 처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후 박승빈(1935)에서는 ‘다우, 스러우’에 관한 기술에 큰 변화가 관찰된다.

(11) 박승빈(1935: 202-203)의 ‘不完全 形容詞’

不完全形容詞 形容詞에 ㉠다른 單語의 補充이 업시는 意味가 完成되디 못 하는 것이 이슴 이러한 形容詞를 不完全形容詞이라고 니썸며 ㉡그것을 補充하는 單語를 不完全形容詞의 補語이라고 니썸

㉢(1) 다오 例 그 사람이 男子 다오니

㉣(2) 스러우 例 行動이 精誠 스러우오

(3) 가트 例 얼굴이 玉 가트오

(4) 시프	例 내가 자고 시프다
(5) 실흐	例 나는 가기 실흐오
(6) 보	例 비가 올가 보다
(7) 부쓰	例 일이 될성 부쓰오
(8) 시브	例 일이 될듯 시브다

右 ㉔(1)에 「男子」, (2)에 「精誠」, (3)에 「玉」은 單語(名詞)가 補語로 쓰인 것이고 (4)에 「자고」, (5)에 「가기」, (6)에 「올가」, (7)에 「될성」, (8)에 「될듯」은 單語가 集合된 句(名詞句)가 補語로 된 것임

박승빈(1935)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형용사’의 개념을 정의하고(11㉔, 11㉕), 불완전 형용사의 목록 (1)~(8)을 각각의 예시와 함께 나열한다. 이때 ‘다오, 스러우’가 해당 목록에 새로 포함되어 상단에 제일 먼저 제시되는데(11㉔, 11㉕), 이는 박승빈(1931)과는 크게 달라진 설명이다. (10)과 달리 ‘다오, 스러우’가 불완전 형용사로서 단어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형용사로서의 ‘다오, 스러우’는 일견 안확(1923)의 ‘조동사’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답, 슥’뿐만 아니라 안확(1923)의 ‘고십, 보’[(9) 참고]와 박승빈(1935)의 ‘시프, 보’[(11) 참고] 역시 같은 대상을 각각 조동사와 불완전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이때 (11㉕)을 참고하면 ‘다오, 스러우’의 보어는 단어(명사)로 한정되어 있어, 구(명사구)가 보어 역할을 한다고 기술된 (4)~(8)과 대비된다. 이는 오늘날 ‘답, 슥’에 관한 형태론 연구가 명사구를 보어로 취하는 구성(㉔ 그 집은 [재벌이 사는 집]답지 않게[김창섭 1984: 147])까지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11㉕)에 제시된 ‘자고, 가기, 올가, 될성, 될듯’은 사실상 명사구 보어가 아니기에 적절한 분석이라고도 할 수 없다.

박승빈(1931)과 동일하게 박승빈(1935)에서도 ‘다오, 스러우’에 관한 기술이 ‘形容詞의 構成’에 등장하는데,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주석(【註】) 설명이다.

(12) 박승빈(1935: 196)의 ‘不完全 形容詞’

<p>形容詞의 構成 (중략) 다른 語源으로부터 構成된 形容詞에 文法的으로 論議할 價値가 잇는 主要한 것을 以下에 論述하라 함 (중략)</p> <p>一 「다오」의 添附 例 ㉔^㉔꽃다오며 芳, 情다오니</p> <p>二 「스러우」의 添附 例 ㉕^㉕常스러우니, 甞스러우오</p> <p>【註】 ㉔^㉔名詞에 「다오, 스러우」가 連續한 말에 「다오, 스러우」를 不完全 形容詞로, 名詞를 그 補語로 說明하게 되는 것이 原則임 例로 「㉔^㉔男子 다오며, 勇猛 스러우오」 그러나 ㉕^㉕右記 「一, 二」의 例에 記載된 말과 가튼 것은 一個의 單語로 處理함이 可한 것임</p> <p>三 語尾「하(ᄃᆞ)」形容詞 무슨 말이 語幹이 되고 「하(ᄃᆞ)」가 語尾로 添附되야서 形容詞인 한 單語로 組成되는 것을 니름이라 例 서늘(涼)하오, 弱하오 부지런(勤)하다 正直하오, 우썩하오, 둥굴둥굴하다</p>
--

박승빈(1935)는 [명사#다오], [명사#스러우] 구성이 보어인 명사와 불완전 형용사(12㉔), 즉 2개의 단어가 나열된 구성이지만, ‘꽃다오며, 精다오니, 常스러우니, 썸썸스러우오’의 경우는 ‘하나의 단어로도 처리 가능하다’고 서술한다(12㉕). (12㉕)의 ‘男子 다오며, 勇猛 슌러우오’와 같은 전형적인 예와 달리, (12㉖, 12㉗)의 ‘꽃다오며, 常스러우니’ 등은 선행 명사와 후행 불완전 형용사를 붙여 쓴 사실이 관찰된다. 앞서 박승빈(1931)에서 ‘男子 다오며, 집 다오니, 집, 勇猛 슌러우며, 精誠 슌러비 다’(10㉖, 10㉗)로 해당 예시를 띄어 썼던 것과 달라진 부분인데, 새로 추가된 (12㉕)을 드러내기 위해 한 단어로 볼 수 있는 예로 교체한 것이다.²¹⁾

이는 김창섭(1984)에서 제안한 ‘-답1-’과 ‘-답2-’의 차이를 떠올리게 한다. ‘-답1-’은 다양한 유형의 명사구와 결합 가능한 ‘의존형용사’인 데 반해, ‘-답2-’는 ‘情답다, 꽃답다, 참답다, 實답다, 아름답다’와 같은 특정 구성에서만 분포하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구분된 바 있다. 물론 박승빈(1935)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답’의 두 유형을 세분화하지는 않았으나, 한 단어처럼 보이는 ‘답, 슌럽’ 구성을 포착해 내고 이들을 일반적인 불완전 형용사 구성과 달리 분류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김창섭(1984)와의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²²⁾

이때 ‘합성’이나 ‘결합’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단어로 처리 가능’ 정도로 기술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원리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구(형용사구)가 단어(형용사)로 굳어져 재구조화된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로 해석할 가능성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²³⁾ 박승빈(1935: 179)는 ‘ㄱ, 기’가 용언에 添附된 후에 ‘熟語’로서 ‘잠, 그림, 순라잡기, 돈치기’와 같은 명사가 성립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때 ‘ㄱ, 기’에 문법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숙어’를 직접 언급한 점에서 이 경우에도 단어로 굳어진 표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습成語’를 다룬 절(박승빈 1935: 377)에서도 ‘熟語’가 재차 등장한다. 오늘날 합성(compounding)에 대응되는 ‘完全 單語의 結合’에서 ‘장국밥, 電氣燈’(名詞의 結合), ‘자바다리[오], 아라보[세]’(用言의 結合)가 숙어의 예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참고할 때에 일부 고정적 결합을 보이는 ‘답, 슌럽’ 구성도 ‘숙어’와 같은 단어로 인정되었던 것은 아닌지 추정 가능하다.²⁴⁾ 전술한 안확(1923)의 조동사(답, 슌럽)가 선행 명사(정, 사람)와 긴밀한 구성의 한 단위를 이룬 것(9㉖)과 평행한 접근(‘熟습’(9㉗))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접사 - ‘받가지, 接尾辭, 接尾語’

주시경(1910)에서 시작해 김두봉(1916)과 이규영(1920)을 거쳐 최현배(1930, 1937)에 이르기까지 ‘씨(기)의 바꿈(박꿈)’은 ‘變(변화)’의 관점에서 줄곧 이해되어 왔다. 다만 이때 ‘바꿈’의 외연은 각 시기마다 축적된 연구 성과에 힘입어 점차 확대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초기 주시

21) 박승빈의 또 다른 저작인 『簡易朝鮮語文法』(1937: 34-35)은 ‘다오, 슌러우’와 관련해서 박승빈(1931)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해당 예시로는 ‘男子 다오며, 先生 다비다’의 오표기), ‘勇猛 슌러우며, 精誠 슌러비 다’가 제시된다.

22) 최용환(1999: 45-46)에서 김창섭(1984), 임흥빈(1989)와 연결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23) 통사 구성이 공시적 또는 통시적 과정에 따라 통사 원자(X⁰)로 재구조화된 결과는 ‘통사적 복합어’로 명명할 수 있다(정한대로 2018). 이와 관련한 현상은 ‘통사적 구성의 어휘화’(구본관 1992), ‘통사적 구성의 원자화’(박진호 1994), ‘구의 단어화’(김창섭 1996),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최형용 2003)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24) 후술할 (19), (20)의 이완응(1929), 심익린(1936)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숙어’가 사용된다.

경(1910)의 ‘박꿈’이 문장 내 단어의 기능을 강조한 ①‘품사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김두봉(1916)에서는 ‘뜻바꿈’과 ‘몸바꿈’이 균형적으로 서술되면서 ②‘의미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후 최현배(1930)에서 ‘씨끝바꿈’을 중심으로 한 ③‘형태 변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마침내 최현배(1937)에 이르러서는 ‘형태 변화(씨끝바꿈), 품사 변화(몸바꿈), 의미 변화(뜻바꿈)’의 체계로 한국어 단어 문법이 종합적으로 기술된다(정한대로 2022: 108). 그 전개를 따라가 보면, 최현배(1930, 1934, 1936, 1937)에서 시기별로 달라지는 ‘씨가지’의 위상 변화는 한국어 전통문법에서 접사(씨가지)의 등장과 정착 과정을 잘 보여준다.

(13) 최현배(1930: 64)의 ‘(씨)끝바꿈’과 ‘꼴바꿈’

여기에 씨끝바꿈(活用)이라 함은 말본(語法)에서의 구실을 하기때문의 씨끝의 바꿈(語尾의 變化)을 이룸이니, 풀이씨만이 이것이 있고, 그밖의 모든 씨들은 다 이것이 없나니라. ㉠임자씨에도 語形의 變化가 아조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더면

㉠사랑스럽다 ㉡사람답다 가난방이 작난군

과 같이 그 임자씨의 알에 ㉢받가지(接尾辭)「스럽다, 답다, 방이, 군」같은 것을 붙이기도 하지마는, 이는 임자씨에 두루들어나는 一般的 語法으로서의 바꿈(變化)이 아닌 고로, 이를 씨끝바꿈(活用)이라고는 부르지 아니하고, 다만 ㉣꼴바꿈(形變Deklination)이라고 하여, 저 풀이씨에 두루들어나는 씨끝바꿈(活用 Konjugation)하고 서로 區別하나니라.

최현배의 「朝鮮語의 品詞分類論」(1930)은 용언의 ‘씨끝바꿈(활용)’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다루면서, 명사(임자씨)의 어형 변화(13㉠)는 씨끝바꿈과 달리 접미사(13㉢)가 관여한 ‘꼴바꿈’(13㉣)으로 달리 구분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예로 ‘사랑스럽다, 사람답다’(13㉠, 13㉡)가 제시된다. 이때 ‘語形의 變化’는 ‘스럽다, 답다’의 등장을 ‘꼴바꿈’(形變)의 관점에서 파악한 최현배(1930)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는 일찍이 주시경(1908, 1910) 등으로부터 이어 온 ‘變(바꿈)’ 중심의 단어관이 최현배(1930)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현배(1930)이 앞선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받가지(接尾辭)’가 붙어 어형이 변화하였다고 파악함으로써 ‘스럽다, 답다, 방이, 군’에 ‘접사’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부여한 사실이다(13㉢).

이후 최현배의 『중등조선말본』(1934)과 『中等教育 朝鮮語法』(1936)은 ‘씨의 짜힘/單語의 組成’의 관점에서 ‘씨가지/接辭’를 파악한 점에서, 종래 ‘바꿈’의 시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단어 구성’의 인식이 명확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14) 최현배(1934: 149-150)의 ‘받가지’

(2) 받가지 다른 말의 알에 붙는 씨가지를 이른다.
(중략)
얇전하다,多情하다, ㉠사랑스럽다, 시름없다 (어떻씨) (후략)

(15) 최현배(1936: 145)의 ‘接尾辭’

(2) 接尾辭 다른 말의 발에 붙는 接辭를 이른다.
(중략)

점잔하다, ㉔답스럽다, ㉕정답다, 爽快하다 …………… (形容詞) (후략)

최현배(1934, 1936)은 중등학교 교과서로서 본문 내용과 예시가 간소하게 제시되는데, 그중 ‘스럽, 답’이 참여한 ‘사랑스럽다’(14㉔)와 ‘답스럽다, 정답다’(15㉔, 15㉕)의 예가 확인된다. 형용사(어떻씨)를 만드는 접사(씨가지)를 기술한 (14)와 (15)는 각각 ‘씨의 짜힘(詞의 組成)’ 가름과 ‘單語의 組成’ 장(章)에 등장하는 항목들로서, 씨의 ‘바꿈/轉成’이 아닌 ‘짜힘/組成’의 관점에서 접사를 이해한 저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게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으로 집대성되면서 보다 다양한 용례로 정리된다.

(16) 최현배(1937: 921-923)의 ‘발가지’

(2) 이름씨를 어떻게 만드는 발가지: (중략)

㉑「-답다」(可値, 값어치가 있다).
 사람답다, 사내답다, 계집답다, 어른답다, 아이답다, 先生답다, 學者답다, 牧師답다.

㉒「-답다」(많다).
 정답다.

㉓「-스럽다」(然).
 들스럽다(野), 답스럽다, 사랑스럽다, 생광스럽다, 多情스럽다, 人情스럽다, 福스럽다, 幸福스럽다, 弊端스럽다, 弊스럽다, 좁스럽다(劣小, 齷齪), 天成스럽다 (중략)

㉔「-롭다」.
 해롭다, 슬기롭다, 보배롭다, 괴롭다, 수고롭다, ㉔꺾롭다(꺾단스럽다, 심술꺾다), 可笑롭다.

오늘날 파생어와 합성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최현배(1934, 1936)에서는 ‘씨의 짜힘’과 ‘單語의 組成’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어졌으나, 최현배(1937)은 이들을 ‘씨가지’와 ‘거듭씨(複詞)’로 각각 나누어 독립된 장(章)으로 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씨가지에 대한 상세한 하위 분류와 함께 (16)처럼 관련 예시가 정리된다.

(16㉑~16㉔)은 앞서 소개한 그 어떤 문법서보다도 구체적인 목록과 함께 다량의 용례를 포함한다. 우선 ‘답다, 슨다, 롭다’를 고르게 종합한 점, 각 유형마다 고유어 어근과 한자어 어근의 고른 결합 분포를 예시한 점, ‘可値, 값어치가 있다’, ‘많다’, ‘然’과 같이 각 접미사의 뜻을 명세한 점이 주목된다. (16㉓)를 통해 ‘롭다’와 ‘스롭다’의 유사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때 (16㉑)과 (16㉒)으로 두 유형의 ‘답다’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김창섭(1984)의 ‘-답1-, -답2-’에 대응할 만한 발견으로 여겨진다. 비록 접사에 선행하는 성분(단어 또는 구)에 관한 변별적 인식은 부재하지만 의미 기준으로 관련 예시를 유형화한 점에서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승빈(1935)는 ‘답, 슨다’를 불안전 형용사로 파악하면서도 ‘꽃다오며, 情다오니, 常스러우니, 썩썩스러우오’는 한 단어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12㉑). 최현배(1937)이 ‘정답다’를 별도의 뜻을 지닌 접미사 ‘답’ 구성으로 파악한 것이나(16㉒) 김창섭(1984)에서 ‘情답다, 꽃답다’를 접미사인 ‘-답2-’ 유형으로 본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최현배(1930)의 ‘꼴바꿈’에서 시작해서 최현배(1934, 1936)을 거쳐 최현배(1937)에 이르기까지 ‘답다, 슨다’는 접미사(발가지)의 지위를 줄곧 유지해 왔다. 초기에는 형태 변화(꼴바꿈) 차원에서 접미사를 다루었지만, 이후 단어 구성(씨의 짜힘, 單語의 組成)에 관한 인식을 짝 띄

우고, 중국에는 ‘답다, 스럽다, 룡다’로 체계화된 기술 문법으로 종합된 성과를 이루었다. ‘답다, 스럽다’가 단어(씨)까지는 아니지만, 접사라는 명확한 문법적 위상을 지니며 다양한 파생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현배(1937)의 성과는 이후 한국어 형태론의 주류적 관점으로 지속 유지된다.

한편, ‘답, 스럽’과 관련하여 이완응(李完應)의 『中等教科 朝鮮語文典』(1929)과 심의린(沈宜麟)의 『中等學校 朝鮮語文法』(1936)도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17) 이완응(1929: 97-99)의 ‘轉成形容詞’²⁵⁾

第二 本來形容詞와 轉成形容詞와 二重形容詞

一. 本來形容詞 (중략)

二. 轉成形容詞

①轉成形容詞는 他品詞로부터 轉成된 것을 云함이니 此를 細別하면 左와 如하니라

(一) 名詞로부터 轉成된 것

가. ㉠『스러웁다』가 붙는 것
사람스러웁다 병신스러웁다 구차스러웁다 걱정스러웁다

나. ㉡『다웁다』가 붙는 것
정다웁다 ㉢남즈다웁다 그림다웁다 부모다웁다

다. ㉣『로웁다』가 붙는 것
리로웁다 해로웁다 외로웁다(외는 接頭語) 괴로웁다 수고로웁다

(18) 심의린(1936: 74-75)의 ‘轉成形容詞’

【二】 本來形容詞와 轉成形容詞와 二重形容詞

【一】 本來形容詞는, (중략)

【二】 ㉠轉成形容詞는, 다른 品詞로부터 轉成된 것을 말함이니, 이것을 細別하면 다음과 같다.

甲 名詞로부터 轉成된 것.

가. ㉡『스럽다』가 붙는 것.
사랑스럽다. 병신스럽다. 구차스럽다. 걱정스럽다.

나. ㉢『답다』가 붙는 것.
㉣사람답다. 남자답다. 학생답다. 정답다.

다. ㉤『롭다』가 붙는 것.
리롭다. 해롭다. 괴롭다. 외롭다. 수고롭다. 편리롭다.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은 ‘본래형용사’와 ‘전성형용사’가 등장하는 등 구성 체제와 예시 자료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²⁶⁾ 이때 ‘스러웁다/스럽다, 다웁다/답다, 로웁다/롭다’가 명사에 붙어 형용사로 ‘전성’된 것으로 파악한 점에서도 공통적이다(17㉠, 18㉡). (17㉢~17㉣), (18㉢~18㉣)에 기술된 ‘붙는 것’의 문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기서 명확한 설명이 드러나지

25) 인용 부분의 띄어쓰기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26) 유길준(1909: 67-73)에서도 ‘轉成形容詞’가 활용된 바 있으나, 용어만 다를 뿐 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유길준(1909)는 ‘사람의 머리’의 ‘사람의’, ‘나라사람’의 ‘나라’를 명사가 형용사로 전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않기에 일견 이들 문헌을 2장의 주시경(1910), 김두봉(1916)과 같은 부류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은 ‘接尾語’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다웁다/답다’와 관련한 내용을 다른 점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19) 이완응(1929: 26)의 ‘接尾語’

第四章 合成語 及 接頭語·接尾語

一個一個의 單語가 一個一個의 品詞인 것은 勿論이나, ㉠數個의 單語가 結合하여 一語를 成한 것을 合成語라 稱하나니라

집-집 다-달-이 날-마다 하나-식 집-집-마다 닭-의-알

(중략)

또 右例 中에서

우리들 날마다 하나식 ㉡남즈다웁다 적어진다

의 「들」 「마다」 「식」 「다웁다」 「진다」와 如한 語는 同樣으로 ㉢一個의 品詞의 尾에 附하여 合成語를 作하나니, 此等의 「들」 「마다」 等を 接尾語라 稱하나니라

(중략)

㉣ 合成語 中 同語가 重複하여 一語를 成하는 것을 疊語라 稱하고 相異한 二個 以上의 單語가 相重하여 一語가 된 것을 熟語라 稱하나니라

(20) 심의린(1936: 24-26)의 ‘接尾語’

第四章 複合語와 接頭語·接尾語

[一] 複合語

집집. 다달이. 나날이. 해마다. 틈틈이.

담뱃대. 동짓달. 쇠고기. 닭의알. 땅속 (중략)

우의 말들은, 同語, 或은, 同品詞, 또는 異品詞가 重合하여, 一個의 品詞가 된 것이다. 이와 같치, ㉠數個의 單語가 結合하여, 一語가 된 것을 複合語(또는 合成語)라고 한다.

[備考] 複合語 中, 同語가 重複하여, 一語가 된 것을 疊語라 하고, 相異한 二個 以上의 單語가 相重하여, 一語가 된 것을 熟語라 한다.

(중략)

[三] 接尾語

우리들. 하나식. 날마다. 바느질. 일군.

대장장이. 돈투성이. 잠구러기. 녀들이.

㉡사람답다. 떨어진다. 잡수신다. 먹새.

우의 「들·식·마다·질·군·장이·투성이·구러기·들이·답다·진다·신다·새」들과 같은 말은, ㉢一個의 品詞의 尾에 붙어서, 複合語가 되나니, 이런 것들을 接尾語라 한다.

(17㉡)의 ‘남즈다웁다’와 (18㉡)의 ‘사람답다’가 (19)와 (20)의 接尾語에 관한 기술 과정에 다시 등장한다(19㉡, 20㉡).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이 (19), (20)처럼 ‘합성어/복합어, 접두어·접미어’를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최현배(1934, 1936)과 마찬가지로 당대 문법가들 사이에서 ‘단어 형성’(單語의 組成)이 뚜렷한 주제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²⁷⁾ 여기서 ‘남즈다웁다, 사람답다’는 접미어 ‘다웁다, 답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예로 소개된다. 여러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어/복합어’가 된다고 기술한 (19㉠, 20㉠), 그리고 접미어가 결합해 만들어진 구성을 ‘복합어’로 기술한 (19㉡, 20㉡)의 내용을 참고할 때, 혹자는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의 ‘접미어’가 일견 단어의 지위를 지녔던 것으로 이해할지 모른다.²⁸⁾ ‘접미사’가 아닌 ‘접미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법하다. 그러나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에서 제시한 품사에는 접두어나 접미어가 포함되지 않은바 ‘다웁다/답다’가 단어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²⁹⁾

(21) 심의린(1949: 70)의 ‘接尾語’

三. 本來形容詞와 轉成形容詞 (몸바꿈어떨씨)

그 品詞가 根本 形容詞로 된 것을 本來形容詞라 하고, ㉠다른 品詞가 어떠한 形式으로 形容詞가 된 것을 轉成形容詞라 한다

[例] 本來形容詞 …… 크다 적다 검다 희다 차다 답다.
轉成形容詞 …… 사람답다 해롭다 병신스럽다 건방지다.

○ 轉成形容詞의 種類.

ㄱ…名詞에 ㉡接尾語를 붙여 轉成된 것.

[例] 하다 … 健康하다 必要하다 가난하다 公平하다
㉢답다 … 生徒답다 男子답다 정답다 女子답다
㉣롭다 … 害롭다 受苦롭다 利롭다 슬기롭다
㉤스럽다 … 사랑스럽다 苟且스럽다 病身스럽다 光榮스럽다

이후 심의린의 『改編 國語文法』(1949)에 이르러서는 ‘전성형용사’ 설명 과정에 접미사 ‘답다, 롭다, 스럽다’가 고르게 기술된다. (19), (20)에서 ‘다웁다/답다’만을 언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21)은 보다 균형 잡힌 변화로 판단된다. 또한 (18)의 심의린(1936)과 달리 붙은 성분에 관한 구체적인 문법적 기술이 보완되었다. (17㉠, 18㉠)과 평행하게 轉成形容詞에 관한 설명(21㉠)을 제시한 후에, (21㉡)처럼 ‘답다, 롭다, 스럽다’(21㉢~21㉤)를 ‘接尾語’로 명확하게 명명한 것은, 심의린(1936)보다도 뚜렷하게 이들을 접사로 파악한 심의린(1949)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³⁰⁾

한편, 문법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출간된 사전류에 ‘답, 스럽, 롭’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 당시 모습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문세영(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는 이들이 독립된 표제어로 등장한다.

27) 박승빈(1931: 184, 1935: 376-378)도 이완응(1929)나 심의린(1936)과 마찬가지로 ‘합성어’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熟語, 疊語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답, 스럽, 롭’과 관련한 예는 등장하지 않는다. [명사(보어)+불완전 형용사] 구성이 단어가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술한 (12) 참고.

28) 파생의 개념 없이 합성과 복합만이 소개되고 있기에, 오늘날 ‘복합어(complex word), 합성어(compound word), 파생어(derived word)’와 같은 구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기되는 혼란으로 여겨진다. (19), (20)을 참고한다면 오늘날의 ‘합성어’는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의 ‘첩어, 속어’에 대응한다.

29) 이완응(1929)는 ‘보통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조동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로 11개의 품사를, 심의린(1936)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조동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로 10개의 품사를 제시한 바 있다.

30) 이완응(1929), 심의린(1936)은 ‘스러웁다/스럽다, 다웁다/답다, 로웁다/롭다’ 순서로 제시하였으나, 심의린(1949)는 ‘답다, 롭다, 스럽다’의 배열 순서를 따르고 있다.

(22) 문세영(1938: 333, 430, 870)의 ‘답다, 룽다, 스텨다’³¹⁾

<p>【답다】 ㄷ변 [다워·다운] 形 ㉠어떠한 명사 아래에 붙어 ㉡그럴듯하다는 뜻을 표하는 말. <u>다음다.</u></p> <p>【룽다】 ㄷ변 [로워·로운] 接尾 ㉠어떠한 명사 아래에 붙이어 ㉡형용사를 만드는 말.</p> <p>【스텨다】 ㄷ변 [-러워·-러운] 接尾 ㉠어떠한 명사 아래에 붙이어 ㉡형용사를 만드는 말.</p>

문세영(1938)에서 ‘답다, 룽다, 스텨다’는 명사에 붙는 말로 표현된 점에서 평행한 양상을 띠다(22㉠). 그런데 그중에서 ‘답다’는 형용사(形)로, ‘룽다, 스텨다’는 접미사(接尾)로 달리 기술되어 있어 이들 간에 문법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³²⁾ 이에 따라 뜻풀이 방식도 두 유형이 상이한데, (22㉠)의 ‘룽다, 스텨다’가 ‘형용사를 만드는’과 같이 단어 형성 차원의 내용을 포함한 것과 달리 (22㉠)의 ‘답다’는 형용사의 ‘그럴듯하다는 뜻’을 명세하였다.³³⁾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이후 『修正增補 朝鮮語辭典』(1940: 372, 479, 966)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³⁴⁾ 김두봉(1916)에서 ‘답’을 다루지 않고 ‘룽, 스텨’만을 언급한 점[(4) 참고], 김윤경(1948)에서 ‘답’, ‘룽’과 각각 결합 가능한 선행 성분의 차이를 기술한 점[(각주 10) 참고] 모두 (22)에서 관찰되는 ‘답다’ 대 ‘룽다, 스텨다’ 간 차이와 연결하여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23) 한글학회(1947/1957: 740, 954, 1873)의 ‘-답다, -룽다, -스텨다’

<p>-답다 【발. ㅂ벗】 ㉠명사 밑에 붙어 ㉡“무엇과 같다”, 또는 “얼마나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으로 ㉢형용사를 이루는 말. [사내—. 학자—]. (다음다).</p>
--

31) 『조선어사전』(1938)의 ‘이 책에 쓴 부호’를 참고할 때 ‘接頭’, ‘接尾’는 각각 ‘접두어(接頭語), 접미어(接尾語)’ 용어의 약자에 해당한다. 안확(1923), 이완웅(1929), 박승빈(1935), 심익린(1936) 등에서 ‘접두어, 접미어’ 용어가 쓰인 바 있다.

32) 형용사 ‘답다’와 접미사 ‘스텨다’ 간의 비대칭성은 앞서 리델(Ridel)의 『한불조언』(1880), 게일(Gale)의 『한영조언』(1897) 등에서도 확인된다. ‘답다’는 동사/형용사, ‘스텨다’는 어미/접사(termination) 정도의 지위로 파악된다.

① 리델의 『한불조언』(1880)[이은령 외 옮김(2014: 298, 732)의 한국어 번역 참고]

<p>▷ 답다: 이 동사는 결코 홀로 사용되지 않고 명사와 결합한다. 동의하다, 참되다, 사실이다, 좋다, 질이 좋다, 부합하다를 의미한다. ㉢ 레답다</p> <p>▷ 스텨다: 단어에 덧붙여져 ~할 만하다, ~와 관련이 있다, ~인 것 같다, 기분이 ~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어미, 또는 어미 able(abilis)과 같다.</p>

② 게일의 『한영조언』(1897: 639, 574)

<p>▷ 답다: To be becoming; to be so. A verbal ending-having the force of “able,” “like”</p> <p>▷ 스텨다: A verbal termination usually having the force of “able,” “like” or “what causes”</p>
--

③ 게일의 『한영대조언』(1931: 319, 919)

<p>▷ 답다: To be becoming; to be so. A verbal ending-having the force of “able,” “like.”</p> <p>▷ 스텨다: A verbal termination usually having the force of “able,” “like” or “what causes”—as lovable, manlike, causes hatred.</p>

33) 다만 ‘스텨’는 [-러워·-러운]과 같이 붙임표가 제시된 데 반해 ‘룽’은 ‘답’과 마찬가지로 붙임표가 빠져 있다. ‘슬기롭다, 해롭다’와 같은 표제어에서 [-로워·-로운]이 확인되기에 이는 단순한 오류 정도로 판단된다.

34) ‘답다’의 뜻풀이에 기술된 ‘다음다.’만이 삭제되었을 뿐이다.

-롭다 【발. 비뻛】 ㉠어떤 명사나 어떤 어근(語根) 밑에 붙이어서 ㉡형용사를 만들어 ㉢그리 됴을 인정하는 말. [이-, 해-, 폐-, 향기-, 새-, 애처-].
 -스럽다 【발. 비뻛】 ㉠어떠한 명사에 붙이어 ㉡형용사(形容詞)를 이루는 말. [고생-, 사랑-].

문세영(1938)과 달리,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1957)은 대등한 수준에서 ‘-답다, -롭다, -스럽다’를 모두 접미사(‘발’)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최현배(1930, 1936, 1937)에서 ‘답다’를 접미사(발가지)로 파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태도를 취한 것이다[(13)~(16) 참고]. 한글학회(1947/1957)의 ‘-답다, -롭다, -스럽다’는 명사(또는 어근)와 결합하는 특징(23㉠), 이들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특징(23㉡)이 평행하게 정리된다. 다만 (23㉡)처럼 ‘-답다, -롭다’에 접미사 의미가 기술된 데 반해 ‘-스럽다’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통해 미세한 뜻풀이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답다, -롭다, -스럽다’를 모두 접미사로 분류하는 사전적 처리는 이후 『국어대사전』(1961/1975, 1982),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표준국어대사전』(1999) 등으로 이어지며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된 결과로 오늘날 자리 잡고 있다.³⁵⁾

5. 맺음말

(생략)

35) 아래 사전 중 『금성판 국어대사전』의 ‘-답다’ 뜻풀이는 문세영(1938)과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만드는’과 같은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

① 『국어대사전』(1961/1975: 666, 869, 1753)

▷ -답다 ㉠ ㉡ 「무엇과 같다」 또는 「얼마나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으로 명사 밑에 붙어 형용사를 이루는 말.
 ▷ -롭다 ㉠ ㉡ 어떤 명사나 어떤 어간(語幹) 밑에 붙어서 그러함을 인정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어.
 ▷ -스럽다 ㉠ ㉡ 명사형인 말 아래에 붙어 형용사를 이루는 접미어.

② 『국어대사전』(1982: 813, 1072, 2128)

▷ -답다 ㉠ ㉡ 「무엇과 같다」 또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뜻으로 체언 밑에 붙어 형용사를 이루는 말.
 ▷ -롭다 ㉠ ㉡ 어떤 명사나 어떤 어간(語幹) 밑에 붙어서 그러함을 인정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말.
 ▷ -스럽다 ㉠ ㉡ 명사형인 말 아래에 붙어 형용사를 이루는 접미어.

③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680, 888, 1773)

▷ -답다 ㉠ ㉡ 체언에 붙어 그 체언이 지니는 성질·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롭다 ㉠ ㉡ ‘그러함’을 인정하거나 ‘그럴 만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드는 말.
 ▷ -스럽다 ㉠ ㉡ 명사 아래에 붙어, 그러한 느낌이나 요소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를 만드는 말.

④ 『표준국어대사전』(1999: 1426, 1927, 3724)

▷ -답다 ㉠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롭다 ㉠ ㉡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스럽다 ㉠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참고문헌

■ 1차 자료

- 金料奉(1916), 『조선말본』, 新文館(역대한국문법대계 122).
- 김두봉(1922), 『깁더 조선말본』, 새글집(역대한국문법대계 123).
- 김윤경(1948), 『나라말본』, 동명사(역대한국문법대계 154).
- 朴勝彬(1931), 『朝鮮語學講義要旨』, 普成專門學校(역대한국문법대계 148).
- 朴勝彬(1935), 『朝鮮語學』, 朝鮮語學研究會(역대한국문법대계 150).
- 朴勝彬(1937), 『簡易朝鮮語文法』, 朝鮮語學研究會(역대한국문법대계 149).
- 安廓(1917), 『朝鮮文法』, 唯一書館(역대한국문법대계 1175).
- 安廓(1923), 『修正 朝鮮文法』, 滙東書館(역대한국문법대계 126).
- 俞吉濬(1909), 『大韓文典』, 隆文館(역대한국문법대계 106).
- 李奎榮(1913), 『온갖것』(역대한국문법대계 1112).
- 李奎榮(1913?), 『말듬』(역대한국문법대계 1113).
- 李奎榮(1919?), 『한글적새』(역대한국문법대계 1114).
- 李奎榮(1920), 『現今朝鮮文典』, 新文館(역대한국문법대계 127).
- 李完應(1929), 『中等教科 朝鮮語文典』, 朝鮮語研究會(역대한국문법대계 140).
- 李常春(1925), 『朝鮮語文法』, 崧南書館(역대한국문법대계 136).
- 沈宜麟(1936), 『中等學校 朝鮮語文法』, 朝鮮語研究會(역대한국문법대계 159).
- 沈宜麟(1949), 『改編 國語文法』, 世紀科學社(역대한국문법대계 160).
- 周時經(1908), 『말』(역대한국문법대계 18).
- 周時經(1910), 『國語文法』, 博文書館(역대한국문법대계 111).
- 周時經(1913), 『朝鮮語文法』, 新舊書林(역대한국문법대계 112).
- 周時經(1914), 『말의 소리』, 新文館(역대한국문법대계 113).
- 崔鉉培(1930), 「朝鮮語의 品詞分類論」, 延禧專門學校出版部(역대한국문법대계 144).
-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 동광당서점(역대한국문법대계 145).
- 최현배(1936), 『中等教育 朝鮮語法』, 東光堂書店(역대한국문법대계 124).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역대한국문법대계 147).
- 洪起文(1927), 「朝鮮文典要領」(『現代評論』 1권 1호~1권 5호)(역대한국문법대계 138).
- Underwood, H. G.(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韓英文法(한영문법)), Kelly & Walsh, L'd(역대한국문법대계 211).

■ 논저

- 강복수(1972), 국어문법사연구, 형설출판사.
- 고영근(1979), 주시경의 문법이론, 한국학보 5-4, 일지사, 126-144.
- 고영근(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국어학회, 259-269.
- 구본관(1992), 생성문법과 국어 조어법 연구 방법론, 주시경학보 9, 주시경연구소, 50-77.
- 김민국(2008), 접미사에 의한 공시적 단어형성 연구: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의 경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수(1964/1980), 신국어학사(전정판), 일조각.

- 김민수(1980), 이규영의 문법 연구, 한국학보 6-2, 일지사, 57-86.
- 김민수(1983),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1-54.
- 김병문(2013ㄱ), 주시경의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 한국사전학 21, 한국사전학회, 7-39.
- 김병문(2013ㄴ), 언어적 근대의 기획: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 김병문(2016), 초기 국어문법에서의 품사 분류와 ‘보조어간’ 설정에 관한 문제, 국어학 77, 국어학회, 101-129.
- 김병문(2023), 정렬모 문법의 재평가를 위한 시론, 국어학 107, 국어학회, 95-132.
- 김석득(1979), 주시경문법론, 형설출판사.
- 김주상(2020), 20세기 초 국어 문법서의 문법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的’의 경우,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45-161.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해금(2016), 영향관계로 본 이규영의 품사 분류, 동양학 6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38.
- 김해금(2017), 주시경학파의 문법 연구에 대한 고찰: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시정곤(2015), 훈민정음을 사랑한 변호사 박승빈, 박이정.
- 시정곤(2020), 학범 박승빈의 생애와 국어연구, 한국어학 89, 한국어학회, 1-25.
- 이병근(1977),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고본):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한국언어학회, 67-84.
- 이병근(1986), 조선광문회 편 《말모이》(사전), 한국문화 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7-220.
- 임흥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67-196.
- 정한데로(2018), 통사론적 구성과 단어 형성: ‘통사적 합성어’와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1-123.
- 정한데로(2020ㄱ), 주시경의 ‘기’와 ‘기뭉박굶’에 관한 고찰, 국어학 93, 국어학회, 89-122.
- 정한데로(2020ㄴ), 단어 형성으로 바라본 안학의 『조선문법』(1917, 1923), 어문연구 4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17-349.
- 정한데로(2021), 주시경과 김두봉의 씨, 계승과 변화, 한국학논집 8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1-72.
- 정한데로(2022), 최현배의 ‘바꿈’, 계승과 변화, 형태론 24-1, 형태론, 82-112.
- 정한데로(2023), 20세기 초 문법서의 명사 연결 구성, 국어학 105, 국어학회, 85-123.
- 최경봉(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 최경봉(2020), 박승빈 문법의 계보와 국어학사적 위상, 한국어학 89, 한국어학회, 93-122.
- 최응환(1999), 박승빈 『조선어학』의 ‘문법편’에 관한 고찰, 문학과 언어 21, 문학과언어학회, 35-57.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 최형용(2020), 1910년대 품사 연구, 한국어학 88, 한국어학회, 61-111.

하치근(1995), 국어 조어론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힌샘 주 시경 연구 7·8, 한글 학회, 165 - 208.

황화상(2005), 통사적 접사 설정의 제 문제, 한국어학 28, 한국어학회, 269-294.

■ 사전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文世榮(1938), 『朝鮮語辭典』, 博文書館.

文世榮(1940), 『修正增補 朝鮮語辭典』, 永昌書館.

이은령·김영주·윤애선 옮김(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소명출판.

이희승 편(1961/1975),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이희승 편저(1982), 『국어대사전』, 수정증보판, 민중서림.

한글학회(1947/1957), 『큰사전』, 을유문화사.

황호덕·이상현 편(2012ㄱ),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2: 언더우드, 『한영조던』(1890)』, 박문사.

황호덕·이상현 편(2012ㄴ),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5: 게일, 『한영조던』(1897)』, 박문사.

황호덕·이상현 편(2012ㄷ),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10: 게일, 『한영대조던』(1931)』, 박문사.

■ 토론

“-답-, -스럽-, -롭-’이 접사가 되기까지-20세기 초의 문법서 검토-”에 대한 토론문

김건희(강원대)

이 논문은 20세기 초기 문법서에 나타난 ‘답, 스럽, 롭’의 위상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추후 논문을 읽어볼 독자를 위해 이 논문의 뛰어난 핵심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답, 스럽, 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성 소개(본문 재배치 등)
- ‘답, 스럽, 롭’이 비문법적 성분에서 문법적 성분 또는 단어로 인식되는 변화를 보여줌.
- ‘답, 스럽, 롭’을 각각 ‘단어(조동사, 불완전형용사)’, ‘접사’로 보는 관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
- ‘답’을 ‘롭, 스럽’과 다른 단위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논의들을 소개하고 관련된 논의를 제시함
 - : ‘스럽, 롭’의 밀접한 관계를 이형태처럼 처리한 논의 소개함.
 - : ‘답’을 두 부류로 분리하여 살펴본 박승빈(1935) 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김창섭(1984) ‘답1, 답2’와 연계시킴.

이러한 핵심 요지들이 원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밑줄, 번호표시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토론자가 토론 쟁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쪽 (2) 출처문의 띄어쓰기 「男子 다오며, 勇猛 스러우오」

각주7.8) 등을 보면 ‘띄어쓰기’를 필자가 추가하였다고 하였는데, 2쪽 (2) 박승빈(1935: 196)의 ‘不완全 形容詞’ 부분에서는 「男子 다오며, 勇猛 스러우오」와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띄어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어(형용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1개 단어로 처리한 ‘뜻다오며, 情다오니...’와 구별하기 위해 원문에서도 ‘띄어쓰기’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 스럽, 롭’과 구

‘답, 스럽, 롭’에 선행하는 명사를 보어로 파악하고, ‘답, 스럽, 롭’을 불완전형용사로 본 박승빈(1935)을 비롯하여, 조동사로 본 안확(1923), 이규영(1913) 등 ‘답, 스럽, 롭’에 단어의 지위를 부여한 것을 고려하면, 결국 ‘명사(보어)+불완전형용사(조동사)’인 ‘답, 스럽, 롭’의 전체

단위는 띄어쓰기도 할 수 있는 ‘구’에 비견되는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가장 최근의 구에 관한 논의인 장소원·김혜영(2016)에서는 구의 정의를 ‘내부에 주술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한 품사의 단어처럼 쓰이는 어군’으로 제시했는데, ‘답, 슥, 룩’이 포함된 전체 단위 ‘명사(보어)+불완전형용사(조동사)’를 특히 ‘구’로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3> ‘답, 슥, 룩’에 ‘뚜렷한 문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것’

2장에서 ‘답, 슥, 룩’이 결합되면, 한 품사가 다른 품사로 되지만 ‘답, 슥, 룩’을 ‘더한 것, 더한 소리, 붙인 것’으로 설명하며 뚜렷한 문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초기 문법에서 형태변화 없이(=더한 것, 붙인 것 없이) 한 품사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부류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하였는지 궁금합니다.(명칭 용어 등)

한 품사의 다른 품사로의 변화

- ① ‘더한 것’과 같은 형태변화가 있는 것(답, 슥, 룩)
- ② 형태변화가 없는 것 ?

<4> 3쪽 ‘기묘박굴’에 대한 설명

널리 알려져 있듯이 주시경(1910)의 ‘기묘박굴’은 한 문장 안에서 단어(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사론적 요구에 따라 실현된 품사 변화(박굴)를 의미한다(고영근 1979, 김석득 1979). 그중 ‘임본엇’ 즉 명사(임)가 형용사(엇)로 변화한 예로....

토론자의 오독일 가능성도 많으나, ‘단어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사론적 요구에 따라 실현된 품사 변화’는 품사가 문장에서 문장성분으로 나타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명사가 형용사로 변화한 예’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곧 전자는 기능적 관점이고 후자는 단어조성적 관점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전성과 파생

20세기 초기 문법에서는 ‘답, 슥, 룩’과 관련하여 轉成형용사 등 ‘전성’으로 제시되지, ‘파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파생’은 문법 형태소인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는 것으로,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접사로 정착되면(심의린(1949), 접미어) ‘파생’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성’의 경우 각주26) 유길준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품사가 그대로 유지될 때도 쓰이는 개념용어로 ‘답, 슥, 룩’이 결합되어 품사가 바뀌는 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전성’의 개념은 주로 형태변화 없이 한 품사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개념인데, ‘답, 슥, 룩’은 이러한 일반언어학적 관점과도 차이를 보입니다.

국어학계에서는 20세기 중, 후반에도 ‘전성’이라는 용어가 상당기간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참고문헌

- 김건희(2021), 역대 문법 교과서의 ‘-음, -기’ 명사화 기술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 명사형 어미와 명사절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59, 한말연구학회, 5-37쪽.
- 장소원·김혜영(2016), 구의 개념 정립과 그 분류, 국어학 80, 국어학회, 173-194쪽.

이승녕-허웅의 두 가지 논쟁이 남긴 것

허인영(인하대)

< 차 례 >

1. 머리말
 2. 두 사람의 삶
 3. ‘-습-’ 논쟁
 4. ‘-오/우-’ 논쟁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모든 학문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학설이 반박되고 뒤집어진 뒤, 그것이 다시 재반박을 통해 발전하는 정(正)-반(反)-합(合)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경성과학(硬性科學, hard science)뿐만 아니라 연성과학(軟性科學, soft science)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어학 또는 한국어학 또한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0세기 초 근대적인 한국어학의 여명기부터 다양한 주제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고 또 지면 위에서 논쟁이 펼쳐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해방 이후 한국어학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지상(紙上) 논쟁을 꼽는다면 이승녕과 허웅 사이의 논쟁을 빠뜨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람의 논쟁을 대상으로 하되 학술대회 주제인 ‘근현대 국어학을 밝힌 연구자들(I): 국어학의 쟁점을 중심으로’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승녕과 허웅이라는 두 사람의 걸출한 한국어학 연구자의 삶을 간략히 정리하고, 두 연구자의 견해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난 선어말어미 ‘-습-’과 ‘-오/우-’에 대한 논쟁의 경과를 살펴본다.

논쟁에 따라서는 다른 연구자가 관련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지상 논쟁을 중심으로 하되 핵심을 요약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필자로서는 ‘-습-’이나 ‘-오/우-’ 어느 하나라도 전체적인 연구사를 정리하거나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¹⁾ 다만 현대 한국어학이 성립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논쟁 두 가지의 경과를 소개하고 재검토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지금의 우리는 20세기 전반부터 지금까지를 통틀어 ‘현대 한국어학’이라고 부르지만, 2024년 현재는 각각의 논쟁이 시작된 해로부터 7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이다. 두 가지 논쟁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각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사의 몇 단락으로만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각 논쟁의 경과를 충실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습-’에 대해서는 金忠會(1990), 김현주(2014), 김태우(2021) 등의 참조 논문이 있고 ‘-오/우-’에 대해서는 韓在永(1990), 鄭在永(1997), 임동훈(2005), 석주연(2014), 조용준(2015), 최대희(2022) 등의 참조 논문이 있으므로, 자세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각각의 논쟁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음미해 보고자 한다. 모든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촉발되는 것이므로, 선행연구의 무엇이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 두 사람의 삶

2.1. 이승녕

이승녕(李崇寧, 1908-1994)의 학문적 생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 2011: 523-552).

- 1908년 6월 7일(음력): 경성부 수하동에서 이병관과 밀양 박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남.
- 1913년: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
- 1916년 5월: 보인학교로 전입.
- 1917년 4월: 매동공립보통학교 2학년으로 편입.
- 1920년 4월: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속보통학교 5학년으로 전입.
- 1921년 3월: 경성공립제2고등보통학교 입학.
- 1926년 3월: 경성공립제2고등보통학교 졸업.
- 1928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
- 1930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수료.
- 1930년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 조선어학·조선문학 전공 진학.
- 1933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 조선어학·조선문학 전공 졸업.
- 1933년 5월~1945년 8월: 평양사범학교 교유.
- 1945년 1월~10월: 경성대학 예과 교수.
- 1945년 11월: 경성대학 법문학부 조교수.
- 1946년 9월~1971년 1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교수·문리과대학 교수.
- 1971년 2월~197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대학원장.
- 1974년 7월~1994년 2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994년 2월 2일: 세상을 떠남.

이승녕은 또래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으나, 당시 식민지 조선의 최고학부였던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한 뒤 10년 넘게 평양사범학교에 있다가 해방 뒤로는 줄곧 경성대학-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다. 그의 학문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것은 경성제국대학에서 만난 언어학 전공 교수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1903-1978)였다.²⁾ 페르디낭 드 소쉬

2) 한편 이승녕은 조선어학 전공의 교수였던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에 대해서는 “新味が 없고 羅列과 紹介에 그친 感이 짙어 그의 講義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끝까지 文獻學的 테두리를 못 벗어난 느낌이었다. [...] 小倉 교수에게는 誠實만 높지 사야 할 것으로 믿었다.”(李崇寧 1983: 449)라고 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구라에 대해 당시 조선어학·조선문학 전공의 조수로 있었던 조운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오구라 박사는 독실한 학자로 그야말로 학문 이외의 것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은 훌륭한 학자인데 박사는 늘 나를 이끌어 주어 나는 박사와 한 연구실에 있으면서 그분에게 배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趙潤濟 1964: 373-374)

리의 『일반언어학강의』를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한 그는 조선어학이 아닌 언어학 전공이었음에도 이송녕에게 외국어 습득을 비롯하여 많은 학문적 훈련을 시켰다(심악이송녕전집 간행위원회 편 2011: 241-243). 번뜩이고 날카로운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이송녕의 학문적 태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 시절부터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2.2. 허웅

허웅(許雄, 1918-2004)의 학문적 생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글학회 엮음 2005: 9-12).

- 1918년 7월 26일: 경남 김해시에서 허수와 윤영순의 5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남.
- 1926년 4월: 김해보통학교 입학.
- 1932년 3월: 김해보통학교 졸업.
- 1932년 4월: 동래고등보통학교 입학.
- 1934년 4월~1935년 3월: 병으로 휴학.
- 1938년 3월: 동래고등보통학교 졸업.
- 1938년 4월: 연희전문학교 문과 입학.
- 1939년 3월: 연희전문학교 중퇴.
- 1940년~1942년: 폐침운으로 요양 생활. 15세기 문법 연구 시작.
- 1945년 9월~1947년 3월: 광신상업고등학교 교사.
- 1947년 4월~8월: 한성고등학교 교사.
- 1947년 9월~1954년 4월: 부산대학교 조교수.
- 1953년 4월~1955년 3월: 성균관대학교 조교수.
- 1954년 4월~1958년 2월: 연세대학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 1957년 5월~1984년 2월: 서울대학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 1984년 7월~2004년 1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2004년 1월 26일: 세상을 떠남.

이상의 약력에서 알 수 있듯이 허웅은 생애의 절반이 넘는 기간을 서울에서 교수로 생활하였으나, 1968년 3월부터 1975년 10월까지의 동아대학교 초빙교수, 1984년 3월부터 1989년 2월까지의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수로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다.

허웅은 외솔 최현배(崔鉉培, 1894-1970)의 영향을 받아 국어학에 뜻을 두게 되었으나, 이송녕처럼 제국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연희전문학교에서 1년 수학한 것을 제외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은 15세기 문헌을 끈기 있게 파고들어 읽어 나가면서, 자료의 문맥을 고려하여 형태소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소쉬르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일반언어학의 이론을 습득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김현권 2005). 이를 집대성한 것이 허웅(1975)이다.

이송녕의 국어학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1931년 『朝鮮語文學會報』에 발표한 「한글과 宗教」부터 시작되었는데, 허웅과의 두 가지 논쟁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으므로 그가 학술 활동을 시작한 지 이미 20년이 훌쩍 넘는 시점의 일이다. 한편 허웅

은 이송녕보다 10살 아래이다. 그의 국어학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1952년 『국어국문학』에 발표한 「에 애 외 이」의 音價)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송녕과의 논쟁은 195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므로 허웅이 본격적인 연구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고 하겠다.

3. '-습-' 논쟁

3.1. 경과

허웅을 중심으로 한 '-습-' 논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① 「敬讓詞의 연구」(김형규, 『한글』 12.4-13.1, 1947)³⁾
- ② 「尊待法史」(허웅, 『성균학보』 1, 1954)
- ③ 「「습따위」 敬讓詞의 散攷」(전재관, 『경북대학교논문집』 2, 1958)
- ④ 「경양사(敬讓詞)와 “가” 주격(主格)토 문제」(김형규, 『한글』 126, 1960)
- ⑤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허웅, 『한글』 128, 1961)⁴⁾
- ⑥ 「主體謙讓法の 接尾辭 「-습-」에 對하여」(안병희, 『진단학보』 22, 1961)
- ⑦ 「경양사(敬讓詞) 문제의 재론(再論)」(김형규, 『한글』 129, 1962)
- ⑧ 「「존대법」의 문제를 다시 논함」(허웅, 『한글』 130, 1962)
- ⑨ 「謙讓法研究」(이송녕, 『아세아연구』 10, 1962)
- ⑩ 「또 다시 「존대법」의 문제를 논함: 이 송녕 박사에 대하여」(허웅, 『한글』 131, 1963)
- ⑪ 「敬語法研究」(이송녕, 『진단학보』 25, 1964)

사실 이 논쟁은 처음부터 허웅-이송녕 간의 논쟁이었다기보다는 본래 ②허웅(1954)에서 ①김형규(1947)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에 안병희(1961)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고, 마지막에 이송녕과 허웅 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①에서 ⑧로 이어지는 논쟁을 소개하고, ⑨에서 ⑩로 이어지는 허웅-이송녕 간의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金忠會(1990: 409)에서 언급하였듯이, ①김형규(1947)과 ④김형규(1960), ⑦김형규(1962)로 이어지는 연구의 핵심은 경어법을 '2항적 대립체계'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김형규의 견해는 결국 '-습-'의 기능을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겸양'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小倉進平(1929, 1938)을 계승하는 것이다.⁵⁾ 김형규는 ④김형규(1960), ⑦김형규(1962)에서 계속해서 객체존대

3) 이 논문의 제목은 『한글』 12권 4호에는 '敬讓詞의 연구'로, 13권 1호에는 '敬讓語의 연구(續)'으로 되어 있다.

4) 이 논문은 ④김형규(1960)의 반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김에, 전후 혼란기에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실려 있는 책도 찾기 어려운 ②허웅(1954)를 자료를 보태어 글을 고치고 제목을 바꾸어 다시 발표한 것이다.

5) 오구라 신페이가 한국어의 경어법을 '尊敬法'과 '謙讓法'의 2항적 대립체계로 인식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小倉進平(1938: 1-2)에서는 한국어에서 謙讓法·尊敬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①인칭대명사(나, 제, 당신·자네·너), ②어휘적 수단(준다:드린다, 잔다:주르신다, 먹는다:잡수신다), ③어법적 수단(간다:가오·갑니다('謙讓法'), 가시오·가십니다('尊敬法'))를 들고 있다. ②를 고려하면 객체 높임도 그의 '謙讓法'

와 상대존대의 구별을 부정하고, ‘-습-’과 ‘-이-’는 같은 겸양의 뜻을 나타내지만 전자는 접미사이고 후자는 종결어미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김형규의 허용에 대한 비판은 현대어적인 편견(“과거에 정말 그런 복잡한 체계가 존재했을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와 달리 ②허웅(1954), ⑤허웅(1961)의 참신함은 경어법을 주체존대, 객체존대, 상대존대의 셋으로 나누어 3항적 대립체계로 파악했다는 점에 있다.⁷⁾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삼분법이 일반화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이 또한 당대의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했다.⁸⁾

⑤ 허웅은 이 글에서 먼저 현대어의 체언·조사·용언에서 나타나는 존대의 예를 들고, 존대법을 장면에 관한 것과 문장 성분에 관한 것으로 나눈 뒤, 전자는 상대존대, 후자는 주어에 대한 것은 주체존대, 객어(목적어나 여격어)에 대한 것은 객체존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15세기 한국어에 나타나는 존대법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대로 ‘-시-’가 주체존대, ‘-습-’이 객체존대, ‘-이-’가 상대존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15세기 이전부터의 존대법 변화를 기술하면서는 15세기에 항상 ‘-샤-’로 나타나는 ‘-시-’와 ‘-아-’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향가의 ‘賜’를 참고하여 ‘-시-’의 선대형인 ‘*-샤-’를 재구하였다. 그러나 ‘賜’를 포함한 止攝 齒頭音 聲母字의 음가는 ‘*시 > 스 > 사’로 변화한 것이므로(權仁瀚 1997: 307-309), 이러한 재구는 시대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습-’의 객체 높임에서 상대 높임으로의 기능 변화를 ‘전용(轉用)’으로 파악한 것은 선구적인 업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김태우 2021: 927).

이 논문의 말미에는 4쪽에 걸친 <붙임>이 있는데, 이는 1961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에서 허웅이 발표한 객체존대 문제에 대해, 객체존대는 대상이 아닌 작중인물 간의 존비관계(尊卑關係)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이승녕의 질의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붙임>의 마지막에서 국어의 존대법 사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 (1) 존대법 사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존대의향이다.
- (2) 용언의 경우 존대의 대상은 주체, 객체, 상대의 세 가지에 따라 존대법이 규정된다.
- (3)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주체가 객체보다 훨씬 높은 경우, 화자의 객체에 대한 존대의향이 있을지라도 객체존대의 사용이 보류된다.

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小倉進平(1938)에서는 어법적 수단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습-’과 ‘-이-’를 ‘謙讓法’으로 함께 다룬 것이다. 小倉進平(1938)과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있는 김형규(1960: 357)의 “필자가 말하는 “겸양사”라는 술어는 “객체”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양쪽에 다 쓰이고 있는 것을 의미함”이라는 서술이 참고가 된다.

- 6) 김형규(1962: 362)에서 일본어 ‘마스(masu, -(스)브니다)’가 ‘모우스(mousu, 아뢰다)’에서 왔다는 것을 들어 ‘-습-’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한 것은 흥미롭다. 객체 높임인 ‘모우스’는 ‘마스’로 형식이 바뀌면서 근세 초기에 상대 높임으로 일반화하는데(「ます」, 『日本国語大辞典』), 한국어 ‘습- > -습-’의 문법화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다만 김형규(1962)는 이것을 객체 높임에서 상대 높임으로의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 7) 金忠會(1990: 416)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것은 [...] 敬語法 體系를 3項의 對立體系로 파악한 最初의 것으로 敬語法 研究史에서 하나의 發展的 契機를 만들어 주었다 할 것이다.”
- 8) 이와 관련하여, 김형규(1962: 357)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된 태도와 이론을 가지고 과거 우리 문법 학자나 국어학자 중 누구 하나 논한 일 없는데, 유달리 허웅 교수에 이르러 “겸양사”에 한해서 이같은 신기한 설을 내세워 국어학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⑥ 안병희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15세기 문헌의 예들을 정치(精緻)하게 검토한 끝에 ‘겸양법’과 ‘객체존대’라는 두 가지 용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습-’을 주체겸양법의 접미사라 부르고, 주로 어떤 동작·상태 및 판단의 주체는 물론이고 화자보다도 존귀한 인물에 관계되는 비자(卑者)의 동작·상태 및 판단의 서술에 나타난다고 하였다.⁹⁾

그가 ②허웅(1954)에 대해 비판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을 ‘주어+서술어’가 아닌 ‘주어+객어+용언’으로 분석한 점, 둘째, ‘-습-’이 나타나는 문장 중에도 객어를 상정할 수 없는 예가 있다는 점, 셋째, 객체존대의 존대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이다. ‘-습-’을 주어와 객어의 존비대립이라고 본 ③전재관(1958)에 대해서도 객어가 반드시 상정되지 않는다는 점, 객어가 상정되더라도 객어의 존귀함이 비자인 주어-존귀한 객어의 대립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大勳이 이르시릴씨 人心이 문좁더니 禮士濫言訶샤 人心이 굳조븨니 <용비어천가 66>
그뻘 솔리弗이 [...] 僞를 슬오디 [...] 내 부터 몬아드리스오니 굴히야 니르샤물 드리우쇼셔 <법화경 언해 1:169>

위와 같이 형용사, 계사에 ‘-습-’이 통합한 예에 대한 지적은 실로 예리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예를 들어 문장상의 객어가 아니라 문맥에서 간취되는 존귀한 인물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주체겸양법의 사용 조건에서 객어-주어의 상하관계, 객어-화자의 상하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탁견(卓見)이었다.

⑧ 허웅은 이 글에서 ⑦김형규(1962) 및 ⑥안병희(1961)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⑦김형규(1962)의 비판을 반박하는 것이나,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소개할 것은 못 된다.¹⁰⁾ ⑥안병희(1961)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는 첫째, ‘객체’의 정의에 대한 비판은 ②허웅(1954)의 좁은 정의(대격, 여격, 처소격으로 표시되는 인물)로 인한 것이나, ⑤허웅(1961)에서는 넓은 정의(행동 작용이 미치는 상대, 대상)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둘째, 객체존대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도 ⑤허웅(1961)에서 객어-주어와 객어-화자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⑥안병희(1961)과는 역점을 두는 자리가 다를 뿐(존대의 대상이 객체인지, 주체-객체 간의 존비관계인지)이라고 하였다.

⑨ 이송녕은 이 글의 서두에서 ②허웅(1954) 이후의 논쟁 과정에서 ⑥안병희(1961)에 동조하며 그의 주체겸양설이 논의의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했으나, ⑦김형규(1962)에서는 만족하고 있지 않은 듯하여 ‘-습-’계 경어법을 보다 자세히 밝혀 보겠다고 하고 있다. 그는 ‘-습-’은 화자, 청자, 문장에 등장되는 인물을 기준으로 그들의 상하 대립 관계로 따져야 하며, 객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논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⑤허웅(1961)의 객체존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 반례가 되

9) 이 개념은 安秉禧(1982)에서 수정되어 ‘동작·상태 및 판단의 서술’을 ‘넓은 뜻의 동사’로 바꾸고, ‘존귀한 인물’과 ‘비자’를 ‘상위자’와 ‘하위자’로, ‘존비관계’는 ‘상하관계’로 바꾸었다. 또한 허웅의 ‘객어’(대격, 여격, 공동격 성분)와 ‘객체’(객어의 지시물)라는 용어를 받아들였다.

10)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오/우-’ 논쟁에서의 태도와 관련하여 “학문은 학문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논법이 아무리 성립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의 문제이지,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과 학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김형규 교수의 소론에 대하여 몇번이나 맞서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서 볼 때, 필자로서는 마음 아픈 일이다”(허웅 1961: 423)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이 주목된다.

는 것들을 제시하는 데 치중해 있다. 그가 객체존대설을 비판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은 같은 목적어에 ‘-습-’이 통합하거나 통합하지 않는 예가 모두 존재한다거나, 문면(文面)에 드러나지 않는 객체를 상정해야 하는 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어법 전반에서 겹문장의 마지막 동사에만 경어법 표지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송녕은 ‘重出忌避’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지만 이는 李賢熙(1994)의 ‘상위문 우선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¹¹⁾ 또한 17세기 언간에 나타나는 ‘-습-’의 예를 들어 연결어미에서의 상대 높임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한 것은 짝막하지만 주목할 만한 견해가 아닌가 한다.¹²⁾

⑩ 허웅은 이 글에서 ⑤허웅(1961)에 대한 ⑨이송녕(1962)의 비판을 8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그에 대해 반박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송녕이 ⑤허웅(1961)의 논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채로 비평한 것을 문제 삼고, 보다 성실한 비평의 태도를 갖추기를 청하였다.

본론에서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다시 강화하고 있다. 존귀한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습-’이 쓰인다고 한 것이 아닌데, 존귀한 목적어가 있음에도 ‘-습-’이 쓰이지 않은 예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객체존대설을 무너뜨렸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이송녕은 “큰 罪를 납습고 <월인석보 2:72>”와 같이 존귀하지 않은 목적어를 포함한 문장의 예를 들어 ‘님금님씩’, ‘부터씩’와 같은 문장에 없는 여격어를 상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공격하였는데, 이 또한 화자의 존대 의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허웅의 객체존대설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송녕의 비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송녕의 주장에는 ‘-습-’의 사용 여부는 문면에 드러나 있는 요소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높임법 자체는 화용론적인 현상이므로,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다. 문면에 드러나 있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입장 때문인지, ⑩이송녕(1964)에서는 ‘-시-’와 ‘-습-’이 그 자체로 신분성을 표시한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기본 입장에서 진보라기보다는 퇴보에 가깝다.

⑩ 이송녕은 이 글에서 경어법 연구의 방법론과 공손법의 등급을 제시하고, 존경법과 겸양법의 대립을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 이송녕은 경어법은 언어사회의 특이한 ‘신분성 표시(expression of social relationship)’이라는 규범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동주의 상위 신분성을 표시하는 것이 ‘-시-’이고 하위 신분성을 표시하는 것이 ‘-습-’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시-’의 사용에서는 행동주와 화자 간의 상하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습-’의 사용에서는 행동주와 행동·상태의 대상과의 상하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는 ⑨이송녕(1962)와 마찬가지로 겸양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제3장에서 객체존대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신분성 표시’라는 입장에서 문면에 드러난 요소만을 대상으로 경어법을 설명하면서 객체존대설을 비판하다 보니 무리가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제3장 도입부에서는 ‘부테 니르샤디’와 ‘羅雲이 솔보디’를 들어 비교하면서 후자를 객체존대로 보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11) 李賢熙(1994: 93-95)에서는 ‘-시-’와 달리 ‘-습-’의 사용에서는 ‘하위문 우선의 원리’가 더 우세하다고 하였다.

12) 이송녕(1962: 49)에서는 ‘나는 [...] 왓습거니와’, ‘나는 [...] 오습다가’, ‘나는 [...] 어스 노릇술 헛습더니’ 등의 예를 들면서 “主語가 “나”일 때에 고 自己行爲 狀態의 表記에 “습”이 介在됨은 새 事實이 아니지만 그 지나친 使用에서 一見 謙讓法의 變貌된 發達이라 보나 이것은 一面으로는 終結法이 아닌 活用에서의 恭遜法의 구실을 나타낸 느낌도 짙다.”라고 지적하였다.

- (1) 문장구조에서 중요한 주어나 행동주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 (2) ‘羅雲이 슬보디’는 NP+VP의 완전한 문장임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터씩’을 보충해서 논한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 (3) (2)에서 ‘부터씩’을 보충한다면 ‘부테 니르샤디’에서도 문장에 없는 객체 ‘波斯匿王드려’가 낮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시-’가 개재되었다고 해야 공평한 태도이다.

위의 비판 가운데 (2)와 (3)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송녕은 292개에 달하는 예문의 거의 대부분을 전체 문장에서 ‘주어-(목적어)-동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잘라서 제시하였는데, 이는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경어법 연구에서는 좋은 자료 제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는 경어법은 인간 대 인간의 상하·존귀·친소의 대립이 표현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인간이 아닌 사물과는 대립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경어법은 통사론의 소관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 또한 지나치게 편협한 태도라고 하겠다.

3.2. 해당 논쟁이 남긴 것

오늘날 ‘-습-’의 관한 연구사를 정리할 때, 특히 15세기 ‘-습-’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선행연구는 허웅(1954)와 안병희(1961)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학교문법이나 국어사 개론서에서 경어법에 대해 설명할 때 ‘객체 높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역시 허웅의 공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객체 높임의 용법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결국 화용론적인 맥락을 고려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화자와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주체)겸양법의 사고방식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높임법 자체는 근본적으로 화용적인 현상이나, 그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통사적인 것과 화용적인 것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송녕이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확실히 허웅의 초기 논의에서 객어·객체의 개념은 지나치게 좁게 정의되어서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객체를 상정할 때 해석의 자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논쟁을 거치면서 이후 객어·객체에 대한 정의가 정교화되었고, 이에 따라 안병희(1982)에서는 객어·객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논쟁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송녕이 허웅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문헌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등장인물의 관계 파악, 즉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지금도 언어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중요한 지적이다.

다만 논쟁의 태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이송녕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반례를 제시하는 데 있어 자신이 그렇게도 강조한 문헌자료와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쳐 잘못된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정교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반례를 제시하고 반박했음을 ‘선언’하는 데 치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문제이다. 허웅은 먼저 공격을 받은 입장임에도 최대한 성실하게 반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중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뒤에서 다룰 ‘-오/우-’ 논쟁에서도 반복·심화된다.

4. '-오/우-' 논쟁

4.1. 경과

이승녕과 허웅의 '-오/우-' 논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① 「插入母音考: 15世紀 國語의 一人稱 活用과 對象 活用に 對하여」(허웅,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 7, 1958)
- ② 「語幹形成과 活用語尾에서의 「-(오/우)-」의 介在에 對하여」(이승녕,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 8, 1959)
- ③ 「삽입 모음(插入母音) 재고(再考): 이 승녕 박사의 「意圖說」에 대하여」(허웅, 『한글』 125, 1959)
- ④ 「Volitive form으로서의 Prefinal ending 「-(O/U)-」의 介在에 對하여」(이승녕, 『진단학보』 21, 1960)
- ⑤ 「또 다시 一人稱 對象 活用 語尾로서의 {오/우}를 論함」(허웅, 『어문학』 10, 1963)
- ⑥ 「中世國語의 MOOD論: 許 雄氏의 所論에 答함」(이승녕, 『어문학』 11, 1964ㄱ)
- ⑦ 「이승녕 박사의 “中世 國語 MOOD論”에 대한 비판: 아울러, 필자에 대한, 그 무책임한 세번째 반박에 답함」(허웅, 『한글』 133, 1964)
- ⑧ 「「-(오/우)-」 論放: 主로 許 雄氏의 基本態度的 一大變貌에 對하여」(이승녕, 『국어국문학』 27, 1964ㄴ)
- ⑨ 「「인칭 어미설」에 대한 다섯번째의 논고」(허웅, 『한글』 135, 1965)

이 논쟁은 1958년 허웅의 「插入母音考: 15世紀 國語의 一人稱 活用과 對象 活用に 對하여」로부터 시작하여 1965년 허웅의 「인칭 어미설」에 대한 다섯번째의 논고」로 막을 내린다. 허웅-이승녕 논쟁의 핵심은 '-오/우-'의 기능을 어떻게 보는지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오/우-'의 이형태 분포 등 형식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기능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① 허웅은 이 글에서 그때까지 삽입 모음으로 칭해지던 '-오/우-'에 대해 형태소로 규정하고 그 이형태를 소개한 다음, 그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나는 종지법(終止法)과 접속법(接續法)에서 일인칭 활용어미로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형사형에서 목적격 활용(대상활용, 객체활용)어미로 쓰이는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꽤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유를 격의 종류가 다양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옴/움'과 '-오디/우디'에 대해서는 일인칭 활용으로 보지 않았으나 그 기능은 미해결로 두었다. 그리고 '-오/우-'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ㄱ. 淨飯王이 耶輸의 ㅍ들 노규리란 ㅎ샤 <석보상절 6:9>

ㄴ. 千百億은 百億곰 ㅎ니 一千이라 흔 마리니 <월인석보 2:54b>

이 글에서는 ㄱ과 같은 예를 직접인용으로 해석하여 제1인칭 활용으로 보았는데, 이후에 계속하여 이승녕의 공격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또 ㄴ을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여 주어가 부정(不

定)인 경우에 제1인칭을 상정한 예로 들었으나,¹³⁾ 이는 ‘ $\text{ㅎ}+\text{오}+\text{ㄴ}+(\text{이})+\text{이}$ (주격조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② 이송녕은 이 글에서 ①허웅(1958)이 ‘-오/우-’의 용법을 인칭과 대상의 두 가지로 나눈 것을 비판하고, 이것들을 모두 ‘의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선어말어미 ‘-오/우-’뿐만 아니라 ‘-음/움’과 같은 명사형 어미(이른바 ‘목적어 지배’)와 사동접미사 ‘-오/우-’, 연결어미 ‘-오디/우디’, ‘-오려/우려’, 관형사형 어미에 쓰인 ‘-오/우-’ 까지 모두 아울러 ‘주어의 의도의 개재’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인칭 활용이라는 ①허웅(1958)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동접미사까지 하나의 원리로 포괄하려고 본 것은 문제로, 허웅의 반박을 받게 된다.

특히 『몽산법어』를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여 주어가 1인칭이 아닌데도 ‘-오/우-’가 들어간 경우, 관형절의 피수식어가 관형절 서술어의 대상이 아닌데도 ‘-오/우-’가 들어간 경우를 예로 들었다.

ㄱ. 다시 모디 안조디 端正히 호리라 第一엔 조오로미 오나돈 반드기 이 엇던 境界오 ㅎ야 아로리
니 <몽산법어 2b>

ㄴ. 몸 술며 불 스희샤디 ㅅㅅ간도 앓끓 뜯 업스시니 <월인석보 18:32b>

이송녕이 이러한 반례를 제시한 것은 허웅이 자신의 설을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예들 가운데 ㄱ은 후일 ‘ $\text{ㅎ}+\text{오}+\text{ㄴ}+\text{이}+\text{다}$ ’로 다시 분석되어 인칭 활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고(허웅 1975: 777),¹⁴⁾ ㄴ은 관계관형절이 아닌 보문관형절의 예이므로 대상 활용의 진정한 예외라고 하기 어렵다.

③ 허웅은 이 글에서 ②이송녕(1959)의 공격에 대해, ‘-오/우-’가 의도와 전혀 관련이 아닌 것이 아님은 이미 ①허웅(1958)에서 언급하였으나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동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강한 의도가 개입되는 사동문(-게 ㅎ-)이나 당위 표현(-아/어사 ㅎ리-)에서 ‘-오/우-’를 취하지 않는 예, 의도를 나타내는 2인칭 주어문에서 ‘-오/우-’를 취하지 않는 예(네 [⋯] 大悲로 니르고라 講ㅎ느니 <월인석보 9:9>)를 들어 반박하였다.

또한 이송녕은 표현은 3인칭이라고 할지라도 화자 자신을 가리키거나 화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인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허웅의 주장을 공격하였다.

ㄱ. 主이 ㅁ슴 차바닐 손소 돈녀 ㅁㅇ노닛가 <월인석보 6:16>¹⁵⁾

ㄴ. 惠能은 和尚의 ㅁ잡노니 <육조법보단경언해 상:8>

허웅은 ㄱ에 대해서는 인칭 활용의 예외로 인정하였으나, ㄴ은 인칭 활용으로 볼 수 있다고

13) 허웅(1975: 758)에서도 여전히 일반적인 진리를 서술할 경우에 주어를 ‘나(우리)’로 상정하는 예로 이 문장을 들고 있다.

14) 허웅(1975: 777)에서는 1) <내훈>에서 구결문의 ‘호리니(ㅎ+오+ㄴ+이+이+니)’를 언해문에서 ‘홀디니(ㅎ+오+ㄴ+ㄷ+이+니)’로 번역한 것, 2) 명령조인 ‘ㅎ야사 ㅎ-’와 같은 표현에서는 ‘-오/우-’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15) 허웅(1975: 783-787)에서는 ‘-노닛가’를 ‘인칭 표시가 뚜렷하지 않은 활용형’으로 보고, “지나친 천착을 피하고, 우선 여기 예를 들어 두어, 뒷날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다.”(783쪽)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구성도 기원적으로는 ‘ $\text{ㄴ}+\text{오}+\text{ㄴ}+\text{잇가}$ ’처럼 분석할 여지가 있다.

반박하였다. 이는 뒤에서 설명할 의미적 일치로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다. 사동접미사 ‘-오/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칭 활용의 ‘-오/우-’와는 다른 형태소임을 예로 들어 반박하였다.

허웅은 이송녕의 ‘의도’에 대해 “『주관적 의도』란, 문장 구조에 있어서의 통사론적 조건과, 타동사가 가진 의미론적 의미 내용에 함축된 것이지, 삽입 모음 자체의 의미 내용은 아니다”(89쪽)라고 하였고, 인용 표지가 없는 직접인용문의 ‘-오/우-’에 대해서도 화자의 ‘심리적 전환’이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우-’의 공시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허웅은 자신이 취한 ‘-오/우-’의 해명방법은 “의미론적 해명이 불필요”(88쪽)하다고 천명하였으나, 이후 논쟁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여 비판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④ 이송녕은 이 글에서 서법(mood)의 관점에서 ‘-오/우-’는 volitive form이라고 주장하였다. ②이송녕(1959)와 달리 사동접미사 ‘-오/우-’나 어미 ‘-옵/옵’, ‘-오디/우디’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핵심적인 주장은 ‘-리-’에 선행하는 ‘-오/우-’가 화자의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서술한다는 것이다.

이송녕은 많은 예를 들면서, 화자와 관련된 예가 많은 종결형과 연결형의 ‘-오/우-’는 형태론적 범주인 인칭어미로 볼 수 없고, ‘-오/우-’가 ‘-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오/우-’가 들어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단순 미래일 경우에는 ‘-오/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의지나 의도가 관여하는 의미론적 범주, 그중에서도 서법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알타이 제어와 인도유럽어의 서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많이 참고하였다.

그러나 서법이라는 범주에 대한 개념 이해에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들을 의도법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면서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인칭설에 대한 반례를 제시할 때 피인용절에서 1인칭 대명사가 생략된 예나 이중주어의 대주어가 1인칭인 예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나치게 표면 구조의 성분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⑤ 허웅은 이 글에서 ④이송녕(1960)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사동접미사나 ‘-옵/옵’, ‘-오디/우디’에 대한 설명을 포기한 것 외에, ‘-리-’에 선행하는 ‘-오/우-’가 화자의 강한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 점에서 ①허웅(1958)에 접근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오/우-’의 문법적 의미에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허웅은 먼저 알타이어와 관련하여 인칭활용을 부정하는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1인칭을 나타내는 요소가 반드시 대명사여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였다. 그리고 volition이라는 개념으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더-’, ‘-과-:-니-’, ‘-오/우-’와 ‘-시-’의 배타성을 다루었다.¹⁶⁾

허웅의 ④이송녕(1960)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적절하였는데, ‘-오리/우리-’를 설명하면서 그 경우 ‘화자의 의도’를 표시하며 나아가 주어의 인칭과 어긋난 경우에도 화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화용론적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적을 받게 되었다.

16) ‘-과라’가 인칭 활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 논문에서 처음 나온다. 고영근(2005: 229-230)은 1960년대 초에 학부 졸업 논문을 준비하다가 ‘-과라’에 1인칭과 공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허웅에게 제보하였고 한다. 처음에는 이 논문의 각주에 자신의 학부 논문이 발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으나, 지워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⑥ 이송녕은 이 글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용의 견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허용이 처음의 주장에서 태도를 180도 뒤집은 것인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허용은 당위 표현에 자주 쓰이는 ‘-오리/우리-’를 설명하기 위해 화자의 ‘의사’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논쟁의 소재가 된 것이다. 주어, 화자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과 인칭의 개념을 넓게 사용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물론 형태론적 개념임을 천명한 뒤에 화용론적인 설명을 시도한 것은 문제이나, 인칭의 개념은 이송녕이 지나치게 좁게 보았다고 할 수도 있다. 인칭이라는 개념은 문법적인 범주이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주어의 인칭이 서술어에 표시될 때 통사적으로 엄격하게 해당 인칭의 대명사가 있어야만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형식적/통사적 일치 (syntactic agreement/agreement ad formam)라면 후자는 의미적 일치(semantic agreement/agreement ad sensum)라고 할 수 있다(Corbett 1991: 225-226). 인칭과 일치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허용의 견해가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 이송녕이 제기한 반례 또한 앞서 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대상 활용의 예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관계관형절이 아닌 보문 관형절의 예이기 때문이다.

⑦ 허용은 이 글에서 ⑥이송녕(1964)의 논박에 대해 답하였다. 이송녕이 지적한 “長者야 [...] 마로리니 <월인석보 21:111>”와 같은 반례에 대해, 이미 ①허용(1958)에서부터 ‘-리-’와 연결된 ‘-오/우-’가 ‘意思’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때문에 인칭적 용법을 범하는 일이 있다고 밝혔다고 하였다. 또한 이송녕의 ‘의도’는 지나치게 넓게 잡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되는데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오/우-’를 설명하지 못함을 누차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허용은 논문의 말미에서 이송녕에게 7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 가운데 이송녕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설이 성립하려면 ‘-오/우-’가 나타나는 문장에는 화자의 의도가 있다는 적극적인 논증뿐만 아니라 ‘-오/-우-’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의도가 없다는 소극적인 논증 또한 성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송녕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⑧ 이송녕은 이 글이 ⑦허용(1964)에 대한 반박임을 밝히고, 해당 논문에서 자신의 지적을 회피한 것에 대해 실망하여 ⑤허용(1963)의 기본태도가 변모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부하고자 하였다.

첫째, ‘一人稱語尾’가 許雄(1963)에서 ‘人稱語尾’로 바뀐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인칭 주어에도 호응하는 ‘-오/우-’를 설명하기 위해 바꾼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허용이 “長者야 [...] 마로리니 <월인석보 21:111>”와 같은 예에 대해 “意欲이 强하게 作用하는 다른 사람에 關한 일의 敘述로 번져나간 것으로 說明하는 方法”이라고 설명한 것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비판으로 보인다.¹⁷⁾ 다만 허용이 자신의 이론을 끼워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용어를 ‘人稱語尾’로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①허용(1958)에서 철저히 형태론적 태도에 입각하여 ‘-오/우-’를 분석했으면서, ⑤허용(1963)에서는 “主語가 나”라고 하여 화자라는 화용론적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을 비판하였

17) 이 문장은 허용(1975: 775)에서 ‘화자의 의도가 있는 2·3인칭 문장’의 예로 처리되었으나, 바로 뒤에서 ‘오/우+르+이(의존명사)’로 분석하고 ‘(해야) 할 것이라, 할 것이니’로 해석된다고 하였다(허용 1975: 777).

다. 이 또한 적절한 비판이다. 그 가운데 ‘-오/우려’가 인칭적인 용법 없이 의사(의도)만을 나타낸다는 주장의 반례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ㄱ. 이를 득게 호려 하시니 <석보상절 9:15>

ㄴ. 이런 사름돌홀 어드리 濟渡호려뇨 하시니 <석보상절 13:57>

그러나 이 예에서 ㄱ은 ‘ㅎ+오려’로 분석되는 반면, ㄴ은 ‘ㅎ+리+어뇨’로 분석되므로 ‘-오/우-’의 개재 여부만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⑨ 허웅은 이 글에서 ⑧이승녕(1964ㄴ)의 논박에 대해 답하였다. 첫째, 특히 용어를 ‘일인칭 어미’에서 ‘인칭어미’로 바꾸었다는 비판에 대해 전반적으로 ⑦허웅(1964)에서 이미 답한 내용을 밝혔다. 둘째, ⑧이승녕(1964)에서 새롭게 제시한 『두시언해』를 중심으로 한 예문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반박하였다.

첫째와 관련하여, 이승녕은 ⑧에서 ‘인칭어미’라는 용어는 2인칭어미, 3인칭어미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허웅이 1인칭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예를 포괄하기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허웅은 許雄(1963: 243)에서 논문의 ‘人稱語尾’를 ‘一人稱語尾’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다시 거론하며, “‘-오/우-’는 인칭 어미다”라고 하는 말은 “‘-오/우-’는 1인칭/2인칭/3인칭 어미다” 중에서는 첫 번째를 시인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였다.

둘째와 관련하여, 허웅은 이승녕이 제시한 『두시언해』의 열한 개의 예들에 대해 하나하나 문장의 주어(화자)가 두보임을 밝히고 있다.

누른 새는 저기 노로물 任意로 호노라(黃雀任翩翩) <두시언해 20:10b>

이 예에 대해 이승녕은 주어가 ‘누른 새’이므로 1인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허웅은 해당 구절의 주석인 “黃雀은 甫 | 自言如小雀之翩翩也 | 라”를 들어 ‘杜甫 = 黃雀’임을 설명하여 반박하였다. 이것 또한 의미적 일치 예로 볼 수 있다(석주연 2014: 20-21). 전반적으로 이승녕이 제시한 반례들은 인칭 활용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고, 두시(杜詩)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승녕이 주어를 잘못 파악한 것도 적지 않다.

4.2. 해당 논쟁이 남긴 것

오늘날 ‘-오/우-’에 관한 입장은 흔히 통사론적 입장(허웅)과 의미·화용론적 입장(이승녕)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우-’ 연구가 “허웅과 이승녕으로 양분되어 고정된 이론에 ‘-오-’ 연구 모두를 묻어버리고 이 두 설의 대립적이고 불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전정예 엮음 2015: 4)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허웅(1958) 이후 대부분의 ‘-오/우-’에 대한 연구가 두 가지 환경, 즉 인칭 활용과 주체-대상 활용을 나누어서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허웅의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우-’에 대한 허웅-이승녕의 논쟁은 그 이후의 발전적인 연구, 즉 좀 더 정밀하게 ‘-오/우-’의 분포를 살펴보거나 서법적인 범주로 파악하는 견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모든 ‘-오/우-’를 아울러 동질적으로 파악하려는 견해(전정례 1995), ‘-오/우-’의 소멸에 대한 설명(석주

연 2001, 2002, 2004; 정수현 2011) 등 다양한 연구가 나타나는 밑바탕이 되었다. 한편 자토 석독구결 자료가 발굴되면서 백두현(1996, 1997), 정재영(1997) 등 ‘-오/우-’의 기원 및 변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이승녕은 ‘-습-’에 대한 논쟁에서는 객체존대라는 개념의 자의성을 공격했으면서도, ‘-오/우-’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태를 하나의 원리로 ‘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리하게 모든 예를 ‘의도’ 하나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문법 요소에도 얼마든지 다의성이 존재할 수 있고 (박진호 2016), 형식은 동일하지만 기능은 다른 동음이의적 형태들도 있을 수 있다. 이승녕이 ‘-오/우-’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먼저 문헌자료에 드러나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분류하는 정밀한 작업이 선행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논쟁 과정을 살펴보면 ‘의도’라는 설명이 이미 앞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예들을 가져왔다는 인상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허웅 또한 첫 논문에서 주장한 형태론적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고, ‘-오리/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당위]의 예를 인칭법의 예외로 두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화자의 의사(의도)라는 화용론적 개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승녕의 비판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승녕의 견해가 일원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이후의 연구자들의 논저에서도 조심스러운 형태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우-’에 대한 일원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칭 활용 용법과 주체-대상 활용 용법을 연결하려는 시도(박진호 2014), ‘특정화 용법’을 적용하여 ‘-오/우-’의 예외를 설명하려는 시도(가와사키 케이코 2019, 2020)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오/우-’에 대한 연구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논쟁으로부터 ‘-오/우-’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제가 촉발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논쟁이 생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5. 맺음말

이제까지 이승녕과 허웅이라는 두 한국어 연구자의 삶을 간략히 정리하고, 두 사람이 지상 논쟁을 펼친 주제 가운데 선어말어미 ‘-습-’과 ‘-오/우-’에 대해 각 논쟁의 경과와 그것들이 한국어학계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두 사람의 열띤 논쟁으로부터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논쟁에 대한 후학들의 평가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자. 고영근(2005: 226, 228, 229)는 허웅의 국어학 연구 가운데 특히 ‘-습-’과 ‘-오/우-’ 연구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눈되는 [...] 중세어의 이른바 객체존대 ‘-습-’과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을 밝혀 중세어의 문법 연구를 몇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선어말어미 ‘-오-’의 정체성 확인과 기능 구명은 그 접근법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방면 연구의 이정표 노릇을 하리라 믿는다. [...] 이른바 삽입모음 ‘오’와 이른바 객체높임의 ‘습’은 이 승녕 선생과의 논전을 거치는 사이에 보정된 곳이 많다.

김현주(2014), 김태우(2021)와 임동훈(2005), 석주연(2014) 또한 각각 ‘-습-’과 ‘-오/우-’의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허웅(1954)(그리고 안병희(1961))와 허웅(1958), 이송녕(1959)를 비롯한 업적들이 이후 연구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고영근의 평가로부터 다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습-’과 ‘-오/우-’ 연구 모두에서 이송녕보다는 허웅의 주장이 더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형태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상기한 고영근의 지적대로 이송녕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다듬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쟁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다. 필자가 두 가지 논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또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논쟁 이전, 이송녕(1954: 430)에서는 許雄(19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許雄氏는 前述한 國語國文學 No. 1에서 “‘애, 예, 이, 의’의 음가”라는 論文은 짜른 것이라도 물셀 틈 없는 堅固 着實한 資料面의 立脚한 歷史的 研究로서 좋은 論文이라 본다. [...]

이에 대한 답변 겸 질의라고 할 수 있는 許雄(1954: 3)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先生님의, 東方學志 第一輯에 실린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를 읽고, 사려어불 點이 몇가지 있어서, 다시 下教를 받을까 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저의 “「애, 예, 의, 이」의 音價”(國語 國文學 第一號)란 보잘것 없는 小論에 對하여 지나친 讚辭를 주셔서 저로서는 오히려 계면적은 생각을 禁하지 못하겠읍니다. [...]

지면상으로 드러난 표현일 뿐이기는 하나, 두 사람이 선학(先學)과 후학(後學)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이송녕은 ‘-오/우-’에 대해 마지막으로 쓴 논문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이송녕 1964L: 20).

筆者는 「오/우」를 中心으로 以上 깨끗하지 못한 論戰은 中斷하러 하나, 許 雄氏의 無責任한 그리고 擲揄調와 「毒舌云云」에 이르러서 不得已 붓을 다시 든 것이다. 끝으로 한 마디 할 것은 모든 是非의 判定은 學界의 批判에 맡길 따름이다. 無言의 學界도 반드시 是非는 가리고 있다고 믿기로이다.

이 글에 대한 답변으로 쓴 허웅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허웅 1965: 543)

그 밖에, 이 박사의 논고에 담겨 있는 횡설수설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필자는 「Mood론 비판」(한글 133호)에서 전개한 논설을 다시 그대로 되풀이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무의미한 지목의 낭비는 나에겐 허용되지 않기에, 필자는 필자의 이에 대한 답변은 「Mood론 비판」으로 돌리면서 붓을 놓는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붓끝을 이처럼 날이 서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지상에서 열띤 논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쪽보다는,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복(說伏)하겠다, 꺾고야 말겠다는 파괴적인 쪽으로 치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날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적인 논쟁에서도 이러한 파괴적인 태도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허웅-이승녕 논쟁에 관련된 논문은 본문에 소개된 것으로 같음하였다)

- 가와사키 케이고(2019). 「중세한국어 관형사형 ‘-오-’의 ‘특정화 용법’에 대하여. 『형태론』 21-2. 형태론 편집위원회. 321-350.
- 가와사키 케이고(2020). 「중세한국어 관형사형 ‘-오-’의 ‘특정화 용법’에 대하여(II): ‘비특정관형절’의 다양한 용법. 『형태론』 22-1. 형태론 편집위원회. 91-144.
- 고영근(2005). 「눈뵈 선생의 국어학 세계. 한글학회 엮음, 『(눈뵈 허 웅 선생 추모 문집) 눈뵈 허 웅 선생의 삶』. 서울: 한글학회. 224-230.
- 權仁瀚(1997). 「한자음의 변화. 國語史研究會 엮음, 『國語史研究』. 서울: 태학사. 283-344.
- 김동식(1984). 「객체높임법의 ‘습’에 대한 검토. 『冠嶽語文研究』 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1-99.
- 金忠會(1990). 「謙讓法.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 編,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主題別 國語學 研究史』. 서울: 東亞出版社. 409-434.
- 김태우(2018). 「{-습-}의 기능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우(2021). 「{-습-}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글』 82-4. 한글학회. 891-959.
- 김현권(2005). 「허웅 선생의 학문과 일반언어학 이론. 김차균 외, 『허웅 선생의 우리말 연구』. 서울: 태학사. 37-61.
- 김현주(2014). 「선어말어미 {-습-}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65-99.
- 박진호(2014). 「“선어말어미 ‘오’의 연구 성과와 쟁점”에 대한 토론. 『2014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3-76.
- 박진호(2016). 「單義(monosemy)와 多義(polysemy): 문법화와 유형론의 관점에서. 윤희현 선생 정년퇴임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국어의미론의 심화』(국어의미론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2). 역락. 189-217.
- 백두현(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ㄴ(오)-’의 분포와 문법 기능. 『어문론총』 30. 경북어문학회. 93-136.
- 백두현(1997).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ㄴ-’에 대한 통사적 고찰.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 석주연(2001).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중세국어 관형사형의 ‘-오-’ 소멸. 『형태론』 3-1. 서울: 박이정.
- 석주연(2002). 「중세국어 인용문과 선어말어미 ‘오’. 『형태론』 4-1. 형태론 편집위원회.
- 석주연(2004). 「서술의 시점과 국어 문법 현상의 이해. 『國語學』 43. 국어학회.
- 석주연(2014). 「선어말어미 ‘-오-’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7-29.
- 석주연(2015). 「중세 국어 관형사형의 ‘-오-’와 古代 漢語 ‘所’와의 상관성 연구: 유형론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371-396.
- 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2011). 『心岳李崇寧全集 15』. 파주: 한국학술정보.
- 安秉禧(1982). 「中世國語의 謙讓法 研究에 대한 反省. 『國語學』 11. 국어학회. 1-23.
- 양정호(2003). 『동명사 구성의 ‘-오-’ 연구』. 태학사.
- 윤진영(2013). 「후기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오/우-’에 관한 연구의 성과와 한계.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근(2008). 「李崇寧 선생의 삶과 사상 그리고 학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李崇寧 現代國語學의 開拓者』. 파주: 태학사. 17-68.
- 李崇寧(1954).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 的 發達에 對하여. 『東方學志』 1.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333-432.
- 李崇寧(1961/1981). 『(改訂增補版) 中世國語文法』(大學叢書 I). 서울: 乙酉文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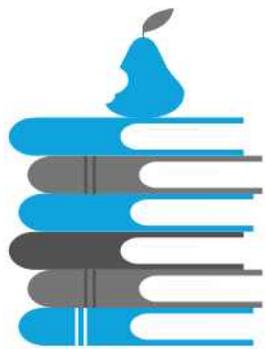
- 李崇寧(1983). 「나의 研究生生活」. 『나의 걸어온 길: 學術院 元老會員 回顧錄』. 대한민국학술원. 443-493.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서울: 新丘文化社.
- 임동훈(2005). 「'-오-' 논의의 쟁점들」. 임흥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서울: 태학사. 641-669.
- 전정례(1992). 「주체·대상법으로서의 '-오-'에 대한 再考察」. 『國語學』 22. 국어학회. 325-340.
- 전정례(1995). 『새로운 '-오-'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전정예 엮음(2015). 『선어말어미 '-오-' 연구론』. 서울: 박이정.
- 정수현(2011).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과 변천: 명사성의 약화와 그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준(2015). 「선어말어미 '-오-' 연구사」. 전정예 엮음, 『선어말어미 '-오-' 연구론』. 서울: 박이정. 11-38.
- 鄭在永(1997). 「'-오-'의 변화」. 國語史研究會 엮음, 『國語史研究』. 서울: 태학사. 601-643.
- 趙潤濟(1964). 『陶南雜識』. 서울: 乙酉文化社.
- 최대희(2022). 「중세국어 '-오-'에 대한 쟁점 고찰」. 『백록어문교육』 29. 백록어문교육학회. 39-66.
- 한글학회 엮음(2005). 『(눈뫼 허 응 선생 추모 문집) 눈뫼 허 응 선생의 삶』. 서울: 한글학회.
- 韓在永(1990). 「先語末語尾 -오/우-」.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 編,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主 題別 國語學 研究史』. 서울: 東亞出版社. 435-441.
- 許雄(1952). 「「에 애 외 이」의 音價」. 『國語國文學』 1. 국어국문학회. 5-8.
- 許雄(1954). 「東方學志(第一輯)를 읽고 李崇寧先生님께 사림」. 『국어국문학』 12. 국어국문학회. 3-4.
- 許雄(1963). 『中世 國語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 허웅(1973). 「15세기 국어의 주체-대상 활용」. 『한글』 152. 한글학회.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 Corbett, Greville(1991). Gender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 京城帝國大學.
- 小倉進平(1938). 「朝鮮語に於ける謙讓法·尊敬法の助動詞」. 東京: 東洋文庫.

▣ 토론

“이승녕-허웅의 두 가지 논쟁이 남긴 것”에 대한 토론문

김태우(부산대)

※ 별 지



제4부 제1 발표장

한국어교육

 KOREAN LANGUAGE
RESEARCH CIRCLE
한말연구학회

제안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양태영(성균관대)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본 연구는 제안텍스트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¹⁾ 이는 공학계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외국인 대학생의 쓰기 교육에 필요한 기초 정보이다.

제안텍스트는 공학계열에서 전공 과목에서 실험할 때 쓰는 경우가 많고, 졸업 후에도 실무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대외활동인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²⁾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에 좋은 교수-학습 자료이다.

대학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의 전문 담화 집단(academic discourse community)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 텍스트 생산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학에서는 쓰기 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전공 계열에 따른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계열별 글쓰기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공학계열 대학생의 글쓰기 교양 수업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학교육 인증제도(ABEEK, Accreditation Board of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³⁾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희모(2005:115), 권성규(2015:271) 등의 지적과 같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글쓰기 유형이나 지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⁴⁾ 외

1) 프로젝트 제안서, 제안문 등 다양한 용어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제안텍스트로 지시한다.

2)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4)에서 2024년 대학생 대외활동 참여실태 및 인식조사를 위하여 <링크리어> 홈페이지에서 업로드된 공모전 공고와 2024년 2월 19~29세 남녀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은 1인 평균 1.78회 대외활동에 참여하며, 인문 계열 44.6%, 자연·공학 42.7%, 예체능 49.1%의 참여율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3,477회 공모전이 있었으며, 이중 공모전 1인 평균 참여율 1.76회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운영된 공모전 'UCC영상, 사진 (24.2%, 마케팅, 아이디어 18.8%, 디자인·건축 14.1%, 문학·수기 13.9%, IT·기술·빅데이터 8.3%, 논문·정책방안 5.6%, 네이밍·슬로건 4%)로 나타났으며 공모전 운영 주체는 정부/공공기관 19.5%, 지방자치단체 18.6%, 재단/협회 17.2%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3) 공학교육인증제도는 한국에서 2001년부터 시행되어 대학의 공학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28개 대학이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받았다.(<https://www.abeek.or.kr/program/total>)

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쓰기 교육에 필요한 언어적 정보는 더욱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텍스트를 텍스트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내용과 형식, 구조를 분석하여 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기초 정보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제안텍스트

제안텍스트는 공학계열 글쓰기 교육에서 자주 활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⁵⁾의 ‘제안서’ 정의에 의하면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제안하는 문서’로, 필자의 의견으로 설득하기 위해 쓴 목적이 분명한 글이다. 공학계열의 글쓰기 교재인 신형기 외(2006:191)에서는 ‘제안서’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문서라고 하면서 서두, 본문, 부록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에스폼 서식사전⁶⁾에서는 제안텍스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료 (1) 제안텍스트의 개념

- ㄱ. 발주사와 제안사의 일치된 의견 형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문서
- ㄴ. 고객사의 발전 모델 및 미래 모델을 제시할 때 활용되는 문서
- ㄷ. 진행 중인 사업의 실현을 위한 기획서 또는 계획서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문서

공학계열 대학생을 위한 제안텍스트 연구로 김인경(2010), 조희정 외(2011), 이희영(2016), 김혜경 외(2016) 등이 있다. 김인경(2010)에서는 공학계열 글쓰기 상담 연구에서 제안텍스트는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고 귀 기울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쓰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팀 프로젝트로 글쓰기 과정에서 상담의 성격과 방향을 소개하였다.

조희정 외(2011)에서도 쓰기 상담 연구에서 제안텍스트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향후 결과물에 대한 가정을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한 글로 ‘1. 프로젝트 수행 목적 2. 프로젝트의 개요 3. 프로젝트 수행 추진 체계 및 일정 4. 참고 자료’ 등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희영(2016:66)은 제안서텍스트는 연구 대상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 공학계열에서 학문적 글쓰기와 현장 글쓰기(workplace writing)의 교량이 되는 글쓰기라고 하면서 제안텍스트 쓰기 교육을 위하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아이디어 생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혜경(2016)에서는 제안텍스트 작성을 위하여 아이디어 구성 전략으로 영화를 활용하여 ‘배경/필요성, 목적/목표, 제안범위, 수단/방법, 일정, 조직/인력’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4) 권성규(2015)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과대학 학생들(19,000여명)의 40.2%가 “ 쓰기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이 빈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술 텍스트’에서 ‘학습자가 익혀야 할 지식’을 도출해 내어, ‘지식과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korean.go.kr)

6) 네이버 지식사전, 에스폼 서식사전, ‘제안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1064&cid=42279&categoryId=42279>

앞선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안텍스트의 개념은 실무 현장에서 제안서와 대학에서 제안서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을 목표로 하며, 필자가 주제에 맞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독자에게 제안하여 승인과 지원을 요청하는 텍스트로 본다. 지금까지 앞선 연구자들의 제안텍스트에 대한 구조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안텍스트의 구조 정보>

신형기 외 (2006)	Johnson-Sheehan (2010, 2015)	조희정 외 (2011)	이희영 (2016)
1. 서두 1) 제출문 2) 표제지 3) 요약 4) 차례 5) 도표 목록	1. 서문(Front Matter) 2. 소개(Introduction) 3. 현재 상황(Current Situation) 3. 프로젝트 계획 (Project Plan) 4. 자격 (Qualifications) 5. 비용 및 기대효과 (Costs and Benefits) 6. 결론 (Concluding)	1. 프로젝트 수행 목적 2. 프로젝트의 개요 3. 프로젝트 수행 추진 체계 및 일정 4. 참고 자료	① 연구 대상의 명시 ② 연구 목적(연구 시작의 동기) ③ 예상 수요자와 수요자의 요구(Needs) ④ 연구의 긍정적 영향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 ⑤ 유사 제품의 검토
2. 본문 1) 서론 2) 과제의 배경 3) 과제 수행 방법 4) 결론 5) 인력 6) 예산			
3. 부록 1) 참고문헌 2) 세부사항 첨부			

신형기 외(2006)와 Sheehan(2010;2015)에서는 제안텍스트에 프로젝트 일정이나 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형기 외(2006)에서는 서론과 부록은 서류에 첨부하는 것이고 본문에서 구성을 정리하였다. Sheehan(2010;2015:197)에서는 제안서 구성의 기본 모델(Basic Model for Organizing a proposal)을 제시하면서 목적, 맥락, 독자, 주제에 맞게 이 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희정 외(2011)와 이희영(2016)에서는 글쓰기 교육을 위하여 제안텍스트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조희정 외(2011)에서는 프로젝트형 수행에 대해서 주로 필요성과 진행 방식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이희영(2016)에서는 연구에 대한 목적과 영향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앞선 연구에서는 글쓰기 과정에 필요한 교수법이나 아이디어 생성 전략에 치중하여 제안텍스트의 구조가 각기 다르고, 텍스트 자체의 구조, 특징, 형식 등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권성규(2015:285)에서도 공학계열 대학생은 제안텍스트나 보고서를 쓸 때 글쓰기의 수사적 상황이나 텍스트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용을 알아도 글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⁷⁾ 게다가 외국인 대학생이라면 글쓰기 교육에서는 어휘와 문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어학적 정보가 더 필요하다.

제안텍스트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그 승인과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짧은 분량으로 평가자의 심사로 채택되기 때문에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이

7) 한하림(2021)에서는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 50명에게 공학 글쓰기 교과목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한국어 사용,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영역 중 한국어 사용 요인이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고, 글쓰기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문장 구성을 위해 적절한 어휘, 문법 선택하기’나, ‘주장 펼치기, 원인 분석하기, 보고하기와 관련된 적절한 한국어 문법 사용하기’가 글쓰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서론 본문, 결론의 논리적인 순서나 인용 방식보다 평가자에게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게다가 제안텍스트의 형식이 다양하여 주제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해도 완성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자도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텍스트 코퍼스를 찾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실제 제안텍스트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모전에 제출한 수상작을 수집하여 구조, 화제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텍스트 분석에 대한 연구

Halliday & Hasan(1976)에서는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집합이나 문장의 연속체 이상의 의미 단위로써 특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프라그 학파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대상이며 새로운 정보를 의미하는, 화제(topic)의 개념이 등장한다.

Hunt(1965)는 텍스트를 문장이 아닌 의미 단위로 쪼개는 개념으로, 문장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어+서술어’를 최소 종결단위(minimal terminal unit: T-unit)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면서 영어 교육의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Lautamatti(1978), Witte(1983)에서는 텍스트 내용이 연결되는 화제 구조(topical structure)를 분석하여, 필자가 ‘무엇’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가를 ‘화제 깊이(topical depth)’ 구조로 도식화하였다. 이때 화제 진행 유형(topical progression type)의 차이가 텍스트의 질적 수준(text quality)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Mathison & Spivey(1983)에서 화제가 모인 내용 단위 묶음을 화제 덩이(topical chunks)라고 하는데, ‘화제 덩이의 수/내용 단위의 수’를 ‘조직 긴밀도’라고 하면서,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 응집성 있어서 텍스트 질적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안텍스트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앞선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유사한 연구 방법으로 대학생의 텍스트를 분석한 선행 연구로 정희모 외(2008), 이윤빈(2014), 양태영(2018, 2022, 2024) 등이 있다. 정희모 외(2008:399)에서는 대학생 59명의 글을 문장 길이, T-unit(의미를 이루는 최소 단위) 수⁸⁾, 응집성 요소의 수, 문장에서 나타나는 화제의 수 등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는 텍스트의 길이나 배열 유형보다 화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어떻게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 낼 수 있는지가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이윤빈(2014)에서는 전문가와 대학생 필자의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텍스트를 화제 구조 분석(TSA: Topical Structure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 전달과 설득 텍스트는 필자 수준이 높을수록 화제에 초점화된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여 조직이 긴밀했고, 정서표현 텍스트는 풍부한 수사적 전략으로 인해 전문가의 글이 가장 긴밀하지 않아서,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조직 긴밀도 수치가 질적 수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양태영(2018)은 필자 수준에 따른 화제 유형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한국인 대학생 보고서 대회 수상자와 동대학 신입생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화제를 TSA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제에 대한 신정보’, ‘주제에 대한 구정보’, ‘주제에 대한 구체화 정보’, ‘주제에 대한

8) T-unit의 개념은 K.W. Hunt(1965)가 학생들의 문법적 구조를 연구한 논문에서 문장 대신에 의미의 최소 단위로 제안한 개념으로, 영어에서 화제는 주어로 나타나고 종속절이나 삽입절이 내포된 주절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학생의 글에 응집성 지표가 많으면 좋은 글로 평가한다. 하지만 한국어는 문장, 절의 길이만으로 텍스트의 성숙도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단락은 화제를 중심으로 뒷받침 문장이 나열되거나 종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제는 문장이 될 수도 종속절이 될 수도 있다.

주관적 정보'의 네 가지 화제 유형이 나타나는데, 능숙한 필자인 수상자는 정보를 근거로 활용하여 필자의 관점에서 도출한 화제를 제시하는데 신입생은 단순히 정보를 제시하거나 경험이나 의견 같은 주관적 정보를 더 활용한다고 하였다. 양태영(2022)에서는 외국인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보고서 서론을 분석하여 외국 대학생은 배경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고 한국인은 연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SA와 다양한 분석 방법 활용하여 제안텍스트의 화제와 화제 구조, 화제 깊이를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제안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포함하여 일반인도 제출할 수 있는 공학계열 관련 공모전의 수상작을 수집하여 전처리가 가능한 텍스트 자료를 선별하고⁹⁾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연구 대상 자료는 총 35편, 35,646어절로 출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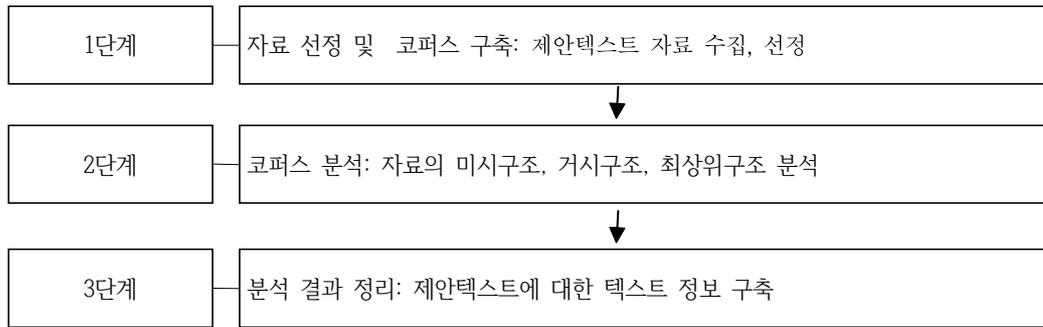
<표 2: 연구 대상>

	공모전 명칭	주최	관련 홈페이지	자료 수	음절 수	기타
1	국민참여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pi.or.kr/	9	4,688	지정형식
2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https://idea.aurum.re.kr/	6	23,179	자유형식
3	2023 공공분야 초거대 AI 활용사례·아이디어 공모전	공공지능정책과	https://mois.go.kr/	6	6,465	지정형식
4	함께 만드는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2023년 국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산청군	https://sotong.go.kr/	3	1704	지정형식
5	제3회 강서구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강서구청	https://sotong.go.kr/front/	5	4071	지정형식
6	2023 엔지니어링산업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공제조합	https://www.egic.co.kr/e/hp/association/	5	3241	지정형식
계				29	43,348	

9) 대학내일20대 연구소(2024)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운영된 공모전 유형은 UCC영상(24.2%)과 사진(21.2%), 마케팅(18.8%), 아이디어(17.6%), 문학(13.9%), 수기(16.7%), 디자인(14.15), 건축(14.9%), IT기술(8.3%), 빅데이터(8.3%), 논문(5.6%), 정책(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3.2. 연구 방법

제안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형식, 내용, 장르적인 특징 등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특징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제안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최대한 파악하기 위하여 미시구조(micro-structure), 거시구조(macro-structure), 최상위구조(top-level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미시구조에서는 어절과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 거시구조에서는 단락 단위의 화제와 내용을, 최상위구조에서는 전체 형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도식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3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식 1> 연구 절차

위의 [도식 1]과 같이 텍스트의 화제를 분석하고 태깅 작업을 하였다. 텍스트는 T-unit 단위로 분석하였는데, 하나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화제를 의미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화제(t)를 구성하고,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서 화제의 깊이로 연결되어 화제 덩이를 구성하고(T), 화제 덩이가 주제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연결되어 단락을 구성하고, 화제덩이와 단락이 모여서 더 큰 의미적 단락(TT)을 구성한다. 코퍼스는 전처리된 거처서 화제 단위로 분석하고 태깅한다.

자료 분석 과정을 <2-3>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¹⁰⁾ 전체 자료 중 제시가 많이 나타나는 일부분만을 제시하였다.

[자료 2-3] 'Noise Cancelling'을 건축에 활용하다.

공동주택의 **충간소음**은 이제 이웃 간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올해 초 소음의 기준을 주간 43dB에서 39dB로, 야간 38dB에서 34dB로 강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의 제한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히려 분쟁이 늘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충견소음', '휴대전화로 인한 소음' 등 충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현재 충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한 기발한 '복수' 비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명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소기를 천장에 매달아 켜 두거나 휴대전화에 시끄러운 음악을 넣어 화장실 환풍구에 대고 트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충간소음 종결자'로 불리는 '보복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적용할 기술들은 개발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방안이 필요하다.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사용되고 있는 소리 차단 기술인 노이즈 캔슬링(Noise Canceling)을 건축적으로 활용해볼까?

10) 자료는 원문을 그대로 분석하였다.

노이즈 캔슬링(Noise Canceling) 기술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건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방향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노이즈 캔슬링이란 기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창호, 바닥, 천장, 벽으로 나누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위의 자료<2-3>의 화제를 분석하여 구조화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자료 2-2	화제 덩이	문장	화제 깊이(depth)				화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TT1 문제 상황 제시	T1 [문제상황]	1	공동주택 소음 문제[문제점]				t1
		2	소음 기준 강화[현황]				t2
			└─ 일상의 불편 초래 [문제점]				t3
	T2 [문제제기]	3	문제 해결[문제해결 필요성]				t4
	T3 [문제상황]	4	층간 소음 복수 비법 [문제점]				t5
		5	└─ 「청소기[예시]				t6
			└─ 환풍구소음[예시]				t7
			└─ 보복스피커[예시]				t8
TT2 해결 방안 아이디어 제시	T4 [문제 해결의 필요성]	6	신축 아파트 기술 개발[현황]				t9
		└─ 건축 후 적용 방안필요[문제해결의 필요성]				t10	
	T5 [해결 방안 제시]	7	노이즈 캔슬링 활용 [아이디어 제안]				t11
		8	└─ 노이즈 캔슬링의 건축 활용 [기술 현황]				t12
		9	└─ 방향 수정[연구동기]				t13
	T6 [아이디어 제시]	10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기타]				t14
└─ 종합적으로 제안 [아이디어 제시]						t15	

<도식 2: 자료 2-3의 화제 구조>

<자료 2-3>은 세 단락이고 의미 덩이는 둘로 구분되며 10문장, 15개의 화제가 나타났다. <도식 2>에서 정리한 화제를 살펴보면, t1은 한 문장이 하나의 화제이고, t2, t3의 두 개의 화제가 모여서 2번 문장을 구성하며, 문장 1, 2가 모여서 T1 문제 상황이라는 화제 덩이를 구성한다. 그리고 T1, T2, T3가 모여서 더 큰 덩이 TT1에서 [문제상황]이라는 의미를 제시한다.

TT1과 TT2로 구분된 화제에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하면서 문제 상황 제시로 시작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TT2에서 형식 단락이 의미 단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분석 결과

4.1. 거시 구조 분석

구축한 자료의 화제와 내용 분석에 참조하기 위하여 공모전의 거시구조를 분석하였다.¹¹⁾ 자료가 6종이기 때문에 형식만 수집된 공모전 12편, 총 15편의 제안텍스트의 소재목을 중심으로 지정형식과 자유형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거시 구조 분석 결과>

지정 형식 편 수(백분율(%))	내용 구분	자유 형식 편 수(백분율(%))
13(86.7%)	기대효과	3
9(60.0%)	방법/ 방안(제작방법, 실행방법, 혁신방안, 활용방안.)	
8(53.3%)	내용(제안 내용, 선정 내용)	5
7(46.7%)	개요	
5(33.3%)	배경(추천배경, 제안 배경, 필요성)	2
3(20.0%)	목적	
3(20.0%)	현황 및 문제점	3
2(13.3%)	필요성	1
2(13.3%)	예산 및 자원(지원 금액 집행 내역)	
1(6.7%)	활용 정보	
1(6.7%)	관련 근거	
	한계점	1
	기능 및 디자인	1
	정리 및 요약	3
총 15편		분석중 추가 예정

지정된 형식의 공모전을 분석한 결과 기대 효과가 13편(86.7%), 방법/방안이 9편(60%), 제안 내용이 8편(53.5%), 개요가 7편(46.7%) 나타났다. 필요성과 예산 관련 내용은 각 13.3%로 나타났다.¹²⁾

위의 자료 제안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서두와 본문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서두는 개요가 가장 먼저 나타났고, 배경, 목적, 현황이, 본문에 기대효과, 방법/방안, 내용 등이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도식 3>과 같다.

11) 앞서 자료 <2-3>의 ‘TT’ 단위로 화제가 더 큰 화제를 구성한 구조이다.

12) 공학계열 글쓰기 교재에서는 기획하는 텍스트와 제안하는 텍스트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 방법을 소개하는데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획텍스트이고, 아이디어를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제안텍스트라는 차이를 알 수 있다.



<도식 3: 서두와 본문의 내용 구성 비교>

<도식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제안텍스트는 서두와 본문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두는 개요, (연구)배경, 방법, 목적 등의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본문에는 기대효과, 방법/방안, 내용이 주로 나타났다.¹³⁾ 대학의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가장 많이 가르치는 보고텍스트는 서론, 본문, 결론의 3단 구성인데, 제안텍스트는 서두와 본문으로 2단 구성으로 나타났다.

4.2. 형식 요소 분석

<표 4: 분석 자료¹⁴⁾>

구분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4	자료 5	자료 6
형식과 문장		지정 형식 개조식	자유 형식 서술식	지정 형식 개조식	분석중	분석중	분석중
텍스트 분석	편 수	9	5	6			
	총 음절 수	4,688	23,179	6465			
	총 어휘 수	1687	5049	2095			
	총 문장 수	77	280	119			
	총 단락 수	27	35	28			
	편 당 어휘 수	187.4	1009.8	349.2			
	편 당 문장 수 평균	8.5	56	19.8			
	편 당 단락 수 평균	3	7	9.3			
문장 당 음절 수 평균	60.9	82.8	54.3				
화제 분석	총 화제 수	110	378	159			
	총 화제 덩이 수	27	90	41			
	평균 화제 수	12.2	75.6	26.5			

13)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구조는 서론, 본문, 결론의 3단 구성인데, 제안텍스트는 서두와 본문으로 2단 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자료 비교를 위해서 개조식은 “- , .” 등의 기호를 중심으로 문장으로 분석하였고 단락은 소제목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도표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여러 개의 그림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면 1개로 분석하였다.

	평균 화제 덩이 수	3	18	6.8			
수치 분석	어휘 덩이 수/화제 수	62.5	56.1	51.1			
	음절 수/화제 수	42.62	61.32	40.66			
	화제 덩이 수/화제 수	4.07	4.2	3.87			
	화제 덩이 수/문장 수	0.35	0.32	0.34			
	화제 덩이 수/단락 수	1	2.6	1.5			

(현재까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정 형식은 형식의 제한으로 평균 어휘 수와 문장 수가 자유 형식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한 화제를 이루는 화제 덩이의 수도 자유 형식에 비하여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양태영(2024)에서 외국인 대학생의 보고텍스트 96편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어휘 수/화제 덩이 수’가 평균 23.5인데 제안텍스트는 56.57로 하나의 화제 덩이를 구성하는 단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고텍스트의 한 문장 평균 음절 수는 58.6인데, 제안텍스트는 66으로 긴 문장으로 썼고, 보고텍스트의 ‘음절 수/ 화제 수’는 31.56, 제안텍스트는 48.20으로 하나의 화제를 구성하는 음절이 더 많고, 조직긴밀도는 보고텍스트는 평균 0.73인데 제안텍스트는 0.33으로 더 긴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제안텍스트의 구성 요소와 의미 단위

제안텍스트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의미 단위를 화제로 분석하였다. 제안텍스트는 개조식과 같이 종결어미가 없는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 단위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에 적합했다.

<표 5: 화제 분석>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4	자료 5	자료 6
방법	26	49	44	분석중	분석중	분석중
효과	18	48	44			
현황	18	60	14			
아이디어제시	16	36	7			
기존의 문제점	2	28	17			
필요성	13	22	4			
그림	-	18	5			
개인적의견	-	20	1			
가정	-	18	-			
예상	-	17	-			
그림 설명	-	17	-			
강조	-	15	-			
(프로젝트, 정책) 대상	14	-	-			
예시	1	-	13			
설명	-	9	-			
연구동기	-	8	-			

개인 경험	-	3	-		
(프로젝트)한 계점	-	3	3		
도식	-	-	5		
해결방안	-	3	-		
내용요약제시	-	2	-		
명언 인용	-	1	-		
문제 원인	-	1	-		
예산	-	-	2		
	88	378	159		

(현재까지) 화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방안,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아이디어나 방법을 제시하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기존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공 지능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가정과 예상이 높게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도식과 그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4.4. 제안텍스트의 화제 서술 방식

제안텍스트는 개조식과 자유형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화제를 서술하는 표현을 지정형과 자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6: 화제별 표현 분석>

화제 구분	지정형	자유형
방법	제공, 지원/ -을 유도 장려, 표시 시스템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	-(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설치하다/ 의 역할을 한다 / -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도입하여야 한다
효과	-을 통한 -예방/ 통해 -에 기여 가능성 확대/ 편하게 정보를 확득할 수 있도록 함 수 있도록 도움/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정기적으로/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 있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점도 있다 크게 개선된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을/를 확보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수월해 질 것이다/ -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금 이나마 높일 수 있다
현황	증가함/ 증가 추세이며 나타 남(나타났음) -로 확인됨 상황인 반면에 - 상황도 함 께 발생	최근 -일어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에 따르면 -다고 한다 /을/를 기록했다 -한 사례가 있다/ 사용하고 있다 -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를 보며 -는 것 을 알 수 있다. 수집할 수 있다/ 에 명시되어 있다
아이디어 제시	제안, 제공	아이디어로 제시한다/ 가능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 /기술'을 제시하는 바다/ 제안하고자 한다 을/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한다
문제점	활용에 애로가 큼 이들 - 데에 많은 노력이 필	다양한 피해가 발생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 /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누락하기 쉬움 <문제점> 업무 비효율과 추가 비용 발생 / 비효율 편차는 더욱 심화 법규 미준수 및 위반 등 행정적 오류·사고 발생 가능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어 문제가 된다/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한계가 있다. / -과 불편을 초래하고 /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방법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 는 것이 쉽지 않다. /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요성	참여를 유도 이/가 시급하다 - 필요/ (인식 제고/시스템 구축) -에 따라 ~ 필요	하는 -이/가 필요하다/ 필요한 상황이다. 필수로 존재해야 한다/ -하는 -이/가 필요할 것이다/ -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방안이 필요하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장 당 음절 수 평균은 앞서 <표1>의 분석 결과와 같이, 지정 형식은 57.6, 자유형은 82.8로 개조식 문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축약형을 더 많이 사용하여 자주 활용하는 표현이 자유형과 차이가 나타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안텍스트의 언어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텍스트 수상작 중 총 35편, 35,646어절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문장의 길이, 화제, 화제 구조, 화제 전개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제안텍스트를 대상으로 쓰기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rean.go.kr>.
- 권성규(2015), 공학글쓰기 이해, 교양교육연구 9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69-308.
- 김인경(2010), 이공계 대학생 글쓰기 상담 연구: 제안서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3호, 돈암어문학회, 295-320.
- 김혜경, 김차중(2016), SF영화를 활용한 이공계 제안서 쓰기 지도 사례: 창의적인 아이디어 탐색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5권 3호,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73-96.
- 네이버 지식사전, 예스폼 서식사전, '제안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1064&cid=42279&categoryId=42279>.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4), 2024 대학생 대외활동 참여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리포트 2024-01, <https://www.20slab.org/Archives/38662>.
- 신형기, 정희모, 김성수, 이재성, 유현재, 김현주, 한경희, 박권수, 박진영, 2006,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글쓰기, 사이언스북스.
- 양태영(2018), 대학생의 보고텍스트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위한 텍스트 분석, 리터러시연구 9(2), 한국 리터러시학회, 365-406.
- 양태영(2022), 보고텍스트 서론의 화제 구조 분석: 외국인 대학생의 자기 주도 고쳐쓰기 활동을 위한. 리

- 터러시연구 46. 한국리터러시학회, 243-280.
- 이윤빈(2014),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른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9권 3호, 국어교육학회, 269-301.
- 이희영(2016),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공학 제안서 쓰기 교육 방안, 작문연구 제28집, 한국작문학회 65-92.
- 정희모(2005),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호, 한국작문학회, 111-136.
- 정희모, 김성희(2008), 대학생 글쓰기의 텍스트 비교 분석 연구: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2,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393-426.
- 조희정, 이희영(2011), 공과대학 프로젝트형 글쓰기 상담 연구: 제안서와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41집, 국어교육학회, 613-642.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s://www.abeek.or.kr/program/total>.
- 한하림(2021),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공학 글쓰기> 교과목 개발을 위한 시론, 교양 교육 연구 15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85-99.
- Halliday M.A.K. & R.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Kellogg W. Hunt(1965), Grammatical structures written at three grade levels, champaign. http://babel.ling.upenn.edu/papers/faculty/beatrice_santorini/hunt-1965.pdf(2021.10.25).
- Lautamatti, L.(1978), "Observa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topic in simplified discourse," In U. Connor & R. B. Kaplan(Eds.), *Writing across languages: Analysis of L2 text*(92-126), Reading, MA: Addison-Wesley.
- Mathison, M. A. & Spivey, N. N.(1993), "Writing from Academic Sources-Authorship in Writing the Critique," *Project 9(Study 2, Phase 1). Final Report*, Center for the Study of Writing and Literac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nd Carnegie Mellon.
- Richard Johnson-Sheehan(2010;2015), *Technical Communication Today*, Perlego.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pi.or.kr/>
-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https://idea.aurum.re.kr/>
- 공공지능정책과, <https://mois.go.kr/>
- 산청군, <https://sotong.go.kr/>
- 강서구청, <https://sotong.go.kr/front/>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공제조합, <https://www.egic.co.kr/e/hp/association/>

■ 토 론

“제안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에 대한 토론문

권현숙(경희대)

국내 대학의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의 학생은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필수 및 선택, 혹은 전공 수업의 형태로 이공계열 글쓰기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 기관에 따라 글쓰기 교육과정이 2학기, 2과목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이 기초과정부터 심화(실용)과정까지 수강하게 됩니다. 이때 한 학기는 보통 기초글쓰기로 구성되고, 다음 학기는 실용글쓰기나 학문목적 글쓰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문목적 글쓰기 과정에서는 전공 분야별로 필요한 텍스트를 읽고, 실제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본 연구는 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의 쓰기 교육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안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전공 분야의 전문 담화 집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텍스트 생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안텍스트를 언어학적 방법으로 내용과 형식, 구조를 분석하여 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기초 정보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공학계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필수인 글쓰기 교과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지도하는데 기초자료로써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고의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한 제안텍스트 분석 결과에 대한 것과 공학계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와 요소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본고의 연구 대상을 공학계열 관련 공모전 수상작을 수집하여 자료로 정하셨는데, <표 2>에 제시된 6개의 공모전으로 제한, 선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토론자의 소견으로는 공학계열 관련 공모전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모전이 다수라면 그중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는 공모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 본 연구에서 TSA와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제안텍스트의 화제와 화제 구조, 화제 깊이를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분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4. 분석 결과에서 4.1. 거시 구조 분석’의 내용에 “수집된 공모전 12편, 총 15편 제안텍스트의 소재목을 중심으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3편은 무엇인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 결론’에서 “제안텍스트 총 35편”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나

머지 20편은 현재 분석 중이시고 추후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4. 본고의 분석 결과 중 ‘4.3. 제안텍스트의 화제 서술 방식’의 내용 중 “<표 1>의 분석 결과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 3>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지정 형식이 자주 활용하는 표현이 자유형과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공모전 제안텍스트는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문법 포함)이 일정 부분은 정해져 있고, 텍스트 작성에서 볼 수 있는 형식 또한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정 형식보다 자유형이 문장 당 음절 수 평균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이 부분의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공별, 장르별 글쓰기 자료, 교수-학습 모형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학 기초교양 한국어 글쓰기 교재 개발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2023)을 중심으로-

최수진(건국대)

< 차 례 >

1. 서론
 2. 교재 전체 구성
 3. 교재 단원 구성의 실제
 4. 학습자의 교재 평가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기초교양인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교과목의 수업용 주교재인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¹⁾의 구성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수강생의 교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이나 교재 집필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3년 8월, 대한민국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폭 늘리기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국내 대학에 입학한 후에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주된 기조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선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국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업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집필자도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관련 교재를 활발하게 출판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일 필요하면서도,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 관련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²⁾.

1)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년 동안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기초교양 교과목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을 집필하였다. 다수의 분반이 운영되고 있는 기초교양 필수 교과목의 경우, 공통 주교재 사용과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학습자의 학업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표준 강의계획서 사용으로 모든 분반이 같은 강의 목표(강의계획서의 핵심 역량, 역량 기반 교육 목표)하에 같은 주교재로 매주 같은 강의 내용으로 수업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대학 수업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험 문제 유형,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과제 주제, 제출 횟수)은 각 교수자 재량으로 한다.

2)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영미(2023)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력학습 기반의 글쓰기 교육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언어 교육의 핵심 3가지 요소로 교사, 학습자, 교재를 꼽는다. 이중 교재는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할 내용을 제공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언어 교육에서 잘 만들어진 교재가 교육의 성패에 영향을 끼치기에 교재는 체계적이어야 한다. 구성이 잘 된 교재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글쓰기 교수-학습 능력을 키워 준다. 이에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용 주교재로 워크북을 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중급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과 특징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³⁾ 정도의 중급 한국어 실력 이상을 갖춘 대학 신입생을 위한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교재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한국어 기초 글쓰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글쓰기 역량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교재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이에 글쓰기 이론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글쓰기의 전 과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대학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학술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수자의 첨삭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동료와의 합평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보고서를 스스로 수정해 갈 수 있는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였다.

수업용 주교재는 수업을 전제로 하고 수업의 양에 맞추어야 하기에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과는 지나치게 분량이 많은 데 반해 다른 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면 일관성이 없을 것이다. 이에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은 15주 기준 대학 수업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부, 총 12개 과로 구성하였다. 한 과는 주당 75분씩 2차시, 150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을 개발 과정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교재 집필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설계 절차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교재에서 실현되는 단원 구성의 실재를 보인다. 4장에서는 2023년 9월에 출판한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을 2023년 2학기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업 총 4개 분반 수강생 대상으로 종강일에 한 교재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재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면서 차후 연구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2. 교재 전체 구성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을 구성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학습’과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이다. 2022년 1월, 교재 개발과 함께 고려한 교과목의 교육 목표는 “첫째, 대학생으로서 한국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글쓰기 능력을 길러 교양과 전공 교과목 수강을 위한 글쓰기 실력을 다진다. 둘째, 한국어 글쓰기 연습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술적 글쓰기 능력인 보고서 쓰기 능력을 함양한다.”로 하였다.

이러한 교육 목표에 따라 교재 구성은 크게 1부 기초 익히기에서 대학 글쓰기에 관한 전반

한 한국어 쓰기 교재 구성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장미정 외 3인(2022)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글쓰기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류선숙·김민경·전형길(2021)에서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한국어 숙달도 신장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을 모색하였다.

3) 현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가 TOPIK 3~4급의 중급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기에, TOPIK 4급 정도의 중급 한국어 실력 이상을 갖춘 학습자 대상으로 교재를 집필하였다.

적인 기초 이론을 연습한 후, 2부에서는 1부에서 익힌 내용을 적용하여 대학 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실제로 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구성은 기존 여러 교재가 취하는 방식으로, 수업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1부 기초 익히기는 대학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여 문어체 표현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⁴⁾해서 한국어 문장과 단락을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글쓰기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용하는 방법과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이해한 후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2부 보고서 작성하기는 보고서를 실제로 써 보면서 보고서 작성 방법을 익히는 부분이다. ‘계획하기(생각하기) - 집필하기(초고 쓰기) - 퇴고하기(고쳐쓰기)’를 순서대로 거쳐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매 학기 개강하면서 기말 보고서의 대주제⁵⁾를 제시한 후 학습자 스스로 평소 관심 있는 소주제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서론 - 본론 - 결론의 보고서 일반적인 형식⁶⁾에 따라 보고서 한 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쳐쓰기를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모둠별 합평⁷⁾을 통해 보고서를 스스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했다⁸⁾.

그 외 부록으로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이용 안내와 유학생의 실제 대학 보고서 예시를 넣었다.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도서와 자료를 찾아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또래 학우의 실제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글쓰기 실력이 발전하기도 한다고 보아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 3편을 부록으로 제시하여 보고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4) 보고서 과제 작성 시 해라체 평서형인 ‘-ㄴ/는다’를 종결어미로 사용하는 연습을 기본으로 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꿔 써 보는 연습을 통해 이후 실제 보고서 작성 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다음 학기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기 전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업 담당 교수자 회의를 통해 기말 보고서 대주제를 확정하여 1주차 수업 안내 시부터 수강생에게 공지하였다. 대학, 미래, 세계, 인간 등 대주제만 교수자가 정하고 학습자 스스로 자유롭게 소주제는 선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학술적인 보고서의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에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주제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 6)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학술적인 보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일이 많아 일반적인 보고서 형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형식에 있어서 여러 오류가 나타난다. 이에 보고서 양식(호글(hwp), 워드(word))을 제공하고 그 양식에 따라 표지에 보고서 제목(부제 포함)과 교과목명, 제출일, 제출자를 작성하고 이어서 목차를 구성하고, 서론부터 결론(주석 포함), 참고문헌까지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 7) 수강생 간의 한국어 글쓰기 실력 차이가 큰 것을 고려하여 모둠을 편성하였다. 중간시험 성적과 매주 교수자가 개별 첨삭 지도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한국어로 글을 잘 쓰는 학생과 잘 쓰지 못하는 학생을 모듬에 골고루 배치하였다.
- 8) 미국행동과학연구소(the National Training Laboratory) 학습 피라미드(Learning Pyramid)에 따라 수업 시간에 최대한 참여적 학습 방법으로 서로 ‘가르치기’, ‘연습’, ‘집단토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차 례		2부 보고서 작성하기	
· 머리말 - 4			
1부 기초 익히기			
1과 대학에서의 글쓰기	9	6과 주제 탐구	71
1. 한국어로 글쓰기	11	1. 생각의 폭 넓히기	73
2. 좋은 보고서 쓰기	14	2. 주제 정하기	75
· 이메일 쓰기	16	· 시험 답안 쓰기	76
2과 말과 글	19	7과 개요와 목차	79
1. 구어와 문어	21	1. 개요 작성하기	81
2. 격식체 쓰기	24	2. 목차 작성하기	85
· 국립국어원 이용하기	28	8과 서론 쓰기	89
3과 문장 쓰기	31	1. 서론 작성하기	91
1. 조사 올바르게 쓰기	33	2. 제목 작성하기	96
2. 호응에 맞게 문장 쓰기	36	9과 본론 쓰기 1	99
·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활용하기	41	1. 본론 작성 방법 익히기	101
4과 단락 쓰기	43	2. 본론 작성하기	105
1. 설명 방법	45	10과 본론 쓰기 2	107
2. 단락의 구성	48	1. 자료 첨부하기	109
· 문장 부호 알기	50	2. 자료 분석하기	111
5과 글쓰기 윤리	51	11과 결론 쓰기	117
1. 인용	53	1. 결론 작성하기	119
2. 주석	56	2. 참고문헌 작성하기	124
3. 참고문헌	60	12과 고쳐쓰기	127
· 연습문제	61	1. 초고 점검하기	129
· 표절 확인하기	67	2. 합평하기	134
		부록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이용 안내	138
		· 유학생 대학 보고서 예시	142

<그림 1> 교재 전체 차례

2.1. 교육과정의 설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특성⁹⁾을 반영하여 설정해야 한다. 이에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면서 15주나 16주 기준 국내 대학 수업에서 워크북도 겸한 수업용 주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부, 총 12개 과로 구성했다¹⁰⁾.

<표 1> 교과목 공통 주별 강의계획

주차	주별 학습 목표	강의 내용
1주차	수업의 목표와 성격을 이해하고, 수업 일정과 글쓰기 과제를 기억할 수 있다.	수업 소개, 자기소개, 수강생 요구조사
2주차	1. 한국에서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글쓰기를 안다. 2. 대학 보고서 쓰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과 대학에서의 글쓰기
3주차	1.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를 안다. 2.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차이를 안다.	2과 말과 글

9) 현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다수가 TOPIK 3~4급 한국어 수준으로, 초·중급 수준의 일상 한국어 대화에는 비교적 익숙한 편이나 한국어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 쓰기와 더불어 단락을 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대학 강의 수강에 필요한 문어체의 보고서 작성하기, 교수님께 이메일 쓰기, 시험 답안 쓰기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10)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집필 시 한 학기 15주로, 3학점 3시간 수업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현재 한 학기 16주이기에 한 주는 상허기념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서가 수업을 진행하는 학술정보교육(유학생 대상 맞춤교육)으로 한다. 수강생 수가 많거나 꼼꼼한 피드백 등이 더 필요한 수업의 경우, 12과 고쳐쓰기의 초고 점검하거나 합평하기를 2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주차	주별 학습 목표	강의 내용
4주차	1. 조사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음을 이해한다. 2. 문장성분 간의 호응이 올바른 문장 쓰기에 중요한 요소임을 안다.	3과 문장 쓰기
5주차	1. 다양한 설명 방법을 이용하여 단락을 구성할 수 있다. 2.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을 쓸 수 있다.	4과 단락 쓰기
6주차	1. 인용의 종류와 방법은 안다. 2. 주석의 종류와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3. 참고문헌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5과 글쓰기 윤리
7주차	1. 도서관 도서 및 학술정보 검색법을 익힌다. 2.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도서관 학술정보교육 ¹¹⁾
8주차	범위: 1부 기초 익히기, 유형: 서술형	중간시험
9주차	1. 보고서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2. 진주제(참주제)와 주제문을 쓸 수 있다.	6과 주제 탐구
10주차	1. 보고서를 쓰는 목적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2. 보고서의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수 있다.	7과 개요와 목차
11주차	1. 서론 작성 방법에 따라 보고서 서론을 작성할 수 있다. 2. 핵심어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제목을 붙일 수 있다.	8과 서론 쓰기
12주차	1. 보고서 본론 작성 방법을 안다. 2. 본론 작성 방법에 따라 보고서 본론을 작성할 수 있다.	9과 본론 쓰기 1
13주차	1.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안다. 2. 표와 그림을 첨부한 후 설명할 수 있다.	10과 본론 쓰기 2
14주차	1. 결론 작성 방법에 따라 보고서 결론을 작성할 수 있다. 2.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 따라 참고문헌을 작성할 수 있다.	11과 결론 쓰기
15주차	1. 보고서를 스스로 고쳐 쓸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12과 고쳐쓰기
16주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조사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기말 발표 (기말 보고서 제출)

11)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학술정보교육은 유학생 대상 맞춤교육으로, 분반별 실제 수업 시간에 교내 도서관에서 진행하며, 매 학기 시작 전 도서관 학술정보팀 학술정보교육 담당 사서와 논의를 통해 3주차~7주차 사이에 분반별로 날짜를 정하여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도서 검색법 및 관련 서비스 소개, 학술정보 검색법 안내, 유용한 전자정보원 소개, 연구 윤리 안내 등이다.

2.2. 교수요목의 설계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의 교육과정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 강의 수강에 필요한 한국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이에 학술적인 보고서 같은 글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전략과 기술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설계 절차에 따라 구축한 교수요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재 1부 교수요목

과	단계별 활동	
1과 대학에서의 글쓰기	준비하기	한국어 글쓰기 어려움에 관해 말하기 여행 준비 과정을 써 보면서 글쓰기 과정의 필요성 인식하기
	한국어로 글쓰기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글쓰기 알기
	좋은 보고서 쓰기	대학 보고서 쓰는 과정 알기
	학교생활 더하기	교수님께 이메일 쓰기
2과 말과 글	준비하기	구어와 문어 구분하기 모국어의 말과 글 차이 설명하기
	구어와 문어	구어와 문어 특징 이해하기
	격식체 쓰기	격식체와 비격식체 이해하기
	학교생활 더하기	국립국어원 이용하기
3과 문장 쓰기	준비하기	적당한 조사를 넣어 문장 만들기 주어와 서술어 호응에 맞게 고치기
	조사 올바르게 쓰기	조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호응에 맞게 문장 쓰기	문장성분 간의 호응에 맞게 문장 고치기
	학교생활 더하기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활용하기
4과 단락 쓰기	준비하기	설명 방법 찾아 써 보기 글에서 단락 나누기
	설명 방법	정의, 예시, 분석 등 표현 사용해서 글쓰기
	단락의 구성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쓰기
	학교생활 더하기	문장 부호 알기
5과 글쓰기 윤리	준비하기	참고 자료를 밝히는 이유 말하기 자료 검색 방법 설명하기
	인용	인용 방법 익히기
	주석	주석 작성 방법 익히기
	참고문헌	참고문헌 작성 방법 익히기
	연습문제	인용, 주석, 참고문헌 연습하기
	학교생활 더하기	표절 확인하기

<표 3> 교재 2부 교수요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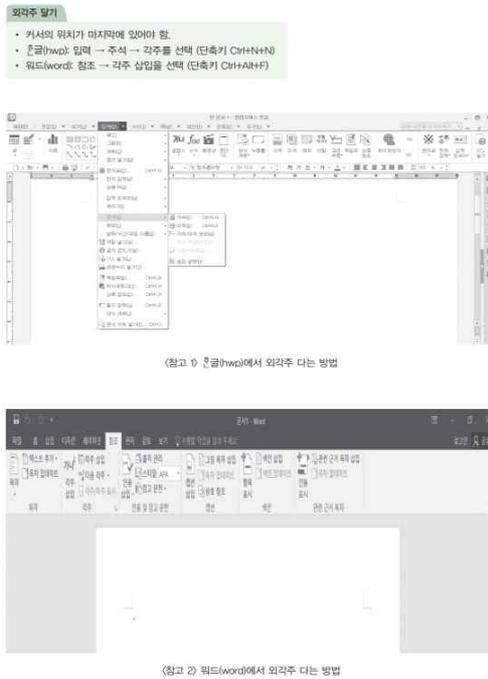
과	단계별 활동	
6과 주제 탐구	준비하기	단어 보고 생각나는 것 자유롭게 쓰기 자신이 쓴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생각의 폭 넓히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이해하기
	주제 정하기	진주제(참주제)와 주제문 쓰기
	학교생활 더하기	시험 답안 쓰기
7과 개요와 목차	준비하기	보고서 쓰는 과정 설명하기 개요와 목차의 차이 말하기
	개요 작성하기	문장 개요 작성하기
	목차 작성하기	보고서 목차 작성하기
	자기 평가	작성한 개요와 목차 스스로 평가하기
8과 서론 쓰기	준비하기	기억에 남는 책 제목과 내용을 이야기하기 보고서의 서론 시작 방법 말하기
	서론 작성하기	서론 구성 방법 익히기
	제목 작성하기	제목 작성 방법 익히기
	자기 평가	작성한 서론 스스로 평가하기
9과 본론 쓰기 1	준비하기	어휘 공부법 메모하기 어휘 공부법 본론 내용 발표하기 어휘 공부법 본론 내용 정리하기
	본론 작성 방법 익히기	본론 구성 방법 익히기
	본론 작성하기	어휘 공부법 보고서 본론 완성하기
	자기 평가	작성한 본론 스스로 평가하기
10과 본론 쓰기 2	준비하기	보고서에 표, 그림 첨부 시 장점 설명하기 적절한 그래프 말하기
	자료 첨부하기	자료의 종류와 특징 익히기
	자료 분석하기	표, 그림 보고 글쓰기
	자기 평가	작성한 본론의 자료 스스로 평가하기
11과 결론 쓰기	준비하기	보고서 마무리 방법 이야기하기 참고문헌 작성의 필요성 말하기
	결론 작성하기	결론 구성 방법 익히기
	참고문헌 작성하기	참고문헌 올바르게 고치기
	자기 평가	작성한 결론 스스로 평가하기
12과 고쳐쓰기	준비하기	보고서 작성의 중요한 단계 말하기 고쳐쓰기 시 고려 사항 설명하기
	초고 점검하기	고쳐쓰기 방법 익히기
	합평하기 ¹²⁾	합평 방법 익히기
	자기 평가	보고서 고쳐 쓴 후 스스로 평가하기

12) 합평은 여러 사람이 모여 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Vygotsky의 심리학에서 시작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교사-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자-학습자 간의 협력이 선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Vygotsky, 2009)으로 하여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에서 가장 염두에 둔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학습’과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의 일환으로서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을 글쓰기 실습에 적용하고자 했다.

2.3. 시험 사용을 통한 교재 수정

2022년 1월부터 기존에 출판된 여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관련 교재 분석을 한 후,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의 교수요목을 설계하기 시작하여 단원 구성을 완료하고 집필하면서 2022학년도 1학기, 3월부터 시험 사용하였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단원별로 시험 사용을 하였고, 2022학년도 2학기과 2023학년도 1학기에는 교재 전체를 완성한 후 제본하여 시험 사용하였다. 시험 사용은 교재 출판 후 사용할 학습 환경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기에 총 3학기 동안 기초교양 교과목인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업의 주교재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교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아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와 외국인 수강생이 제시한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교재가 되고자 한 만큼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글쓰기 연습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론적인 자세한 설명은 최소화하고 집필자가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외국인 유학생의 문제점과 그들의 여러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교재를 최종 완성하였다. 한국인에게 는 기초적인 부분이 외국인 유학생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학습자의 모국어로 된 워드(word)에서도 각주를 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교재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림 2> 교재 5과의 각주 다는 방법

3. 교재 단원 구성의 실제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은 1부 기초 익히기 5개 과, 2부 보고서 작성하기 7개 과 총 12개 과로 구성하였다. 한 과의 수업 시간은 주당 75분씩 2차시, 총 150분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부는 ‘학습 목표 - 준비하기 - 두 가지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 학교생활 더하기’로, 2부는 ‘학습 목표 - 준비하기 - 두 가지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¹³⁾ - 자기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교재 단원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교재의 단원 구성

부	쪽 배열	과 구성 항목
1부 기초 익히기	1	학습 목표
	2	준비하기
	3~5	첫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6~8	두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¹⁴⁾
	9~10	학교생활 더하기
2부 보고서 작성하기	1	학습 목표
	2	준비하기
	3~5	첫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6~8	두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9	자기 평가

1) 학습 목표

각 과의 학습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해당 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을 먼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재 만족도 조사 결과 상당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교재의 과마다 학습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교수자가 매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번 수업의 목표와 주요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 준비하기

준비하기는 학습 목표에 따라 해당 과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 스스로 준비하며 오늘의 학습 내용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준비하기를 통해 해당 과의 학습 내용을 한눈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학습 내용과 두 번째 학습 내용 각각 하나씩 두 가지로 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중 단락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학생이 많다. 이에 <그림 3>과 같이 일본 유학생이 쓴 글을 통해 어디에서 행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지

13) 과별 학습 내용에 따라 분량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나, 한 가지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이 2~5쪽 분량으로 평균 3쪽 내외 분량에 맞추어 집필하였다.

14) 1과의 좋은 보고서 쓰기는 2쪽, 2과의 격식체 쓰기는 4쪽, 3과의 호응에 맞게 문장 쓰기는 5쪽, 4과의 단락의 구성은 2쪽, 5과의 주석 4쪽, 참고문헌 1쪽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 5과의 경우 인용, 주석, 참고문헌을 모두 학습한 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쪽 분량의 연습문제를 제시하였다.

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행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때 독자가 느낄 혼란이나 지루함을 덜어 주며 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락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인지하면서 본격적인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준비하기

1 다음은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찾아 써 봅시다.

설명 방법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석
----	----	----	----	----	----

(1) 일본과 같이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비교)

(2) 자전거는 핸들, 안장, 바퀴,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김치는 배추와 여러 채소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

(4) 나는 요리를 못 하는 반면에 룸메이트는 요리를 잘한다. ()

(5) 한국어 자음의 예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등을 들 수 있다. ()

(6) 쓰레기는 재활용 여부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나눈다. ()

2 다음 일본 유학생이 쓴 글을 읽고 단락을 나눠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일본과 한국이 각기 다르다. 일본에서는 가을을 좋아한다. 일본어로 가을은 예술의 가을, 식욕의 가을, 그리고 소묘의 가을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중 식욕의 가을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 가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구운 콩치와 군고구마가 일품이다. 이 음식들은 아홉을 때부터 즐겨 먹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추억과 함께 내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가을은 선산탄 날씨가 산책하기에 좋다. 약간 쌀쌀할 수 있지만 조금만 걸으면 땀이 나고 바람이 불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봄을 제일 좋아한다. 봄의 거리에서는 추운 겨울에서 해방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봄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주 야외로 나간다. 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약을 먹고 인약을 낳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꽃가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아도 증상이 거의 없어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봄을 좋아한다.

준비하기

1 보고서에 묘나 그림이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시대에 따른 A시의 인구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말해 봅시다.

선그래프

막대그래프

연령 비율

막대그래프

연령 비율

원그래프

<그림 3> 교재 4과와 10과 준비하기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업에서 중간고사 이후 본격적으로 학술적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그림 3>과 같이 조사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묘나 그림 같은 자료를 첨부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용에 따라 그래프의 종류를 달리 해야 함을 인지 하면서 해당 수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은 워크북을 겸한 수업용 주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과를 주당 75분씩 총 2차시, 150분 수업에 맞게 구성하였다. 이에 1부 기초 익히기의 경우, 전반부 75분 수업에서 학습 목표 제시로부터 수업을 시작하여 준비하기, 첫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을 한다. 후반부 75분 수업에서는 두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학교생활 더하기를 학습한다.

2부 보고서 작성하기의 경우, 전반부 75분 수업에서 학습 목표 제시로부터 수업을 시작하여 준비하기, 두 가지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을 통해 보고서 작성 방법의 이론을 먼저 익힌다. 그리고 후반부 75분 수업은 해당 주차에 배운 내용을 보고서 작성에 실제로 바로 적용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평가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다.

1 개요 작성하기

□ 개요(概要, outline)는 글쓰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체계화하여 작성한 글의 설계도이다. 개요를 작성한 후 보고서를 쓰면 전체적인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빠진 부분이 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개요의 종류

- **최제 개요**
 - 중요 내용을 핵심어로 작성하는 개요
 - 글의 길이가 짧거나 구조가 단순한 글. 자신이 잘 아는 내용의 개요 작성 시 사용
- **문장 개요**
 - 중요 내용을 주어의 서술어가 있는 문장 형식으로 작성하는 개요
 - 글의 구조나 주제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분야의 보고서 작성 시 사용

진주제: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문화 비교
주제문: 중국과 한국 젓가락은 소재와 형태가 다르다.

최제 개요	문장 개요
1. 서론: 중국과 한국의 식사 도구 차이	1. 서론: 중국과 한국의 식사 도구 중 젓가락의 차이가 크다.
2. 젓가락의 역사 2.1. 젓가락의 유래 2.2. 젓가락의 발전	2. 중국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식사 시 젓가락을 사용해 왔다. 2.1. 젓가락은 중국에서 처음 발명되어 사용되었다. 2.2. 젓가락은 식사 도구로서 신분과 지위의 높음을 나타내기도 하여 그 종류와 모양도 다양해졌다.
3.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소재	3. 중국 젓가락의 소재는 나무인데, 한국 젓가락의 소재는 쇠이다.
4.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형태 4.1. 젓가락 길이 4.2. 젓가락 모양과 두께	4.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길이, 모양과 두께가 다르다. 4.1. 중국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길이가 길다. 4.2. 중국 젓가락은 굵고 동봉인데, 한국 젓가락은 납작하고 얇아 놓죽하다.
5. 결론: 본론 정리	5. 결론: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다음 중국 유학생이 작성한 개요의 문제점을 찾아 올바르게 고쳐 봅시다.

진주제: 중국 청소년 흡연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
주제문: 중국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머리말
2. 원인
2.1.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2.2. 어른의 흡연을 보고 배움
2.3. 흡연 광고를 보면서 호기심을 가짐
3. 대책
3.1. 성인의 금연 운동 전개
3.2. 성적 만능주의의 교육 문제 해결
3.3. 흡연 광고를 규제하는 정책 시행
4. 설패
4.1. 최근 3년간 중학생의 흡연율
4.2. 최근 3년간 고등학생의 흡연율
5. 결론

· 한 편의 보고서에서는 '서론'과 '결론', '말이거미'와 '나오미', '머리말'과 '발문말'로 써야 함.

진주제: 중국 청소년 흡연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
주제문: 중국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 교재 7과 첫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교재를 집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교재임을 고려해 설명은 가능한 줄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쉽고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어려운 개념은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다. 보충 설명 팁(Tip)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바로 함께 볼 수 있도록 교재 곳곳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목차 종류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비교적 짧은 보고서에서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수 목차'에 대해서만 팁(Tip)으로 제시하였다.

2 목차 작성하기

□ 목차는 보고서의 차례를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보고서의 독자는 보통 제목과 더불어 목차부터 본다. 따라서 보고서 전체 내용을 누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주제: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문화 비교
주제문: 중국과 한국 젓가락은 소재와 형태가 다르다.
제 목: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비교: 소재 및 형태를 중심으로

수 목차

- 숫자와 형태로 이루어진 목차
- 비교적 짧은 보고서에서 사용

목차

1. 서론
2. 젓가락의 역사
2.1. 젓가락의 유래
2.2. 젓가락의 발전
3.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소재
4.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형태
4.1. 젓가락 길이
4.2. 젓가락 모양과 두께
5. 결론

참고문헌

국제무역학과 류경이

● 보고서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봅시다.

진주제:
주제문:
제 목:

목차

1. 서론
2.
2.1.
2.2.
2.3.
3.
3.1.
3.2.
4.
5. 결론

참고문헌

<그림 5> 교재 7과 두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은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의 글로 교재를 구성하여 학습자가 친근감을 가지고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이러한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의 활용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학습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부터 2023학년도 1학기까지 교재 개발 과정 중 진행했던 요구조사에서 한국인 교수나 전문가가 쓴 글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번 학기에 열심히 글쓰기 연습을 하면 내 글이 우리 학교 교재에 실릴 수 있다는 것이 학습자의 글쓰기 학습에 동기 부여가 많이 되었다. 학생의 글 중 우수한 사례는 <그림 5>, <그림 6>과 같이 교재에 학생의 성명을 학과와 함께 제시하였고, 건국대학교 학생이 빈번히 범하는 오류 사례도 정리하여 교재에 연습문제로 넣었다. 실제 재학생의 오류를 수업 시간 중에 교재를 통해 연습하여 이후 학습자가 자신의 보고서 작성 시 같은 문제가 최대한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 중국 유학생의 보고서 본문의 일부를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본고에서는 발표공포증이 심한 대학생을 위해 발표공포증의 대표 증상, 그리고 그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발표 공포로 인한 신체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식은땀이 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붉어진다. 다리와 손이 떨리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발표공포증이 매우 심한 사람은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② 발표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발표 전에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초조해하며 발표 중에 실수할까 봐 걱정한다. 이러한 증상은 발표에 많은 영향을 준다.

③ 발표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대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 과거에 실패한 발표 경험이 발표공포증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실패한 발표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았던 발표가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

④ 발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연습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철저한 준비로 자신감을 기르면서 발표공포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⑤ 발표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완벽주의 성향과 자신감이 센 성격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예민한 자율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더 심하게 긴장한다.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불안감을 더 날기 쉬우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⑥ 발표 전부터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 언제나 선 자세에서 호흡을 깊게 하면서 몸과 마음의 이완을 유도해 본다.

⑦ 긍정적인 사고는 발표공포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이 발표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며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청중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한다.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다.

경명화 서가들

(1) 보고서의 주제를 써 봅시다.

(2) 보고서 본문을 통해 보고서의 제목을 답아 봅시다.

(3) 발표공포증의 증상, 원인, 극복법으로 나눠 봅시다.

증상	원인	극복법
①		

(4) 여러분이 아는 발표공포증 극복법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일본 유학생의 보고서 본문의 일부를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①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SNS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SNS를 문장, 사진, 동영상, 라이브 방송 등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문장이 중심이 되는 대표적 SNS로는 라인(LINE), 카카오톡(KakaoTalk)이 있고, 사진이 중심이 되는 대표적 SNS로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이, 동영상 중심이 되는 대표적 SNS로는 유튜브(YouTube)와 틱톡(TikTok)이 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중심이 되는 대표적 SNS로는 인스타 라이브와 아프리카 TV가 있다.

② 먼저 라인과 카카오톡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읽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인은 상대방이 읽으면 '읽음'이 대화 옆에 표시되고, 단체 채팅방의 경우 읽은 인원수가 '읽음' 옆에 표시된다. 이에 비해 카카오톡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면 읽지 않은 인원이 메시지 옆에 표시된다. 개인 채팅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읽으면 메시지 옆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③ 라인과 카카오톡 둘 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있다. 먼저 카카오톡은 카카오페이, 택시 호출, 미용실 예약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도 다양한 편이다. 이에 비해 라인은 라인 페이, 라인 게임, 라인 카페라 등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마에바루미나에키엔반과 후쿠모토에이코

(1) 각 단락의 소재를 풀어 봅시다.

- ①
- ②
- ③

(2) 보고서 본문을 통해 보고서의 제목과 부제를 답아 봅시다.

(3) 여러분 나라 사람들은 요즘 어떤 SNS를 가장 즐겨 사용하나요? 여러분 나라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문장이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SNS와 한국의 카카오톡(KakaoTalk)의 차이를 이야기해 봅시다.

	카카오톡(KakaoTalk)	
'읽음'을 나타내는 방법		
부가서비스		

<그림 6> 교재 9과 유학생의 보고서를 이용한 연습

4) 학교생활 더하기

학교생활 더하기는 해당 과의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글쓰기 연습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1과 대학에서의 글쓰기의 경우, 이메일 쓰기를 학습¹⁶⁾한 후 스승의 날을 맞아 이번 학기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메일을 써 보는 글쓰기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간고사 무렵인 6과에서는 시험 답안 쓰기를 학습한 후, 실제로 건국대학교 고사 답안지에 문어체로 답안 쓰기를 연습하도록 한다.

15) 2022학년도 1학기부터 2023학년도 1학기까지 총 3개 학기 글쓰기 과제 제출 시, '보고서 활용 동의서'를 같이 받아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출판에 동의한 외국인 재학생의 글을 교재에 학생의 성명을 학과와 함께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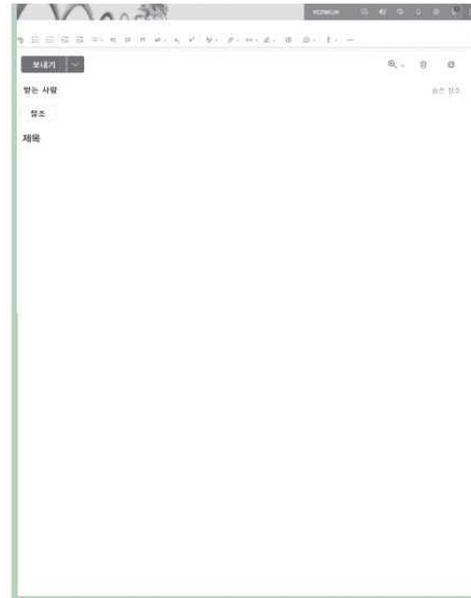
16) 이메일 예시도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이 쓴 메일을 교재에 실었다. 유학생이 교수님께 보낸 이메일을 보면서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수님께 이메일 작성 시 주의 사항에 관해 익힌 후, 이메일 쓰기 연습을 하도록 한다.

학교생활 더하기 **이메일 쓰기**

제목	보낸 사람 + 간단한 메일 내용	[경제, 진흥]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개강일 결정 관련하여 발송드립니다.
서문	받는 사람 + 자기소개	홍길동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강생인 경제학과 22학번 진흥이라고 합니다.
본문	공감	지난주에 교수님의 수업일 오후 수업인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업을 수강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첫 수업에 참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수 있게 제 입원 관련 서류를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둘째 주 수업부터 지리이나 결석 없이 성실하게 수업에 참석하겠습니다.
결문	건강 기원 + 끝인사 + 보낸 날짜와 사람	무엇보다 빨리기에 건강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3. 3. 1. 진흥 올림.

- 주의 사항**
- ① 제목은 메일 내용 전체를 읽지 않아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쓴다.
 - ② 자기소개 시, 수강하는 교과목명과 자신의 소속 학과, 성명을 함께 써야 한다.
 - ③ 메일 내용은 가능하면 두괄식으로 간결하게 쓴다.
 - ④ 첨부파일을 첨부했을 때, 어떤 첨부파일인지 간단히 설명한다.
 - ⑤ 메일에 유행어나 줄임말은 쓰지 않는다.
 - ⑥ 교수님과 같이 뒷사람에게는 '○○○ 올림', 공적인 사이에서는 '○○○ 드림', 친구나 후배에게는 '○○○ 올'이라는 표현으로 끝낸다.
 - ⑦ 메일을 보내기 전에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틀린 부분은 없는지,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 ⑧ 메일을 보내기 전, 메일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번 학기 수강하고 있는 과목 담당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메일을 써 봅시다.



<그림 7> 교재 1과 학교생활 더하기

5) 자기 평가

자기 주도적 학습 교재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학습자가 자신이 쓴 보고서를 읽으면서 스스로 자기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2부 보고서 작성하기 각 과의 가장 마지막에는 해당 과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 항목을 3개 정도 제시하였다. 각 과의 가장 앞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목표를 확인하면서 수업을 시작하여 연습을 통해 내용을 익힌 후 실제 자기 보고서에 적용하여 스스로 학습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자기 점검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한다.

4. 학습자의 교재 평가

교재는 학습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 수업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이에 교재 개발 후 평가는 전체 교재 개발 과정을 정리하고, 교재 개발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후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일 것이다.

교재를 개발하는 집필자라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일치하는 좋은 교재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에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 대상으로 교재의 전체 구성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업은 총 4개 분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총 수강인원은 96명이었다. 설문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16주차 종강일 수업 시간 중에 eCampus '설문'을 통해 장기 결석자 5명을 제외한 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관식 항목도 두어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로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4.1. 설문 참여자 정보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국적, 성별, 전공, 학년, TOPIK 등급을 조사한 것이다. 국적은 대만,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55명으로 6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59명으로 64.8%, 남성이 32명으로 35.2%였으며, 기초교양 필수 교과목 특성상 1학년이 51명으로 56%로 절반 이상이였다. 참여자의 전공은 경영학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의상디자인학과, 영상영화학과 각각 8명, 국어국문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각각 6명 등으로 다양했다¹⁷⁾. TOPIK 등급은 3급과 4급이 각각 31명으로 34.1%로, 중급이 총 62명으로 68.2%였으며, 5급 이상의 고급이 26명으로 28.6%이었다.

<표 5> 설문 참여자 정보

*단위: 명(%)

국적	중국 (대만, 홍콩 포함)		55 (60.4)
	인도네시아		8 (8.8)
	몽골		7 (7.7)
	일본		6 (6.6)
	베트남		4 (4.4)
	카자흐스탄		4 (4.4)
	말레이시아		2 (2.2)
	기타 ¹⁸⁾		각 1 (각 1.1)
성별	남성		32 (35.2)
	여성		59 (64.8)
학년	1학년		51 (56.0)
	2학년		19 (20.9)
	3학년		14 (15.4)
	4학년		7 (7.7)
TOPIK 등급	초급	1급	1 (1.1)
		2급	2 (2.2)
	중급	3급	31 (34.1)
		4급	31 (34.1)
	고급	5급	18 (19.8)
		6급	8 (8.8)

17) 문과대학 21명(국어국문학과 6명, 영어영문학과 3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명, 문화콘텐츠학과 6명), 예술디자인대학 21명(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3명, 산업디자인학과 1명, 의상디자인학과 8명, 현대미술학과 1명, 영상영화학과 8명), 경영대학 20명(경영학과 18명, 기술경영학과 2명), 사회과학대학 15명(경제학과 4명, 행정학과 1명, 국제무역학과 5명, 글로벌비즈니스학과 5명), 공과대학(컴퓨터공학부 5명), KU융합과학기술원(화장품공학과 4명), 건축대학(건축학부 2명), 상허생명과학대학(축산식품생명공학과 2명), 부동산과학원(부동산학과 1명) 순이다.

18) 기타로 미국, 미얀마, 영국,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국적이 각 1명이다.

4.2. 글쓰기 학습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의 현 수업 교재의 글쓰기 학습 시 구성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를 통한 글쓰기 지식 학습 정도 68.1%, 교재 설명의 명확성 70.3%, 각 과의 학습 목표와 본문 내용의 일치 정도 73.6%, 각 과의 준비하기와 본문 내용의 관계 정도 68.1%, 추가된 설명 팁(Tip)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 정도 68.1%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교재의 글쓰기 학습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게 했는데 이에 대한 여러 한국어로 쓴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

본 교재는 이해하기 쉽고 내용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재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이 항상 진행되었고 수업마다의 목표가 뚜렷해서 좋았다.

교수님과 교재 질이 좋습니다.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업 강의교재는 대학 생활 중 제일 중요한 보고서 쓰기에 대해 큰 도움을 주었다.

수업할 때,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교재에서 보고서를 쓸 때 중요한 문법이나 어휘, 구성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 학년이 고학년일수록, TOPIK 등급이 높을수록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보다는 대학 생활을 어느 정도 하여 대학 수업을 수강하는 데 있어 보고서 작성 방법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잘 되어 있는 경우 글쓰기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재를 집필하면서 TOPIK 4급 정도의 중급 한국어 실력 이상을 갖춘 학습자 대상으로 교재를 집필하였기에, TOPIK 1급~3급 초반 학습자에게는 수업 시간에 교수자가 쉽게 설명하여도 수업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어 학습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거나 고국에서 단기간 어휘와 문법 위주로만 학습한 후 한국 유학을 온 경우 쓰기 학습 경험이 매우 적어 학술적인 보고서 쓰기 학습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¹⁹⁾.

수강생들이 모국어인 중국어로 작성한 것에 따르면, 인용이나 주석 같은 용어 설명을 영어와 한자로 간단히 쓰기보다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자세한 번역을 요구하였으며, 전자책(e-book) 출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학습자가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 수업에서 많은 대학생이 기기를 통해 교재나 PPT를 보고, 필기하는 방식이다. 이에 추후 전자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전자책으로 출판 시 교재 내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 번역 플랫폼으로 연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바로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한국어로 강의를 들으면 강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 출간하여 QR 코드를 통해 학습 내용 관련 이미지나 영상, 게임이나 퀴즈 등을 수업 중에 바로 활용한다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학습자의 이해도나 집중도를 더욱더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 국내 대학의 언어교육원과 같은 전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경우 어휘,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반적으로 고루 학습하며, 1급부터 한국어 쓰기에 대한 피드백이 꼼꼼하게 이루어져 이후 한국 대학에 진학하여 보고서 작성과 같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학습을 해 나가는데 좀 더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글쓰기 학습 만족도

*단위: 명(%)

교재를 통해 다양한 글쓰기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가?	매우 그렇다.	62 (68.1)
	그렇다.	20 (22.0)
	보통이다.	8 (8.8)
	아니다.	1 (1.1)
	전혀 아니다.	0 (0)
교재의 설명이 명확해서 이해하기 쉬웠는가?	매우 그렇다.	64 (70.3)
	그렇다.	20 (22.0)
	보통이다.	5 (5.5)
	아니다.	1 (1.1)
	전혀 아니다.	1 (1.1)
교재 각 과의 학습 목표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매우 그렇다.	67 (73.6)
	그렇다.	18 (19.8)
	보통이다.	6 (6.6)
	아니다.	0 (0)
	전혀 아니다.	0 (0)
교재 각 과의 준비하기 내용과 본문의 내용은 관계가 있는가?	매우 그렇다.	62 (68.1)
	그렇다.	19 (20.9)
	보통이다.	10 (11.0)
	아니다.	0 (0)
	전혀 아니다.	0 (0)
교재에 추가된 설명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매우 그렇다.	62 (68.1)
	그렇다.	20 (22.0)
	보통이다.	9 (9.9)
	아니다.	0 (0)
	전혀 아니다.	0 (0)

4.3. 연습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의 현 수업 교재의 연습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의 학습자 수준 적절성 70.3%, 연습 방법의 명료성 68.1%, 적극적인 수업 참여 기회 제공 71.4%, 연습과 활동의 대학 생활과 연관성 70.3%, 연습문제의 글쓰기 연습 도움 정도 70.3%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교재의 글쓰기 관련 연습과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게 했는데 이에 대한 여러 한국어로 쓴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

교재 연습, 활동 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번 수업은 전반적으로 교재에서 체험이 아주 좋았다.

수업 시간에 교재 연습 재밌게 잘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

교재 연습도 좋고, 많이 연습하면서 글쓰기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과 연습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학기도 동일한 구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 7> 연습과 활동 만족도

*단위: 명(%)

교재의 연습이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64 (70.3)
	그렇다.	20 (22.0)
	보통이다.	5 (5.5)
	아니다.	2 (2.2)
	전혀 아니다.	0 (0)
교재의 연습 방법이 명료하게 제시되었는가?	매우 그렇다.	62 (68.1)
	그렇다.	22 (24.2)
	보통이다.	6 (6.6)
	아니다.	1 (1.1)
	전혀 아니다.	0 (0)
교재가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65 (71.4)
	그렇다.	19 (20.9)
	보통이다.	6 (6.6)
	아니다.	1 (1.1)
	전혀 아니다.	0 (0)
교재의 연습과 활동이 대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는가?	매우 그렇다.	64 (70.3)
	그렇다.	20 (22.0)
	보통이다.	6 (6.6)
	아니다.	1 (1.1)
	전혀 아니다.	0 (0)
교재의 연습문제가 글쓰기를 연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가?	매우 그렇다.	64 (70.3)
	그렇다.	17 (18.7)
	보통이다.	10 (11.0)
	아니다.	0 (0)
	전혀 아니다.	0 (0)

수강생들이 중국어로 작성한 것에 따르면, 2023학년도 2학기 수업부터 보고서 작성 활동 시 Chat 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²⁰⁾.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이 2023학년도 2학기 개강에 맞춰 출판하여 교재에 Chat 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담지는 못했다. 건국대학교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학술적인 보고서의 주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보고서의 주제가 될 만한 것을 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고서의 계획하기(생각하기) 단계에서 Chat GPT를 활용해 보고서 주제 관련 연구에 대한 정보를 쉽게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hat GPT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있기에, Chat GPT가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사용하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좀 더 찾아 정확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교과목 교수자 회의를 통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보고서 작성 시 Chat GPT를 활용해서 하되, 카피킬러(copykiller)의 ‘GPT 표절 검사 결과’까지 모두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5. 결론

본고는 건국대학교 기초교양 필수 교과목인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수업용 주교재인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의 구성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수강생의 교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한 권의 교재에 모든 내용을 잘 담을 수는 없었다. 특히 대학의 기초교양 수업은 다양한 한국어 능력과 학습 배경의 외국인 학습자가 모두 함께 수업을 수강하기에 수강생 모두가 만족하는 교재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자료로서 교재 개발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2022학년도 1학기부터 2023학년도 1학기까지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개발 과정 중 여러 차례 진행했던 요구조사나 2023학년도 2학기 종강일에 진행한 만족도 조사를 종합해 볼 때, 학습자들은 여러 글쓰기 관련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쉽고 재미있으면서 적절한 사례를 많이 제시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교재를 개발하면서 첫째,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학습을 목표로 이론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집필자가 수업 현장에서 느꼈던 외국인 학습자의 문제점 위주로 워크북을 겸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제출한 글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정리해 교재를 집필하였기에, 외국인 학습자가 실제 연습을 통해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학습자가 글쓰기 관련 기초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한국어 글쓰기에 바로 적용하여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글쓰기의 기초를 먼저 학습한 후, 단계별로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하면서 작성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학습자가 관심 있는 소주제를 선택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한 것에 대한 첫 피드백을 시작으로 서론 - 본론 - 결론의 보고서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보고서 한 편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매 수업 초고에 대한 개별 첨삭을 통해 보고서를 완성해 나간다.

셋째, 건국대학교 기초교양 수업용 주교재로서의 특성을 잘 담고자 하였다. 이에 교재 표지 디자인과 편집 시 건국대학교 교색으로 하였으며, 교재 과마다 제시된 여러 사례를 비롯한 글이 건국대학교 외국인 재학생이 쓴 글이다. 부록으로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이용 안내와 건국대학교 외국인 재학생이 기말 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 3편도 넣었다.

교재 출판 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후 교재는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자책(e-book)으로 하여 수업 시간에 디지털 도구와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수업용 교재에서 학술적인 보고서 작성하기 부분에서 Chat GPT를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등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본고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년 동안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기초교양 교과목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한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개발 과정을 제시하여 본 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오늘날 국내 대부분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글쓰기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기에, 본고가 향후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과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성애 외 3인, 『외국인을 위한 대학 글쓰기』, 인문과 교양, 2021.
- 김경현 외 5인, 『글쓰기의 절차와 과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 김은영 외 3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보고서 쓰기에서 발표하기까지』, (주)박이정, 2020.
- 류선숙, 「융·복합적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부생용 글쓰기 교재 분석 연구」, 『돈암어문학』 43, 돈암어문학회, 2023.
- 류선숙·김민경·전형길,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양한국어 교재 개발 기초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5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학문 목적 쓰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양태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기초』, (주)박이정, 2016.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중급 I』,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중급 II』,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고급』,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오경숙,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동향 분석과 제언: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수학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4-4,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 이미란 외 4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개정판)』, 경진출판, 2021.
- 이은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한국문화사, 2022.
- 장미정 외 3인, 「외국인 학부생 대상 한국어 수준별 글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2022.
- 정희모,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 삼인, 2006.
- 조영미,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한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2,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 최민지·장윤서, 「“한국어 3급은 유치원 수준인데” … ‘유학생 30만’ 관리 어쩌나」, 『중앙일보』, 2023.08.17.
- 최수진·박혜란, 『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 건국대학교 출판부, 2023.
- 홍다영, 「외국인 유학생 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 … 韓에서 취업부터 정착 지원」, 『조선일보』, 2023.08.16.
- Brian Tomlison 역음, 『외국어 교재 개발론』, 김창구·이선진·조혜진 역, 글로벌콘텐츠, 2020.
- L.S. 비고츠키, 『Mind in Society: 비고츠키의 인간 고등심리 과정의 형성과 교육』, 정희욱 옮김, 학이시습, 2009.

■ 토 론

“대학 기초교양 한국어 글쓰기 교재 개발-『한국어 기초 글쓰기와 표현』(2023)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구민지(가톨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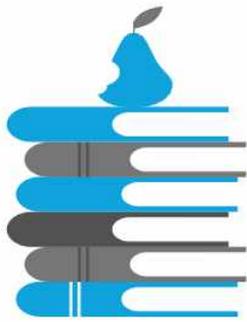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대학의 존폐 위기가 맞물려 최근 대학가는 유학생 유치 과열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학생의 기본적인 대학 수학 능력 확보는 한국어 교육의 책임이 된 듯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대학에서 전공 학습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유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 대학의 한국어 교과목에 연계된 교재 개발의 실재를 보여주는 연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논의거리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교재는 TOPIK 4급 이상의 중급 한국어 실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집필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학 기초교양 한국어 글쓰기 교재 개발). 아무리 연구 대상 학교의 유학생 대다수가 3~4급의 중급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실력은 1급부터 6급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재를 활용하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차를 극복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기 위한 쓰기 교재의 개발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에서 언급하셨듯이 한 권의 교재에 모든 내용을 잘 담을 수는 없습니다. 각 학습자의 배경과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어쩌면 고정된 형태가 인쇄 교재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교재 개발 시,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모듈형 교재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재가 챗-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해 담지 못했음을 스스로 지적하셨는데 이 또한 고정된 형태의 인쇄 교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쓰기 교재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어교육의 교재 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학습자들이 전자책 출간을 요구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의 전자 기기 사용은 코로나 이후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인데 교재 개발 당시 이와 같은 요구 조사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디지털 네이티브 학습자를 위해 쓰기 교재를 전자책으로 개발한다면 우려되는 점 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디지털 도구의 활용 강화,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의사소통을 반영한 쓰기 평가의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어 글쓰기 교육과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제4부 제2 발표장

문법론

[한말연구] HANMALL LANGUAGE RESEARCH CENTER
한말연구학회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의미와 운율 구조

명정희·구호정(서강대)

< 차례 >

1. 서론
 2. 수사의문문과 운율적 특성
 3. 음성 실험을 통한 운율 구조 분석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질문(questions) 화행이란 화자가 알지 못하는 특정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하는 화행이다. 질문은 명제의 진위 여부를 묻는 판정 의문문(yes-no or polarity questions)과 의문사가 지시하는 특정 내용(미지향)에 대한 것을 묻는 설명 의문문(wh-questions)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아래 (1가), (1나)에서처럼 질문에 대한 대답(answer)을 요구한다.

(1) 가. (A는 B가 무언가를 무거워하는 것처럼 보여, 이를 확인하려고 물어본다.)

A 뭐가 무거워?

B 응. 무거워.

나. (A는 B하고 이삿짐을 싸고 있다. A는 무거운 것을 먼저 옮기려고 여러 박스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B에게 물어본다.)

A (이 중에서) 뭐가 무거워?

B 책이 들은 이 박스가 제일 무거워.

그런데 (1가)A와 (1나)A에 쓰인 ‘뭐가 무거워?’는 아래 (2)에서처럼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명제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2) (A가 생각할 때 B가 들고 있는 것은 하나도 무겁지 않다. A는 B가 들고 있는 가방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조금 무례한 투로 아래와 같이 말한다.)

A (그게) 뭐가 무거워? (= (그것은) 무겁지 않다.)

B 아니야. 엄청 무거워.

(2)A 발화는 ‘(그것은) 무겁지 않다’로 해석되어 담화 내에서 ‘그것이 무겁다’라는 명제를 부정 단언(assertion)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2)A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2)B처럼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 부정 단언 명제에 대한 의견이 올 수 있다.

이처럼 의문사(question words)를 포함하여 의문문과 같은 형식을 지니지만 판정 의문이나

설명 의문과 달리 특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명제를 부정 단언하는 것을 일반의문문(ordinary questions, OQ)과 구별하여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s, RQ)이라고 한다(박종갑 1982, Han 2002 등).

그렇다면 수사의문문인 (2)㉠는 일반의문문인 (1가)㉠, (1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들은 맥락에 의해서도 구분되지만 억양에 의해서도 구분된다.¹⁾ 기존 논의에 따르면 질문은 일반적으로 상승의 종결 억양을 가지는데 그중에서도 판정의문문은 높은 상승의 억양이 나타나 H%의 종결 억양을 가지는 반면, 설명의문문은 낮은 상승의 LH% 또는 상승 이후 짧은 하강의 억양을 가진다(Lee 1990, Jun and Oh 1995, 김미란 외 2000 등).²⁾ 한편 수사의문문은 종결 억양이 L%로 하강하는 특징을 보여 일반 의문문과 구별된다(Lee 1990, Han 2002, Ahn & Kang 2020 등).³⁾

그런데 수사의문문의 의미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관찰한 부정 단언(negative assertion)의 의미 외에 놀라움의 감탄(exclamation)도 있으며 화자의 감정(emotion)과 관련된 맥락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서 금지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명정희·백인영 2024).

(3) 가. (㉠는 ㉡에게 선물을 받았다. 선물이 너무 무겁자 기대하며 물어본다.)

㉠ 오와! 뭐가 이렇게 무거워? (= 이걸 매우 무겁다!) [감탄]

㉡ 그치?

나. (㉠는 ㉡에게 여행 가방을 최대한 가볍게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짐을 넣어 가방이 무거워졌다. ㉠가 짜증내며 말한다.)

㉠ 아니, 뭐가 이렇게 무거워? (=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된다.) [금지]

㉡ 어쩔 수 없었어.

(3가), (3나)의 ㉠는 (2)의 발화와 형식이 동일한데 ‘뭐가’ 뒤에 ‘이렇게’라는 부사어가 결합하였다. 그러자 (2)와 달리 (3가)에서는 놀라움의 [감탄]이 해석되고 (3나)에서는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도 해석된다. 이렇게 수사의문문의 해석이 달라지면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수사의문문의 억양 특성과 달리 상승의 종결 억양(LH%)도 실현될

1) 억양은 연속된 분절음에 얽혀 수반되는 음높이의 변화이다(오재혁 2014: 395). 억양은 화자의 성별, 나이, 대화의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요소이지만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 화자의 의도 및 감정을 전달하는 화용론적 정보를 지니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여 언어학적 연구 대상에 속한다. 이러한 억양을 분석하는 연구에는 보편적 접근 방식(universalist approach)과 음운적 접근 방식(phonological approach)가 있다. 첫째로, 보편적 접근 방식은 억양이 인간의 발성 기제에 근거를 두므로 억양의 주요 요소가 모든 언어에서 같아 억양 체계에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Bolinger 1989), 둘째, 음운적 접근 방식은 각 언어마다 고유한 음운론 체계가 있고 그 안에 억양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Pierrehumbert, 1980, Beckman 1986). 이 연구에서는 음운적 접근 방식을 따라 언어별로 억양 체계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 Jun(2005) 등의 입장을 따라 한국어의 억양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 연구에서는 수사의문문이 산출될 때 나타나는 억양 구조의 전반적인 양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K-ToBI 전사 규약을 채택하여 운율 구조를 표시한다. 하지만 여러 논의에서 이러한 분석 방식은 연구자의 직관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비교적 최근의 논의에서는 억양 구조의 보다 객관적인 기술과 범주화를 시도하고자 네덜란드의 IPO 연구소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채택한 새로운 접근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오재혁(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3) Lee(1990: 190)에서 수사의문문은 낮은 수평조, 낮내림조, 오르내림조, 높내림조를 말마디 끝억양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약을 먹어도 무슨 소용이 있니?’에서 ‘니’는 HL의 경계음조(=종결 억양)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Han(2002), Ahn & Kang(2020)에서는 수사의문문이 하강하는 억양 특징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1)~(3)에서 확인한 현상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음성 실험을 통해 의문사와 ‘이렇게, 그렇게’가 포함된 수사어문의 운율 구조를 상세히 밝힘으로써 설명어문과 수사어문의 운율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고 수사어문의 의미 유형에 따른 운율 구조 실현 양상을 제시하여 운율과 의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운율 특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2장에서는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수사어문의 형식 및 의미 유형을 제시하고 수사어문의 운율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의 억양 음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음성 실험 대상 및 실험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한 결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2. 수사어문과 운율적 특성

2.1. ‘의문사+{이렇게/그렇게}’를 포함한 수사어문

수사어문은 형식을 기준으로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과 의문사를 포함하지 않는 의문문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의미(화행)를 기준으로 단언(assertion)이나 감탄(exclamation)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⁴⁾

- | | |
|---------------------|---------|
| (4) 가. 누가 오겠냐? | [부정 단언] |
| ≡ 아무도 안 올 것이다. | |
| 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 [감탄] |
| ≡ 정말 아름답군요! | |
| (5) 가. 사람들이 많이 가겠냐? | [부정 단언] |
| ≡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것이다. | |
| 나. 너무 아름답지 않냐? | [감탄] |
| ≡ 정말 아름답구나! | |

이 글에서는 일반 설명어문과 비교하기 위하여 (4가), (4나)에서 제시한 수사어문처럼 의문사가 포함된 수사어문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중에서도 기존 논의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은 구성인 ‘의문사+{이렇게/그렇게}’가 포함된 의문문에 초점을 맞춘다.⁵⁾

4) 수사어문의 정의 및 다양한 의미 유형에 대해서는 박종갑(1982), 박진호(2019), 강규영(2022), 명정희·백인영(2024), Han(2002), Caponigro & Sprouse(200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연구 대상인 ‘의문사+{그렇게, 이렇게}’가 포함된 의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명정희·백인영(2024)을 참고하기 바란다.

5) ‘의문사’ 뒤에는 ‘이렇게, 그렇게’ 외에 ‘저렇게’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 및 말뭉치 검색 결과를 참고하면 ‘저렇게’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적다. 특히 발화현장에 지시 대상이 없을 때도 사용되어 비지시적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에서만 나타난다(명정희·백인영 2024). 이에 이 글에서는 연구 대상을 ‘이렇게’와 ‘그렇게’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한편 ‘이렇게, 그렇게’는 구어체에서 ‘이리, 그리’로도 실현될 수도 있는데 이 연구의 음성 실험에는 이러한 축약형까지 반영하지는 않았다.

‘의문사+{이렇게/그렇게}’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은 아래 (6)에서 보듯이 [부정 단언]이나 [감탄]으로 해석되는데, 의미에 따라 의문사와 ‘그렇게’의 생략 가능성이 달라진다.

(6) 가. 점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부정 단언]

= 점수가 뭐가 중요해?

= 점수가 그렇게 중요해?

나.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감탄]

≠ 뭐가 복잡해?

≠ 이렇게 복잡해?

(명정희·백인영 2024: 335 예문 참고)

(6가)처럼 [부정 단언]으로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은 ‘그렇게’나 ‘뭐가’가 생략되어도 [부정 단언]의 의미가 그대로 해석된다. 하지만 (6나)와 같이 [감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렇게’나 ‘뭐가’가 생략되면 더이상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의문사와 ‘그렇게’류 부사어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은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항목이 동일하더라도 각 어휘항목이 전체 문장 의미 해석에 기여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6가)에서는 ‘그렇게’가 화자의 기대와 다른 타인의 판단 내용 일부를 지시하지만 (6나)의 ‘이렇게’는 화자가 기대한 정도보다 높은 실제 상황의 정도성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부정 단언]을 나타내는 (6가)에서는 ‘그렇게’가 상대적으로 문장 전체 의미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감탄]의 (6나)에서 ‘그렇게’는 ‘매우 복잡하다!’라는 의미 해석이 나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그렇게’, ‘이렇게’의 생략 가능 여부에서 확인된다.⁶⁾

나아가 ‘의문사+{이렇게, 그렇게}’를 포함한 수사의문문은 다양한 화자의 감정(emotion)을 표현할 수 있는바, 아래 (7)과 같이 화자의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 반영되는가에 따라 수사의문문의 구체적인 의미 기능이 달라진다.

(7) 가. (고마워하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긍정적 감정·감탄]

≡ (음식을) 정말 많이 차렸네!

나. (감탄하며) 누가 **이렇게** 예쁘래?? [긍정적 감정·감탄]

≡ (너) 정말 예쁘다!

다. (꾸짖으며)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부정적 감정·불필요성]

≡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릴 필요가 없었다.

라. (이유없이 계속 쳐다보는 친구에게 짜증내며) **뭘 그렇게** 계속 봐?

≡ (내 얼굴을) 그렇게 그만 봐라. [부정적 감정·금지]

(6), (7)에서 살펴본 수사의문문은 다른 수사의문문들(RQs)과 마찬가지로 중의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의문문(wh-ORs)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수사의문문의 중의성이 해소되는 데에는 맥락도 작용하지만 일정한 억양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령 (7가)의 발화

6)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의문사+{이렇게, 그렇게}’류 수사의문문의 운율 구조를 검토하며 ‘의문사+{이렇게, 그렇게}’류 수사의문문의 의미와 음성의 상관관계를 포착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7) (7나)의 문장은 어색하다는 직관이 있을 수 있으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장으로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구어 상황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문장이다. 이때 ‘-래’는 ‘-라고 해’와 같은 인용 구문의 축약형인데, 실제 인용문의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7나) 문장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징 및 의미적 특징은 인용 구문과 관련하여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가 일반의문문이라면 의문사 ‘뭘’에 얹히는 운율적 돋들림(prominence)이 훨씬 강하거나 길이(duration)이 더 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뭘’과 ‘이렇게’ 사이의 휴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으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7라) 같은 발화도 일반의문문으로 해석될 때에는 설명의문문과 같은 억양 실현 양상을 가져 ‘뭘’과 ‘그렇게’ 사이에 휴지(pause)가 존재할 수 있으며 종결 억양이 H% 또는 LH%로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수사의문문으로 읽힐 때에는 종결 억양이 L%로도 실현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가설은 직접 음성 실험을 통해 진행하지 않으면 확인될 수 없는바,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들을 해결하고자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의 운율 구조 차이를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위의 (4)~(6)에서 확인한 현상을 바탕으로 이 글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문사+{이렇게, 그렇게}’류 수사의문문의 의미 유형이 [부정 단언] 혹은 [감탄]으로 달라짐에 따라 종결 억양 및 억양 단위(intonation phrase, IP)와 초점 실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 ‘의문사+{이렇게, 그렇게}’류의 수사의문문을 발화하는 화자의 정감성이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운율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수사의문문의 의미(semantico-pragmatic meaning)와 운율 구조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여 수사의문문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간접 화행의 의미 해석에 운율 특징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밝혀 PF와 LF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2. 수사의문문의 운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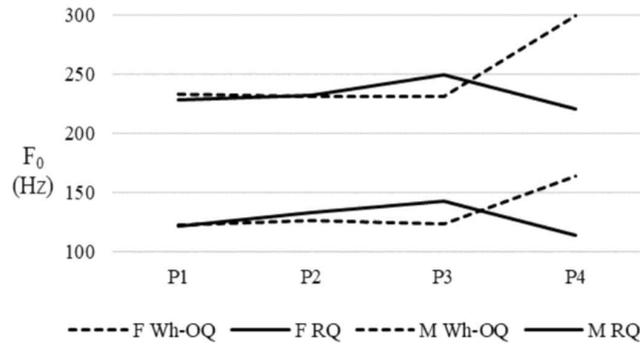
앞서 2.1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수사의문문의 한 종류를 제시하고, 그것이 지닌 구성적·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의문사+{이렇게, 그렇게}’를 포함한 수사의문문의 운율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수사의문문의 의미 해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운율적 특성이 무엇인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1장에서 서술하였듯이, 기존 논의에 따르면 수사의문문의 종결 억양은 HL%, L%과 같이 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⁸⁾ 상승의 종결 억양을 주로 갖는 일반의문문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⁹⁾

종결 억양에 더해, 수사의문문의 의문사구 억양도 일반의문문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신지영·차재은 2003, Ahn and Kang 2020). 기존의 관찰에 따르면, 수사의문문의 의문사구는 상승조로 나타나며, 이는 일반의문문의 의문사구가 하강조로 나타나는 것과 대비된다. 아래 <그림 1>은 Ahn and Kang(2020:509)에서 동일한 형식(‘누가 왔어’)의 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에 대해, 시간에 따른 기본주파수(F₀) 변화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F=여성, M=남성).

8) 이러한 하강의 종결 억양은 억양 음운론(intonational phonology)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운율 전사 규약인 K-ToBI을 제안한 전선아(2003)에 주로 평서문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각주 2)에서 밝혔듯이 이 글에서도 이 전사 규약을 따라 종결 억양을 표시할 것이다. 이 체계에서 상정하고 있는 한국어 운율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음절(o), 음운론적 단어(w), 강세구(AP), 억양구(IP) 순으로 위계가 높아진다.

9) 이 글에서 ‘종결 억양’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Lee(1990)에서는 ‘핵억양(nuclear to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용어는 다르지만 9가지의 핵억양 중 수사의문문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저조이거나 하강조로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관찰의 내용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문미 억양, 문말 억양’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종결 억양’이라는 용어가 이들과 구분되는 지점과 관련해서는 오재혁(2011: 9)를 참고.



[그림 1]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의 음높이(pitch) 변화
(Ahn and Kang 2020: 509)

[그림 1]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수사의문문의 경우, 의문사구가 발화되는 구간(P1-P3)에서 음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반면, 점선으로 표시된 일반의문문의 경우 음높이가 내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의문문으로 쓰인 ‘누가 왔어’의 ‘누가’를 발화할 때는 낮은 음조에서 높은 음조로 음높이 상승하고, 일반의문문의 ‘누가’는 그러한 음높이의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의문문의 운율적 특성에 대한 기왕의 관찰은 부정 단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 특히 2.1절에서 밝힌 대로, 수사의문문의 의미 유형은 감탄과 같이 부정 단언 외에도 다양하다. 그리고 수사의문문이 [감탄], [금지], [요청] 등 다양한 화행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은 수사의문문이 여러 가지 화행을 나타내는 운율 구조를 지닐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의미와 운율 간에 일정한 대응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사의문문의 억양구(intonation phrase, IP)도 일반의문문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판정의문문의 경우는 [누가]_{IP1} [먹어요?]_{IP2}와 같이 두 개의 억양구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설명의문문은 [누가 먹어요?]_{IP}와 같이 하나의 억양구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김미란 외 2000, 윤영숙 2014). 이러한 억양구 단위의 차이는 의문문에서 실현되는 초점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의문문의 의문사는 초점이 부여되는 단위로서 음성적으로는 주변과의 상대적 높이를 비교했을 때 돌출림(prominence)을 부여받으며, 이러한 초점 성분은 이어지는 음절들을 자신과 하나의 억양구로 형성하게 하는 음운구 해지(dephrasing)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김미란 외 2000, Büring 2016 참고).¹⁰⁾

반면 수사의문문의 의문사는 돌출림을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안정민·박명관 2016 참고),¹¹⁾ 앞선 논의들에서 그 현상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는 없는 듯하다. 이처럼 종결 억양과 의문사의 억양과 돌출림의 실현 양상이 모든 수사의문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10) 억양 구조상 일반적인 단계하강 곡선(declining contour)에서 이전 정점과 같거나 더 높은 음조는 다른 부분보다 강조된 것으로 지각된다(김미란 외 2000:206). 이렇게 초점을 받는 성분과 관련된 음운구 해지 현상은 Jun and Oh(1996)에서 보고된 것으로, 판정의문문에서 wh-단어 뒤의 강세구 (accentual phrase, 이현복(1974), 이호영(1997)에서는 ‘말토막’, 김미란 외(2000)에서는 ‘엑센트구’라고 칭한다)의 경계가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11) 경상 방언에서는 수사의문문의 종결 의문 어미가 ‘-나’냐’ -노’냐에 따라서도 의문사의 돌출림 수반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그걸 누가 알겠노’와 ‘그걸 누가 알겠나’는 ‘-노’와 ‘-나’의 어미 차이에 의해 전체 억양 구조와 함께 ‘누가’라는 의문사의 돌출림 여부가 달라진다(안정민·박명관 2016:58).

다는 점에서 수사어문의 의미 유형과 그에 따른 운율 구조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음성 실험을 통한 운율 구조 분석

3.1. 실험 대상

음성 실험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며, 읽거나 발화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8) 가. 수도권 지역 태생 표준어 구사 화자
 - 나. 언어학 관련 수업 이수 경험 전무
 - 다. 서강대학교(원) 재학생

(8가)는 음성 실험을 수행할 때 화자별 출신 지역에 따른 방언 차이를 추가적인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기 위해 통제된 조건이다. (8나)는 언어학을 전공하거나 수업을 이수한 경험이 실험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바(최재용 외 2017 참고), 일반적으로 실험언어학적 논의에서 통제되는 변인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8다)는 화자의 연령대와 교육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하기 위한 조건이다.

실험에는 총 12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들 중 목소리가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작게 녹음되었거나 발화 속도가 자연스러운 대화 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른 화자의 경우 자료 분석에서 배제하여 총 10명의 자료만이 분석되었다. 참가자의 성별은 여성이 6명, 남성이 4명이었다.

3.2. 실험 방법

음성 실험은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서강대학교의 언어실험실에서 수행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연구자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다. 녹음용 소프트웨어로는 Praat 6.2.23을 이용하였고, 표본주파수(sampling rate)는 22 kHz, 비트심도(bit rate) 16 bit로 설정하였으며 단일채널로 녹음하며 웨이브 파일(waveform audio file format, WAV)로 저장하였다. 녹음된 자료의 음파파형, 스펙트로그램과 음조형 곡선은 3.3에서 제시한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요인 설계(factorial design)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요인과 각 요인의 단계(level)는 다음과 같다($2 \times 4 \times 2 = 16$).

- (9) 가. [의미](2): 부정 단언 vs. 감탄
 - 나. [의문사 종류](4): '뭐가', '뭘' vs. '누가', '누구를'
 - 다. [맥락](2): 긍정 vs. 부정

(9)를 통해 도출되는 조건에 맞추어 16개의 수사어문문 문항이 제작되었다(아래의 [표 1] 참고). 또한 수사어문문과 비교하기 위해 일반어문문 문항도 쌍으로 제작하여 실험은 총 32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험 문장은 ‘의문사+{이렇게, 그렇게}+서술어’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술어는 3음절으로 고정하여 모든 문장의 총 길이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9음절로 통일하였다. 또한 서술어 첫음절의 자음은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ice onset time, VOT)이 상대적으로 긴 격음(aspirated)을 피했다.

번호	[의미]	[의문사 종류]	[맥락]	문항 예시
1	부정 단언	뭐가	긍정	A 내가 그 펜을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B 아니야~ <u>뭐가 그렇게 미안해.</u> 미안해 하지마. ¹²⁾
2			부정	A 넌 정말 배려가 없는 것 같아! B 그럼 넌? <u>뭐가 그렇게 달랐어?</u> 너도 배려 없었잖아.
3		뭐를	긍정	A 나 아까 발표 너무 못한 것 같아. B 아니야~ <u>뭐를 그렇게 못했어?</u> 잘했어.
4			부정	A 아! 왜 밀어! B <u>뭐를 그렇게 밀었어?</u> 어이가 없네.
5		누가	긍정	A 애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B 아니야~ <u>누가 그렇게 생각해?</u>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6			부정	A 너가 나한테 살쥔다고 해서 나 다이어트 한다. B <u>누가 그렇게 말했어?</u>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7		누구를	긍정	A 선생님, 애들이 저보고 자꾸 얘기 같다고 놀려요. B 아니야~ 애들이 <u>누구를 그렇게 놀렸어?</u> 너가 귀여워서 그런 거지.
8			부정	A 너 요즘 친구들을 너무 자주 만난다. B <u>내가 누구를 그렇게 만났어?</u> 요즘 공부만 하는데.
9		뭐가	긍정	A 어때? 음식이 맛있어? B 어! <u>뭐가 이렇게 맛있대?</u>
10			부정	A <u>뭐가 이렇게 무거워?</u> B 좀 많이 무겁지?
11		뭐를	긍정	A <u>뭐를 이렇게 도와줘?</u> 동생이 정말 고맙겠다. B 고마워. 하나뿐인 동생 잘 챙겨야지.
12			부정	A 야, 벌써 기다린 지도 한 시간이다. B 그러게. <u>뭐를 이렇게 기다려?</u> 그냥 먼저 가자.
13		누가	긍정	A 자기~ <u>누가 이렇게 예쁘래?</u> B 아 뭐야~ 오늘 나 예뻐?
14			부정	A 솔직히 <u>누가 이렇게 다정해?</u> 나처럼 다정한 사람도 없다. B 없기는 하지.
15		누구를	긍정	A 내가 그 사람 아니면 <u>누구를 이렇게 좋아해?</u> B 정말 좋아하나 보다.

16	부정	<input type="checkbox"/> 너 정말 그 사람이 싫은가 보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가 이 사람 아니면 <u>누구를 이렇게 미워해?</u>
----	----	--

[표 1] 실험 문장 목록

참가자들은 [표 1]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밑줄 친 문장을 포함한 대화 전체를 소리 내어 읽도록 지시받았으며, 한 참가자가 전체 문항을 녹음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약 7분이 소요되었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날짜	진행 내용
6/5	예비 실험 문장 완성
6/6~6/7	예비 실험 진행 ¹³⁾
6/8~6/9	예비 실험 결과 분석 및 본실험 문항 수정
6/10~6/14	본실험 진행

[표 2] 실험 절차 (날짜순)

예비 실험 결과, 참가자들이 일부 문항에 제시된 상황 맥락에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해당 부분을 보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수정하였고, 예비 실험 사후 설문조사에서 수사어의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거쳤다. 그 결과 본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문항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없었다.

3.3. 실험 결과 분석 및 논의

3.3.1. 종결 억양 실현 양상

이 글에서 다룬 수사어의문문의 종결 억양은 수사어의문문의 의미가 [부정 단언]인지, [감탄]인지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 또한 수사어의문문(RQ)과 일반 설명의문문(wh-OQ)의 종결 억양이 같은지, 다른지도 수사어의문문의 의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수사어의문문의 의미별로 종결 억양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어서 [부정 단언]과 [감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부정 단언] 수사어의문문

[부정 단언]으로 해석되는 수사어의문문은 대체로 하강의 종결 억양을 지녀 L%, HL%,

12) 모든 문항에는 목표 문장('의문사+[이렇게, 그렇게]' 형식)의 의미와 어울리는 상황 맥락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가령 [표 1]의 1번 문항에 제시된 상황 맥락은 아래의 (1)과 같다.

(1) 인혜와 승우는 연인 사이입니다. 인혜와 승우는 서로 배려심이 없다고 말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13) 예비 실험은 실험 문항 및 맥락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설계 시 추가 고려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총 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LHL%, HLHL%로 실현되는데 모든 '의문사+그렇게'류 수사어문문이 하강조로 문장을 끝맺는 것은 아니다. [부정 단언]으로 해석되는 수사어문문 중에서도 수사어문문을 발화하는 맥락이 화·청자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맥락이라면 종결 억양이 하강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화·청자가 싸우고, 서로 반박하는 부정적인 맥락이라면 상승조(H%, LH%)의 종결 억양도 나타난다.

아래 [표 3], [표 4]는 의문사 '뭐(what)', '누구(who)'가 포함된 의문문 중 긍정 맥락에 쓰인 의문문의 종결 억양을 정리한 것이다.

뭐(what)-성분-긍정 맥락		WHAT-S-POS		WHAT-O-POS	
		뭐가 그렇게 미안해?		뭐를 그렇게 못했어?	
의문문 종류		수사어문문	일반어문문	수사어문문	일반어문문
하강	L%	2	0	0	1
	HL%	1	0	7	1
	LHL%	4	0	2	0
상승	H%	0	1	1	2
	LH%	2	9	0	6
	LHLH%	1	0	0	0
총계		10	10	10	10
		하강 70% 상승 30%	하강 0% 상승 100%	하강 90% 상승 10%	하강 20% 상승 80%

[표 3] 긍정 맥락(POS)에 쓰인 '뭐'가 포함된 부정 단언의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의 종결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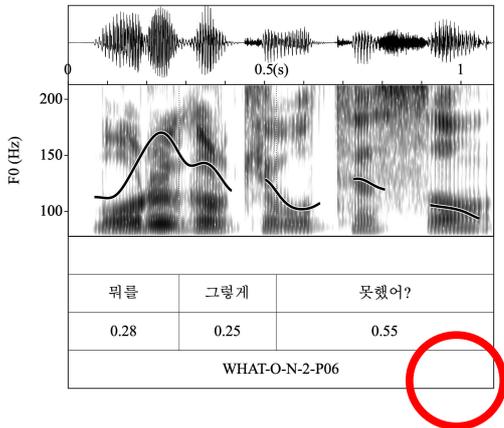
누구(who)-성분-긍정 맥락		WHO-S-POS		WHO-O-POS	
		누가 그렇게 생각해?		누구를 그렇게 놀렸어?	
의문문 종류		수사어문문	일반어문문	수사어문문	일반어문문
하강	L%	1	0	1	1
	HL%	4	0	3	2
	LHL%	3	0	2	1
	HLHL%	0	0	0	0
상승	H%	1	2	1	1
	LH%	0	8	2	5
	HLH%	0	0	0	0
	LHLH%	1	0	1	0
총계		10	10	10	10
		하강 80% 상승 20%	하강 0% 상승 100%	하강 60% 상승 40%	하강 40% 상승 60%

[표 4] 긍정 맥락(POS)에 쓰인 '누구'가 포함된 부정 단언의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의 종결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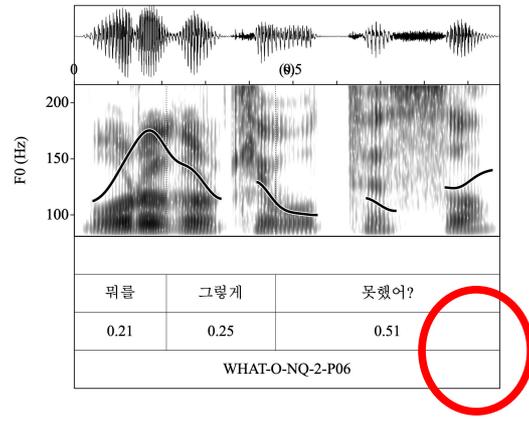
[표 3]과 [표 4]에 제시한 수사어문문은 모두 긍정 맥락에서 사용된 예들이다. 예를 들어 '뭐가 그렇게 미안해?'는 '미안해 할 필요 없다, 괜찮다'와 같이 상대방을 허용, 위로하는 맥락이고 '뭐를 그렇게 못했어?'도 '너는 못하지 않았다, 잘했다'처럼 해석된다. '누구'의 경우도 '누가 그렇게 생각해?'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로 부정되어 청자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위로하는 맥락에 사용되었고, '누구를 그렇게 놀렸어?'도 '아무도 (너를) 놀리지 않았다'라는 단언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청자를 위로하는

맥락에 쓰였다.

이처럼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황에서 수사의문문의 종결 억양은 L%, HL%, LHL%로 실현되어 발화자마다 구체적인 억양 특성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강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동일한 형식의 문장을 일반의문문으로 해석하여 읽을 때에는 [표 3], [표 4]에서 보듯이 LH%의 종결 억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래 [그림 2], [그림 3]에서 긍정 맥락에 쓰인 [부정 단언]의 수사의문문과 동일한 문장의 일반의문문의 억양 패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긍정맥락_‘뭐’ 수사의문문



[그림 3] ‘뭐’ 일반의문문

이러한 실험 결과는 기존 논의에서 밝힌 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의 종결 억양 차이와 일치한다.

그러나 ‘뭐/누가+그렇게’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이 화·청자가 싸우거나 서로를 반박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담은 맥락에서 실현되면 일반의문문과 마찬가지로 LH%나 H%의 종결 억양을 나타내 위의 [표 3], [표 4]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뭐(what)-성분-부정 맥락		WHAT-S-NEG		WHAT-O-NEG	
		뭐가 그렇게 달랐어?		뭐를 그렇게 밀었어?	
일반의문문/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	일반의문문	수사의문문	일반의문문
하강	L%	0	0	1	0
	HL%	0	0	5	1
	LHL%	0	0	1	0
상승	H%	2	0	1	1
	LH%	8	10	2	8
총계		10	10	10	10
		하강 0%	하강 0%	하강 70%	하강 10%
		상승 100%	상승 100%	상승 30%	상승 90%

[표 5] 부정 맥락(NEG)에 쓰인 ‘뭐’가 포함된 부정 단언의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의 종결 억양

누구(who)-성분-부정 맥락		WHO-S-NEG		WHO-O-NEG	
		누가 그렇게 말했어?		누구를 그렇게 만났어?	
일반의문문/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	일반의문문	수사의문문	일반의문문
하강	L%	0	0	0	0
	HL%	5	0	2	1
	LHL%	0	0	1	0
	HLHL%	0	0	1	0
상승	H%	2	3	0	0
	LH%	2	7	6	9
	HLH%	1	0	0	0
총계		10	10	10	10
		하강 50%	하강 0%	하강 40%	하강 10%
		상승 50%	상승 100%	상승 60%	상승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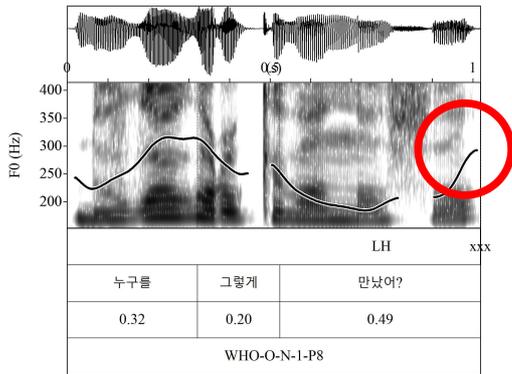
[표 6] 부정 맥락(NEG)에 쓰인 '누구'가 포함된 부정 단언의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의 종결 억양

[표 5]에 쓰인 '뭐가 그렇게 달랐어?'는 상대방과 싸우는 상황에서 발화되어 '너는 뭐가 그렇게 달랐냐, 너도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에는 수사의문문을 발화한 화자 10명에게서 모두 H%, LH%의 종결 억양이 나타났다.¹⁴⁾ 이와 마찬가지로 [표 6]의 '누가 그렇게 말했어?', '누굴 그렇게 만났어?'도 모두 화자의 태도에 대한 상대방의 비난을 반박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의 의미를 전달하고 '누굴 그렇게 만났어?'도 '나는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다'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화자에 따라 하강으로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상승으로 실현하는 경우도 있어 하강과 상승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한편 [표 5]의 '뭘 그렇게 밀었어?'는 '나는 너를 밀지 않았다'로 해석되어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긴 하였지만 하강의 종결 억양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강조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¹⁵⁾ 실제로 상승(H%)의 종결 억양으로 발화한 실험자는 하강조로 발화한 다른 실험자에 비교하여 매우 화가 난 어조로 해당 문장을 발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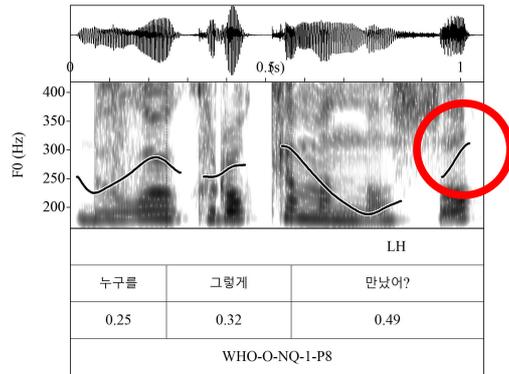
[표 6]의 '누구를 그렇게 만났어?'의 억양 실현 양상을 그림으로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14) 이 경우의 '뭐가 그렇게 달랐어?' 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의 차이는 종결 억양에서 드러나지 않고 마지막 어절의 억양 패턴 및 문장 전체의 억양구 실현 단위에서 드러난다. 억양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15) 또 다른 가능성으로 '뭘 그렇게 밀었어?'의 선행 발화와 관계성을 제시할 수 있다. '뭘 그렇게 밀었어?'의 선행 발화로 상대방이 '왜 밀어?'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 문장은 상승조로 발화된다. 이처럼 선행 발화가 상승조일 경우, 후행 발화가 하강조로 발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 부정 맥락_‘누구’ 수사의문문



[그림 5] ‘누구’ 일반의문문

이처럼 부정 맥락에 쓰인 수사의문문은 일반의문문과 동일한 LH%의 상승 종결 억양을 보이는 경향성이 높다. 그러나 [표 3], [표 4]를 자세히 보면 수사의문문의 경우 일반의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 LHL%이나 HLHL%, HLH%처럼 복합된 굴곡형의 종결 억양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여럿 발견되는데 이는 일반의문문의 종결 억양과 다른 수사의문문 종결 억양의 특징이다.

지금까지 [표 3]~[표 6]를 통해 맥락(context) 요인에 따라 종결 억양의 하강 및 상승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맥락 요인과 의문사 종류에 따라 종결 억양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 분산 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¹⁶⁾ 맥락 요인은 긍정 맥락(pos)과 부정 맥락(neg)으로 나누어지며 의문사 종류는 ‘뭐(what)’와 ‘누구(who)’로 나누어지며 종결 억양은 하강(0)과 상승(1)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통계량 ¹⁷⁾	p값
[맥락]	2.59900	1	2.59900	11.76039	<.0001
[의문사 종류]	0.00141	1	0.00141	0.00636	0.937
[맥락]*[의문사 종류]	0.23755	1	0.23755	0.07491	0.303

[표 7] 맥락 요인과 의문사 종류 요인에 따른 종결 억양의 차이(이원 분산 분석)

[표 7]에 따르면, 맥락에 따라 종결 억양이 달라지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7)=11.760$, $p < 0.001$). 반면, 의문사 종류는 종결 억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F(1,77)=0.0006$, $p = 0.937$). 맥락 요인과 의문사 종류 요인 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었다($F(1,77)=1.075$, $p = 0.303$). 사후 검정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맥락 요인의 두 단계(긍정/부정)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16) 이원 분산분석은 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에서는 맥락 요인과 의문사 종류가 두 독립변인으로서, 두 변인이 종결 억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정단언의 수사의문문과 감탄의 수사의문문에 대해 각각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통계 분석용 소프트웨어 jamovi(v.2.3)를 사용하였다(The jamovi project (2022). jamovi. (Version 2.3) [Computer Software]).

17) F-통계량은 분산분석에서 집단 간 변동과 집단 내 변동의 비율을 나타낸다. 맥락 요인의 F-통계량이 11.76039인 것은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집단 내 변동에 비해 11.76039배 큰 것을 가리킨다.

0.001), 효과 크기도 중간 이상이었다(Cohen's $d = -0.762$). 반면, 의문사 종류, '무엇'과 '누구'에 따른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937$). 상호작용의 경우 의문사 종류가 '무엇'인 경우에만 맥락 요인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큰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p = 0.011$, Cohen's $d = -0.993$), 다른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통계 분석 결과 맥락이 종결 억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의문사 종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감탄] 수사어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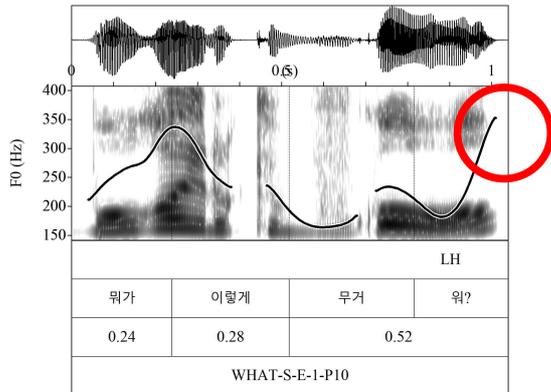
[감탄]의 수사어문문은 [부정 맥락]의 수사어문문과 달리 종결 억양이 상승하여 LH%로 실현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¹⁸⁾ 그리하여 일반어문문의 종결 억양과 감탄으로 해석되는 수사어문문의 종결 억양은 같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의문사 '뭐'가 쓰인 감탄 수사어문문에서 이러한 특징이 명확히 보이는데, 이는 아래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뭐(what)		WHAT-S-POS		WHAT-S-NEG		WHAT-O-POS		WHAT-O-NEG	
		뭐가 이렇게 맛있대?		뭐가 이렇게 무거워?		뭐를 이렇게 도와줘?		뭐를 이렇게 기다려?	
어문문 종류		수사	일반	수사	일반	수사	일반	수사	일반
하강	L%	0	0	0	0	0	0	1	0
	HL%	0	0	0	2	0	0	2	0
	LHL%	0	0	0	0	0	0	3	0
상승	H%	1	1	0	0	0	1	0	0
	LH%	9	9	10	8	10	8	4	10
	HLH%	0	0	0	0	0	1	0	0
총계		10	10	10	10	10	10	10	10
		하강 0% 상승 100%	하강 10% 상승 100%	하강 0% 상승 100%	하강 20% 상승 80%	하강 0% 상승 100%	하강 0% 상승 100%	하강 60% 상승 40%	하강 0% 상승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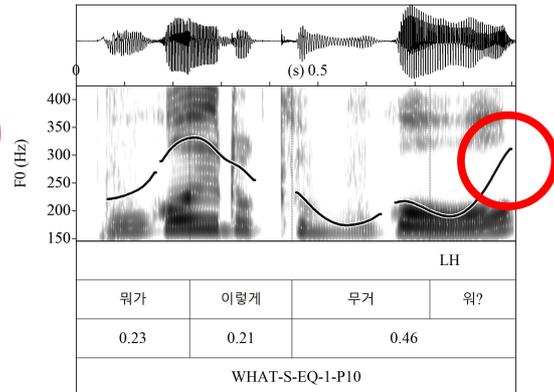
[표 8] '뭐'가 포함된 감탄의 어문문과 일반 어문문의 종결 억양

[표 8]에 제시한 수사어문문은 모두 감탄의 의미로 해석된다. '뭐가 이렇게 맛있대?'는 '(이 음식이) 정말 너무 맛있구나!' 정도로 해석되고 '뭐가 이렇게 무거워?'는 '(이 물건이) 정말 무겁네!' 정도로 해석된다. '뭐를 이렇게 도와줘?' 역시 상대방이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매우 극진하고 큰 정도여서 이에 놀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리하여 '정말 열심히 도와준다!'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90%가 LH%의 종결 억양으로 발화하였고 10%도 H%로 발화하여 매우 높은 상승조의 종결 억양을 보였다. [감탄] 수사어문문 중 '뭐가 이렇게 무거워?'를 예로 들어 억양 곡선 그림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18) [부정 맥락]과 [감탄]의 수사어문문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한 내용은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서술한다.



[그림 6] '뭐' [감탄] 수사의문문



[그림 7] '뭐' 일반의문문

한편 [표 8]에서 '뭐를 이렇게 기다려?'는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린다'로도 해석되어 감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로도 해석될 수 있어 '불필요성'의 의미(부정 맥락)가 도출된다. 이에 단순 놀라움의 감탄으로 해석되는 앞의 세 경우와 의미 해석이 조금 다른바, 종결 억양에서도 이런 차이가 드러난다. LH%의 종결 억양이 가장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L%, HL%, LHL%로 발화한 화자가 60%여서 하강조의 억양도 과반수 이상이 나왔다.

[감탄] 수사의문문은 의문사에 따른 차이를 보여 '뭐'와 달리 '누구'가 실현되면 아래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H%또는 HL%의 종결 억양이 나타난다.

누구(who)	WHO-S-POS 누가 이렇게 예쁘래?		WHO-S-NEG 누가 이렇게 다정해?		WHO-O-POS 누굴 이렇게 좋아해?		WHO-O-NEG 누굴 이렇게 미워해?		
	수사	일반	수사	일반	수사	일반	수사	일반	
하강	L%	1	0	2	0	0	0	0	0
	HL%	1	3	3	0	3	1	3	1
	LHL%	1	0	3	1	2	0	0	0
상승	H%	0	0	0	0	0	0	0	0
	LH%	7	7	2	8	4	9	5	9
	HLH%	0	0	0	0	0	0	1	0
LHLH%	0	0	0	1	1	0	1	0	
총계	10	10	10	10	10	10	10	10	
	하강 30%	하강 30%	하강 80%	하강 10%	하강 50%	하강 10%	하강 30%	하강 10%	
	상승 70%	상승 70%	상승 20%	상승 90%	상승 50%	상승 90%	상승 70%	상승 90%	

[표 9] '누구'가 포함된 감탄의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의 종결 억양

이는 '뭐'와 달리 의문사 '누가'가 가진 특성으로 해석되는데, '누가'의 경우 '누가 이렇게 예쁘래?'처럼 '네가 정말 예쁘다!'로 해석되는 특수한 표현 외에는 '나처럼 다정한 사람은 없다', '(저 사람 외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저 사람 외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처럼 부정 단언으로 해석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3) [부정 단언]과 [감탄]의 수사어문 비교

위에서는 의문사 ‘뭐’가 실현될 경우 [부정 단언]과 [감탄]의 종결 억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정 단언]에서는 L%, HL% 등의 하강 종결 억양이 실현되고 [감탄]에서는 H%, LH%의 상승 종결 억양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서는 이진 로지스틱 회귀 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아래의 [표 10] 참고).

예측 변수	추정값	표준오차(SE)	z값	p값
절편(intercept)	-0.302	0.320	-0.946	0.345
[의미](부정 단언/감탄)	2.037	0.546	3.729	< 0.001

[표 10] [부정 단언]과 [감탄]의 차이가 종결 억양에 미친 효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의미]([부정 단언]과 [감탄]의 두 단계로 나뉘는 요인)에 따른 종결 억양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미] 요인의 추정값은 2.037(SE = 0.546, Z = 3.729, p < .001)로, 95% 신뢰 구간은 0.966에서 3.107 사이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 단언]일 경우 하강 종결 억양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감탄]에서는 상승 종결 억양의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문사 ‘뭐’가 포함된 수사어문에서 의문문의 의미에 따라 종결 억양이 명확하게 구별됨을 시사한다.

3.3.2. 억양구 단위 및 지속 시간

이 절에서는 [부정 단언], [감탄]으로 해석되는 수사어문의 억양구(IP) 단위를 비교 분석하고 ‘의문사+그렇게’의 지속 시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실험 문장은 모두 3어절로 구성되어 있어 실현될 수 있는 억양구의 유형은 아래 오 같이 총 4가지이다.

(10) 뭐가 그렇게 미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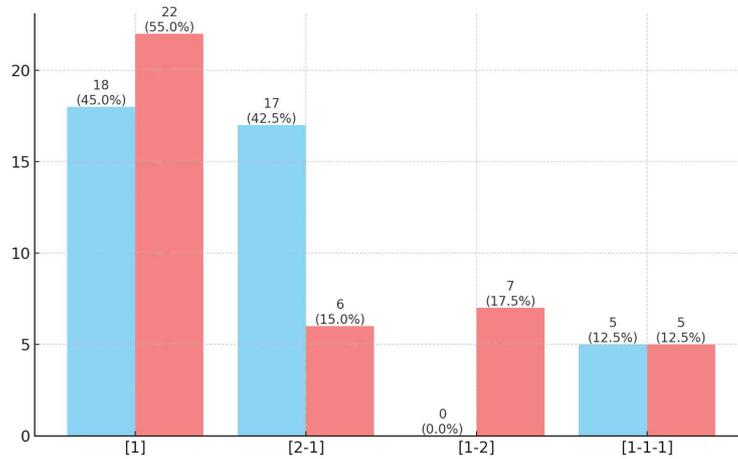
- 가. [1] : [뭐가 그렇게 미안해]
- 나. [2-1] : [뭐가 그렇게] [미안해]
- 다. [1-2] : [뭐가] [그렇게 미안해]
- 라. [1-1-1] : [뭐가] [그렇게] [미안해]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은 의도적인 휴지(pause)를 개재하지 않는 한 초점을 받는 의문사구 뒤에 이어지는 단어들의 음운구가 해지(dephrasing)되어 하나의 억양구(IP)를 형성한다. 가령 ‘어디에 가요?’와 같이 의문사를 포함한 설명의문문은 (10가)와 같이 [1]의 억양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의문사가 질문의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초점을 받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음조를 가지게 되고 마지막 종결 억양은 그것보다 낮은 LH% 정도로 실현되는 것과도 연결되는 특징이다. 이와 비교하여 수사어문에서 의문사는 설명의문문과 달리 정보 초점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10)의 예가 [부정 단언]으로 해석될 경우, ‘그렇게 미안

해 할 일이 없다'로 해석되므로 (10)의 문장 전체가 초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예측되는 역양구는 (10가)의 [1]인데, 실제 실험 결과 [1] 외의 [2-1] 등의 역양구 유형이 다양하게 실현되었다.

1) [부정 단언] 수사어문문

[부정 단언]을 나타내는 수사어문문의 경우 의문사에 따라 역양구 유형이 달리 나타났다.



하늘색: '뭐'를 포함한 수사어문문
분홍색: '누구'를 포함한 수사어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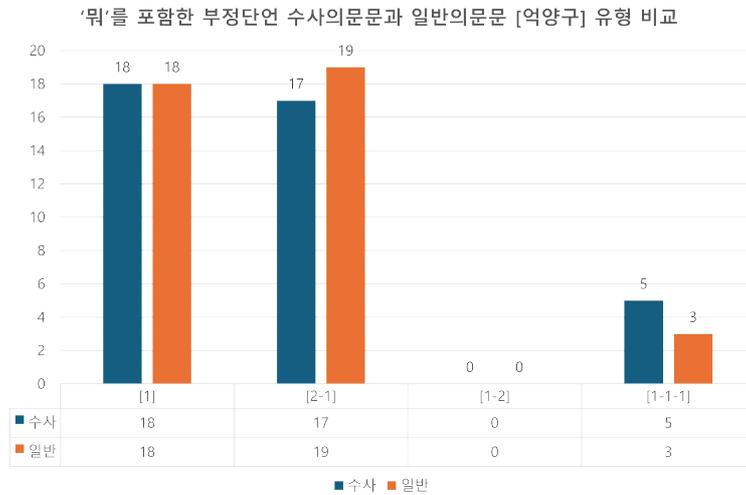
[그림 8] 부정 단언_수사어문문의 역양구 실현 양상

위의 [그림 8]에서 보듯 '뭐'를 포함한 수사어문문에서는 [1] 유형이 45% [2-1] 유형이 42.5%를 차지한다. 반면 '누구'를 포함한 경우, [1] 유형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1] 유형은 15%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의문사가 '뭐'와 '누구'로 달라짐에 따라 형성되는 역양구 유형도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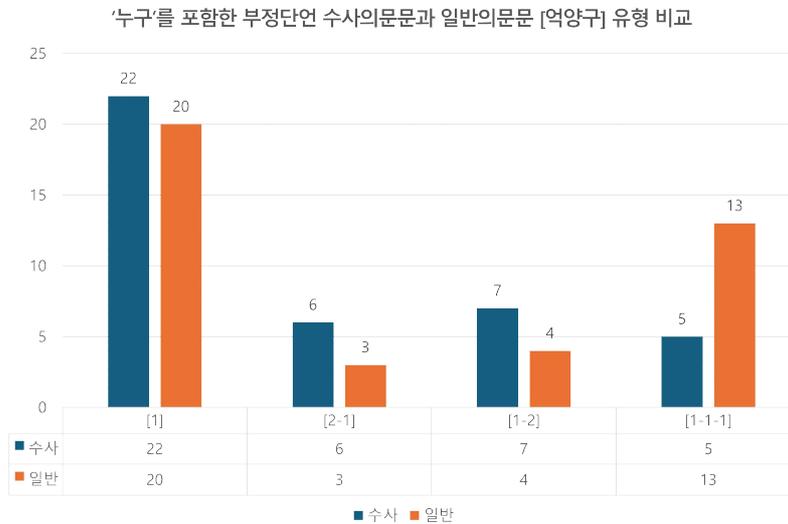
위의 결과에서 '뭐'의 경우 [2-1]의 유형을 보이는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뭐가 그렇게]에서 '뭐가'가 초점을 받고 뒤에 이어지는 서술어(예: [어려워])가 또 다른 초점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글에서 살펴보고 있는 수사어문문 구성은 '그렇게'라는 지시 부사어가 개입됨으로 인해 의문사와 지시 부사어, 서술어가 각각 초점을 받을 수도 있고, 의문사 혹은 지시 부사어만 초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의문사 '누구'의 경우는 의문사가 단독으로 초점을 받아 하나의 역양구 [1]을 형성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아래 [그림 9], [그림 10]에서처럼 일반의문문에서도 보이는바 역양구를 바탕으로 수사어문문과 일반의문문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19) 이러한 차이는 자료의 크기를 늘려 추후 더 정교한 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9] ‘뭐’를 포함한 부정단언 수사어문문과 일반어문문의 역양구 유형



[그림 10] ‘누구’를 포함한 부정단언 수사어문문과 일반어문문의 역양구 유형

[그림 9], [그림 10]에서처럼 수사어문문과 일반어문문의 역양구 유형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의문사+그렇게]의 지속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일반어문문의 경우가 수사어문문보다 조금 더 길게 나타나, 일반어문문과 수사어문문의 차이를 드러낸다.

의문문 종류	[부정 단언] 수사의문문				일반의문문				
	[뭐] 코드	WHAT-SN1	WHAT-SN2	WHAT-ON1	WHAT-ON2	WHAT-SNQ1	WHAT-SNQ2	WHAT-ONQ1	WHAT-ONQ2
P1		0.51	0.54	0.49	0.45	0.56	0.47	0.54	0.48
P2		0.43	0.43	0.4	0.43	0.41	0.46	0.44	0.56
P3		0.54	0.71	0.55	0.57	0.59	0.7	0.59	0.56
P4		0.47	0.46	0.45	0.53	0.46	0.43	0.46	0.46
P5		0.48	0.52	0.46	0.53	0.49	0.49	0.42	0.43
P6		0.46	0.46	0.45	0.38	0.33	0.38	0.38	0.41
P7		0.46	0.49	0.52	0.42	0.68	0.93	0.5	0.66
P8		0.61	0.51	0.51	0.59	0.53	0.57	0.56	0.5
P9		0.39	0.46	0.39	0.47	0.55	0.48	0.56	0.57
P10		0.42	0.56	0.51	0.62	0.68	0.86	0.65	0.65
평균값		0.49075				0.53575			
[누구] 코드	WHOS-N1	WHOS-N2	WHOON1	WHOON2	WHOS-NQ1	WHOS-NQ2	WHOONQ1	WHOONQ2	
P1		0.5	0.48	0.48	0.51	0.72	0.49	0.51	0.51
P2		0.43	0.44	0.43	0.45	0.46	0.44	0.42	0.41
P3		0.48	0.49	0.56	0.52	0.52	0.46	0.52	0.57
P4		0.39	0.45	0.5	0.42	0.44	0.53	0.55	0.52
P5		0.51	0.46	0.52	0.42	0.48	0.49	0.57	0.49
P6		0.39	0.33	0.43	0.41	0.4	0.47	0.47	0.44
P7		0.6	0.47	0.6	0.56	0.57	0.83	0.64	0.7
P8		0.58	0.51	0.6	0.51	0.57	0.62	0.49	0.56
P9		0.44	0.38	0.49	0.61	0.43	0.49	0.49	0.51
P10		0.23	0.87	0.52	0.54	1.25	0.77	0.75	0.46
평균값		0.48775				0.55025			

*단위: 초(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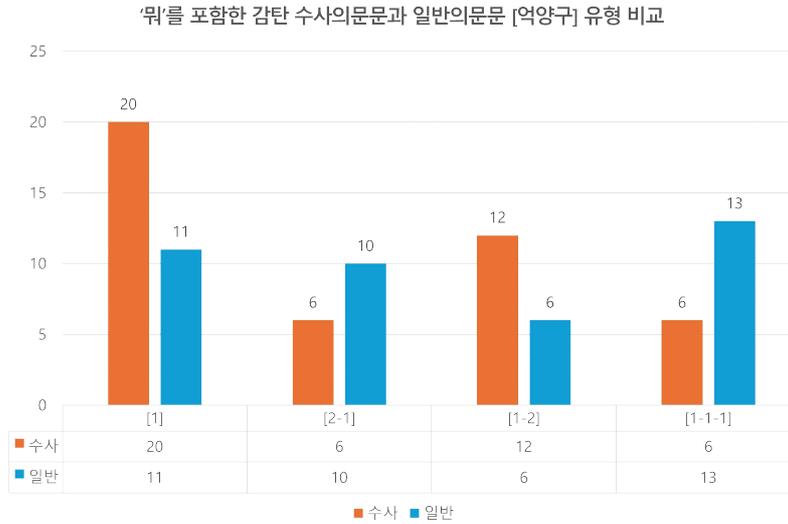
[표 11] 부정단언_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의 [의문사+그렇게] 길이 비교

[표 11]에서처럼 일반의문문에서 [의문사+그렇게]의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설명의문문에서 초점을 받은 의문사가 더 길게 늘어져 발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뭐를’의 경우 동일한 문장 형식을 제시하였음에도, 수사의문문을 읽을 때는 90% 이상의 참가자가 ‘뭘’로 축약하여 발화한 반면에 일반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맥락에서는 ‘뭐를’의 2음절로 분명하게 발화하였다. 의문사 ‘누구’와 결합한 ‘누구를’의 경우에도 일반의문문과 달리 수사의문문에서는 ‘누굴’로 축약해 발화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수사 의문문과 일반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모두 초점을 받아도, 일반의문문에서의 의문사가 더 지속 시간이 길게 발화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감탄] 수사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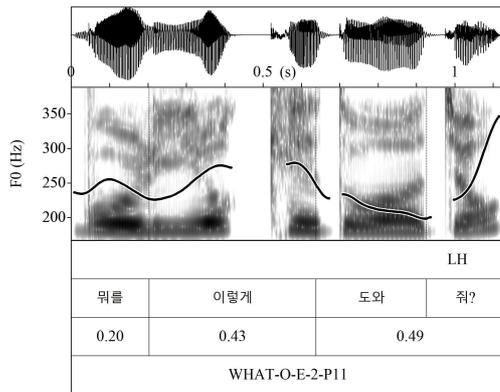
다음으로 [감탄]을 나타내는 수사의문문의 억양구 형성 유형을 살펴보자. 종결 억양을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감탄]의 경우에는 의문사가 ‘뭘’로 실현되느냐, ‘누구’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억양구 유형의 특징이 달라졌다. 특히 ‘누구’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에서는 어느 하나의 억양구로 모아지는 경향성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억양구 유형이 실현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먼저 ‘뭘’을 포함한 [감탄] 수사의문문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1]와 [1-2] 유형이 각각 50%, 3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위에서 논의한 [부정 단언]의 경우와 달리 [1-2] 유형이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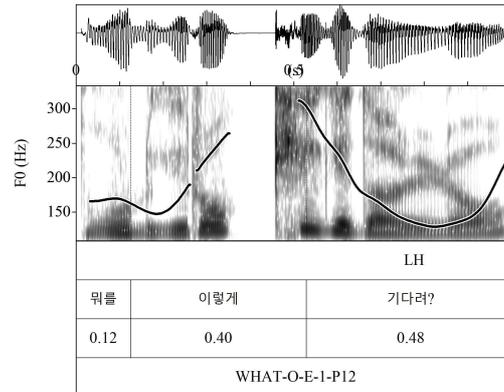


[그림 11] '뭘'을 포함한 감탄 수사어문문과 일반어문문의 억양구 유형

[감탄] 수사어문문에서 [1-2] 유형이 가장 도드라진 것은 '뭘을 이렇게 도와줘?' 예문이었다. 이 예문은 90%가 [뭘을] [이렇게 도와줘?]로 발화하였는데, 이 경우 '이렇게'의 '렇'이나 '게'에 초점이 얹혀 음운론적 흔들림(H*)이 강하게 도드라졌고 '뭘'은 상대적으로 짧게 발화되었다.²⁰⁾ [1-2]로 실현되어 '이렇게'에 강한 초점이 얹힌 예시를 두 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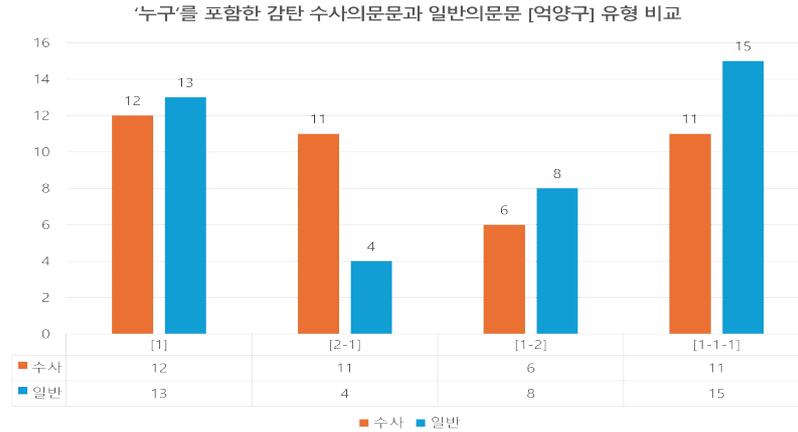


[그림 13]

20) 이처럼 '뭘'이 포함된 수사어문문의 억양구가 [1-2]로 실현되는 것은 '뭘'이 담화표지화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즉 의문사로서의 지위보다, 담화표지로서의 특성이 강해지면서 [뭘] [이렇게 도와줘]와 같은 억양구 실현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슨 책이 이렇게 비싸'와 같은 예문에서 '무슨'은 담화표지로 작용하는데 이때 억양구는 [무슨] [책이 이렇게 비싸]로 실현되는 반면, '누구 책이 이렇게 비싸'와 같은 일반어문문은 *[누구] [책이 이렇게 비싸]와 같은 억양구 실현이 불가능하다.

한편 [그림 11]에서 보듯이 일반의문문의 억양구 유형은 [1], [2-1], [1-2], [1-1-1]로 다양하게 실현되었다.

다음으로 ‘누구’가 포함된 [감탄]의 수사의문문은 다양한 억양구로 실현되며 이때 일반의문문의 억양구 실현 양상도 수사의문문과 유사하다.



[그림 14] ‘누구’를 포함한 감탄 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의 억양구 유형

마지막으로 [감탄] 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의 ‘의문사+그렇게’의 지속 시간을 비교해보면, [부정 단언]과 마찬가지로 일반의문문에서 실현된 ‘의문사+그렇게’의 지속 시간이 더 길다.

의문문 종류	[감탄] 수사의문문				일반의문문			
	WHAT-SE-1	WHAT-SE-2	WHAT-OE-1	WHAT-OE-2	WHAT-SEQ1	WHAT-SEQ2	WHAT-OEQ1	WHAT-OEQ2
[뒤] 코드								
P1	0.52	0.51	0.48	0.51	0.5	0.49	0.55	0.62
P2	0.39	0.35	0.34	0.34	0.48	0.39	0.4	0.52
P3	0.57	0.48	0.64	0.51	0.59	0.52	0.77	0.63
P4	0.54	0.43	0.43	0.51	0.42	0.48	0.5	0.59
P5	0.48	0.43	0.44	0.45	0.47	0.4	0.42	0.72
P6	0.41	0.45	0.33	0.44	0.39	0.43	0.42	0.45
P7	0.52	0.48	0.57	0.52	0.44	0.68	0.66	0.62
P8	0.54	0.55	0.44	0.63	0.51	0.55	0.66	0.74
P9	0.5	0.43	0.52	0.62	0.45	0.39	0.48	0.58
P10	0.61	0.53	0.91	0.44	0.79	0.47	0.4	0.48
평균값	0.49475				0.52625			
[누구] 코드								
P1	0.53	0.52	0.54	0.52	0.45	0.65	0.5	0.46
P2	0.39	0.37	0.46	0.43	0.4	0.4	0.47	0.47
P3	0.39	0.5	0.61	0.52	0.61	0.69	0.5	0.69
P4	0.42	0.56	0.48	0.48	0.5	0.46	0.42	0.61
P5	0.36	0.36	0.55	0.53	0.5	0.49	0.38	0.61
P6	0.38	0.39	0.49	0.47	0.41	0.43	0.42	0.42
P7	0.33	0.59	0.64	0.61	0.55	0.52	0.61	0.59
P8	0.67	0.52	0.57	0.54	0.64	0.63	0.57	0.55
P9	0.43	0.38	0.58	0.46	0.47	0.41	0.5	0.51
P10	0.42	0.8	0.67	0.56	0.45	0.56	0.98	0.83
평균값	0.5005				0.53275			

*단위: 초(sec)

[표 12] 감탄_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의 [의문사+그렇게] 길이 비교

[감탄] 수사어문문에서도 ‘뭐가/뭐를 이렇게’나 ‘누가/누구를 이렇게’는 일반어문문에서보다 짧게 발화되었으며 ‘뭐를’, ‘누구를’이 ‘뭘’, ‘누굴’로 발화되었다. 이는 일반어문문에서 의문사가 정보의 초점을 받는 것과 달리 수사어문문에서 의문사는 정보의 초점을 받지 않아 음성적으로도 비교적 짧고 약하게 발화되는 것으로 의미와 음성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4. 결론

‘의문사(뭐, 누구)+{그렇게, 이렇게}’가 포함된 수사어문문의 의미와 운율 구조의 관계를 밝힌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사(뭐, 누구)+{그렇게, 이렇게}’가 포함된 수사어문문의 의미는 크게 [부정 단언] 및 [감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의미 유형에 따라 종결 억양의 특징이 달라진다. [부정 단언]의 경우에는 L%, HL%과 같은 하강조의 종결 억양이 도드라지며, [감탄]의 경우에는 H%, LH%와 같은 상승조의 종결 억양이 주로 실현된다. 이에 [부정 단언]의 수사어문문은 일반어문문과 종결 억양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부정 단언]과 [감탄]의 의미 차이에 따른 종결 억양 차이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특히 [감탄]의 경우 상승 억양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상승조(rising tone)가 의문사가 있는 일반어문문하고만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의문사(뭐, 누구)+{그렇게, 이렇게}’가 포함된 수사어문문이 [부정 단언]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 발화 맥락이 긍정적(pos)이나 부정적(neg)이나에 따라 종결 억양 실현 양상이 분화된다. 이러한 맥락 요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긍정 맥락(예: 위로, 격려)에서는 종결 억양이 하강(L%)하는 경우가 많고 부정 맥락(예: 의심, 반박)에서는 상승하는 종결 억양(H%)이 더 많이 나타난다.

셋째, ‘의문사(뭐, 누구)+{그렇게, 이렇게}’가 포함된 수사어문문의 억양구(IP) 유형은 [부정 단언]과 [감탄]에 따라 달리 실현되고, 의문사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부정 단언]의 경우 의문사 ‘뭐’가 포함되면 [1] 또는 [2-1]의 유형이 90% 가까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어문문으로 해석될 때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의문사 ‘누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1] 유형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감탄]의 수사어문문에서는 ‘뭐’가 포함된 경우 [1] 또는 [1-2] 유형이 80% 나타났고 ‘누구’가 포함된 수사어문문의 억양구 유형은 특정 억양구로 몰리는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즉, [부정 단언]이든 [감탄]이든 의문사 ‘누구(who)’와 달리 ‘뭐(what)’가 포함된 경우 억양구 유형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누구’와 ‘뭐’의 의미 차이, 담화 표지와 의 관련성 정도의 차이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의문사(뭐, 누구)+{그렇게, 이렇게}’가 포함된 수사어문문의 경우 일반어문문과 마찬가지로 의문사 ‘뭐’, ‘누구’ 혹은 ‘그렇게, 이렇게’가 초점을 받는 성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어문문과 달리 [의문사+그렇게/이렇게]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는 일반어문문에 실현된 의문사가 더 강하게 음운론적 돌출림이 실현되어 길게 발음되는 것으로, 정보 초점을 받는 의문사의 특성이 음성적으로도 실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규영(2022),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두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103, 국어학회, 473-505.
- 김미란·신동현·최재웅·김기호(2000),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억양 패턴 실험, 《음성과학》 7, 203-217.
- 김선철(1997), 국어 억양의 음성학·음운론적 연구: 서울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명정희·백인영(2024), ‘뭐 그렇게’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의 의미 연구, 《국어학》 110, 국어학회, 315-343.
- 박종갑(1982), 의문문과 간접언어행위, 《한민족어문학》 9, 한민족어문학회, 55-76.
- 박진호(2019), 正反의문문과 수사의문문, 《韓國學報》 36,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1-24.
-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안정민·박명관(2016), 의문사가 있는 경상 방언 메아리 및 수사의문문의 종결어미 호응, 《생성문법연구》 26, 45-62.
- 오미라(2020), 전남어의 억양구말 강세구 성조 연구, 《언어》, 한국언어학회, 555-577.
- 오재혁(2011), 국어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재혁(2014), 한국어 억양 곡선의 정규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62, 한국어학회, 395-420.
- 윤영숙(2014),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문사의문문과 부정사의문문에 대한 한국어원어민 화자의 지각 양상, 《말소리와 음성과학》 6(4), 37-45.
-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언어연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0, 15-25.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전선아(2003), K-ToBI(한국어 ToBI) Labelling 규약, 《서울말연구》, 박이정.
- 최재웅·송상헌·오은정(2017), 피험자의 배경 변인이 수용성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가?, 《언어와언어학》 74,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81-206.
- Ahn, M. and Kang, A. (2020), “The prosody of wh- and rhetorical questions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6, 502-522.
- Bartels, Christine (2014), *The Intonation of English Statements and Questions: A Compositional Interpretation*. Routledge. New York.
- Beckman, M. E. (1986), *Stress and Non-stress Accent*,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Bolinger, D. (1989), *Intonation and Its Uses: Melody in Grammar and Discours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üring, D. (2016), *Intonation and Meaning*, Oxford University Press.
- Jun, S. A. (2000), “K-ToBI(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 3.1”,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99, 149-173, <https://sunahjun.humspace.ucla.edu/ktobi/K-tobi.html>.
- Jun, S. A. (2005), “Korean intonational phonology and prosodic transcription,” *Prosodic Typology: The Phonology of Intonation and Phrasing*, ed. by S. Jun, 201-229: Oxford University Press.

- Jun, S. A. and Oh, M. (1995), A prosodic analysis of three types of wh-phrases in Korean, *Language and Speech* 39(1), 37-61.
- Lee, H. Y. (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Pierrehumbert, J.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Pierrehumbert, J. and Julia H.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Cohen, J. Morgan and M. Pollack (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271-311. Cambridge, MA: MIT Press.

■ 토론문

“한국어 수사어문문의 의미와 운율 구조”에 대한 토론문

유혜원(단국대)

이 논문은 한국어 수사어문문의 유형을 부정 단언과 감탄으로 나누고 이를 대상으로 상황별 억양의 실현 양상을 실험을 통해 실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문법 연구에서 음성적 특징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 분야의 연구가 직관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실증적 연구를 방법론으로 택한 이 연구의 의의가 크다. 독자의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1. 수사어문문의 유형 분류에 대한 적절성(실험 예문 선정과 관련된 내용 포함)

이 연구에서는 수사어문문의 의미로 ‘부정 단언’과 ‘놀라움의 감탄’이 있고, 화자의 감정과 관련된 맥락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금지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로 실험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의 문제점은 ‘단언’과 ‘감탄’은 화행의 종류이고 ‘금지’를 이와 같은 수준에서 쓰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어문문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분류 체계 등을 좀 더 엄밀히 기술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는 수사어문문을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어문문의 화행을 ‘단언’과 ‘감탄’의 간접화행으로 제시한 강규영(2022)에 따르면 ‘단언’과 ‘감탄’의 화행 구분이 그렇게 명쾌하지 않고 정도성과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감탄’ 화행에서 좀 더 그 성격이 강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의도가 전형적인 수사어문문의 유형별 억양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언’과 ‘감탄’의 전형적 사용을 보이는 예문들로 실험을 설계해야 하는데 실제 실험의 문항과 상황 맥락 제시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강규영(2022)에서는 특정 문법적 표현과 의문사 의문문이 공기했을 때 수사어문문의 성격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 채택한 ‘의문사+{이렇게, 그렇게}’가 과연 그러한 성격을 갖는지 의문이다.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 수사어문문이 가지는 정도성과 중의성의 양상을 어떤 방식으로 배제하여 실험을 설계했는지 궁금하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문장으로 수사어문문의 예시만 나와 있는데 실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의문문의 예시도 함께 제시되어야 실험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동일한 표현을 참가자들이 일반의문문과 수사어문문으로 구분하게 하는 상황 제시 등이 연구에 드러나야 한다.) 5페이지의 ‘가령 (7가)의 발화가 ~ 실현될 수 있을 듯하다.’ 부분 중에 ‘일반의문문이라면 ‘뭘’과 ‘이렇게’ 사이의 휴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진다.’라는 기술이 있는데, 일반의문문 이든, 수사어문문 이든 실제 발화에서 ‘뭘’과 ‘이렇게’ 사이에 휴지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휴지가 있다는 것은 ‘뭘’과 ‘이렇게’ 사이에 억양구가 있다는 것인데, 실제 발화에서는 억양구보다 작은 쉼의 단위 ‘음운구’가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결과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의문사+{이렇게, 그렇게}’ 문형을 채택한 이유 역시 설명되어야 한다. 이 문형이 수사의문문 연구에서 선택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은 듯하다.(물론 토론자가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그렇게’는 맥락에 따라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필자들이 제시했듯 어떤 요소가 선택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항 예시를 보면 부정 단언에서는 ‘그렇게’를 쓴 것 같고 감탄에서는 ‘이렇게’를 쓴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선택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 문장에서 대체로 종결어미 ‘-어’를 선택하여 쓰고 있으나 “뭐가 이렇게 맛있대?” “누가 이렇게 예쁘래?”는 종결어미의 형식이 다르다. 모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보면 어미가 달라지는 경우 화자들의 음성 실현(억양 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서 종결어미를 동일하게 맞춰야 할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긍정’과 ‘부정’을 맥락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맥락이라기보다 ‘화자의 태도’라 판단되며, 긍정 부정 판정의 객관성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문항 예시로 제시된 문장들 중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문장이 있어서 예시 문장을 구성한 방식(예를 들면 코퍼스에서 추출 등)을 설명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입증하면 좋을 듯하다.

2. 통계적 기법과 관련된 문제

연구자는 3개의 요인 (의미, 의문사 종류, 맥락)에 따른 종결 억양의 실현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통계적 기법의 엄밀성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종결 억양에 맥락과 의문사 종류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원 분산 분석은 데이터 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총 10명의 고정된 화자가 서로 다른 문장을 여러 차례 녹음함으로써, 320개의 음성 데이터셋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각각의 음성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 이원 분산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원 분산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 자료여야 하는데, 여기 기술에 따르면 종속 변수는 범주형 자료(종결 억양을 하강/상승 두 가지로 나누었으므로)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해한 바에 의하면 종결 억양은 상승/하강 2가지로 나뉘어 0과 1의 이진 데이터로 환산되었으나, 이 경우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ANOVA의 가정을 따르지 않아 부적절하다. 앞서 서술한 문제와 정규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데이터의 특성상 혼합 효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 부정 단언과 감탄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two-way ANOVA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ANOVA 결과는 부정 단언 섹션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왜 결과가 하나만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표 7의 ANOVA 결과는 부정 단언 데이터에 국한된 것인지 표 제목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쉬운 점은 각각의 의미에 대해 two-way ANOVA를 사용할 경우, 의문사 종류와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석 가능하나 의미와 맥락, 의미와 의문사 간의 상호작용은 분석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의문사 종류와 맥락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맥락과 의미 간의 상호작용 유무가 더 궁금하기도 하여 선택한 분석법에 아쉬움이 있다.

만약 해당 부의 통계 기법을 바꾸실 계획이 없다면, 데이터의 독립성 및 정규성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논문에 짧게 언급된 사후 검정은 어떤 것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정단언]과 [감탄], 즉 '의미' 요소에 대해서만 별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신 것에도 의문점이 있다. 실험 설계에서 다요인을 고려했음에도 하나의 요인을 별도로 분석하게 되면, 통계적 검정력이 감소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3.3.1. 종결 역양 실현 양상 부분에서는 혼합효과 로지스틱 회귀모델 등 다른 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3. 역양구 단위 및 지속 시간의 내용과 관련하여

역양구 단위를 (10)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각각의 빈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측정한 방법론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듯하다.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서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들이 실제 자연스럽게 가능한 유형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10라) 유형은 정말 실험을 통해 얻은 토큰들에 이런 역양구 유형이 관찰되었는지 의심스러운데 “뭐가 (쉬고) 이렇게 (쉬고) 미안해”라고 발화했다면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것 역시 음운구(작은 음의 단위)라면 그나마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역양구를 측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필자의 의도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문사+그렇게/이렇게]의 지속 시간 비교도 있는데 연구 결과는 일반의문문에서 실현된 지속 시간이 더 길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고 개인적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연구에서 제시한 표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실증하기가 어렵다. [누구] 코드와 [뭐] 코드 모두 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 사이의 30ms 정도 차이가 나는데, 1음절의 길이가 160ms인 것을 고려했을 때 매우 짧은 길이인 것 같고 따라서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지속 시간의 평균값이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도 통계 검정이 필요해 보인다.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 역양구 유형이 달라지는지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싶다면, 카이제곱 검정 등 분포에 대한 검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각주 19에 추후 자료 크기를 늘려 더 정교한 통계 분석을 하겠다고 서술하였는데,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실험 결과의 함의에 대한 제시

위의 실험 결과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이 연구의 의의가 잘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5. 세부적인 문제

- (6)의 의미의 같고 다름의 판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실험 참가자 규모의 적절성 및 남녀 발화자의 차이 검토
- 요인 설계(요인과 단계) 명칭의 적절성 : 의미, 맥락 등

자타양용동사에 대하여

이준희(동국대)

< 차례 >

1. 들어가며
 2. 자타양용동사의 양상과 유형
 3. 자타양용동사의 기능 요인
 4. 나가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소위 자타양용동사의 특성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이 자타양용동사로 기능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에 있다. 전형적인 유형의 자동사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 (1) 가. 비가 와 인원이 줄었다.
나. 날이 더워 음식이 금방 상했다.
다.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솟았다.
라. 피곤한지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다.

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자동사인 ‘줄다’, ‘상하다’, ‘솟다’, ‘생기다’의 경우 필수논항으로 주어만 실현되어도 문장 성립에 문제가 없으며, 도리어 목적어를 임의로라도 설정하여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자동사임에도 목적어로 기능하는 논항이 실현 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 (2) 가. 철수가 걷는다.
나. 철수가 산길을 걷는다.
다. 비둘기가 난다.
라. 비둘기가 하늘을 난다.

예문 (2가)와 (2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걷다’와 ‘난다’는 주어만 실현되어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즉, 예문 (1)의 서술어와 마찬가지로 자동사인 것이다. 다만, 이들은 (2나), (2라)와 같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실현되어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목적어의 실현 유무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기에, 이들은 자동사이기도 하면서 타동사이기도 한, 소위 말하는 자타양용동사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 자동사로도 기능하고 타동사로도 기능할 수 있는 동사들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의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자타양용동사의 양상과 유형

이 장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위 자타양용동사들이 나타내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타양용동사는 전형적인 자동사와는 다르게 큰 의미변화 없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3) 가. 철수네 자전거가 많이 낡았다.

나. *철수네 자전거가 안장을 많이 낡았다.

다. 상처 입은 제비가 잠깐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갔다.

라. 상처 입은 제비가 잠깐 몸을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갔다.

전형적인 자동사인 ‘낡다’는 예문 (3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실현되면 문장 성립이 어렵다. 이와는 다르게 자타양용동사인 ‘솟구치다’는 (3라)와 같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실현되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의미가 상대적으로 보다 구체화되기는 하지만, 의미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자동사와 자타양용동사의 문법요소들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들은 ‘-어 있-’ 결합 양상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4) 가. 철수가 의자에 앉았다.

나. 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다. 먹물이 옷에 묻었다.

라. 먹물이 옷에 묻어 있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형적인 자동사인 ‘앉다’와 ‘묻다’는 ‘-어 있-’이 결합하여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때의 의미는 철수가 의자에 앉는 행위와 먹물이 옷에 묻는 행위가 완결되고, 그 완결된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결과상 (resultive aspect)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에 자타양용동사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5) 가. 비둘기가 높이 난다.

나. 비둘기가 하늘을 높이 난다.

다. *비둘기가 날아 있다.

라. 무슨 일인지 철수가 서두른다.

마. 무슨 일인지 철수가 결혼을 서두른다.

바. *무슨 일인지 철수가 서둘러 있다.

예문 (5가)와 (5나), (5라)와 (5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날다’와 ‘서두르다’는 목적어가 수

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타양용동사이다. 이들은 (5다), (5바)와 같이 ‘-어 있-’이 결합하면 문장 성립이 어렵다. ‘-어 있-’은 중세국어에서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주로 내재적 끝점이 있는 자동사와 결합이 자연스럽다(임홍빈 1975, 정태구 1994, 유현경 1998: 64, 박진호 2003: 36, 송창선 2008: 42).

박진호(2003: 61)에서는 연속상과 반복상인 경우에는 자동사, 타동사에 모두 ‘-고 있-’이 결합하여 나타나지만, 결과상과 정태상의 경우에는 자동사에는 주로 ‘-어 있-’이, 타동사에는 주로 ‘-고 있-’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자타양용동사의 경우 ‘-어 있-’ 결합은 어렵지만, ‘-고 있-’ 결합은 자연스럽다.

- (6) 가. 철수가 그늘에서 쉬었다.
- 나. 철수가 그늘에서 고된 몸을 쉬었다.
- 다. 철수가 그늘에서 고된 몸을 쉬고 있다.
- 라. 잠이 안 와 밤새 뒤척였다.
- 마. 잠이 안 와 밤새 몸을 뒤척였다.
- 바. 잠이 안 와 밤새 몸을 뒤척이고 있다.

‘쉬다’와 ‘뒤척이다’의 경우 예문 (6가)와 (6나), (6라)와 (6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6다), (6바)와 같이 ‘-고 있-’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자타양용동사의 경우 ‘-어 있-’ 결합은 불가능하고, ‘-고 있-’ 결합은 자연스럽기에 자동사보다는 타동사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고 있-’은 결과상이라기보다는 연속상과 반복상에 가깝다. Nedjalkov and Jaxontov(1988), Nedjalkov(2001)에서는 결과상이 ① 과거 사건의 효과는 여기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여기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참여자에 한정되고, ② 어휘적으로 제약이 나타나며, ③ 타동사의 결과상은 자동 구문을 형성하는 일이 많고, ④ 기간 부사구와 자유롭게 결합하며, 여기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종결된 후 결과 상태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고, ⑤ 결과상이 순간 시점 부사구와 결합되면 그 부사구는 결과 상태가 성립된 시점을 나타낸다고 정리하고 있다(박진호 2003: 42-44).¹⁾ 이 중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이 쉬운 ④와 ⑤를 위의 예문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7) 가. 철수가 그늘에서 고된 몸을 2시간 동안 쉬고 있다.
- 나. 철수가 그늘에서 고된 몸을 3시 정각에 쉬고 있었다.
- 다. 잠이 안 와 2시간 동안 몸을 뒤척이고 있다.
- 라. 잠이 안 와 새벽 3시에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위의 예문을 보면, 기간 부사구가 결합한 (7가), (7다)의 경우 사건이 종결되고 난 뒤의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기보다는 각각 몸을 쉬는 행위와 뒤척이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순간 시점 부사구가 결합한 (7나), (7라)의 경우에도 결과 상태가 성립된 시

1) 보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이들은 결과상의 특징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완료상과 결과상 간의 차이점으로 분석된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결과상이 지니는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결과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제로 활용한 것이다.

점이거나보다 해당 시점에 해당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상에 해당하는 예문과 비교하면 더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8) 가. 철수가 세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다
 - 나. 철수가 7시 정각에 의자에 앉아 있다
 - 다. 먹물이 세 시간 동안 옷에 묻어 있었어서 지워지지 않는다.
 - 라. 먹물이 2시에 옷에 묻어 있었다.

예문 (8)은 전형적인 자동사에 ‘-어 있-’이 결합하여 결과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④와 ⑤를 적용한 것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8가)와 (8다)는 각각 의자에 앉는 행위와 먹물이 옷에 묻는 행위가 종결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며, (8나)와 (8라)는 해당 결과상태가 성립된 시점을 나타낸다.

이처럼 자타양용동사에 결합한 ‘-고 있-’은 결과상이 아닌 연속상 또는 반복상으로 해석되며, 그렇기에 이들을 ‘-어 있-’과 ‘-고 있-’의 결합 양상 차이로 자동사보다는 타동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것이 자타양용동사가 타동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양상은 자타양용동사와 타동사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 (9) 가. 할머니의 허리가 굽었다.
 - 나. 할머니의 허리가 굽으려고 한다.
 - 다. *할머니의 허리가 일부러 굽었다.
 - 라. 뒤편이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 마. 뒤편이 갈 생각에 마음이 들뜨려고 한다.
 - 바. *뒤편이 갈 생각에 마음이 일부러 들떴다.

위의 예는 전형적인 자동사인 ‘굽다’와 ‘들뜨다’에 각각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려고’와 부사 ‘일부러’를 결합한 것이다. 예문 (9나)와 (9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자동사의 경우에는 연결어미 ‘-려고’가 결합하면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의 ‘-려고’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사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할머니의 허리가 의도적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굽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이 의도적으로 들뜨는 것이 아니라 들뜨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의도와 관련된 부사의 결합 양상을 보면 보다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9다), (9바)를 보면, 이들 자동사들은 부사 ‘일부러’가 결합하면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게 않은 것을 알 수 있다.²⁾

2) 다만, 모든 자동사가 이와 같은 결합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앉다’, ‘구르다’, ‘가라앉다’ 등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자동사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이 ‘-려고’, ‘일부러’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 (1) 가. 철수가 의자에 앉으려고 했다.
 - 나. 철수가 의자에 일부러 앉았다.
 - 다. 민수가 계단에서 구르려고 했다.
 - 라. 민수가 계단에서 일부러 굴렀다.
 - 마. 영희가 물에 가라앉으려 했다.
 - 바. 영희가 일부러 물에 가라앉았다.

이처럼 전형적인 자동사의 경우 의도와 관련된 문법요소와 결합이 어렵다. 반면에 자타양용동사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10) 가. 철수가 길을 걸었다.
나. 철수가 길을 걸으려고 한다.
다. 철수가 길을 일부러 걸었다.
라. 민수가 몸을 웅크렸다.
마. 민수가 몸을 웅크리려고 한다.
바. 민수가 몸을 일부러 웅크렸다.

위의 예문은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걷다’와 ‘웅크리다’에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려고’와 부사 ‘일부러’를 결합한 것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예문 (10나), (10마)의 경우 걸으려는 상태로 변화하고, 웅크리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형적인 자동사인 (9나), (9마)와는 다르게 의도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10다), (10바)와 같이 부사 ‘일부러’와 결합이 가능한 것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위 주격중출문 형성에서도 전형적인 자동사와 자타양용동사는 차이를 보인다.

- (11) 가. 건물이 낡아서 지붕이 샌다.
나. 건물이 낡아서 지붕이 물이 샌다.
다. 묘하게 철수가 거슬린다.
라. 묘하게 철수가 말투가 거슬린다.

예문 (11)에 나타난 ‘새다’, ‘거슬리다’는 목적어가 나타날 수 없는 자동사에 해당한다. 이들은 (11나), (11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위 주격중출문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자타양용동사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12) 가. 출근해야 하는데 차가 앞을 가리고 있어 지나가질 못한다.
나. *출근해야 하는데 차가 앞이 가리고 있어 지나가질 못한다.
다. 민수는 숨을 헐떡거리느라 말을 잘 못했다.
라. *?민수는 숨이 헐떡거리느라 말을 잘 못했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리다’와 ‘헐떡거리다’의 경우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의 대격조사를 주격조사로 교체하여 주격중출문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해당 논항을 차치하고 주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논항을 새로 설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다만, 모든 자타양용동사가 주격중출문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행위자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행위자성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 (13) 가. 아이가 유치원에서 감기를 옮아 왔다.
 나. 아이가 유치원에서 감기가 옮아 왔다.
 다. 자동차가 불빛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낸다.
 라. 자동차가 불빛이 깜빡이며 신호를 보낸다.

예문 (13)의 ‘옮다’와 ‘깜빡이다’는 자타양용동사인데 (13나)와 (13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의 격조사가 대격조사로도 주격조사로도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주격중출문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자타양용동사가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유형은 문장 내 실현된 논항인 NP1과 NP2의 의미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 (14) 가. 사람들이 헛소문을 떠들고 다니지 않도록 신경써라.
 나. *사람들이 헛소문이 떠들고 다니지 않도록 신경써라.
 다. *사람들의 헛소문이 떠들고 다니지 않도록 신경써라.
 라. 어느 날 갑자기 철수가 다리를 다쳤다.
 마. 어느 날 갑자기 철수가 다리가 다쳤다.
 바. 어느 날 갑자기 철수의 다리가 다쳤다.

위의 예문을 보면, 주격중출문이 형성될 수 없는 (14가), (14나)의 경우 문장 내 실현된 논항인 ‘사람들’과 ‘헛소문’이 의미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관계에 놓여 있다. 반면에, 주격중출문이 형성될 수 있는 (14라), (14마)의 ‘철수’와 ‘다리’는 의미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처럼 NP1과 NP2의 관계가 의미적으로 분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주격중출문 형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강정연 2013: 35-38). 그리고 이는 (14다), (14바)와 같이 NP1과 NP2를 소유 관계 형성 여부를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앞선 예문인 (12다), (12라)의 NP1과 NP2인 ‘민수’와 ‘숨’은 의미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관계인 듯이 보이나 주격중출문 형성이 모호하고, (13가), (13나)의 ‘아이’와 ‘감기’는 의미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관계인 것으로 판단되나 주격중출문으로 형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양상은 이들 유형의 차이가 NP1과 NP2의 의미 관계와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타양용동사의 경우 결과상의 ‘-어 있-’ 결합이 어려우며, 의도와 관련된 문법요소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와 더불어 주격중출문 형성 여부에서도 자타양용동사는 전형적인 자동사와 차이를 보인다. 다만, 주격중출문 형성 여부에서, 자타양용동사가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로 유형이 세분된다. 이들 유형은 NP1과 NP2의 의미적으로 분리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명확한 구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주격중출문 형성 여부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자타양용동사들이 지니는 이러한 양상 차이들이 이들 논항이 지니는 속성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자타양용동사의 기능 요인

이 장에서는 자타양용동사의 논항이 지니는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타양용동사의 양상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서술어에 논항이 나타나는 개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타동성을 꼽을 수 있다. 타동성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사태 참여자의 속성 역시 그 여러 요인 중 하나이다. 사태 참여자의 속성이 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예로는 여격 주어의 존재가 있다. 여격 주어는 사태 참여자인 행위자의 의도성이 낮은 경우에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해당 문장의 타동성이 일반적인 타동절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연재훈 1996: 251-253, Kittilä 2002: 133, Kroger 2004: 269, Næss 2007: 39-40 등). 이처럼 사태 참여자 인 논항의 속성은 문장의 의미와 형식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æss(2007: 43-45)에서는 참여자를 의도성(volitionality), 행위실행성(instigation), 피영향성(affectedness)에 따라 크게 행위자와 피행위자로 구분한다.³⁾ 행위자는 의도를 지니고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를 수행하고 해당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은 참여자를 말하고, 피행위자는 의도가 없고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를 수행하지 않으며 해당 사태에 영향을 받는 참여자를 말한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전형적인 자동사와 자타양용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5) 가. 비가 와서 참석 인원이 줄었다.

나. 날이 더워 음식이 상했다.

다. 잠깐 한 눈 판 사이 잔이 넘치고 있었다.

라. 축제 기간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가득 차 있다.

위의 예문의 ‘줄다’, ‘상하다’, ‘넘치다’, ‘차다’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나타나기 어려운 전형적인 자동사이다. 해당 예문들에서 사태 참여자인 ‘참석 인원’, ‘음식’, ‘잔’, ‘가게’를 살펴보면, 이들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를 의도하고, 수행하는 요소들이 아니다. 도리어 해당 사태에 영향을 받는 참여자들이다. 앞서 언급한 논의를 토대로 본다면, 이들은 행위자보다는 피행위자에 가까운 것이다.

자타양용동사는 이와는 다르게 분석된다.

(16) 가. 철수가 오랜 기간 삼킨 울음을 울었다.

나. 할머니께서 온천에서 다리를 찜질하시고 난 뒤에 많이 좋아지셨다.

다. 아기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울었다.

라. 철수가 산길을 걸었다.

예문 (16)의 ‘울다’, ‘찜질하다’, ‘자다’, ‘걷다’의 경우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타양용동사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의 참여자 ‘철수’, ‘할머니’, ‘아기’, ‘철수’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를 의도하고, 수행하는 요소들이며, 해당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행위자인 것이다. 한송화(2000: 69-73)에서는 주어의 행위성 유무에 따라 자동사를 크게 행위성

3) 여기에 언급된 세 개념 중 의도성과 피영향성은 여러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어 익숙한 개념이지만, 행위실행성은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아니기에 낯설 수 있다. 행위실행성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Næss 2007: 35-36). 관련된 내용은 Næss(2007: 35-36), 연재훈(2021: 159-169), 이준희(2024: 47-54)를 참조할 수 있다.

자동사와 비행위성 자동사로 구분하고, 행위성 자동사는 타동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비행 위성 자동사는 형용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이 글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자타양용동사에 실현되는 논항이 언제나 행위자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아니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 (17) 가. 영희가 손가락을 휘었다.
- 나. 손가락이 휘었다.
- 다. *손가락이 끝을 휘었다.
- 라. 요리사가 밀가루를 뭉쳤다.
- 마. 밀가루가 뭉쳤다.
- 바. *밀가루가 일부를 뭉쳤다.

‘휘다’와 ‘뭉치다’는 예문 (17가), (17나)와 (17라), (17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타양용동사이다. 다만 (17나), (17마)의 참여자인 ‘손가락’과 ‘밀가루’는 사태에 영향을 받는 피행위자의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들은 (17다), (17바)와 같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즉, 전형적인 자동사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양상을 다르게 말하면,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자타양용동사는 사태의 참여자가 행위자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에서 살펴본 자타양용동사의 양상들 역시 사태 참여자가 행위자 속성을 지니는 것과 관련이 있다.

- (18) 가. 잠깐 한눈 판 사이 아이가 시계를 멈췄다.
- 나. *잠깐 한눈 판 사이 아이가 시계를 멈춰 있다.
- 다. 약이 다 되었는지 시계가 멈췄다.
- 라. 약이 다 되었는지 시계가 멈춰 있다.
- 마. 시간이 늦어 주최자가 모임을 해산했다.
- 바. *시간이 늦어 주최자가 모임을 해산해 있다.
- 사. 늦게 갔더니 이미 모임이 해산했다.
- 아. 늦게 갔더니 이미 모임이 해산해 있다.

앞서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자타양용동사의 경우 ‘-어 있-’이 결합하여 결과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예문 (18가), (18나), (18마), (18바)의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양상은 참여자 중 하나가 행위자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8다), (18라)와 (18사), (18아)의 경우 동일하게 ‘멈추다’와 ‘해산하다’가 쓰였으나 사태의 참여자로 행위자 속성을 지니지 않은 논항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확인할 수 있듯이 ‘-어 있-’이 결합하여 결과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⁴⁾

의도를 지니는 문법요소와의 결합 역시 행위자 속성과 관련된다.

4) (18아)의 문법성 판단을 모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는 ‘모임’이라는 참여자가 일종의 단체주어로 작용하여 행위자 속성을 지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19) 가. 장인이 유리를 휘었다.
 나. 장인이 유리를 휘려고 했다.
 다. 장인이 유리를 일부러 휘었다.
 라. 날이 너무 더워 유리가 휘었다.
 마. 날이 너무 더워 유리가 휘려고 했다.
 바. *날이 너무 더워 유리가 일부러 휘었다.

- (20) 가. 아이가 종이조각을 뭉쳤다.
 나. 아이가 종이조각을 뭉치려고 했다.
 다. 아이가 종이조각을 일부러 뭉쳤다.
 라. 바람에 종이조각이 뭉쳤다.
 마. 바람에 종이조각이 뭉치려고 했다.
 바. *바람에 종이조각이 일부러 뭉쳤다.

예문 (19가), (19나), (19다)와 (20가), (20나), (20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타양용동사의 경우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요소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는 참여자 중 하나가 행위자 속성을 지니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행위자가 지니는 주요한 속성 중 하나가 의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서술어가 쓰였지만 참여자가 행위자 속성을 지니지 않은 (19라), (19마), (19바)와 (20라), (20마), (20바)는 확인할 수 있듯이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요소와 결합하면 의도가 아닌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문장 성립이 어렵다.

주격중출문 형성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 (21) 가. 영희가 손가락을 휘었다.
 나. #영희가 손가락이 휘었다.
 다. 손가락이 휘었다.
 라. 손가락이 끝이 휘었다.
 마. 아이가 시계를 멈췄다.
 바. #아이가 시계가 멈췄다.
 사. 시계가 멈췄다.
 아. 시계가 초침이 멈췄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자가 행위자 속성을 지닌 (21가), (21나)와 (21마), (21바)는 주격중출문으로 형성되면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에, 참여자가 행위자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21다), (21라)와 (21사), (21아)는 주격중출문으로 형성되는 데에 무리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 중 하나가 행위자이면 자연스럽게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의 대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위의 대상인 참여자가 대격조사로 나타나야 하기에 주격중출문으로 형성이 어려운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양상에서 자타양용동사는 주격중출문 가능 여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위의 예문은 그 중에서 주격중출문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22) 가. 철수가 손을 다쳤다.
 나. 철수가 손이 다쳤다.
 다. 민수가 끓는 물에 다리를 뒀다.
 라. 민수가 끓는 물에 다리가 뒀다.

위의 예문을 보면,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다치다’와 ‘데다’의 경우 주격중출문으로 형성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들은 첫 번째 유형과 달리 참여자가 둘 이상 실현되어도 사태 내 참여자 중에 행위자 속성을 지닌 참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22)의 NP1인 ‘철수’와 ‘민수’는 각각 서술어 ‘다치다’와 ‘데다’가 나타내는 사태에 영향을 받는 참여자로서의 해석이 보다 선호된다.

물론, 이들이 행위자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의도를 지닌 문법요소와의 결합 양상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3) 가. 철수가 손을 다치려고 했다.
 나. 철수가 손을 일부러 다쳤다.
 다. 민수가 끓는 물에 다리를 데려고 했다.
 라. 민수가 끓는 물에 다리를 일부러 뒀다.

예문 (23)은 (22)에 의도와 관련된 문법요소 ‘-려고’와 ‘일부러’를 결합한 것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다만, 이들이 무표적인 해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려고’가 결합한 (23가), (23다)가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동시에 전형적인 자동사가 나타내는 해석인 사태의 변화 역시 나타낼 수 있다. 즉, 철수와 민수가 의도를 지니고 행위를 수행한다는 의미도 가능하지만, 철수가 손을 다치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의미와 민수가 다리를 데이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NP2에 결합한 대격조사가 주격조사로 교체되어 주격중출문으로 구성되면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요소와의 결합이 어려워진다.

- (24) 가. 철수가 벽에 손을 부딪쳤다.
 나. 철수가 벽에 손이 부딪쳤다.
 다. 철수가 벽에 손이 부딪치려고 했다.
 라. *철수가 벽에 일부러 손이 부딪쳤다.
 마. 등대가 불빛을 깜빡였다.
 바. 등대가 불빛이 깜빡였다.
 사. 등대가 불빛이 깜빡이려고 했다.
 아. *등대가 일부러 불빛이 깜빡였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딪치다’와 ‘깜빡이다’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격중출문 형성이 가능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은 (24다), (24라)와 (24사), (24아)처럼 주격중출문으로 구성된 뒤에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요소와의 결

합이 어렵다. 이러한 양상들을 통하여 두 번째 유형의 경우 NP1이 행위자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무표적인 양상은 아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첫 번째 유형은 참여자 중 하나인 NP1이 행위자 속성을 지닐 수 있는 사태이며, NP1이 행위자 속성을 지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행위의 대상이 요구되어 타동사와 같이 사태가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는 다르게 두 번째 유형은 NP1이 행위자 속성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보다 무표적인 해석은 NP1 역시 피행위자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이 첫 번째 유형과 같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를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소가 NP1이 아닌, NP2인 것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5) 가. 고된 일로 철수가 손목을 빼었다.

나. 고된 일로 철수의 손목이 빼었다.

다. *고된 일로 철수가 빼었다.

라.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다.

마.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다.

바. ?*배터리가 다했다.

위의 예문에서, (25가)의 ‘철수’와 ‘손목’, (25라)의 ‘배터리’와 ‘수명’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자의 속성을 지녔다기보다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 피행위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들 NP1인 ‘철수’, ‘배터리’와 NP2인 ‘손목’, ‘수명’ 중에서 무엇이 보다 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지를 비교해보면, NP1보다는 NP2가 보다 직접적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참여자라 할 수 있다. 이는 (25나), (25마)와 같이 소유 관계를 형성하거나 NP1만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NP2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기에, 서술어가 언어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은 NP2만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이들 문장을 발화할 때에는 NP2만으로는 정보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어떠한 발화에서 화자가 ‘손목을 빼었어.’라고만 한다면, 해당 발화만으로는 화자의 손목이 뻐 것인지, 청자의 손목이 뻐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제 3자의 손목이 뻐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에 추가적으로 NP2를 한정할 수 있는 정보가 요구되고 그 경우에 주격중출문을 형성하여 발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추가된 NP1은 사실상 NP2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기에 NP2와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NP1 역시 NP2와 마찬가지로 피행위자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⁵⁾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가 행위자를 설정할 수 있는 사태라면, NP2가 대격조사를 취하여 타동절의 형식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NP1이 주격조사를 취하고 NP2가 대격조사를 취하는 것은 문법기능 위계와 유정성 위계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법기능 위계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주어(subject)>목적어(object)>(간접목적어(indirect object))>사격논항(oblique)’로 설정된다(Levin & Rappaport 2005: 142). 그리고 유정성은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범언어적이고 보편적인 위계는 ‘인간>유정

5) 전형적인 자동사에서 주격중출문이 형성되는 원리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물>무정물'이라 할 수 있다(이준희 2024: 80-88). 그리고 유정성 위계가 높을수록 문법기능 위계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유형의 NP1은 NP2를 의미적으로 한정하는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이들 관계는 소유주와 소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즉, NP1이 NP2보다 유정성 위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처럼 NP1이 유정성 위계가 더 높기에 문법기능 위계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NP2는 대격조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NP2는 사태에 영향을 받는 참여자 즉, 피행위자 속성을 지니기에 대격조사로 나타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나가며

소위 자타양용동사는 다양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들 원리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타양용동사의 양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동사들이 타동사로 쓰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타양용동사는 사태의 참여자로 행위자 속성을 지닌 참여자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실제로 행위자 속성을 지닌 참여자가 나타난 경우에만 타동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타양용동사는 주격중출문 형성 여부에서 두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먼저, 주격중출문이 형성이 어려운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태의 참여자로 행위자 속성을 지닌 참여자가 포함된 결과로 타동절로 기능한다. 주격중출문 형성이 가능한 두 번째 유형은 행위자 속성을 지닌 참여자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참여자 모두 피행위자 속성을 지니는 것이 무표적이기에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유형이 타동절을 형성하는 이유를 사태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NP2라는 점과 문법기능 위계, 유정성 위계의 작용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강정연(2013), 「한국어 중간동사에 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41, 한국어의미학회, 27-50.
- 박진호(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창선(2008), 「국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문제 -이른바 자타 양용 동사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47, 언어과학회, 35-55.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241-275.
- 연재훈(2021), 『언어유형론』, 한국문화사.
- 유현경(1998), 「동사 ‘살다’의 타동사 용법에 대하여」, 남기심 엮음, 『국어문법의 탐구』 IV, 태학사, 59-75.
- 이준희(2024), 「한국어 조사 ‘을/를’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흥빈(1975), 「부정법 {어} 와 상태진술의 {고}」, 『논문집』 8, 국민대학교, 13-36.
- 정태구(1994), 「‘-어 있다’의 의미와 논항구조」, 『국어학』 24, 국어학회, 203-230.
- 한송화(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 Kittilä, S.(2002), *Transitivity: Toward a Comprehensive Typology*, University of Turku.
- Kroeger, P. R.(2004), *Analyzing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 B. & M. Rappaport Hovav(2005), *Argument Re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æss, A.(2007), *Prototypical Transitivit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7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Nedjalkov V. P. and S. Je. Jaxontov(1988), *The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V. P. Nedjalkov(ed.),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62.
- Nedjalkov, V. P.(2001),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M. Haspelmath et al.(ed.),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Volume 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928-940.

■ 토론

“자타양용동사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이영제(고려대)

이 논문은 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취하기도, 취하지 않기도 하는 자타양용동사의 특성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기능적 특성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자타양용동사는 소위 능격동사, 중립동사 등으로도 다루어진 바 있는데, 이에 관한 토론자의 식견이 부족하여 논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부족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발전적 토론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는 형식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타양용동사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언어학적 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3장 첫 단락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태 참여자인 논항의 속성이 (서술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쳐) 문장의 의미와 형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결과적인 것일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사태를 서술하는 서술어의 의미나 기능으로부터 논항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술어가 어떤 논항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는 후자의 해석이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취해온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에 제시한 예문들도 통념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좀 더 본질적인 요인을 기술하는 문법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7)에서 “목적어 논항이 실현되면 행위자의 속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영희가 숟가락을 휘었다. / 숟가락이 휘었다.”), 이러한 속성은 서술어인 동사의 논항 구조로부터 기인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타양용동사의 타동사 용법은 동사가 ‘사태의 참여자가 행위자인 (또는 행위자인 속성을 포함한) 논항과, ‘참여자의 행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인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 실현되고(“영희가 숟가락을 휘었다.”), 자동사 용법은 사태의 행위자가 특정되는 것이 수의적이고, 대상인 의미 성분은 ‘결과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피영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기보다 영향 받은 결과를 서술하는 데 참여하는’ 성분으로 나타난다(“숟가락이 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희가 숟가락을 휘었다(≡ 숟가락을 휘게 했다.)”는 서술어의 영향성이 분명해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목적어로 실현된 반면, “숟가락이 휘었다(≡ 숟가락이 휘어졌다.)”는 서술어의 영향성을 분명히 하기보다 휘어 있는 결과를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 목적어가 아닌 성분으로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⁶⁾ 자타양용동사의 자동사 용법에 ‘-려고’가 결합하면 사태의 변화를 의미하고(“우리가 휘려고 한다.”), ‘일부러’ 같은 의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우리가 일부러 휘었다.”) 것도 서술어인 ‘휘다’의 의미가 영향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문제 제기의 근거 중 하나로 동사(또는 서술어)의 의미가 자동사적 용

6)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 발걸음이 멈췄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법과 타동사적 용법 간에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이를 근거로 자타양용동사의 각각의 용법에 대해 참여 논항의 속성을 토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 반드시 어휘적 의미 등의 가시적 의미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어휘적 의미를 통해 투사되지 않는 문법적, 기능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는 자타양용동사에서 확인되는 논항 구조의 차이 또한 동사의 의미 또는 기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발표문 2쪽) 자타양용동사의 경우 ‘-어 있-’ 결합은 어렵지만, ‘-고 있-’ 결합은 자연스럽다고 일반화하였는데(“몸을 쉬고 있다. / *몸을 쉬어 있다.”), 자타양용동사 중에는 ‘-어 있-’ 결합과 관련하여 반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다만 타동사 용법에서는 ‘-어 있-’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예가 많이 관찰되는데, 전형적인 자동사와도 대비됩니다.

- (1) 가. 갯길에 차가 멈춰 있다.
- 나. 나는 마음이 떠나 있었다.
- 다. *갯길에 차를 멈춰 있다.
- 라. *나는 마음을 떠나 있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문 (18)을 근거로 자타양용동사가 결과상적 의미인 경우 ‘-어 있-’과 결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부분에서도 타동사적 용법일 때는 결과상적 해석이 불가능해서 ‘-어 있-’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동사적 용법일 때는 결과상적 해석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잘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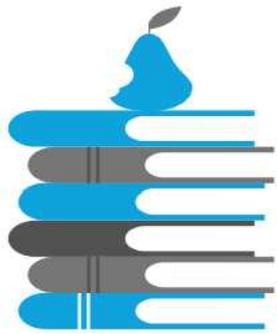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격중출문에서 NP1과 NP2 두 논항(참여자) 모두 피행위자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주격중출문에서 NP1과 NP2 간의 의미 관계가 전체-부분, 신체의 일부 등 단순 의미 관계로 일반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간의 의미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기타.

가. 예문 (10)은 전형적 자동사의 경우 의도와 관련된 문법요소와의 결합이 어렵지만, 자타양용동사는 결합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예문임. 자타양용동사의 타동사 용법인 경우에 의도와 관련된 문법요소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예를 제시하기보다 자동사 용법임에도 의도 관련 요소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예를 들어 대비시키는 것이 나을 듯함.

예) 철수는 그냥 걸었다. / 철수는 그냥 걸으려고 했다. / 철수는 (차를 타지 않고) 일부러 걸었다.

나. 문법성 판단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음. 예문 (12나)가 비문이 되는 것은 목적어 논항의 대격조사를 주격조사로 교체해서 주격 중출이 된 것이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차에 앞이 가려서’가 가능하므로 ‘차에’ → ‘차가’에 의한 비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서술어 ‘가리다’의 논항 구조를 벗어난 것이 비문이 된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듯함. (12라)에서 “*?민수는 숨이 헐떡거리느라 말을 잘 못했다.”는 비문이지만 “민수는 (너무 뛰어서) 숨을 헐떡거렸다. / 민수는 (너무 뛰어서) 숨이 헐떡거렸다.”는 모두 자연스러운 듯함.



포스터 발표

 KOREAN LANGUAGE
RESEARCH CIRCLE
한말연구학회

특수교체 어간의 변화 양상

- 현대국어 방언을 중심으로 -

김동우 (제주대)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15~16세기를 거치며 유성 마찰음의 소실과 비어두에서 ‘·’의 음가가 변화함에 따라 특수교체 어간들은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두 이형태 중 한 이형태로 단일화하려는 경향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후기 중세국어에서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는 체언과 용언이 현대국어의 제 방언에서 그 형태 변화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피고 방언권별로 구분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 연구 대상

- 본 연구의 대상은 15세기 국어에서 특수교체를 보이는 어간과 그것의 현대국어의 여러 방언 어형이다.
- 15세기 문헌에서는 나타나지만 현대국어 제 방언에서 확인이 어려운 어형 ‘녀느~년, 파르 ~~팔오-, 수~ ~~눔오-’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구 방법

- 특수교체 어간을 찾기 위해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을 참고하여 15세기 문헌에서 확인되는 체언과 용언의 곡용형과 활용형 가운데 특수교체를 보이는 어간들을 가려낸다. 이와 함께 특수교체 어간이 다른 어간과의 비교에서 발견되는 형태론적, 음운론적 특징도 분류한다.
- 현대국어 방언형은 “우리말샘”과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을 참고한다. 두 사전은 현대국어의 여러 방언형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말샘”은 대체적으로 한반도 전 지역의 방언형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음장과 성조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은 북부방언은 다루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방언의 음장과 성조 정보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말샘”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음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논의의 한계점

- 본 연구는 사전에 등록된 자료만으로 논의를 진행한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동북방언의 성조를 포함하지 못한 것도 큰 한계점으로 남는다.

3. 연구 결과

-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어간의 모음들은 모두 평성·평성의 성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예외를 보이는 어형은 ‘누르- ~놀:르-’[壓]과 ‘모:르- /:몰르-’[不知]이며 어간 모음의 성조가 평성·거성이다. 경북·경남방언에서는 중세국어에서 평·평의 성조를 가진 어형이 대체로 저조·고조로 나타난다. 경북방언은 8개의 어형 중 7개가 저·고 나머지 1개는 고·저, 경남방언은 32개의 어형 중 15개가 저·고, 7개는 고·저, 10개는 고·고로 나타난다. 경남방언은 고조·고조의 성조로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진다.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은 체언 한정으로 제1음절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현저하다. 용언에서는 ‘골- (<그스- ~눔오-)’[引]을 제외하면 제1음절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예가 없다.
- 곡용 어간의 단일화 경향에서 북부방언이 주목된다. 중부와 남부방언에서 확인되는 어형은 대체로 자음 조사 또는 휴지가 후행할 때의 형태에서 기원한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상 ‘모:기’나 ‘르:르’와 같은 자음군이 음절말에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부방언은 곡용 어간이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의 형태에 ‘-나’ ‘-이’가 결합한 형태로, 말이 ‘르:오’인 경우 ‘리’으로 주로 확인된다. ‘오’(유성 후두 마찰음)이 ‘우’로 반사되어 나타난다.

모음 결합형	남그/남기(<남)[木], 놀기(<놀이)[獐], 실그(<실오)[飢], 할르(<홀리)[一日]
단독형	갈(<갈오)[粉], 놀(<놀이)[獐], 실(<실오)[飢], 잘(<잘오)[袋]

- 특수교체 어간들은 말음절이 ‘으’/’오’로 끝난다. 곡용 어간의 경우 중앙어에서 말음절 ‘으’가 ‘오’로 변한 형태로 쓰이다가 19세기 이후 고모음화를 겪은 ‘우’의 형태로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부방언에서는 이와 더불어 말음절이 ‘오’나 ‘이’인 어형 ‘하로/하리[一日], 가로/가리[粉]’가 확인된다. 말음절이 ‘이’로 끝나는 어형은 ‘오’나 ‘우’로 끝나는 어형과 관련지을 수 없다. 말음절 ‘·’가 ‘-’로 변화한 뒤 ‘르’ 뒤에서 전설모음화하여 형성된 어형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설모음화는 활용 어간에서도 확인된다. 제주방언도 ‘르’ 뒤에서 ‘-’가 ‘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확인되지만 ‘갈리[粉], 노리[獐], 가리-[分], 말리-[裁]’만 나타나고 여타 어간은 ‘홀[一日], 모:를[宗], 짝 르-[短], 볼 르-[堉]’ 등으로 나타나 ‘르’에 의한 전설모음화가 생산적인지 의문스럽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정문 대조 연구

미로림 (제주대)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정문 구조를 대조하고자 한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모두 고착어(Agglutinative Languages)의 특징을 가지며, 문장이 주어(S)-목적어(O)-동사(V)의 순서로 구성되는 SOV 언어이다. 이 두 언어는 단어에 여러 개의 조사(조사나 어미 등)를 붙여 의미를 추가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부정문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어의 부정문은 주로 부정 부사 '안'과 '못'을 사용하거나, 동사의 어간에 '-지'를 붙이고 부정 용언 '않다(아니하다)' 또는 '못하다'를 결합하여 만든다. 예를 들어, '먹지 않다', '가지 못하다'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반면, 우즈베크어의 부정문은 동사의 어간에 부정 어미 '-ma'를 결합하여 형성되며, 예를 들어 'yemadim(먹지 않았다)'과 같이 나타난다.

유형론적 언어학(Typological Linguistics)은 다양한 언어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언어들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언어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며,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언어 발달과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은 두 언어 간의 구조적 차이와 유사점을 대조 분석하는 방법으로, 언어 학습자가 겪는 오류와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다. 오류 분석(Error Analysis)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가 어떤 점에서 오류를 범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정문 구조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대조하여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정문 구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들이 부정문을 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우 학습자에게 유용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언어적 오류를 줄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정문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론적 배경을 통해 두 언어의 부정문 구조와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정문의 일반적인 이론과 두 언어의 구문론적, 의미론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한다.

부정문은 어떤 명제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장이다. 부정문의 연구는 언어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 언어에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부정문의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통사적 접근, 의미적 접근, 그리고 화용론적 접근이 있다.

- 부정문의 통사적 구조는 각 언어의 문법 규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정문 구조는 각각 부정 부사, 부정 어미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 예를 들어, 한국어의 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 '못'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며, 우즈베크어는 동사에 부정 어미 '-ma'를 붙여 부정문을 형성한다.
- 부정문의 의미론적 분석은 부정문이 표현하는 부정의 종류와 그 의미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모두 행위적 부재, 상태의 부재, 가능성의 부재 등을 나타내는 부정문을 가지고 있다.
- 부정문은 특정한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정문은 단순히 명제를 부정하는 것 외에도, 화자의 감정, 태도, 평가 등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부정문은 형태와 사용 방식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두 언어의 부정문을 대조함으로써 부정문의 구조적, 의미적, 화용론적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교 연구는 한국어에 배우는 우즈베크어 학습자나 우즈베크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유용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부정문의 구조적, 의미적, 화용론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두 언어의 부정문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문장은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따라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최근의 문법서들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부정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단형 부정문, 강형 부정문
 나)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
 다) 통사적 부정문, 어휘적 부정문

우즈베크어의 부정문 유형을 한국어의 부정문 유형과 같이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류를 사용할 수 있다. 우즈베크어 부정문도 크게 통사적 부정문, 어휘적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즈베크어 부정문은 주로 부정 조동사 'emas'와 보조어휘 'yo'q', 부정 어미 '-ma'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종합적인 우즈베크어 부정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단형 부정문, 강형 부정문: 단형 부정문은 간단히 부정 어미 '-ma'를 붙여 표현되고, 강형 부정문은 부정 조동사 'emas'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나) 'yo'q' 부정문, 'emas' 부정문: 'yo'q'는 주로 현재 시제에서 사용되며, 'emas'는 과거 시제에서 사용된다.
 다) 통사적 부정문, 어휘적 부정문: 통사적 부정문은 부정 어미 '-ma'를 사용하며, 어휘적 부정문은 'yo'q'나 'emas'를 사용하여 부정한다.

유형론적 언어학은 다양한 언어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언어들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언어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며,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언어 발달과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연구 결과 및 함의

연구 결과 및 함의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정문을 비교하여 두 언어의 부정문 구조와 사용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부정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통사적 방식을 사용한다.
 - 한국어: 부정 부사(예: '안', '못')와 부정 보조 용언(예: '~지 않다', '~지 못하다')를 통해 부정문을 형성한다. 부정 부사는 주로 동사 앞에 위치하며, 부정 보조 용언은 동사에 위치한다.
 - 우즈베크어: 주로 동사 어간에 부정 어미 '-ma'를 붙여 부정문을 형성한다. 이는 한국어의 부정문 형성에 차이점이 있으며, 부정 부사의 사용은 없다.
2. 두 언어 모두 부정문을 통해 행위의 부재, 상태의 부재, 가능성의 부재 등을 표현한다. 하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 한국어: '안' 부정문은 주로 주관적 판단을, '못' 부정문은 능력이나 가능성의 부재를 나타낸다.
 - 우즈베크어: 부정 어미 '-ma'는 행위의 부재와 상태의 부재를 나타내며, 능력의 부재를 표현하기 위해 별도의 조동사 'olmoq(말다)'에 부정 어미 '-ma'를 결합하여 표현한다.
3. 부정문은 화자의 의도와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부정문을 통해 다양한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한다.
 - 한국어: 부정문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도 사용되어 금지나 제안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하지 마라'는 금지를, '가지 말라'는 제안을 표현한다.
 - 우즈베크어: 유사하게 부정문을 통해 금지나 제안을 나타낸다. 부정문의 명령문과 청유문도 부정 어미 '-ma'의 결합으로 형성한다. 예를 들어, 'borma'는 '하지 마라'의 금지를, 'yemaylik'는 '먹지 마라'의 제안을 표현한다.
4.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를 배우는 우즈베크어 화자와 우즈베크어를 배우는 한국어 화자에게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정문의 구조적 차이와 의미적, 화용론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두 언어의 부정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정 부사와 부정 어미의 사용, 그리고 부정문의 문맥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부정문 대조 연구는 두 언어의 부정문 형성 방식과 사용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언어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다양한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부정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내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법학사> 교육에 대한 시론

-자료 선정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제조현 (연세대)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중국의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문학 융합형> 한국어 문법학사라는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자료 선정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021년 이후, 중국의 신문과(新文科) 개설과 쌍일류(双一流) 학과 건설 계획에 따라 중국의 한국어교육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강보유, 2018; 왕단, 2021; 蔡美花·宋雪梅, 2021; 장영미·왕예, 2023, 탕베이·옌단, 2023). 강보유(2022)는 학부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복합형 인재 육성 목표로 [전공+외국어] 고급 복합형 인재 및 [전공지식+분석 능력+언어응용]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의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주로 학교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문법을 넘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법서와 문법 체계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한국어 연구가 걸어진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역대 문법서의 분석 능력과 연구 역량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김현주(2023), 도재학(2023), 이홍식(2023), 주지연(2023), 김홍범(2023)에서 융복합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어학 전공 교재의 이론적 기초와 내용의 변화, 연구 방법의 동향, 문법 교육법의 혁신을 제시하였고 한송화(2014), 최정도(2022), 이성우(2024)에서 인문학 위기 속에 인문언어학, 국어정보학과 어학·문학의 상호 발전 등 시각을 통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디지털 인문학(DH)과 데이터 기반 학습(DDL)의 발전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맞춤형의 구축과 활용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법학사> 수업을 넘어, 디지털 인문학과 국어정보학을 기반한 <문법학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파이선이나 R를 활용하여 문법 현상의 유동적인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어 출판한 문법학사와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이에 실린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교육 내용의 범위와 구성의 순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연결어미(이음 씨끝)의 연구사를 사례로 <디지털 인문학 융합형> 한국어 문법학사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용 자료의 선정과 구성

◆ 분석 대상

(1) 문법학사 개론서(1910-1999):

김윤경(1938), 홍기문(1946), 이송녕(1956), 박승빈(1971), 최현배(1937/1971), 강복수(1982), 고영근(1983, 1985), 김병제(1985), 남기심(1989), 김석득(1983/2009) 등에 수록된 문법학사와 관련 내용, 총 14권.

(2) 문법서(2000-2024)

서경수(1994/2006), 임홍빈·강소원(1995), 이관규(1999/2012), 이익섭·채완(1999), 국립국어원(2005), 고영근·구분관(2008/2018), 구분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분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총 8권

◆ 분석 내용

(3) 거시 구조: 구성, 제시 순서

(4) 미시구조:

① 문헌, (1)의 예: 정인승(1949, 1959), 최현배(1937/1971), 허웅(1995, 1999/2000)

② 연구 주제, (2)의 예: 있다, 지정사/계사 구분, 이음 씨끝 등

2. 교육용 자료의 선정과 구성

◆ 교육용 자료의 구성과 제시 순서

(5) 자료의 구성: ① 시대 구분과 역대 학자의 철학관, ② 학자와 강독용 문법서

(6) 제시 순서: ① 인문과 사상 → ② 문법서 요약 → ③ 문법서 논평 → ④ 디지털 인문학 융합의 문법 현상 탐구(예: '있다'의 연구사, '있다'의 쟁점, 말문치를 활용하여 '있다' 용례의 추출과 새로운 발견)

◆ 교육용 자료의 선정 결과

(1) 제1시기(1910-1999): 10종의 문법서 ([참고문헌 참고](#))

(2) 제2시기(2000-2024): 8종의 문법서 ([참고문헌 참고](#))

3. 디지털 융합형 문법학사의 사례 연구

학자와 문헌에 따라 연결어미(이음 씨끝)의 하위 분류의 용어, 유형과 수량이 다르다. 위에 제시한 제1시기와 제2시기의 문헌,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 다른 문헌 자료를 참고하고 핵심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최현배(1937/1971). 14가지. 매는 꼴, 벌림 꼴, 잇달음 꼴, 풀이 꼴, 견중 꼴, 가림 꼴, 그침 꼴, 더보탬 꼴, 더해감 꼴, 목적 꼴, 미침꼴, 되풀이꼴.
- (2) 허웅(1983, 1995/1999). 14가지. 제약법, 불구법, 벌임법, 동시법, 설명법, 비교법, 가림법, 전환법, 더보탬법, 비례법, 의도법, 전환법, 연결법.
- (3) 윤평현(1989, 1990). 12가지. 조건, 인과, 양보, 대립, 나열, 시간, 상황, 선택, 전환, 목적, 결과, 부가.
- (4) 이은경(2000). 9가지. 조건, 원인, 양보, 대조, 나열, 선행_시간, 배경, 선택, 결과.

학생들이 수업에서 '④ 디지털 인문학 융합의 문법 현상 탐구'를 통해 우선 문법 표현의 연구사를 정리한 다음에 말문치를 활용하여 해당 표현의 용례를 추출할 수 있다. 이어서 파이선이나 R를 활용하여 연구 목적을 설정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시각화 등 실증적인 내용은 발표문을 참고.

4. 맺음말

본 연구는 중국의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문학 융합형> 한국어 문법학사라는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기존의 문법학사 개론서(1910-1999)와 문법서(2000-2024)를 선정하여 이들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법학사> 교육용 자료의 구성과 제시 순서를 논의하였다.

첫째, 자료의 구성: ① 시대 구분과 역대 학자의 철학관, ② 학자와 강독용 문법서 둘째, 제시 순서: ① 인문과 사상 → ② 문법서 요약 → ③ 문법서 논평 → ④ 디지털 인문학 융합의 문법 현상 탐구(예: '있다'의 연구사, '있다'의 쟁점, 말문치를 활용하여 '있다' 용례의 추출과 새로운 발견)

마지막으로 연결어미(이음 씨끝)의 연구사를 사례로 <디지털 인문학 융합형> 한국어 문법학사의 교육 과정을 논의하였다.

생성 AI의 주격중출 구문 이해와 산출

정신나 (강원대)

1. 연구 목적 및 배경

최근 국어학계에서 생성 AI의 한국어 능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현대로(2023)에서는 '생성 AI 화자'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AI의 조어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화자를 기제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남길임·황은하·송현주·안의경(2024)에서는 네 가지 생성 AI의 한국어 문법성 판단·생성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생성 AI를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그간 많은 쟁점이 있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된 주격중출 구문을 통해 생성 AI의 한국어 이해·산출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성 AI가 주격중출 구문과 같은 특이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사하는지를 분석하면, 인공지능이 한국어 화자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모방하여 문장을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주격중출 구문 주격표지가 결합된 명사구가 두 개 이상 나타나는 문장 대표적으로 [NP1이 NP2가 V/A]의 형상

김건희(2018)에서 제시된 주격중출 구문 관련 기존 선행 연구

- (1) 주어 특별 문제
 - 이중주어설 (주어+주어+서술어)
 - 단일주어설 (주어+보어/부가어+서술어)
 - 변형설 (보어/부사어+주어+서술어)
 - 주격·초점설 (주격어/초점어+주어+서술어)
- (2) 서술어 단위 설정
 - 서술절을 안은문장 (이정택, 2006)
 - 구격동사(서술구) 단위 설정 (안영철, 2001)
- (3) 담화적 관점
 - 담화주제+담화평언 (홍기선, 2014)
 - 고쳐말하기(repair)가 통사화된 구문 (이기갑, 2014)

3. 연구 방법 및 대상

연구 대상 ① ChatGPT 3.5(OpenAI) ② ChatGPT 4o(OpenAI)
③ CLOVA X(NAVER) ④ Gemini(Google) ⑤ Copilot(Microsoft)

연구 방법 다섯 가지 생성 AI와의 문답 진행
· 주격중출 구문의 정의에 관한 문답
· 주격중출 구문의 예문 및 문법적 설명에 관한 문답
· 예문 오류 수정 및 더 나아간 문답

4. 연구 내용

주격중출 구문의 정의 및 유형

- ① ChatGPT 3.5 '주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법 구조'
'주어+주어+서술어', '주어+(주어)+서술어' 등의 유형
- ② ChatGPT 4o '한국어 문법에서 주어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구문'
- ③ CLOVA X '한 문장 안에 주격 조사 '이/가'가 두 번 나타나는 구문'
'명사구+서술절', '명사구+보어절', '명사구+관형절' 등의 유형
- ④ Gemini '한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주격 조사가 붙은 명사구가 나타나는 구문'
'부분-전체 구문', '양화사 유동 구문', '심리 술어 구문' 등의 유형
- ⑤ Copilot '하나의 문장에 주격 표지가 있는 명사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구조'

주격중출 구문의 예문 및 문법적 설명

- ① ChatGPT 3.5
 - 가. 명사가, 명사가 시험에 합격했다.
 - 나. 그 남자가, 그 남자가 바로 명언이다.
 - 다. 나는, 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ChatGPT 3.5는 NP1은 '주어를 강조'하며, NP2는 '문장의 주어'로서 서술어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반복되는 주어가 '강조, 명료화, 문장의 흐름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기능 수행에 대한 설명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시된 예문은 전형적인 주격중출 구문이 아니다.
- ② ChatGPT 4o
 - 가. 만자가 얼굴이 예쁘다.
 - 나. 이 자동차가 성능이 좋다.
 - 다. 강아지가 털이 부드러다.

ChatGPT 4o는 NP1을 '문장의 전체 주어'로, NP2를 NP1의 특정 속성을 설명하는 '두 번째 주어'로 보았으며 '인지가 예쁘다'가 아닌 '인지의 얼굴이 예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P1의 주격 조사를 모두 두 관형격 조사 '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③ CLOVA X
 - 가. 불수가 키가 크다.
 - 나. 날씨가 오늘도 참 좋다.
 - 다. 나는 그가 성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CLOVA X는 NP1을 '전체 문장의 주어' 및 '대주어이자 간접주어'로 보았고 NP2를 '내포격의 주어' 및 '소주어이자 직접주어'로 보았다. 겹문장의 관점과 출문장의 관점이 혼재된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c)은 주격중출 구문이 아니다.

- ④ Gemini
 - 가. 꽃이 향기가 좋다.
 - 나. 영화는 얼굴이 왼쪽이 예쁘다.
 - 다. 그 집은 차음이 빨간색이다.

Gemini는 NP1은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으며 NP2는 '부사격'이라는 잘못된 설명을 제시하였다. 예문 (나)의 경우 NP3 '왼쪽이'는 '관형절'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술어를 존재 술어 '이다'로 바꿔 쓸 수 있다(꽃이 향기가 좋다 → 꽃이 향기가 있다)는 불필요한 고쳐쓰기 정보를 제시하였다.

- ⑤ Copilot
 - 가. 나는 손이 크다.
 - 나. 여자는 목소리가 크다.
 - 다. 친구는 마음이 따뜻하다.

Copilot은 두 명사구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술어는 NP2를 설명한다고 보았다. 가령 예문 (c)의 술어 '따뜻하다'는 '마음'의 성격을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예문 오류 수정 (ChatGPT 3.5, CLOVA X)

- ① ChatGPT 3.5
 - 가. 시계가 맛이 좋다.
 - 나. 여자들이 행동이 활발하다.
 - 다. 친구가 성격이 좋다.

ChatGPT 3.5는 예문을 수정하며 NP1은 '주된 주어'로서 '사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NP2는 NP1의 특성을 설명하며 서술어와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 ③ CLOVA X
 - 가. 그는 손이 크다.
 - 나.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다.
 - 다. 그는 머리가 좋다.

CLOVA X가 제시한 예문의 NP1은 '그는', '그녀는' 두 가지로만 나타나는 점에서 단순하다. 문답이 계속되며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녀는 그림을 잘 그린다.' 등 주격중출 구문이 아닌 문장도 산출하였다.

더 나아간 문답 (ChatGPT 4o, Gemini, Copilot)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쓰인 주격중출 구문

- ② ChatGPT 4o
 - 가. 그 카수가 공연이 좋았다.
 - 나. 7월경이 희비가 시작되었다.
 - 다. 이 책이 출판이 되었다.

ChatGPT 4o의 예문 (나)은 다소 어색하며 '우리 팀이 희비가 시작되었다' 등의 문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예문 (c)처럼 '되다' 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주어 보여 서술어(되다)' 유형의 단문으로, 주격중출 구문이 아니다.

- ④ Gemini
 - 가. *불수가 책이 좋다.
 - 나. 저녁 하늘이 별이 반짝인다.
 - 다. 7월경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다.

Gemini가 제시한 예문 (*)은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c) 역시 다소 어색하므로 '병원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다.'처럼 무의미한 현재 시제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⑤ Copilot
 - 가. 나는 손이 편지가 쓴다.
 - 나. 그녀는 눈이 눈물 흘린다.
 - 다. 여자는 손이 장난감을 잡는다.

Copilot이 제시한 예문의 명사구 간 의미관계는 동일하게 '신체주 - 신체 부분'이었다. 이후 의미관계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문답을 수차례 지속하여도 질문에 적절한 예문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사구 개수 늘리기

- ⑤ Copilot
 - 가. 학교가 도서관이 책장이 책이 표지가 그림이 색깔이 무늬가 길이 선이 길이가 상세하다.
분석: '학교' 내의 '도서관'에 있는 '책장'에 놓인 '책'의 '표지'에 그려진 '그림'의 '색깔', '무늬', '길이', '선', 그리고 '일감'이 상세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Copilot은 위의 문장이 매우 복잡하여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언어의 양의성'을 탐구하는 데에는 흥미로운 연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명사구가 문장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덧붙인 설명에서 '장소, 물체, 개별 항목, 특정 부분'과 같은 총칭적인 개념어를 사용하여 명사구에 대한 의미기능을 적절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상세하다'는 모든 명사구가 공통적으로 기술하는 서술어라고 제시하였다.

5. 연구 결과

- (1) ChatGPT 3.5, CLOVA X는 문답 초반에 오류가 포함된 예문을 산출하였다. 예문 보기를 제시하자 오류를 수정하였다. 한국어 위주로 개발된 CLOVA X보다 오히려 ChatGPT 4o, Gemini, Copilot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Copilot은 문답이 진행될수록 명사구의 개수를 늘리거나 의미관계를 다양화하는 등 다채로운 예문을 제시하였다.
- (2) 대부분의 생성 AI는 주격중출 구문을 설명할 때 겹문장으로 보는 관점과 출문장으로 보는 관점을 뒤섞었다. 이론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제시하면서도 적절한 문장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 (3) 대화를 실행할 때마다 같은 생성 AI의 답변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참고 문헌의 연도나 저자 이름을 틀리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통계를 토대로 다섯 가지 생성 AI의 수준을 세밀히 비교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변지역 20대 화자의 /ㄴ ㄹ/ 연쇄 발음의 선택적 교체 양상에 대하여

황미혜(이화여대)

1. 연구 목적

한국어는 음소배열계약으로 인해 기저의 음소 /ㄴ ㄹ/이 표면형으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제20항에서는 '신라[실라]'처럼 선행하는 'ㄴ'을 'ㄹ'로 유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생산량[생산량]'과 같은 몇몇의 3음절 한자어에 대해서는 후행하는 'ㄹ'을 'ㄴ'으로 비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 언중들은 표준 발음법에서 제시한 표준 발음과는 다르게 /ㄴ ㄹ/ 연쇄가 나타나는 단어들을 역행적 유음화와 비음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적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ㄴ ㄹ/ 연쇄 단어의 현실 발음의 혼란에 주목하여 이러한 혼란이 비단 한국인 화자뿐만 아니라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 화자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연변지역 20대 청년 화자의 /ㄴ ㄹ/ 연쇄 단어들의 현실 발음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발음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형태론적 관점과 음운론적 관점 중 단 하나의 관점으로는 /ㄴ ㄹ/ 연쇄 발음의 선택적 교체의 변인을 단정 짓기 어렵기에 실증적인 조사를 통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이 이루어진 절충적 관점의 논의가 등장하였다.

여성-비음화	여성-유음화	연령↓ 비음화	연령↓ 유음화
남성-유음화	남성-비음화	연령↑ 유음화	연령↑ 비음화
구현옥(2021)	윤경희(2009) 이연경, 신승훈(2015) 박시균(2019)	김선철(2006) 권순미(2008) 류재울(2020) 구현옥(2021)	이연경, 신승훈(2015) 이하영(2016) 박시균(2019) 황경민(2022)

박시균(2019), 황경민(2022)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철자식 발음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ㄴ ㄹ/의 각 음소를 또박또박 발음하려는 흐름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ㄴ ㄹ/ 연쇄에서의 선택적 교체 현상은 3음절 한자어나 외래어로 된 합성어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중국어와 조선어가 공생하는 이중언어 사회의 조선족 화자에게는 이러한 /ㄴ ㄹ/ 연쇄에서의 선택적 교체 현상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의 20대 청년 화자를 제보자로 정하고 자연발화와 설문조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ㄴ ㄹ/ 연쇄에서의 선택적 교체 양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보자는 모두 연변지역에서 조선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 졸업 후 연변지역에 다시 돌아와 거주 중인 조선족 화자이다. 설문조사는 조사 의도를 먼저 밝힌 다음 /ㄴ ㄹ/ 연쇄 단어들을 나열한 격식 질문지를 제보자에게 주고 다섯 차례 반복하여 읽도록 한 후 그 소리를 녹음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제보자 수는 남자 8명, 여자 8명으로 총 16명인데 그중 남자 2명, 여자 1명은 조선족학교의 한어(漢語)반 출신 학생이다.

신라면	신라	음운론	원룸
진라면	난로	의견란	온라인
물난리	논란	생산량	온리
선릉역		결단력	

☞ 조선족학교의 한어(漢語)반은 한족(漢族)인 담임선생님을 배정하여 국어와 수학 등 기초과목을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일반 학급의 학생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더 많이 쓰게끔 하여 조선어 못지않게 중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4. 연구 결과 및 함의

단어	남자		여자	
	조선어반	한어(漢語)반	조선어반	한어(漢語)반
신라면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ㄹ/
진라면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ㄹ/
물난리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ㄹ/
선릉역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ㄹ/
신라	/ㄴ ㄹ/	/ㄴ ㄹ/	/ㄹ ㄹ/ 71% /ㄴ ㄹ/ 29%	/ㄴ ㄹ/
난로	/ㄴ ㄹ/	/ㄴ ㄹ/	/ㄹ ㄹ/ 43% /ㄴ ㄹ/ 57%	/ㄴ ㄹ/
논란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ㄹ/
음운론	/ㄴ ㄹ/	/ㄴ ㄹ/	/ㄹ ㄹ/ 43% /ㄴ ㄹ/ 57%	/ㄴ ㄹ/
의견란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생산량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결단력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원룸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온라인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온리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생산량(生産量)'의 중국어 발음은 [shēngchǎnliàng]인데 중국어에서 /nl/은 음운 변화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음절말과 음절초에서 실현된다. 즉 중국어에서는 /nl/이 그대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언어 사회에서 언어 습득의 과정을 거치는 조선족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조선어에서도 /ㄴ ㄹ/ 각 음소의 발음을 똑똑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한어(漢語)반을 나왔던 제보자 모두 /ㄴ ㄹ/로 발음하는 것을 통해 이들의 조선어 발음은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음절 한자어의 경우 대체적으로 /ㄴ ㄹ/로 발음하였는데 이는 3음절 한자어의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조선족 화자는 한자에 해박하기에 '음운론, 의견란, 생산력, 결단력'을 '음운+론', '의견+란', '생산+력', '결단+력'과 같은 구성의 합성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3음절 한자어에서 제보자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두 개의 형태소 중간에 짧은 휴지를 두고 발음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ㄴ ㄹ/ 각 음소의 발음을 똑똑히 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 다양한 언어가 공생하는 지역에서 언어의 변이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언어의 변이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젊은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형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세대의 언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조선어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